완주, 예술로 남다

완주 예술인 기록 2019 - 2024



표지
해봄(최세영) 작가
'시골소녀의 사생활'

완주, 예술로 남다

완주 예술인 기록

2019 — 2024

완주의 예술은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예술의 씨앗을 뿌려온 예술인들의 숨결을 기록해 온 시간입니다. 매해 새로운 형식과 시선으로 완주의 예술 생태를 담아내며, 이 기록들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지역의 문화사를 세심히 엮은 예술의 연대기이자, 사람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온 삶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2019년 첫걸음을 내딛을 때는 글과 사진으로, 2020년에는 영상으로, 2021년에는 손과 눈으로, 2022년에는 예술인 간의 릴레이로,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전문 편집과 매체 협업을 통해 완주의 예술 현장을 다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완주의 예술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역이라는 땅 위에 예술의 결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이 책은 그 여정의 또 다른 결실입니다.
완주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완주라는 지역이 품은 문화적 힘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록들이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고, 완주의 예술 공동체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앞으로도 예술인의 목소리를 세심히 기록하고, 지역의 예술 생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겠습니다.
이 귀한 기록의 길에 함께해주신 모든 예술인들과 작가, 제작진, 그리고 완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주문화재단 이사장 유희태

차 례

002 • 발간사

2019

010 • 유휴열
014 • 조윤수
016 • 지우빈
018 • 송지호
021 • 정상식
024 • 김병수
028 • 김민선
031 • 정상현
034 • 강남진
038 • 윤이현
040 • 윤대라
044 • 백종희
047 • 소병진
050 • 최민주
052 • 김광식
056 • 소덕임
058 • 김광열
061 • 윤지은
064 • 이우렵
066 • 이철량
070 • 박정순
075 • 김성욱
078 • 오정균
080 • 이정지

2020

086 • 이용규
088 • 한송지
091 • 김성석
095 • 김홍란
097 • 윤명호
100 • 정철휘
103 • 유순애
106 • 류재현
110 • 윤혜진
113 • 황은아
115 • 노정희
118 • 임혜민
120 • 김은수
123 • 정은지
125 • 한봉림
128 • 최 현
130 • 김영봉
132 • 이종화
134 • 최용선
136 • 신재승

2021

140 • 김헌수
142 • 최재선
144 • 강유진
147 • 서수인
149 • 박심준
152 • 김소라
155 • 박창은
159 • 진정욱

2022

164 • 송은숙
167 • 김동헌
170 • 여은희
173 • 김민경
176 • 임유진
179 • 강지수
181 • 박지은
184 • 정혜영
187 • 김나연
190 • 송민경
193 • 경보비
196 • 정혜인
199 • 한아름
202 • 김덕주
205 • 이영화
207 • 황세화
210 • 은호등
213 • 장해숙
216 • 권성수
219 • 김귀복

2023

224 • 권원덕
228 • 김예진
231 • 박인현
236 • 박종갑
240 • 강소연(설레)
244 • 윤미순
247 • 정승준
251 • 이은경
253 • 조누리
257 • 이호연
260 • 하구은
262 • 전병한
265 • 허은서
268 • 최무용

2024

272 • 정상현
275 • 김맹호
278 • 이창훈
281 • 윤수연
284 • 홍성미
287 • 신선하
290 • 전설희
294 • 여익수
297 • 최세영
300 • 백남경
303 • 하태훈
306 • 김채리
310 • 사업소개
312 • 완주예술인

완주예술인 발굴·기록화

2019

2019년 완주 예술인 기록이 시작됐다. 100명을 목표로, 당시 최근 3년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예술인 24명을 먼저 만났다. 자료 수집과 인터뷰, 원고 집필과 촬영까지의 전 과정을 완주 문인협회의 작가 4인(방송작가 김경화, 감나무책방 대표 김진아, 완주문인협회 지부장 박은주, 사무국장 정량미)과 사진협회 김광식 지부장이 함께 이끌었다. 인터뷰와 사진을 차곡차곡 쌓아 기록의 결을 만들었고, 이후 축적과 활용을 염두에 두고 문화예술인 DB분류표를 마련해 아카이브의 기본기를 다졌다.

01

유휴열
생과 사를 포함한 커다란 놀이

#시각예술#회화 #구이#문화공간 모악재 #금보성아트센터 제1회 한국작가상

동양적 모티브, 한국적 색채를 현대의 산물인 알루미늄, 자동차도료 등의 실험적 재료로 재해석하는 현대미술 작가로 그의 주된 주제는 생과 사, 한국의 흥, 놀이이다. 독창적 작품세계와 열정적인 활동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시회를 열고 있는 금보성 아트센터 공모전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회 한국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공자의 표현인 종심(從心, 70세)의 나이에도 현재까지 문화공간 모악재에서 꾸준한 작품세계를 표현하며 그의 예술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生·놀이 | 알루미늄 | 330x210cm | 2016



추어나 푸돗던고 | 알루미늄, 한지 | 2012

회화 전공이면서 조각으로 보이는 작품활동도 하는데 활동장르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흔히 농담처럼 '잡기'라고 말한다. 장르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 처음 떠오르는 모티브를 스케치하며 그림으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줄지 부조처럼 입체를 주고 컬러링할지 아니면 환조처럼 만들어 공간에 세우는 것이 표현이 강할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설정이 된다. 작가가 굳이 장르를 구분해 작업하지 않아도 결과로 나온 형태를 두고 평면, 입체, 반입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료의 예를 든다면 장구춤이나 민속놀이의 표현을 현재 많이 쓰는 알루미늄은 윤기가 있어 차가워 보이는 재료로 표현이 부족하면 한지 등을 결합하기도 한다. 유화, 아크릴, 수채물감 등 재료가 주는 느낌이 다르니 작품마다 다르게 쓰기도 한다. 피카소의 경우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가. 굳이 장르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들의 시각인 듯하며 외국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국적 색채와 재료로 자주 사용하는 알루미늄이나 자동차용 도료와의 조합이 낯설게 느껴진다. 특별한 재료들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었는지?

몇 해 전 LA에서 전시회하며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 뉴욕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LA와 뉴욕은 다른 분위기를 가진 듯했다. LA는 한인 타운이 있어서인지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조합이 느껴졌다.
내 그림의 기본적 모티브는 동양적이며 풍물, 샤먼 등 나도 모르는 체질적인 동양적 성격이 드러나는데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재료는 현대의 대표적 소산으로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물성이 융화된 작업이라 말한 적이 있다.
예술은 창작성을 띄는 것이고 차별화된 혹은 사용한 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깊이 있는 전통계승의 의미를 시대적 흐름이나 감각과 맞추어 현대화시키는 것도 작가의 고민이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다 선택하게 되었다.

동양적 모티브를 현대의 상용소재 중 하나인 알루미늄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미래의 후손에게 기록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소망이야 있겠지만… (웃음) 당위성을 두자면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작품에 드러난 상모돌리기의 리듬감이나 공간 확장의 모습을 선사시대 토기의 빗살무늬를 떠올리며 표현한 점이 있다. 평면회화는 벽에 붙으면 한 가지 느낌만을 줄 수 있지만 평면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고민한 것이 피카소이며 입체파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이 재료를 사용하면 평면의 한 가지 이미지만을 주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을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했다.

이런 재료들은 사용하기 어렵고 노동력도 필요해 보인다. 재료를 다루는 노하우나 에피소드라면?

공정이 까다롭긴 하지만 오랫동안 작업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타카 공구 사용 중 손과 같이 찍었던 적도 있긴 하지만 즐기며 하니 부담되는 작업이 아니다. 즐겁게 하면 된다.

혹시 최근 새롭게 시도하셨거나, 사용을 시도하고 싶은 재료가 있다면?

재료 실험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사용했던 재료를 함축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선생님의 작품을 매우 한국적이다, 우리답다, 우리것을 보여준다 라고 표현된 기사들을 보았다. 고흐나 고갱이 갖는 대표적 이미지처럼 선생님이 작품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소풍 왔다 간다고 하신 천상병 시인처럼 나는 폭넓게 '놀다가겠다'라고 표현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문화를 흔히 한의 문화라고들 말하고 나 역시 그리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못지않게 흥의 정서를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진도에서 씻김굿을 몇 차례 본 후였다. 상여 나가기 전날 흐드러지게 노는 장면을 보았는데 상여판에서 어떻게 저런 흥과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바탕은 윤회일 것이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니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자 라는 것처럼 보였다. 삶은 죽음까지 포함한 진지한 놀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르러 그때부터 생, 놀이라는 주제로 작업해 왔다. (영어로 번역해 놓으니 의미전달이 많이 부족하다.) 내가 놀이처럼 화실에서 즐겁게 때로 우울할 땐 깨고 부수고 하는 흔적을 두고 타인들은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전시회나 작품 중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전시회나 작품은?

대개 그림의 장르 혹은 주제가 십년주기로 바뀌었던 것 같다.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재료사용이나 시도가 있었고 그 작품들은 특별히 생각된다. 그런 작품은 판매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 혹은 난해해서 판매되지 않기도 한다.

여러 곳에 작품을 기증하는데 어렵게 작업하신 작품이 아까운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나의 꿈은 화가였기 때문에 결혼 3개월 전 교사직을 내려놓았다. 교사를 계속했었다면 그림과 연결된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작품 활동을 마음껏 해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지만 그만둔 이후 나 뿐 아니라 가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많다. 드물지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평생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한 행운이다. 하지만 예술 활동은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공익적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을 주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정읍이 고향이고, 전주를 기점으로 여러 지역,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완주에 오랫동안 계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완주로 올 때 특별한 이유는 없었으나 82년도 땅을 구입하여 들어올 당시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다. 경제상황에 맞추어 장소를 찾다가 모악산 자락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구입할 수 있었고 모악산을 등지고 있는 이곳이 지금까지도 정말 좋다.

도립미술관 설립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긴 했

으나 이전과 달라지는 모악산 주변의 변화에 혹시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신지?

어쩔 수 없는 듯하다. 누리던 환경이 유지되기 원하는 것은 개인적 욕심일 뿐 더불어 사는 것이고 다소 편해진 측면이 있으니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것이 세상이치 아니겠나. 이전처럼 구이저수지 상류를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빠르게 왕래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지 않았는가.

최근 준비하는 작품이나 전시회, 활동계획 등은?

내년에 정해진 스케줄이 있고 10월 1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중요한 전시회가 있다. 하지만 전시회나 일정을 잡아두고 작업을 하지 않는다. 작업은 일상이며 그 중 적절한 작품을 출시하는 것이지 특별한 일정에 맞추어 작업하지 않는다.

전북, 또는 완주 화단의 어른으로써 하고픈 말은?

문화예술은 경제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경제 호황상태에 따라 파리에서 미국으로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옮겨진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살기 편해지면 마지막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예술이다. 반면 경제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처분되기도 하는 것이니 전북경제가 활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전북지역의 예술인들이 정말 많이 어렵고 실질적인 도움 혹은 정책수반이 아쉬운 실정이다. 인간의 정신적 중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야중 하나가 예술일 것인데 우선 살기 어렵다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순수미술이나 인문학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이 크다. 나에게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겠느냐 물으면 화가 난다. 어차피 나는 또 그림을 그릴 것이고 어려운 시절을 겨우 빠져나와 이제야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다시 겪으라 한다면 이것은 그저 싫고 화가 나는 것으로 표현이 다 되지 않을 정도이니 다른 예술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사 온 이후 작업 공간이 넓어지기도 했고 비용 절약을 위해 흙을 소재로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전과 비교하여 스케일도 커지고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유화물감으로 주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윤기 있는 유화물감은 내가 바라던 동양적 정서 표현과 이질감이 느껴졌다.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고 빛은 없지만 깊이가 있는 표현이 가능한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에 색감이나 다양한 표현가능성이 보이는 흙이 떠올랐고 작품의 깊이를 표현하기에 적절해 보여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접착제 등이 마땅치 않아 사용을 지속하진 못했으나 그림은 물감만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이 바뀌었던 경험이었다. 발상을 전환시키면 현실을 한탄하기보다 얼마든지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만 만들던 사람은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감히 생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전자기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

흙과 먹으로 그린 그림



떠다니는 섬
알루미늄 | 380×180cm | 2011





엉뚱하지만 로봇청소기 위에 의자를 두어 작품을 그리는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상상력은 표현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현실적인 재료부분에서도 물감이나 정해진 재료도 좋으나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엉뚱한 상상을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켜 보는 경험들을 많이 시도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그의 작업실은 30여년의 세월만큼 켜켜이 놓인 작품들과 새로운 작업들, 무엇보다 화실 바닥에 넓게 놓인 밑작업처럼 보이는 그림이 눈에 띈다. 작가의 모티브 표현일거라 짐작하며 무심히 여쭈니 놀랍게도 3살 손자의 놀이라고 설명해주신다. 아이를 가르치신 적도 없고 의도적으로 권하지 않았지만 자주 보이는 물건이니 그저 가지고 노는 것 같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의 밑작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미술을 대하는 대중의 시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시관의 작품을 대할 때 보는 이들은 무엇을 그렸으며 도대체 저 형상은 무엇일까 마치 정답 맞추듯 하거나 그것을 찾아야만 제대로 된 감상인 듯 오해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작가의 표현의도와 보는 이의 느낌은 별개의 것으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은 언어가 있기 전 의사소통의 수단과 기록이며 감정과 느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역사적 유물인 동굴벽화를 보면 기록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의사전달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아이가 느끼는 대로 색을 선택하고 선을 긋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양한 작품들은 작가마다의 고유한 표현이지만 보는 이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작가의 의도와 다를 수도 있다. 기쁠 때는 기쁘게, 우울할 때는 우울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예술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중학생 시절 미술소묘시간의 기억이 떠오른다. 4B연필로 명암효과를 위해 나름 지난하지만 고심하며 표현 중이었다. 아이들의 작업을 둘러보시던 선생님은 내 그림을 보고 대뜸 '숯검댕이, 연탄 집 딸 등의 (물론 나는 연탄 집 딸이 아니었고 연탄 가게를 비하할 의도는 없다) 말들로 나의 작업을 질책하였다. 나는 기분이 많이 상했다. 나름 장난 섞인 말투였지만 당시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줄만한 여유 있는 성격도 아닌데다 선생님과 그리 친근한 사이도 아니었던 터였다. 더구나 아이들까지 선생님의 그 말에 내 그림을 보고 웃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에피소드랄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나에겐 '그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좋지 않은 기억이다. 당시 교육현장의 분위기나 담당 선생님의 교육철학까지 거창하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겠으나 작가가 손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존중하는 모습에 부러움과 흐뭇함을 느꼈다. '그림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 이라는 작가의 말이 교실 한 쪽의 어린 나에게 위안이 되는 듯했다. 작가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회가 된다면 자신의 작품과 아이의 표현을 모티브로 무엇인가 시도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한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이 가득해 보이는 그의 작업실 풍경이 아직 선하다. 인터뷰 도중 보여준 2층의 새로운 공간과 전시했던 작품들,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는 인체 드로잉, 새로이 시도했던 아직 미완의 작품까지 그가 이끄는 공간마다 그의 작품들이 무한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듯 했다. 그의 깊은 눈과 고집 있어 보이는 입매에서는 그간의 작품들을 정리해야 하는 고민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는 고민하고 또 작업한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좋은 기회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말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거나 우울하면 또 그 느낌대로 표현하는 행위는 하나하나의 흔적이 되고 대중들은 그것을 '작품'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큰 대의까지는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의식과 상상의 흐름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내일이 설레고 기다려진다.

글 · 김진아

02

조윤수

혼자 놀기의 달인 향기나는 차한잔의 수필가

#문학#수필 #상관 #에세이집 〈혼놀, 혼자 즐기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 또한 옛것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멋진 글쟁이, 그동안 창작활동으로 6권의 수필집을 내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젊어지는 그녀의 세계에서 펼쳐진 향기로운 이야기.



본디 영어영문과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학의 길에 들어선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사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문학을 하고 글을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사회생활을 하던 때였다.

전인행복운동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잘 기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인의 행복에 관한 것이었다. 특별하게 말로 나서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작물을 기르는 일부터 알게 했는데 그것은 농부로 살아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관점을 탈피해 잘 보고 잘 듣는 일부터였다. 그러한 운동의 체험을 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다. 글을 쓰다 보니 국문학의 전체를 훑어보고 인문학 전반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었다

6권의 수필집을 내셨다. 그중 대표작으로 뽑는 것, 또는 애착이 가는 작품과 그 이유는?

이번에 낸 〈혼놀, 혼자 즐기다〉까지 여섯 권이다. 그중에 〈나의 차마고도—오심지다〉이다. 이 책은 2015년도에 세종 도서에 선정된 책이기도 해서이다. 나의 두 번째 수필집에 발문을 써 준 선생님이 저의 생활의 중심에 차(茶)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런 내용을 첨가한 사실이 있기에 그 뒤에 차에 관한 테마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수필은 무엇인지?

처음 수필을 배울 때 선생님께서 나의 인생이 참 수필적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한 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글은 작가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흔히 붓 가는대로 쓰는 것이란 말은 피천득 선생의 글에서 나온 말이라고 알지만 그 말 속에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고 싶다면 붓이 반드시 가야만 할 데로 잘 구성해 쓰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작품의 소재, 또는 영감을 어떻게 찾는지?

모든 문학이 일상을 떠나서는 그 소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회활동이나 여행지를 통해서든 작은 일이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또는 감동적인 물상이나 장면이 있을 때 가슴에 남는 여운을 메모한다. 일상도 여행으로 알고 산다.



고향은 경남이신데, 어떻게 완주로 오게 되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디아스포라적인 데가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직장으로 인하여 전국을 아우른 셈이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시절 한국전쟁이 터졌고 그 뒤 서울 수복 때 아버지는 개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었다. 다시는 밀리는 일이 없을 것이란 애국적인 주장을 실천하신 것이다. 하지만 석 달 뒤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부산여중에 들어가 1학년 2학기 때 전주 여중으로 전학하고 전주여고까지 졸업한 인연으로 전주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저의 별명 선화공주가 되었다. 그리고 전주에서 완주로 이사하게 된 지는 13년이나 되었다. 해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에 더 많이 공부한다. 최근에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완주, 오로지 오롯한 고을〉에 대한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완주군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문단에 대한 걱정과 바라는 점은?

어려운 질문이다. 온갖 미디어가 발달돼 내 손주들만 보아도 같이 있는 사람 이야기보다 스마트폰에 집중한다. 그러니 문학인들이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글을 쓸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한 가지 희망은 미디어 속에서도 글자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손전화 속에서도 글을 읽어야 하니까 고민이 된다. 소설은 너무 길고 시는 너무 짧아서 시대의 정신이나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수필은 이 시대 앞으로도 희망적인 장르가 아닐까? 문단 내에서도 장르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소그룹별 활동이 많으니 소통하는 일이 줄어들기도 하는 거 같다.

작가와 독자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선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일이라 생각한다. 책을 출간하고 나면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주는 분도 있고 또는 기사를 읽고 책방으로 달려가서 그 책을 구입하고 전화주고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고맙고 기쁘지만, 부끄럽기도 해서 더욱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하는데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읽을 책을 도서관에 가는 남편에게 부탁했는데 제가 쓴 〈차마고도〉를 완주중앙도서관에서 발견해서 빌려 왔다고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다. 그분도 차를 좋아하는 분인데 자기보다 고수인 거 같다고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거 같다.

전통차를 연구하고 책으로도 소개하셨는데요

네 번째 수필집이 차를 테마로 쓴 〈나의 차마고도〉이다. 동양 삼국의 생활 속에는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여러 형태의 차 문화가 있다. 그 전통차 속에 지금은 커피문화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차와 커피의 용도가 많이 다르니까 저도 커피가 꼭 필요할 때는 좋은 커피를 선별해서 사용한다.

차가 작품활동에, 또는 삶에 주는 이로움은?

수필집에서 내 생활의 중심에 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차를 잘 우려서 좋은 맛의 차를 만드는 것 같이 수필도 그렇게 잘 빚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까지 차를 빚듯 작품을 빚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저의 생활 속에 차가 녹아 있으니 차를 대하는 시간은 한 잔의 커피와는 좀 다른 마음의 여백을 주는 것 같다. 차를 생활하다 보면 그만한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을 알고 공부도 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나 활동 계획은?

문학, 특히 수필은 자신의 인생을 담고 있다. 과거의 회한에 많이 젖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나이 드니까 과거의 어떤 장면과 겹쳐지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때도 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지금 여기다. 아직 정리할 원고가 있고 다음 테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다.

글 · 정량미

03

지우빈

완주에서 태어나 완주에 뿌리를 내린 젊은 작가

#시각예술#회화 #봉동 #반복하는 물고기

20대의 젊은이다운 발상, 패기의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도전하는 지우빈 화가. '생각대로'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깔을 아름답고 거침없이, 그러나 깊이 넓게 펼쳐 보이고 있다.



오후에 생각한 나무 | 캔버스 위에 아크릴 | 116.8 * 91cm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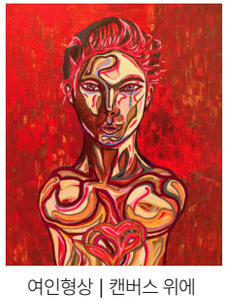
생각한 꽃 I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 72.7x 60.6 | 2018

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특별히 서양화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졸업할 때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여러 장르를 포괄적으로 배웠고, 학과 자체를 미술학과라고 했다. 미술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는데, 한국화를 공부했다. 그런데 대학에서 교수님이나 선배님들과 상담했을 때 내 생각이나 작품표현 방식이 한국화보다는 서양화 쪽이 맞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다. 4학년 때 진로를 한국화에서 서양화로 바꾸게 되었다.

블로그에 '한국화 재해석 작업을 하고 있음'이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당시 한국화 작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한국화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색깔이 단순해서 색이 강하지 않았고, 색을 쌓아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서양화기법을 접목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해 보았다. 저는 아크릴 물감을 좋아하는 편이다. 한국화에 다양한 색을 쓰면 더 깊이가 있고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가능할 것 같다.



여인형상 | 캔버스 위에 아크릴 | 72.7x60.6 | 2017

주로 작품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인 전시회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작품전을 가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편이다. 개인전은 2018년에 우진문화공간에서 '생각대로'라는 타이틀로 처음 했었다. 전시 전에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선배님이나 작가님들께 실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시회에 아쉬움이 있다면 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전을 갖는 것이었다. 그것은 감탄을 할 수는 있어도 고민을 주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았다.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재밌게 생각했던 것은 같은 그림을 봤을 때 같은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하고 싶었다. 내가 각인을 시키는 것보다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작품전 중에 '해물파전' 이라는 전시회에 선보였던 반복하는 물고기(2014, 알류미늄, 락카 193*1303) 그림을 설명하는 글에서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실수의 반복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전시회를 갖게 되었는지?

대학교 3학년 때 학과 선배님이랑 후배들이랑 같이 한 그룹전이었다. 사람들이 밝히고 싶지 않은 속마음, 숨기고 싶은 심리를 표현하려 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실수하면서도 감상자들이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한다. 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틀 안에서 일어나는 실수, 사회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서 틀을 만들고 색채도 흑과 백을 사용했다. 내가 흑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백이 될 수 있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표현했다.

젊은 작가로서 우리나라, 좁게는 전라북도 미술계의 걱정과 바라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예술가들의 활동무대가 너무 척박하지는 않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실에 그냥 적응한다는 것이다. 웹툰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포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유로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젊은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창작 욕구가 생기질 않는다. 왜냐하면 척박한 환경도 그렇지만 젊은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의욕을 상실할 때가 많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외국에서는 자신의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작품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한참 서양화에 빠져 있을 때 느낀 건데 사회혐오 하시는 아티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표현법을 보면 '무척 아름답고 추상적이며 신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감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술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인 것 같다.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종합 플랫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험하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작가들이 만든 도자기나 그림, 작품들을 내놓고 그것을 관람 정보를 통해서 수익도 얻을 수도 있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해주면 효과가 클 수 있고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을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예술을 즐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 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작품계획이나 활동계획은?

나는 아직 어리고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요즘 좋아진 것은 아트플랫폼이나 여러 사이트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트플랫폼에서 메일연락이 와서 꾸준히 작품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나의 그림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꿔본다.

글 · 정량미

04

송지호

그림 안에 이야기를 품는 토끼화가

#시각예술#회화 #봉동 #토끼

45살이 된 올해, 최고 지지자 겸 지원자인 아내 덕분에 처음 개인 작업실을 가지고 오롯이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송지호 화가.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 그림 협찬을 하면서 그는 '토끼 화가'로 불리게 된다. 소재와 화풍을 바꿔서 그린 환하게 웃는 토끼 그림이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sunday | acrylic on canvas | 80.0×80.0㎝ | 2016



넘치는 사랑 | acrylic on canvas
60.6×60.6㎝ | 2017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다섯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중간에 끼어 자랐다. 형과 누나가 공부로 두각을 나타낼 때, 저는 공부에 도통 관심이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그림이었다. 7살 쯤에 종이에 끄적거린 그림을 부모님이 보고 칭찬해 주셨는데, 부모님의 관심이 좋아서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었다.

한번은 어머니가 발라 놓은 새 벽지에 사군자를 그려서 부모님을 더욱 놀라게 했다. 이후 그렇게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가정형편상 읍내 미술학원에 다닐 수는 없었다. 그림을 그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림달력 따라 그리기였다. 집뿐 아니라 이웃집에 걸린 그림 달력까지 보고, 똑같이 그리기가 미술교육의 전부였다. 그렇게 중학교까지도 혼자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다.

중학교 입학 후에는 미술 선생님 손에 이끌려 미술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말 그대로 상을 휩쓸게 되었다. 그림 재능을 알아본 미술 선생님께서 제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하셨다. 덕분에 미술로 진로를 결정하고 전남 고흥의 시골 중학교에서 광주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심할 수 있었다.

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읍내 미술학원에서 딱 두 달 수채화를 배운 것이 미술과외의 전부이다. 광주예고 2학년 때, 원광대학교 미술학과 주최 대회에서 수상, 대학 4년 장학금이라는 부상을 받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입학이 결정되었다.

당시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은 대한민국 고등학생 미술대회 중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의 큰 대회였다.

(벽천)나상목, (유산)민경갑, (출이)김금출, (현림)정승섭, (벽강)류창희, (일석)서일석 교수님 등 동양화에 인지도 높은 분들이 포진해 있었다. 무엇보다 동생 두 명을 더 가르쳐야 했던 부모님께 학비걱정을 덜어 드리는 건 효도였다.

우진문화재단 청년장가상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두 번의 입상 등 생각해 보면 상복이 많았다.

하지만 꼭 받고 싶은 상이 있었다. 바로 우진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전라북도 출신 작가 3~4명에게 주는 '청년작가' 상. 하지만 무려 5번의 고배를 마시면서 화풍을 바꿔야겠다는 고민과 과도기가 함께 왔다. 마지막으로 안 되면 그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 싶을 정도였는데, 2012년 6번째 도전에서 이 상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난 유난히도 나무나 꽃을 좋아했다. 앞마당에는 내 어린 눈으로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나무가 있었고, 그 곳은 나의 놀이터이자 친구였으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작업노트에 적은 이 글처럼 그동안 그린 모든 그림은 나무와 작은 꽃이 어우러진 정원에 꼭, 빈 벤치가 있다. 누구나 쉴 수 있는 휴(休)를 품은 그림이다.

5전6기의 도전을 겪으면서 대학에서 배워 익숙한 화풍과 점묘와 선묘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 대사관,강남 세브란스병원 등에 걸렸지만 스스로 만족이 되지 않았다.

원광대 스타일, 스승님 스타일이 아닌, 저만의 기법이나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바꿔 보자는 고민이 생겼다. 아내가 임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장 복잡한 시기였다.

토끼를 많이 그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나만의 기법과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이 시기, 토끼띠인 나와 같은 띠로 태어난 딸의 출산이 과거 동양화와 다른 화풍, 기법, 소재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좋아하던 '나무' 대신 '토끼'로 그림 소재가 바뀐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였다.

또 기존 그림의 '빈 벤치' 대신 말, 고래, 풍선, 둥근 자동차를 토끼와 함께 배치해 마치 그림 안에 재잘거림과 소곤거리는 이야기가 담긴 듯한 경쾌함을 담았다.

학교 다닐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편한 그림이 좋다. 어른과 아이와 소통하고, 같이 교감을 나누면서 작품을 감상하기에 그려오던 동양화 작품보다 토끼 이미지가 훨씬 소통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MBC 드라마 〈이산〉에서 도화서 화공의 손 대역으로 참여한 인연으로,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의 그림 협찬을 하게 되었다. 이때 협찬한 그림이 소재와 화풍을 바꾼 그림이다. '장보리'라는 어린 소녀 주인공과 닮은 환하게 웃는 토끼 그림은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때부터 송지호 하면 '토끼 화가'로 불리게 되었다.

'토끼'가 유명해져 그림뿐 아니라 마우스패드, 프린트 액자, 압축아크릴 액자, 연필꽂이 등 캐릭터 상품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또 전주 대자인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는 그림 속 토끼가 조형물로 설치되었다. 이제는 토끼띠 딸이 9살이 되었고, 9년째 토끼를 그리면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다.

앞으로는 나이프를 이용한 꼼꼼함과 터프함이 같이 믹스된 면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기법에 섞어보려고 한다. 먹의 점묘와 선묘에 서양화에서 찾는 면적인 느낌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조형을 하고 싶어서 비



넘치는 사랑 | acrylic on canvas
60.6×60.6㎝ | 2017



구상과 구상의 경계인 반구상을 고민하고 있다.

미술학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오롯이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원광대 미대에 복학해 만난 같은 과 후배인 아내와 8년 연애를 했다. 대학원을 다니며 미술과 조교를 마치고, 작가 생활로 가야 했지만 그럼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내와 학원 운영의 길을 선택했다.
원광대학교가 있는 익산을 떠나 전주로 가려던 우리는 우연히 공단 지역인 봉동을 알게 돼 정착했다. 이 결정 또한 행운이었다. 이미 도시는 아이들이 없어 학원 원생이 줄고, 미술 전공 학생이 줄면서 전국의 미술과도 없어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자리가 있는 공단지역인 봉동은 올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실 증축을 할 만큼 아이들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봉동에서 운영하던 '나무미술학원' 원장 자리는 아내에게 내어놓았다. 최고 지지자 겸 지원자인 아내 덕분에 45살이 된 올해, 처음으로 개인 작업실을 가지고 오롯이 작가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저에게 화가로서 만족은 삶에 부대끼지 않고 작업만 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겠냐 싶다. 작업실을 손수 만들고 싶은 꿈에서 시작한 건축공부가 조형물 제작의 재료로 연계되었다. 다음 개인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형물과 함께하고 싶다.
글 · 김경화

05

정상식
기본에 충실한 예술인이고 싶다

#공연예술#연극#뮤지컬#전통극#기획 #삼례 #물보라#에쿠스

우연한 기회에 연극단체에서 음향을 보다가 배우 역을 하게 되었다. 85년도에 출연했던 작품이 대통령상을 받게 된 후로는 더욱 적극적인 연극활동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완주에서 거주하며 주민 참여형 뮤지컬, 연극을 만들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고려인들의 후세를 만나는 예술배낭여행을 다녀와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완주의 숨겨진 역사의 인물 찾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공연계에 입문하게 된 시기와 계기가 궁금하다.

20때쯤으로 기억된다. 84년도 우연한 기회에 연극단체에서 음향을 보다가 사람이 없어서 배우역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85년도에 그 작품이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 그 후로 적극적으로 연극을 시작했다.

공연에는 배우도 작가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연출로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 연출가로서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또 연출가로서 어려움이 있다면?

음악이나 연극이나 예술이라는 장르들은, 내제되어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발은 배우였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요즘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연출이라는 것이 종합예술이라 여러 장르를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해 아무나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연출자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니까 더 어려운 일이다.
공연 하나를 끝내고 나면 성취감 보다는 허탈감이 몰려온다. 힘들게 오랜 기간 연습한 것들을, 한두 번으로 끝내기 때문이다. 여러 번 하기에는 제작비도 많이 들거니와 많은 출연진들이 움직이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완주인으로 구성되어야 진정 우리 것이 되므로 어려움이 많았다.

선생님만의 공연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은 완주의 역사의 인물 시리즈이다.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싶다.
이제 시작한 1탄은 삼례 출신 김춘배 열사의 이야기이다. 내년에는 다른 분을 찾을 예정이다. 독립 운동가나 문화 예술가가 아니어도 완주에 숨겨져 있는 역사 인물들을 찾아내어 연극을 만들어 보고 싶다. 주변의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쉽게 관중들의 공감을 얻고 싶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사연과 메시지가 있다면 보람될 것 같다.

완주에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언제 어떻게 오셨고, 현재 완주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출생지는 임실 강진이며 고등학교 때부터 전주에서 살았다. 옛날엔 명절이면 시골에서는 콩쿨대회를 했었다. 어릴 적 작은아버지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추석에 오셔서 마침 드럼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던지 그 후로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하고 싶은 음악을 환경이 여의치 않은 시골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주로 나오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하고 싶었던 밴드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완주에 온지는 5년 정도 된다. 처음 고산에서 살다가 지금은 삼례에서 거주하고 있다.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군민들이 참여하는 연극을 시작했다. 고정적인 연극인들이 12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흩어지고 그때그때 학부형이나 주민들을 연습시켜 공연을 하고 있다.
군민이 많이 참여하는 연극을 계속 만들고 싶다. 대학교에서 연극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연극 활동을 한 지는 30년 정도 된다.

주민 참여형 뮤지컬이나 군민배우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5년 전 주민 참여형 뮤지컬 (청춘의 꿈)이라는 연극을 했다. 아마추어인 주민들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나의 의도는 아마추어지만 점점 역량을 키워 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은 많이 아쉽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군민 배우가 있는지?
활동했던 배우들 중 지금은 2명 남아 있다. 새로운 배우들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다. 지금은 일반 주부, 주로 학부형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연극을 배운다.

요즘 〈꼬마〉라는 극을 연출하고, 재단의 "예술배낭여행"도 고려인 이야기를 주제로 다녀오셨다고 들었다. 지역의 역사 관련 콘텐츠를 주목하는 이유는?
〈꼬마〉는 위안부와 강제 노동자로 끌려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꼬마〉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한국을 〈코마,코마〉하다가 꼬마라는 발음으로 된 것이다. 예술 배낭여행도 고려인들의 후손들을 만나보고 싶었다. 2세대 3세대이지만 그분들과 이야기하며, 어



완주군민 참여공연 '청춘의 꿈'



연극 '통닭'

린 시절 알고 있는 이야기나, 전해 달리 들었던 이야기라도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극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역사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다.



다음 작품은 무엇인지?
올 11월에 있을 잊혀지지 않는, 열사〈김춘배〉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가제이지만 삼례와 "김춘배"열사 이야기에 당분간 집중할 것이다.

이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대표작을 뽑으라면 어떤 작품인지, 또 그 이유도 함께 듣고 싶다.
첫 작품으로 〈물보라〉라는 작품이 있었다. 바닷가의 당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그 작품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때 무렵 자료들은 소장하기 힘들었고 중요시 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다 없어졌다. 그 작품을 끝내고 허탈감에 연극 활동을 끝내려고 하다가 다시 시작한 것이 〈에쿠스〉라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내가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매력을 느꼈다. 대표작이라면 이 작품을 꼽을 수가 있겠다.
35년을 연극생활을 했지만 연출한 것은 열 작품도 안 되고 기획을 많이 했다. 작품으로 치면 오십여 작품을 만들어 냈다. 앞으로 여건과 상황이 된다면 해마다 드라마(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극을 만들고 싶다.

완주예총에서 연극지부협회장을 맡고 계신다. 협회장으로서 보기에 전북, 또는 완주의 공연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완주에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육백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단체는 예산을 지원받거나 하는 경우는 아닐때도 있어서 제한된 활동을 하거나 타지역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장기 지원이 있다면 보다 활발한 완주 연극계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 또는 계획이 있다면?
완주에서 살면서 계속 연극 활동을 하겠다.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특히 다문화 가족들과도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연극으로 하여금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 계획이라면 완주의 숨겨진 역사의 인물 찾기를 계속 할 것이다.

연극인으로서 정상식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또, 그 이유는?
기본에 충실한 예술인이고 싶다. 주위 사람들은 예술인을 특별하게 보지만, 기인으로 남지 말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글 · 박은주

06

김병수
삶의 다양한 패턴 그리기

#영상#공연예술#미디어#문화공연기획 #삼례 #수요만찬#하워드인플래닛

홍대 인디밴드 활동을 이어오다 2015년 삼례로 귀촌, '제리스튜도'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 활동 특별히 완주 청년거점공간 1호를 임시 운영하였다. 2018년부터 복합문화공간 및 플래닛완주 1호점인 하워드인플래닛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월 2회 진행하는 '수요만찬'으로 지역 청년 및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 안팎의 귀농귀촌을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완주처음'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컨설팅하고 있다. 올해 10월 있었던 완주명랑운동회 고고고에서는 정해진 프레임 안의 소비형 행사에서 벗어나 누구나, 모두가 즐기며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색다른 형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수요만찬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의 활동분야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문화와 연결된 일들이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 문화기획이라고 분류되고 있으나 완주로 이주 후 영상제작이 주된 일이다.

선생님을 '문화기획자'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활동하는 내용으로는 문화기획자가 맞다. 일부 수익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음악을 해왔고 현재 영상제작 일을 하고 있으며 문화기획만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인지 문화를 기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다.

문화… 광범위하다. 명확한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의식주와 연결된 활동 즉 일상적인 것 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삶의 패턴을 그리는 것, 일상 외 삶의 다른 패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다듬어지며 지속되어 모인 것이 문화가 아닐까 한다. 가까운 고산의 문화 활동을 보면 공동체 중심의 인문학적 접근이 두드러져 보이고 삼례의 경우 청년 활동이나 문화컨텐츠 위주의 활동이 주로 보이는 듯하다.

기획하신 문화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특별히 애정이 가는 활동, 또 지속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완주에 와서 처음 해보는 활동이 많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기획하여 대부분 애정이 가지만 3년차 진행되는 수요만찬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초반에는 1주에 1회였으나 지금은 2주에 한번 운영된다. 시작은 청년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서였는데 간담회 비슷한 형식의 주제를 가진 만남을 계획했으나 한정적인 것 같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청년들이 식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한 끼 먹으며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기획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들이니 낯도 가리고 어색하지만 뭔가 먹으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었다. 그러다가 공감대가 비슷한 친구들, 코드가 맞는 그룹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들은 좋아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던 혹은 필요한 일들을 도모하고 기획한다. 단지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매개가 되어 혼자서 왔지만 둘이 되고 여럿이 되어 같이 꿈꾸고 어느 순간 여러 모양으로 뻗어지는 모습이 좋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만찬도 있었고 지역공무원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적도 있다. 다만 삼례가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이 아쉽다.
좋아하거나 관심 가는 일을 기획하다 보니 주변에 없던 활동들이 많은데 마크라메의 경우 2년 전 시작했었고 이후 여러 곳에서 활용하는 듯 보여 자긍심 같은 것이 생긴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루고 계신 일들이 뭔가 다르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 다름이 어떤 것일지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연보다 사례발표를 몇 번 했었다. 귀농귀촌 관련 지원은 농업에 기초한 내용이라 농업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의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다. 박람회 등의 기회를 통해 다양하게 만나보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귀촌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았다. 농사를 꺼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다른 분야로 농촌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지원할 만한 정책이 완주군에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는 완주군만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 우선 청년활동, 특히 귀촌청년 관련활동이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출발이 거의 같다는 점이 있고 여기가 완주 청년 공간 1호인 이유가 크다. 완주군 정책에 변동이 있어 보여 긍정적이긴 하나 지금의 활동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없는 모범사례로 여겨지기도 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함께 일하는 청년들에게 수익이 주어지나요?

대부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결이 된다. 카페에서 요리하는 친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만찬이나 일이 있을 때 같이 한다.
나의 경우 서울에서 지낼 때보다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게 된 데에는 타이밍이나 기회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정당한 활동비를 스스로 결정한 이유가 있기도 하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영상제작 작업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니 인건비나 제작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하려는 측면이 많았다. 나의 일에 스스로 비용을 정하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들의 상황을 원치 않는 노동이나 낮은 단가의 인건비로 이용하려는 주변의 만연한 태도들에게 현재의 청년들보다 먼저 선 사람으로서 해주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한다.

완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하신 분야에서 언제부터 활동하셨는지?

완주에 온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딱히 언제부터라기보다 영상제작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연결된 듯하다. 그런데 완주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귀촌 혹은 귀농한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있지만 정작 완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다. 물론 동네 주민들과의 만남은 있지만 완주에 오래 살던 이들과는 비슷한 활동분야에서 만나기 어렵다. 완주에 먼저 살아오던 사람들은 문화나 소비를 외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물론 오랫동안 보아오던 지역에 신선함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또한 일들을 진행하다보니 행정 편의를 위해 지역에 오래 사시던 분들을 '원주민'이라는 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을 사용하기가 무안한 적이 많았는데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왠지 귀농귀촌한 사람들과 차별을 두는듯해 다른 말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에 오래 계시며 관심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좀 더 적절한 말을 찾아보는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완주로 오시게 된 과정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것 같다. 혹시 완주가 가진 매력이나 완주에서만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나 일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나보다 먼저 완주로 이주한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화암사 바위에 올라 자연을 보고 별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산과 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2019 문화귀촌이란, 전국 청년대상 2박 3일 캠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서 음악활동을 하며 지하생활을 주로 해서 그런지 우선 자연환경에 시야가 트이는 점이 좋았다. 마침 집도 어렵지 않게 구하게 되었다. 물론 요즘 안 좋은 냄새도 있고 부조리한 점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시야가 트이니 생각이 넓어지는 듯하다.
청년들에게도 지역에서 지내는 동기나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필요하다. 돈이건 자연이건 사람이건 상관없다. 나의 경우 완주의 환경이 먼저이고 친구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점 등이 매력이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나 다른 지역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의 활동을 요청 받고 있으나 지금은 완주가 좋다. 말한 대로 조화로운 자연이 좋고 친구들이 있고 지금의 터전이 안정적이기도 하다. 완주에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이 좋지만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는 없다.

혹시 완주군이 규정하는 연령대의 '청년'인가요?

아니다. 40세를 넘긴 행정이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아님에도 완주군 청년정책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듯하여 고민이 된다. 청년 관련하여 다른 대안이 아직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있기도 하여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대를 가져본다.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기획을 꿈꾸는 청년 혹은 희망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귀농귀촌한 사람 중 자기 신념 안에서만 활동하며 지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들로 많이 시도해보기를 권한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할 때는 이전과 다르게 하면 되고 여러 차례 다듬어가며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정이 어렵고 더딜 수 있지만 사람과 지역과 환경과의 조화를 좀 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수요만찬의 경우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다. 신청자가 1명인 난감한 경우도 있었고 안정적인 운영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일들을 시도하는 과정에 주변과 조율도 필요하다.

현재 준비 중인 기획은 무엇이 있는지?

10월에 있을 명랑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그렇지 않다. 청년이 아니라도 3인 이상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니 많은 홍보와 참여를 바란다.

글 · 김진아

07

김민선

버스킹을 꿈꾸는 글로벌 소리꾼

#공연예술#국악 #상관 #국창권삼득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대상

17세에 명창 조소녀 선생님께 판소리 가르침을 시작으로 소리꾼으로 입문한 김민선 씨. 우석대학교 국악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 후 8년의 소리공백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했다. 2018년 제19회 국창 권삼득 국악 경연대회 일반부 판소리 대상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면서 열정적으로 판소리를 향해 내달리는 중이다. 2019년 10월 12일 〈흥부가〉 완창발표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결혼과 함께 완주군 상관에 정착, 〈완주 판소리 협회〉, 〈완주 비비정〉에서 활동 중이며 판소리 교육을 하고 있다. 명창보다 광대나 소리꾼으로 불리고 싶다는 김민선은 유럽을 돌며 판소리 버스킹을 꿈꾸는 소리판의 아이돌이다.



2018년 제 19회 국창 권삼득 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판소리 대상 국회의장상 수상

어떻게 판소리를 시작하셨어요?

14살 무렵 주말마다 현재 KBS '국악한마당' 의 전신인 '국악춘추'를 아버지와 시청하면서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TV 속 당대 명창보다 판소리를 더 잘할 자신 있으니 '소리'를 배우겠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했고, 이런 내 요구에 부모님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하지만 판소리를 시청할 때마다 아버지를 졸랐다.

부모님은 동네에 교습소가 많은 서양악기도 아니고, '판소리는 힘들다' 와 '끼가 없다' 이유를 들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하지만 판소리 교육에 대한 내 요구가 충동적이지 않고 17살까지 3년 동안 이어지자 엄마는 아버지와 달리 알음알음 판소리 스승님을 알아봐 주셨다.

그렇게 해서 17세에 명창 조소녀 선생님께 판소리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소리꾼으로 입문했다.

막상 해보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또래 친구들이 입시 스트레스 속에 판소리 수업을 받을 때, 저는 판소리를 평생 하거나 전공할 생각 없이 그저 배워보고 싶은 맘에 즐겁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목 잡히는 데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소리는 그야말로 쉽지 않았다. 일주일에 세 번 조소녀 선생님께 배우면서 홀로 개인 연습을 계속했다. 폭포 아래에서 하는 수련까지야 아니지만 산공부 정도는 한 시기 아닐까 싶다.

판소리 신동은 아니지만 소리 공부 일 년 반만에 우석대학교 국악과에 합격했다. 국악과 입학 후 전공 친구들에 비해 늦은 입문과 예술고가 아닌 일반고였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 밥 먹고 소리연습만 하는 대학생활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국악과 졸업 때까지 대회 수상이나 시험 합격 같은 보상은 따라주지 않는 편이다.

26살 무렵에는 국악과 학사조교 일을 맡으면서 바빠진 일과로 자연스럽게 소리 연습을 놓게 되었다. 그 때부터 국악 관련 일은 하지만 소리는 하지 않는 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었는데, 바쁘게 살면서도 허전한 느낌과 채워지지 않는 만족에 '왤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다. 그 이유가 '소리'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34살 8년 만에 판소리를 다시 마주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 김민영 선생님께 〈홍보가〉와 〈수궁가〉를 사사받았다.



판소리의 매력이라면?

서양악기는 악보가 있지만, 판소리는 악보가 없다. 구전으로 이어왔고, 가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판소리 연습은 듣고 따라하는 수밖에 없다. 이 듣고 따라 하기를 무한반복하면서 소리를 할 때마다 매번 다르고, 들을 때마다 안 들렸던 것이 들리기도, 달리 들리기도 하는 것이 판소리의 매력이다. 다시 소리를 끌어내는 것이 이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

8년 만에 다시 시작한 소리,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방과 후 판소리 교육을 시작했다. 판소리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생목을 들키고 싶지 않았고, 결코 선생님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욕심을 냈다.

제19회 국창권삼득 국악경연대회에서 일반부 판소리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위한 책임감으로 연습에 매진한 결과는 뜻밖의 큰 성과로 이어졌다. 2018년에 제19회 국창권삼득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판소리 대상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전주 대사습놀이〉와 같은 큰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야 '명창'이라 불리는 시대지만 '명창'보다 '소리꾼', '광대'로 불리고 싶은 제게 국회의장상은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었다. 여기서 용기를 얻어 열정적으로 판소리를 향해 내달릴 수 있었다.

〈흥보가〉 첫 완창 발표회를 앞두신 것으로 압니다

2019년 10월 12일 첫 완창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판소리 다섯 마당 중 가장 자신 있는 〈흥보가〉이다. 완창에 3시간이 소요되는 〈흥보가〉 완창 발표회는 제 스스로 기획하고, 완주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았다.

판소리 마당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춘향가〉이다. 20대 때와 달리 40이 된 지금은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다.

8년을 쉬고 다시 시작한 판소리! 하면 할수록 소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진다.

판소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노래하기 때문에 몇 시간짜리 가사를 외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음을 터득하고, 음을 만들고 내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존경하는 소리꾼이 있다면?

당대 판소리계 대가들 중에서 닮고 싶은 목소리와 존경하는 소리꾼이 많아지는 것도 5명창, 8명창 같은 대가가 되기 위한 욕심 때문이 아니다. 스승, 선배들의 소리를 닮아 자신의 소리를 보완하고 싶기 때문이다.

'중청', '하청'에 비해 '상청'의 부족함을 느낀다며 소개한 명창은 염경애다. 소리를 하는 사람마다 장점이 있어 '상청'이 잘 나오면 '하청'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명창 염경애 선생은 '상청', '중청', '하청' 이 모두 잘나오는 분이다.



또 닮고 싶은 소리는 김수현 명창의 애절함과 한스러운 소리다. 김수현 명창처럼 애절하게 흐르는 소리 계면조와 상청, 중청, 하청 소리까지 골고루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만약 진정 닮고 싶은 명창을 딱 한 명 꼽으라면 스승님 김민영 명창이다. 대통령상 수상, 전주시립국악단 판소리 수석단원인 스승 김민영 명창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제 목표이다.

완주에서의 활동,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결혼과 함께 완주군 상관에 정착해서 〈완주 판소리 협회〉, 〈완주 비비정〉에서 활동 중이다. 고창군의 판소리 맥을 이어가기 위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호를 딴 국악 교육장 〈동리 국악당〉이 부럽다. 완주에도완주 명창 권삼득의 맥을 잇는 〈완주 국악당〉이 생겨서 아이들 누구나 국악과 판소리를 생활 속에서 가까이 배우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과거 판소리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남원, 구례의 남성적인 내뱉는 소리의 동편제와 나주 보성 등의 애절하게 내뱉는 여성적인 서편제, 서울, 경기의 중고제 등 '제'(制)를 나눴다. 하지만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제'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 속에 오히려 '제'의 특징이 섞여 개성적인 현대 '제'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옛날 5명창, 8명창의 시절처럼 판소리가 무대가 아닌, 생활 곳곳에 스며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미스 트롯처럼 미스 판소리같은 프로그램은 왜 안 만들까요? 옛날 판소리는 장, 마당, 골목, 아무데서나 했다. 그게 곧 조선시대 버스킹(Busking)이다. 언젠가는 맘 맞는 고수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좋은 무대,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도 아무데서나 판소리로 소통하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 대한민국 최초 판소리 유럽 버스킹(Busking)을 할 날을 꿈꾼다.

글 · 김경화

08

정상현

잠잠하게, 신념대로

#공연예술#대중음악#기획 #고산#봉동#이서 #스테이풀리쉬#뮤직페스티벌

고교 시절 락밴드를 결성하여 활동했던 정상현 씨는 이제 지역에서 아이들, 일반인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음악공연 기획을 하고 있다. 그의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스테이풀리쉬'는 보조금에 기대지 않는 자발적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특별함을 갖고 있으며 행정주도의 시스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준 완주의 대표적 뮤직 페스티벌로 손색이 없다.





음악과 공연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공연기획이나 음악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지역에서 흔치 않은 활동이라 관심도 많이 받고 말씀하실 기회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그런데 인터뷰나 공연에 대해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다. 10여 년 전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나 역시 인터뷰를 잘 안하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다.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전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절 친구들과 시작했다. 학교 내 밴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로 학원이나 음악을 하는 선배들의 연습실을 통해 친구들을 만났고 밴드를 시작했다.

특별히 선호하는 음악장르는?

락을 좋아해서 락 밴드를 결성했고 헤비메탈이나 레드제플린도 즐겨들었다. 지금은 특별한 장르보다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 좋고 그래서 음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해 오신 공연 활동과 그 중에서 애정을 갖고 계시거나 지속되었으면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건 지속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런저런 즐거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백년 이백년 이어진다기보다 그 시대의 특별했던 정신이나 획기적인 생각들이 이어지는 것이지 보이는 형태로 지속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음악을 통해 만나는 '스테

이풀리쉬'가 아닐까 생각된다. '스테이풀리쉬'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은?

고민하다가 스티브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 중 유명한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는 부분에서 처럼 우직하게 한 가지 일에서 진리를 찾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자기만의 소신대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을 떠올려 이름 짓게 되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2014년부터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무작정 찾아갔었다. 기관에 있는 분이나 음악을 하는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2015년에 10여명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스테이풀리쉬의 기획 의도가 궁금하고 지금까지 의도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지?

재미있겠다 라는 생각이 우선이었다. 주변에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활동은 많지만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창의적인 활동을 하려면 지원받는 사업으로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지원사업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규제와 간섭이 있고 주변의 여러 환경을 고려하다 보면 자유로운 내용에 제약이 생긴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규제나 제약을 두면 그 안에서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을 보면 지원사업과 연결되지 않은 일들은 거의 없다. 물론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원사업의 중요한 의미나 필요성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만한 기회가 같이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간혹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걱정하며 지원 사업에 기대는 모습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도 있다.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권리를 찾는 과정에 바라는 방향과 시스템 사이에 원활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고 계속 의지하다 보면 긴 시간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분야이건 뒤로 물러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물러나 나름 자신의 영역을 이어가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독립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경험이 되는듯 하다. 누군가에게 선례가 되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른들의 다양한 경험으로 이후 세대들이 겪을지 모르는 고민들을 어른들이 풀어주면 되는 것,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전염되었으면 한다.



스테이풀리쉬



스테이풀리쉬 행사가 올해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아쉬움은 없으신지?

예전에는 어떤 일을 마칠 때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은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지 편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이유라면 뭐가 있겠나 말한대로 여러 상황이 변하는 점이 그렇다.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없다. 지원받으며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원해서 이루어온 일이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완주와는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었는지?

7~8년 전 고산에서 밴드를 결성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청이 와서 인연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완주 이서에서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고 계시고 (돕지는 못하고 있으나) 전주에서 병행하는 일들로 오가기 때문에 완주는 낯선 곳은 아니다. 교통이 편하고 전주와 인접해 있지만 조용한 편이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 흥미가 생겼다. 내가 추구하던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과 통하는 면이 많았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해보고 싶은 생각이나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지?

지금은 완주가 좋다. 전주에서도 활동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는 편이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도 좋지만 한해 두해 지날수록 쉽지 않다.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선생님처럼 공연기획이나 음악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말해봤자 안 듣기 때문에 잘 안하는 편이다. 중 1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인데 각자의 인생이고 다들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마음대로 해보게 지켜보는 편이다. 연습도 자유롭게 하고 특별히 간섭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힘들어서 손을 내밀 때 도와주면 된다. 어른들의 염려는 행여나 행정적으로 불편해질까 하는 염려나 다른 걱정거리들이 있는 것이지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이 책임지고 막아주면 되는 것이다. 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그들이 꿈꿀 수 있게 어른들이 잘 살아내고 성공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어른들이 많아진다면 비전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의 활동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다. 도내 첫 인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메이드인전주, 메이드인완주와 같은 뮤직 페스티벌도 개최하셨는데 그간의 성과라면?

성과라면 지금까지 뭔가 지속하고 있는 것, 뭔가 다르게, 뭔가 재미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 성과인 듯하다.

준비 중인 '스테이풀리쉬' 공연 외에 계획 중인 다른 활동이 있는지 궁금하다.

음악 관련한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현재는 고산에 1000여 평 부지를 마련하여 나를 포함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이대로 살아내는 것. 음악 관련한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것. 지금은 공연기획을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활동이 있을 것 같다.

글 · 김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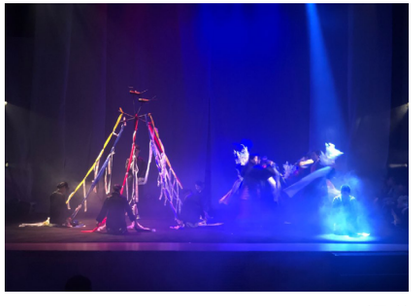
09

강남진

문학적 색채의 종합공연예술 실현

#공연예술 #봉동 #지역축제#공연기획#서사연출

전라도 광주연극제에서 우연한 기회로 처음 연기를 시작하였고 80년대부터 광주에 소극장과 연기학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기분야의 다양한 가르침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백제예술대학에서 연기지도 뿐 아니라 종합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88올림픽 축하공연,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위원, 전주풍남제 제전위원, 광주비엔날레 전야제 및 개,폐막공연 연출, 97년 광주전국연극제 총감독, 김제지평선축제 준비위원 등 공연 및 각종 축제의 기초를 마련하고 메인행사를 기획하였다. 특별히 김제지평선축제의 경우 세계적 축제로 자리 잡게 한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8 연극 화암우화전 공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교수님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선생님의 분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공연 혹은 종합예술기획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종합예술을 한다는 것은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성취감과 보는 이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이다.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나의 경우도 초창기에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로 부모님과 대립도 있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고 다시 돌아봐도 정말 잘한 일이다. 열심히 했던 이유 때문인지 연극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현실적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되기도 하였다.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인정받아 쌓이는 주름살이 훈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연기라는 분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버지가 보유했던 건물을 임대로 내놓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극장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 월세 낼 능력이 있으면 해보라 하시며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셨고 돈을 빌려 1980년대에 광주에서 소극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돈이 없어 결혼 패물들을 팔아 극장공간을 꾸몄고 소극장 운영과 연극 활동을 병행하고 있던 중 당시 1500석이었던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공연기획을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가진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울에서 있었던 좋은 작품을 기획하였고 1500석이 다 채워지는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어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다. 좋은 결과로 인해 운영하던 극장에 투자도 하고 배우들에게 안정적 보수도 줄 수 있었다. 고전연극 등을 소개・기획하고 극장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 관극회원이라는 관객회원제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주로 주말에 사용되는 소극장의 빈 시간이 아까워 연기학원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교육청에 학원 개설을 문의하니 당시 관인이나 탤런트 학원 같은 곳은 있었지만 연기학원의 선례가 없어 허가 조건의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지 몰라 했었다. 그래서 무용학원과 비슷한 형태로 구조를 잡아 학원을 시작했다. 당시의 척박한 연극공연계 상황에서 연기학원은 연기를 공부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고 연기학원을 통해 순수 연극 외에도 극장 운영, 공연기획 등 다양하게 시도하고 이루어왔다. 당시 학생 중 한예종에 입학한 친구들이 많았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활동하던 중 임용제의가 들어왔는데 1992년에 개교한 현재의 백제예술대학이었고 1994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이곳에서는 25년 정도 연기지도와 함께 다양한 작품공연을 해오고 있다.

혹시 기억나는 제자들이 있다면?

앞자리에 주로 앉았고 눈이 빛나던 윤손하 라는 학생이 있었다. 한 방송사의 리포터로 소개해 방송을 시작했고 1학년 이후 연기를 시작하며 일에 집중하다 보니 학교일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쿨의 유리와 가수 백지영, 원빈 등이 있었다. 초창기에는 백제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좋은 학생들이 많았고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다. 김병만의 경우 세 번째 도전에 합격하여 입학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2~3년 전까지도 연락이 자주 왔었다. 지금은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연락하기 어려워진 듯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극 활동을 병행하셨다고 들었다. 연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중 2학년 시절 수학선생님께 소개받은 분이 대사를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광주의 학생연극제에 올릴 연극 작품 중 여자배역이 비어 배우를 찾는 중이었던 것이다. 여자 역할이었지만 배역을 맡아 처음 연기를 했다. 수학문제를 재미있게 읽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선생님이 추천하셨던 것이다. 그 이후로 연극에 관심은 갖게 되었지만 연기나 연극의 길이 불모지였기 때문에 직업으로 삼아야할지는 고민이 많았다.

처음 연출한 작품과 그것에 대한 지금 기억은?

광주에서 공연했던 '피터 쉐퍼 작가의 블랙코미디'라는 작품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한없이 미흡하지만 당시 젊은 혈기로 최선을 다한 작품이었다. 대본은 대부분 서울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산불이라는 작품의 차범석 작가님, 연출가 윤호진 선생님, 이재은 작가 등 친분 있는 분들과의 작업으로 대본을 마련하였다. 훌륭한 연출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작품 혹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길잡이가 된 작품이다.



2018 영국에딘버러페스티발 퍼포먼스 참여
(완주문화재단 예술배낭여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퍼포먼스 참여



2019 보령머드축제 퍼포먼스



2019 순창장류축제 퍼레이드

극 중 인물의 다양한 면을 잘 드러내는 것, 일반적으로 연기력이라고 하는 것 외에 연기를 배우며 갖추어야 할 점이라면?

무엇보다 자기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이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 자기 성찰과 대본에 충실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 반해 건성거리거나 잔재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은 한계가 드러나 보였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요가나 명상, 자기를 비우는 작업들을 많이 시키는 편이다. 또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자기 안에 대단히 높은 것이 있더라도 겸손한 친구들이 오래가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기라는 전문 분야 외에도 신체표현이나 오디션 테크닉 등의 다양한 교육으로 배우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신다. 혹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의 기회나 내용을 생각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여러 가지 시도한 것들과 경험들을 정리하여 남기고 싶다. 80~90년대 미국이나 러시아의 연출가들의 연극이나 연기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까지도 철칙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의 미디어 세대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어 나름대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글로 기록하여 남기고 싶다. 요즘은 작품 각색 작업을 자주 하는데 이유는 서양의 좋은 문학작품들이 책이나 대본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의 공연 현장에서는 쓰지 않는 언어가 많다보니 자연스럽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아 감동이 덜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내용의 줄기는 유지하되 우리의 언어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현재 준비 중인 3학년 졸업 작품 '장미여인숙'의 경우에도 '토마스 울프의 천사여 고향을 보라'를 각색하였는데 우리 정서와 가까운 언어로 되어있어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보인다.

연출하는 작품에 어떤 기준으로 배우를 정하는지?

기준보다 작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 같다. 의도와 생각에 따라 정극스타일 아니면 연기인 듯 아닌 듯 하는 학생들로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특별히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학생에게 다양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점도 있다.

전국의 여러 곳에서 연출 기획을 해왔는데, 전북에서 주로 활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완주에 온지 11년 정도 되었는데 완주가 행운의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감성이 좀 더 풍부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예술적 감각이 있고 작품에 대한 깊이가 다른 점이 보이는데 아마도 이 지역의 탄탄한 토양의 영향인 것 같다. 94년도에 광주에서 전주 삼익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 짜장면을 시켰는데 40분이나 걸려서 먹은 기억이 있다. 같은 전라도이지만 광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는데 다들 개의치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정서가 다른 것을 느꼈다. 두 자녀가 일본으로 가게 되어 2009년 봉동으로 이사 후 밭도 일구며 살다보니 지역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연예술 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내가 사는 완주의 문화는 생각하지 않았던 점을 떠올렸다. 문화재단의 사업 중 여행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학생들과 함께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나 연출의 방향이 있나요?

메시지가 확실한 것들, 사회 이슈나 부조리, 고발성을 드러내는 작품을 선호한다. 사실주의와 서사주의 중 서사주의 표현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서사주의는 변화무쌍하고 쓰임이 많다. 물론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의 사실주의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서사주의의 경우 상상력을 발휘하여 연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이미지에 대한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듯하다. 연출의 경우 작품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드러내야 하고 연기자와 공유하며 찾은 것들이 작품에 묻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면 관객은 혼란스럽고 감동이 없다. 수 백 작품을 연출했지만 나도 이제야 조금 그것을 알 것 같다.

완주에서 기획한 작품이나 완주를 콘텐츠로 제작한 작품이 궁금합니다

2018년에 화암사에 얽힌 이야기극 화암우화전을 갑작스럽게 맡아 기존의 아이들 대상의 분위기에서 조금 수정해 12월 군청 문화회관에서 공연하였다. 올해 11월 8일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누에에서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작품을 공연할 예정인데 '쏜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는 유명한 작품을 삼례를 배경으로 각색하여 연출하였다. 인간이 태어나 죽기까지 남녀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사는 순간순간이 소중하고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전해주는 잔잔하지만 꽤 매력 있는 작품이다. 30~40분 정도 공연하는데 1회 공연인 점이 아쉽다.

준비하는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소망은?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작품과 지역 축제가 있고 특히 10월은 일정이 많다. 특별히 축제는 드라마적 요소에 퍼포먼스, 즉흥적 연출이 필요한데 오랜 경험으로 축제에서 많은 의뢰를 받는다. 완주와일드푸드 축제와 김제지평선 축제를 비롯하여 군산 시간여행 축제, 진안, 고창, 임실, 순창 등으로 축제 현장에 계속 일정이 있다.

어렸을 때는 극장을 갖고 싶었고 극장을 가지게 되면서 관객에게 좋은 작품을 원 없이 보여주고 싶었다. 소망대로 많이 이루어졌고 꿈꾸었던 것들이 거의 실현된 것 같다. 다만 좀 더 깊이를 둔다면 베이징 홍극장의 소림무술 공연처럼 지역의 색을 가진 특별한 공연을 만들고 싶다. 쉽지 않겠지만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완주만의 대표적 관광 및 공연콘텐츠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와일드푸드 축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완주에 좋은 예술인들이 정말 많은 것을 알았다. 완주군에서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지역 예술인들의 열정과 실력에 적잖이 놀랐고 반가웠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좋은 예술인들과 함께 완주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공연콘텐츠를 꼭 제작해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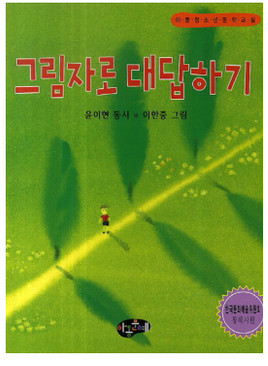
글 · 김진아

10

윤이현
동시버스에 탄 선생님

#문학#아동문학 #상관 #동시버스를 타고 가요

최근 10번째 동시집 《동시버스를 타고 가요》를 출간한 윤이현 시인은 아직도 동시버스를 타고 여행 중이다. 1959년 3월 남원 덕과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시작으로 2003년 전주 양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했다. 교직생활 중 학생들의 특별활동 수업을 위해 동시 읽기를 시작했다. 1976년 월간 〈아동문예〉에 동시 '한낮'으로 등단, 10여권의 개인 동시집과 5권의 동화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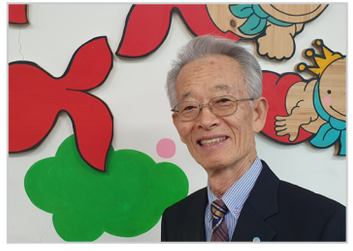
전주교육대학의 전신인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 3월 남원 덕과 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서 2003년 전주 양지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했다.
사범학교 졸업 전에도 국어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특별활동 수업 중 문예부지도를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동시 읽기를 시작했다.

동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사범학교 다닐 때는 그냥 좋아만 했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가지고 특별활동 지도를 하는데 문예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려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동시를 읽기 시작했다. 이원수, 김영일, 박화목 선생님과 같은 우리나라 동시 대가들의 작품을 읽고 공부했다.
그 중에서도 가곡 '보리밭'과 동요 '과수원길'의 작사가로 유명한 박화목 시인의 작품을 많이 읽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동시 공부 덕분에 시인이 되었다. 바로 1976년 월간 〈아동문예〉에서 동시 '한낮'이 추천되면서 등단한 것이다.

동시를 잘 쓰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동시를 잘 쓰는 방법을 묻는다면 딱 하나라고 말한다. 읽지 않으면 못 쓰니까… 많이 읽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작가의 동시를 읽는다. 내 작품을 쓰는 것보다 다른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읽으면 그냥 좋다. 동시를 읽으면 내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지니까 좋다. 동시를 잘 쓰려면 무조건 많이 읽어야 한다. 안 읽고는 쓰기 힘들다.
'동시'는 성인이 어린이다운 심리와 정서로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정서를 읊은 시를 말한다. 어린이 마음인 '동심'이 담겨야 동시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동시를 쓰는 이유도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



동시는 절대적으로 교육적으로 생각해서 건전한 작품을 써야 옳다. 아이들을 심성 곱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고운 시어를 골라서 예쁜 감정으로 써야 한다. 남을 미워하고 싸움질하고 하는 상황은 작품 속에서 볼 수가 없다. 친구, 부모, 어른 공경, 그런 인간의 착한 심성 고운 마음만 쓰니까. 아이들이 읽고 나서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게 사랑이 담긴 동시를 써야 한다.
사물을 아름답게 보고 정서적으로 순화되게 아이들의 착한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동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길러줘야 세상이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동시의 매력, 그동안 낸 동시집을 소개해 주세요

'동심'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키워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동시의 매력은 바로 '감동'이다. 세 줄짜리 동시가 됐든 열 줄짜리가 됐든, 내가 써 놓고도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잘 표현되면 좋다.
동시는 아이들이 주된 독자니까 어머니에 대한 쓴 시를 읽고 나면, '그래 맞어. 내가 우리 엄마 말 안 들었을 때 우리 엄마도 마음이 아팠겠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썼으면 좋겠고, 쓰고 싶고, 쓸려고 하는 데도 잘 안 될 때는 아쉽다.
50년간 동시를 붙들고 살았는데, 그동안 3권의 동화집과 9권의 개인 동시집을 출간했다. 최근 '거의 10년 만에' 시인의 10번째 동시집 『동시버스를 타고 가요』를 출간했다. 시상이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를 때, 쓸 때는 두 세편 써놓지만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거의 십 년 만에 작품이 모아졌기에 10번째 동시집을 세상에 내놓았다.

시인으로서 느끼는 행복은?

아동문학을 하면서 시인으로서 느끼는 행복은 일반 독자나 주변 지인들이 '읽고, 또 읽어봤어', '이번 작품집 참 좋대' 하고 작품을 알은척 해줄 때이다. 나이가 들어도 칭찬이 참 좋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에 동시 [가을하늘]도 실렸다. 그래도 생각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작품, 명작을 못 쓴 것이 젤 안타깝다.
그동안 제10회 한국아동문학작가상(1988년), 김영일 아동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전북아동문학상, 한국교육자대상 '스승의 상',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전북문학상, 목정문화상(문학부분), 대한민국동요대상(노랫말) 등 여러 상을 받았다.

동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모두 오늘도 꽃처럼 웃으라고 말하고 싶다.
《동시버스를 타고 가요》 속 '시인의 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동시'로 전하고 싶은 마음과 바람이 있다.

> … 또 한 번 용기를 내어서 동시라는 버스를 타 보려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차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풍경, 차 안에서 이 친구 저 친구랑 주고받은 이야기,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한 것들을 그냥 옮겨 적어봤다고 할까요. 동시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시인이 "동시는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 같습니다." 라고 했다. 여든이 되었어도 좋은 시상이 떠오르고, 머릿속에 떠도는 시구가 있으니 동시를 계속 쓰고 싶다. 시를 쓰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머리는 쉬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게 사는 의미니까 하고 있다.

글 · 김경화

11

윤대라
지극히 개인적인 신화

#시각예술#회화 #용진 #대라공주#냥냥이

불반짝이슈즈를 염원하던 대라공주의 시절을 지나 완주에 산다. 여기. 부들못 뜸봉샘 순지마을. 택배 주소에 '마을 끝 한옥 화가의 집'이라고 적는다. 부지런한 딱따구리와 집을 나누고 꼬꼬 멍멍 냥냥 매에에에 함께 밥을 나눈다. 그림을 못 그리던 시절이 그림이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신화를 쓴다. 여기. 완주.



여기에 꽃이 있어_19X14cm_한지에 수묵담채_2017

작업실이 정말 멋집니다. 이곳에 터를 잡으신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자연에 가까이 자리한 한옥이라 멋져 보이는가 보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남의 집일 때 멋진 거다. 다들 말하길 멋진데 본인은 못 살겠다고 하더라.(웃음) 서울에서 활동하다 이곳에 온 지는 5년 정도 된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려와 살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야말로 피난민처럼 살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2~3년이면 모두 정리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일종의 문화귀향인 것 같습니다. 완주로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리는 부부가 모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도심에 있던 작업실이 작품들로 공간이 비좁아지던 차에 좀 더 여유로운 작업공간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되었고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었다. 남편의 고향이 전주인데 우연한 기회에 이곳을 소개받았고 말 그대로 덜컥 아무런 준비 없이 내려왔다. 남편이 재직하는 학교도 서울이고 나는 시골 생활에 경험도 없고 심지어 시골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말이다.(웃음)

사실 처음 이곳을 봤을 때부터 이곳이 어떤 문화예술적 역할을 할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 집이라면 이렇게 큰 땅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좋은 예술가가 어느 지역에 자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예술가의 활동에 따라 그 지역에 문화적 기여와 발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생긴다. 예술가가 가진 힘이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는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식상한 답변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밖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글짓기대회나 그림대회에서 늘 상을 받았다.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모범생 딸'이니까 그러저런 것도 다 잘하려니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 모범적인 직업군을 기대하셨기에 어린 마음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항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미대에 갔고 졸업 후 화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예전에도 지금도 어린 자녀들의 미술교육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받는데 내 대답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고 뭐든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라는 거다.

작품에서 고양이 그림을 많이 보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금단과선도를들라 | 장지에수간채색
117X91cm | 2012

시골에 살면 사람들이 동물을 준다. 남편이 원해서 여러 종류의 동물을 키우게 되었다. 개, 고양이, 닭, 염소까지. 남편과 달리 나는 애초에 동물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가져오는 부담이 싫다. 그 행위가 감정적 소모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이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어릴 때 물어서 키우던 겸재와 북산(두 마리의 개 이름)이 목줄을 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매일 느끼는 미안함과 아픈 마음이 힘들다.

양생원(고양이 이름)은 남편이 내게 키울 의사를 물었을 때 유일하게 YES한 동물이다. 그 당시가 나에겐 힘든 시기였는데 양생원이 늘 함께 있었다. 고양이라는 동물은 나처럼 게으른 화가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몸가짐이 조용하고 우아하며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애정을 보채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그들은 삶에 큰 위안을 준다. 그건 마치 내가 양생원을 안고 있는게 아니라 양생원에게 내가 안겨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 좋아하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게 한다. 말하자면 양생원은 나의 뮤즈인 셈인데 그림에 나타나는 양생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기도 한다.

예전 작업에서 나의 분신이었던 캐릭터 '비키니소다'처럼.

예전의 작품들은 눈이 큰 소녀가 주로 등장을 하던데 작품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 소녀가 '비키니소다'이다. 캐릭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편리한 점은 많은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작업에서 섹슈얼리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매우 부드럽고 유쾌하게 풀어낼 수 있다. 귀여운 비키니소다가 우뚝 솟은 거대한 남근형상의 섬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뚫고 광채를 봄으며 매화가지를 들고 걸어 나오거나, 그 꼭대기에서 선그라스를 낀 채 유유히 튜브를 타거나 하는 모습을 보고 불경스럽다거나 야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유머와 위트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웃음. 그림에도 일정 부분 그 장치를 한다.

비키니소다를 통해서 내러티브가 있는 작업을 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림 안에 많은 함의와 우회적인 구술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전에 하던 작업에 비하면 엄청 수다스러운 그림이다. 반면 작업의 형식은 전통 채색화로 엄격한 스타일이었다. 그림에 글을 넣기 시작했는데 글씨도 쓰는 게 아니라 일일이 선을 따서 그리는 식이다. 이런 형식이 팝적이면서도 고전적인 느낌을 띄게 한 부분일 것이다. 이후에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을 담은 시리즈가 나왔고 '최종병기 그녀' 시리즈로 전시를 준비하다가 완주에 왔다. 아직도 비키니소다 작품들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다시 작업을 안 할 건지 묻는다. 이제 조금은 어른이 되었으니 다른 모습의 내

가 나올 것이다.

많은 작품 중 대표작을 하나 꼽으면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직은 나이가 젊은데 대표작이라니 부끄럽다. 좋은 작업을 하고 싶다.

완주로 와서 작품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이곳은 방을 나오면 바로 바깥이다. 작업실에 앉아서도 생강밭 파밭 산과 하늘이 보인다. 바람소리 새소리 곤충소리 쉼 없이 소란한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 내 삶에 없었던 동물들과 나무와 꽃과 풀이 있다. 양파를 오이를 홍시를 들고 오는 시골 사람들이 있다. 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들이 좋다. 그런 좋은 생각들을 그린다.

도심의 막힌 공간에 작업실이 있을 때는 작업이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도 괜찮았다. '대라공주'라고 불리던 삶이 있었다. 이곳에 오게 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다. 시골에 살게 되었다.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밥을 했다. 매일 크고 작은 공사를 했다. 집은 공사하는 인부들과 구경하는 동네 주민들과 놀러 오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다.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겨우 집 같은 집에 살게 되었을 즈음에 너무도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다. 갑자기, 그리고 불편하게 펼쳐진 상황들이 모든 것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 해오던 작업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날마다 드로잉 작업을 했다. 덕분에 출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현재 책을 편집 중이다. 지금은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 설레고 기대가 된다. 내 그림인데. 웃음

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예술배낭여행을 다녀왔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남편과 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로 이름을 써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 프로젝트를 '예술배낭여행' 사업에 응모했고 감사하게 일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을 수 있고 독창적이며 아름답다. '프로젝트 이름'은 세계 어디서든 한글을 통해 소통하는 퍼포먼스이다. 돌아온 후에는 결과 보고 형식의 전시도 가졌다. 진행되는 형식은 일종의 버스킹과 같은데 자세한 내용과 현장의 느낌은 완주문화재단에 기고했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 "실례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아티스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사는 시작된다.
> 공원 벤치, 미술관 앞 계단, 등대의 입구, 타임스퀘어 광장, 지하철, 스테튼아일랜드를 오가는 선상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한국의 글씨로 한지 위에 쓰여지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감탄한다.
> 이름은 모두가 가진 고유한 자신이다. 한 명의 이름을 쓰는 동안 우리는 적어도 열 번 이상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는 빛이 난다. 우리는 순간이지만 따뜻한 유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디서든 다시 만나고 싶은 느낌이다. 물론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설명했는데 퇴짜를 맞기도 한다.
> 미국은 워낙 길에서 돈통을 앞에 두고 예술하는 일이 흔하다 보니 얼마냐고 묻기도 하고 팁을 주겠다며 돈을 꺼내어 드는 사람도 있다. 애초에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주려던 계획은 아니었지만 기대 어린 사람들의 눈빛에 우리는 같은 이름을 두 번씩 써야 했다.
> 우리의 프로젝트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를 넘어서는 소통을 이야기한다. 거창하게 계획된 고정된 것이 아닌 소소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예기치 못한 여행과 같다.
> 2018. 7. 1. (완주문화재단에 보낸 기사 중)





이름 프로젝트를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그간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이름' 기획서를 홍콩 한국문화원에 냈다. 그 결과 2019년 홍콩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홍콩은 K-pop의 열기가 뜨거운 곳인 만큼 우리의 프로젝트에 호응이 좋았다. 뉴욕에서는 버스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홍콩에서는 문화원 내에서 치러진 만큼 직접 참가자들이 한글로 이름을 써 볼 수 있게 했다. '프로젝트 이름'은 어디서든 종이와 붓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름과 한글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즐겁다.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다.

완주에서의 프로젝트나 전시 등 계획이 또 있는지?

현재 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로컬푸드, 예술과 놀다'라는 사업에서 만드는 책 〈숙이의 채소정원 이야기〉의 캐릭터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

12월 부터는 우리 마을의 경로회관에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글 배우기, 그림 그리기, 문학 읽기 등의 수업을 완주의 지역 내 전문가들과 함께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이 기획은 내가 사는 곳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고 예술가로서의 나눔과 기록이다. 단순하게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나 나름의 봉사이지만 좀 더 나아가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 형태의 기록물을 남기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이다. 예술가의 일 중에 기록자로서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미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었다. 거창하지 않지만 소소하고 인간적인 기록들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술작가로서 윤대라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진행 중입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한 문장' 아닌가? 웃음

글 · 박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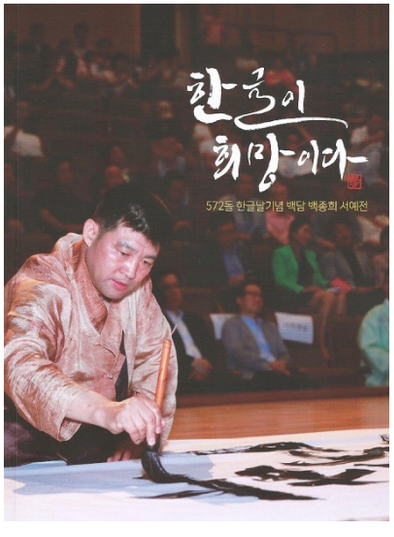
12

백종희

힘있게 높이높이 날으는 글씨의 힘

#시각예술#서예 #구이 #필묵비상

꼬불꼬불한 글씨의 관인 모두 바꿔라. 한글을 재조명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하고 역동적인 희망을 심어주는 서예가. 진정한 우리의 글씨를 사랑하는 작가가 여기 있다.



서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예가 무엇인지 흥미가 참 많았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전대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격려 엽서를 받고 나서 서예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서예란 어떤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예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서예를 하고 있으면 나의 삶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요 근래 서예는 대중적인 장르와는 멀어졌는데, 묵묵히 한길을 걸어오게 하는 동력은?

원동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선은 좋아하는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할 수 있는 거 같다. 어떠한 계획에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다.

서예를 어디서,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배움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별다르게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학교선생님께 배워왔고 여산 권갑석 선생님께 사사를 받은 적도 있다.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큰 스승님이시다.

서예를 익히고, 지금까지 서예가로서 어떻게 보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예를 하면 글씨를 쓰면서 느끼는 추진력과 넘치는 힘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서예를 볼 때 넘치는 힘과 추진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활동은 어떤 것인지요?

현재 서예교류협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서예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 전시회 중 '필묵비상'이란 주제로 하신 전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필묵비상' 이라는 것은 주제에 맞게 작품을 27여 정도를 신아출판사, F갤러리에서 그야말로 필묵이 비상하는 거 같은 글씨들을. 전시하게 되었다

다수의 전시 중 가장 기억 남는 전시가 있나요? 혹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품, 대표작이라고 꼽는 작품이 있다면?

지금 애착이 가는 것은 '비상'이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날아가는 느낌을 주어서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날 수 있다는 어떠한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필체는 여유로우면서도 강하고, 강한 듯 하면서도 부드럽다는 평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체를 설명한다면?

내 필체를 굳이 설명하자면 여유로우면서 강하면서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것은 글씨를 쓸 때마다 달라지기는 한다. 때로는 부드럽고 힘이 필요한 때에는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선생님의 호는 백담이십니다. 어느 분이 지어주셨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요?

백담이라는 뜻은 1980년대에 지어진 것이다. 처음엔 동네 훈장님께서 지어준 '치원'이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왠지 만족할 만큼 글씨가 써지지 않아 바꾸게 되었다.

'백담'이라는 호는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으로 나 스스로 지은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호를 바꾼 뒤로는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서예에 정진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다.



완주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했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완주에서 개인전 '한글은 희망이다', '묵향산책' 등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조주삼 선생님의 전북을 대표로 쓴 시가 있다. 그 시는 위봉폭포를 주제로 하여 완주 경각산을 시로 만든 글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완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완주의 노래를 판본체로 쓰신 작품이 있다 들었습니다. 완주를 소재로 작품을 하게 된 의미가 있으신가요?

호남가가 있는데 완주를 주제로 한 호남가가 있는데 호남가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화폭에 백담민체로 완주를 많이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완주에도 이러한 작가들이 있다는 것을 도내는 물론 도외까지 알리고자 시작했다.

최근 수상하신 소식 들었습니다. (2021회 친철봉사대상 / 2017~2019년 입춘첩 무료 제공)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요?

나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에 '입춘대길' 이라는 휘호를 2017년에 2017장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018장 이렇게 년도와 똑같은 숫자로 써서 전라북도를 비롯해 완주군에 일부 기증도 하게 되었다.

한글 조형성 연구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연구인지 ?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시작하게 되었다. 한글을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아! 한글도 참 아름다운 글씨구나 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조형적으로 가깝게 서예를 친근하게 생각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곳

에 있는 작품들이 한글의 조형성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

주로 구현하는 서체에 이름이 있으신가요?
백담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예서체라고들 말한다.

한 작품에 소요되는 작업기간은? 또는 매일매일의 작업시간은?
한 작품을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한 달정도 되는데 글씨를 쓸 때 그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나타날 때까지 쓴다. 사선지를 약 200~300장 정도 소요될 때도 있다

서예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감상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되어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구성 어울림, 두 번째는 글자의 조형성, 세 번째는 획의 힘이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점의 위치라든지 글씨의 크기 같은 것이 잘 어울리는가 또 전체적인 글씨의. 느낌을 보면 된다.

선생님께도 슬럼프가 있으셨나요?
글씨가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선지에 한일자부터 다시 한 6개월 정도 쓰기 시작했다. 한획 한획 어떻게 쓰여지는 가를 생각하면서 쓰게 되었다.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된 기간이 약 10년 정도 걸린 거 같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서예에 관한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서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후대에게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완주에서 전북에서 활동하면서 문화예술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 공공기관에서 예술작품(서예작품)을 많이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 예술가들의 시급한 문제는 생활고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에서 구입을 하여서 걸어놓으면 예술가들한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도 될 수 있고, 작품들도 널리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글 · 정량미

13

소병진

천년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존, 전승하는 소목장

#시각예술#공예 #용진 #소목장#전주장#무형문화재

그의 나이 15세, 7남매중 넷째로 태어난 소병진은 부모님의 고생을 나눠지고자 가방대신 대패를 들었다. 당시 전주 최고 가구점이던 '중앙가구'에서 기술을 배우던 중 선배의 눈에 들어 동양 최대 가구점이던 서울 인사동 '동일가구'로 기술 유학을 가게 된다. 이때 인사동의 어느 갤러리에 전시된 고가의 '전주장'을 직접 보고 복원의 꿈을 키운다. 최고 소목 장인이 되겠다는 다짐 하나로 가구사업과 전주장 복원사업을 병행. 결국 120년 만에 '전주장' 복원의 업적을 이룬다.



나무 다루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완주군 용진면은 과거 목수의 고장으로 유명했다. 1960년대 작은 면소재지에 농방이 있었고, 1970년대 후반까지 소씨 가문에서만 대목, 소목을 합해 30여 명의 목수가 있었다. 나고 자란 환경이 '목수의 고장'이다 보니, 집안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보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목수의 길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대목장은 큰 나무를 다루며 절이나 한옥을 짓는 곧 건축 일을 하는 목수를 말한다. 소목장은 집을 짓고 나면 그 안에 세간살이 가구나 목조 기물 등 생활에 쓰이는 물건을 만든다. 소목장과 대목장 모두 똑같은 목재를 다루는 일이며, 기술도 있지만 '가구'가 좋아서 전문 소목장이 되었다.
목재를 다루는 직업 중에 가구만 유독 '藝(예)'가 들어간다. '가구공예', '소목공예' 라고 부른다. 대목이나 창호는 건축분야에서 '대목장', '창호장' 이렇게 부른다.
바로 소목은 기술보다 예술이 가미되어야 한다. 소목공예는 매일 쓰는 물건이다 보니 미세한 실수도 바로 보인다. 큰 대목은 작은 오차가 있어도 높이, 위에 있으니 안보이고, 흙으로 메꾸면 또 안 보인다. 소목장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게 된다. 올곧은 목재와 숨을 같이 쉬어야 하는, 그게 좋아서 소목장이 됐다.
조선시대 전주는 전주관찰사와 고급관리가 많고, 부호와 양반이 많은 탓에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 고급가구 소비가 많았다. 덕분에 타 지역에 비해 가구 공예가 발달하게 됐다.

전주 중앙가구 & 인사동 동일가구
완주 용진의 15살 소년이 '농방쟁이'에서 대한민국 '명장', '무형문화재'로 발전하기까지는 기술과 성실함을 받쳐준 돌다리와 같은 감사한 분들이 있었다.
전주중앙가구 김석환 사장이 제일 고맙다. 거기서 일을 시작하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내 스승님인데, 고향의 30여 명 목수 중에 유일한 이씨. 이해민 씨 그 양반한테 일을 배웠다. 그리고 나를 서울로 유학 보낸 유춘봉 씨 덕분에 전주장도 만날 수 있었다.
유춘봉 씨는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목수로, 전주중앙가구점 김석환 사장은 전주 가구 발전을 위해 유춘봉 씨를 스카웃했다. 유춘봉 씨는 어린 나를 지켜본 끝에 '큰 세상 나가서 큰 목수가 돼라' 며 서울



느티(龍目)전주버선장



먹감(雲岳紋) 전주반닫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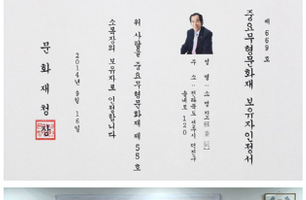
느티(龍目)전주애기삼층장



먹감경상



함세트









인사동에 위치한 '동일가구'에 소개했다. 당시 인사동 동일가구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종업원 500명의 일본을 능가하는 동양 최고의 가구 공장으로 '농방쟁이', 목수들의 꿈인 곳이다.

동일가구는 국내반, 청와대반, 수출반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매일 공방 견학을 올 만큼 대단했어요. 김동식 사장님이 '우리나라 최고 좋은 공방'을 만들었다. 가보니 한번도 보지 못한 방식하고 보도 못한 가구가 있었다. 이 동일가구에서 최고 기술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다. 동일가구에서 3년을 지내면서 가구 기술자가 됐고, 그 곳에서 운명처럼 '전주장'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전주장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전주장은 전주의 양반, 부호들이 선호했던 가구이다. 다른 지방 가구보다 크기는 작지만, 가구 안에 비밀 문갑이 숨겨져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또 양반들이 집으로 목수를 불러서 방 크기나 쓰임새에 맞게 주문 제작해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이 거의 없다.

1960년대 후반 인사동 거리에서 이 '전주장'을 처음 봤다. 쉬는 날 인사동에 나갔는데 가구쟁이 눈에 가구만 보였다. 예쁜 장이 있어서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값도 비싸고 한문으로 전주장(全州欌)이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전주 사람인데 처음 보는 농이었다. 주인에게 물었더니 조선시대 전주에서만 생산되었던 장이라네. 내가 전주에서 왔는데? 전주 어디냐고 물으니 전주 근처 완주라는 게 아닌가! 완주 어디요? 했더니 용진이라고 했다. 내가 용진 사람인데? 태어나서 처음 본 농이었다. 거기서 자극을 받았다. '전주장'은 우리 선조, 용진 개바우 것이다. 내가 복원해야겠다. 그때부터 월급 받으면 나무를 사서 시골에 쟁여 놓았다. 나무를 20년간 말려야 전주장을 만들 수 있다.

1984년부터 전주장 복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20년간 재료 나무를 말리고, 본격적으로 1992년부터는 복원에 돌입해 2007년 120년 만에 조선 한식가구 전주장(全州欌) 복원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공으로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제 163410호)을 받았고, 지금까지 45종의 '전주장'을 복원해오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 & 명장 & 장인

보통 10년의 시간은 배워야 된다는 목수. 내 경우 단 2년 6개월 만에 배웠다. 애절하니까, 간절하니까 빨리 됐다. 돈 때문에 포온이 져서, 우리 어머니 새우젓갈 팔러 다니는 것도, 아버지 고생도 그만하게 하고 싶었다. 열심히 했고, 물론 첫 단추도 잘 끼웠다. 시간낭비 않고 최고 좋은 공방에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환경을 탓하지 않고 1965년 처음 목공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55년을 달려온 덕분에 1992년 목수생활 20년이 됐을 때, 대한민국 명장(名匠) 가구제작 1호 선정되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는데, 최연소 명장이었다.

2012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 19호 전주장 보유자 인정을 받았고, 2014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인정을 받아 이 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래도 아직 이뤄야 할 일이 남았다. 마누라는 빌려줘도 연장은 안 빌려준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목수에게 연장은 소중하다. 처음 기술 배우면서 리어카에 싣고 다녔던 연장부터 천점이 넘는 공구를 간직할 박물관과 후학에게 전주장이 천년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고 싶은 기술보급, 기능전수를 위한 전수교육관까지 완벽하게 이뤄내고 싶은 꿈이 있다.

사실 어릴 때부터 팽이를 잘 깎고, 연도 잘 만들어 어른들에게 '목수해라'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리고 목수를 해서 너무너무 좋다. 목수일 해서 명장도 혀, 문화재도 혀, 교수도 혀, 안 해본 것이 없다. 머리와 두뇌와 팔과 다리를 같이 쓰니, 치매도 안 걸리고 정년이 없다. 이 일이 천직이고, 죽을 때까지 대패가 갈 때까지 하려고 한다.

글 · 김경화

14

최민주

제 조각들이 당신의 섬에도 닿길 바랍니다

#문학#시#동화 #삼례 #카멜레온#고백#딸기

학창시절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했다. 국어국문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시'에 대한 매력에 빠졌다. 대학 졸업 전 얻은 첫 직장에서 남의 창작을 돕는 일을 하다가 직접 창작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우석대 문창과 대학원에 진학, 시 공부를 했다. 두 번의 신춘문예에서 시 부분 최종심에 올랐고, 여전히 신춘을 위한 시와 시집 출간을 위한 시를 쓴다. 두 권의 동화를 출간하면서 이름 최민주 대신 작가 최섬으로 활동명을 정했다.



우리란 섬(최섬 그림)



동화 「카멜레온」,「고백」

'잘 하는 것'과 '잘 하고 싶은 것'

초등학교 4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중3 겨울 방학까지 5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화가의 꿈을 품고 예고 진학을 위해서였다.

중학교 시절 수채화 부분에서 전라북도 금상을 수상할 만큼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부모님은 예고 진학을 막아섰다.

화가가 되고 싶은데 쓸데없이 공부를 잘했다. 부모님은 상을 받아와도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 그림에 재능이 없다고, 취미로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진로를 두고 부모님과 많이 다퉜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싸웠다. 엄마는 교대 진학을 원하셨고, 아빠는 기자나 아나운서를 원하셨다.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게 되었다.

대학에 가서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3가지를 전공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떠밀려 방송프로듀서, 더 구체적으로 드라마 프로듀서의 꿈을 키우며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 했지만, 스스로 성격이 대중적이지 못함을 깨달으며 국어국문학을 복수 전공했다.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창작과 비평' 이라는 메이저 출판사에 취직했다. 청소년 도서 편집 일을 하면서 자신 안에 숨어있던 욕구를 들여다보게 된 시기이다. 남의 창작을 돕는 편집일이 아니라, 내가 창작자가 되고 싶었다. 창작을 하고 싶다는 갈망을 그때 느꼈다.

출판사에 취직한 후 학교에 나가지 못했고, 출결 문제로 F학점이 나올 위기를 맞게 되었다. 졸업을 위해서는 출결 대신 리포트 대체를 해야 했다. 그때 시인 김승희 교수의 시 수업 과제를 내기 위해 시집 읽기와 시 쓰기를 반복하면서 시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회사 일보다 시 쓰는 일이 재미있어서 업무보다 '시 쓰기'를 우선 했다.

이 시기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해내다 결국 과부화가 걸려 몸이 배겨내지 못했다. 아픈 딸을 서울에서 전주로 데리고 온 부모님은 딸의 욕구를 그제야 아셨을까? 딸의 화가 꿈을 반대했던 아버지는 시에 빠진 내게 안도현 시인을 소개해 주셨다.

서울에서 지쳐 있을 때 김승희 교수님의 수업은 문학을 즐기고, 나누고, 발표하면 학점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었다. 시인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산 시집의 표제시 〈희망이 외롭다〉를 읽고 시적 자아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시 쓰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건강을 회복한 2015년. 우석대학교 행정문화대학원 문예창작과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김승희 교수님이 제게 시를 시작하게 해주셨다면 안도현 교수님은 제 시를 키워주셨다. 사자 새끼처럼 아주 강하게 키우셨다. 시 못 쓰면 아예 언급도 안 하시거나 '재미없네!' 솔직히 말씀해 주셨다.



백성 '민' 민주 '주' 최民主, 최暫(섬)이 되다.

백성 '민', 민주 '주'. 아버지께서 기자가 되라고 지어주신 '민주'라는 이름이 마뜩하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과 전교조 활동을 하신 아빠와 친구 두 분은 같은 해에 태어난 딸들의 이름을 모두 '민주'라고 지었다. '남을 위해 살라'는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지만 남 앞에 나서고, 드러내기보다 고립되고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은 갈망 컸기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2018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본심에 오른 시 「그림자 동물원」는 본명으로, 201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본심에 오른 「국경에 서서」는 외할머니 성함 '유은님'으로 본심에 올랐다.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얻은 이름이 최섬(Island)이다.

왜 '섬' 일까?

내가 누굴 도와주고, 나서서 다가가고 찾아가고 하는 것보다, 제 고립된 공간에 내가 내 걸 예쁘게 꾸미면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다고 느꼈다. 내가 섬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찾아 주는 섬. 그런 예술, 문학을 하고 싶었다.

전공은 신문방송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까지 세 가지나 된다. 그림까지 그리니 무언가 섞어서 효과 내는 일을 잘하는 것 같다.

그 결과물로 두 권의 동화가 있다. 직접 쓰고, 그리고, 독립출판을 했으며 원화 전시회를 하고, 낭독회도 했다.

시로 못 담아낼 이야기는 동화로 쓴다. 첫 번째 동화 『카멜레온』(2019 출판)이 그렇다. 서로 다른 색인 두 카멜레온이 만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색이 변하는 내용은 시보다 동화에 어울린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번째 신작 『고백』 은 딸기꽃이 소녀에게 다가가고 싶어 벌어지는 이야기로, 관계로부터 오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동화 『고백』 은 2019 완주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 중, 작은예술 지원 작품이다.

이제 동화작가로 불리고 소개 되지만 애착이가고 잘하고 싶은 장르는 두 번 생각 안하고 '시'이다. 그래서 '준비생', '예비'가 아닌 '시인'이 되기 위해 시 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신춘문예 최종심에 두 번이나 올랐지만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시인이 되는 게 당연하다. 등단용 시도 쓰고, 시집용 시도 쓰고 그러고 있다. 동화는 지역이나 독립 출판물로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지만, 시 만큼은 메이저에서 등단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앞으로 쓰고 싶은 시는 동화 같은 시도 싫고, 소설 같은 시도 싫고 딱 시로만 쓸 수 있는 시다. 서사보다 비유가 담긴 시를 쓰고 싶다.

문학을 하며 '초고' 쓸 때가 가장 행복하다. 10대 시절 그림을 포기하면서 겪은 갈등 탓에 글은 재능이 없어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있다. 글을 쓰고, 시를 쓰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면 다른 예술 직업에 비해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고 청탁이 꾸준히 들어오는 날이 곧 '성공'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글 · 김경화

15

김광식

삶의 조화로운 구도, 전북 사진의 반석

#시각예술#사진 #소양 #중국소주10대명원 개인전#리얼사진#추상사진

전북 출생으로 1974년 전북일요사진회를 결성, 1978년 사진협회 입회 이후 1985년 개인스튜디오 경영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전국제물포사진대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986년 초대작가가 되었다. 1981년부터 전주우석대학 사진회 지도, 전주제지 사진동호회 지도 및 1990년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사진학 강의를 개설하여 23년간 강의하는 등 전북지역대학의 사진학 강의와 수많은 일반인 대상의 사진 강의를 해왔다. 2016년에 한국예총 예술문화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완주 소양으로 이주 후 2014년 완주사진협회를 창립하여 지부장직을 맡고 있다.



2014년 사진촬영 수업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진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대학에 입학한 이듬해 1964년 독일제 롤라이 플렉스 120mm 카메라를 얻게 되었다. 일곱 형제 중 장남으로 형제가 많은 편이었지만 은행원이었던 부친 덕에 형편이 어렵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사진현상소가 드물어 현상방법을 배워서 작은 방에 군용담요 등으로 암실을 만들어 놓고 밤에 직접 필름현상을 하기도 했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어 밤새는 줄 모르고 작업했었다.

대학에서의 강의는 언제 시작하셨는지 또한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주 일요사진회와 전북사진협회, 사진연수회 등을 결성하여 활동해오다가 1985년 제물포 사진대전에서의 최우수상 수상과 86년 초대작가 등단 등 사진작가로서 나름의 저력(底力)을 쌓아가던 중 대학에 있던 친구로부터 강의 해 볼 것을 권유받았다. 1990년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교양과목 1클래스였던 것이 5클래스까지 증가되었고 이후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에서의 강의로 연결되었다. 일반인 대상의 전주제지, 현대자동차 등 기업에서도 강의하였다. 말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라 ROTC 장교 시절 정해진 강의시간보다 일찍 마치게 될 때면 어색하고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일화들을 찾아 적절히 안배하니 강의가 좀 더 즐거워지고 풍성해졌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대중의 기호에 맞추는 사진기술과 일요 사진회와 연수회 모임 등으로 작품사진을 병행하고 있었던 점이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 같다. 완주로 이주한 후 최근 소양의 작은 교육단체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사진을 강의했었다.

가르치신 학생 중 선생님처럼 사진작가나 관련한 일을 하는 제자가 있을까요?

전북대학교를 비롯하여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강의, 전주제지 직원교육 등을 통해 사진협회에 입회



2013년 일본사진전 작품설명 모습



2013년 사진작품 평가수업



제7회(2018) 중국소주10대명원 사진전

한 제자들이 많다. 가르친 이 중 사진부기자도 있고 대학 강의하는 제자도 있다. 현재까지도 사진협회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

사진기술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겠지만 혐오스럽다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전의 책이나 기록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이어져오는 것을 보면 뭔가 특별함이 있는듯한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사진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사진은 현실을 그대로 옮겨오는 작업이다. 사진작가의 시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점이 역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물론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사진의 경우 일부 다를 수 있다. 그림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리거나 첨가하기 때문에 사진과 비교되는 점이다. 문학이나 그림처럼 혼자 작업이 가능한 것도 좋은 점이다. 또한 풍경이나 존재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한다. 원하는 컷을 위해 쉼없이 관찰하고 움직이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활동이 왕성하던 시절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 풍경사진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요즘은 전문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사진촬영의 도구들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만큼 전문 사진작가들의 영역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비가 다양해지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점이다. 순간적으로 혹은 갑자기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 휴대폰 카메라는 유용한 장비이다. 인구 대부분이 사진작가인 시대에 옛날 혹은 전문가용 카메라만 고집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으로 교체하였는데 앞서 말한 상황들을 대비해서이고 잘 활용하고 있다.

영역을 초월하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훌륭한 기록물이란 어떤 것일까요?

역사의 현장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기록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현상이나 특별한 상황을 계속 기록하면 그것은 역사적 자료가 되고 특수한 경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실제 존재하더라도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 어려운 풍경을 카메라를 통해 보신다거나 선생님이 깊이 탐구하는 시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편이다. 사진은 수직, 수평, 삼각형, 원형 구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나의 경우 균형감이 있어 조화로운 작품을 추구하는 편이다.

사진작가의 위치는 대부분 축제나 즐거움을 비롯한 현장에 늘 함께하지만 정작 기록되지 않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남아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이 아쉽다. 중요한 현장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기록하는 입장이라 단체사진의 경우에도 대부분 함께하기 어렵다. 사진작가의 이름이 남긴 하지만 현장에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여 아쉬움이 크지만 어쩔 수 없다. 잘 찍혀진 사진 한 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전북 문화계에서 가르침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혹은 걸어오신 길이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ROTC 장교로 임관하였다. 1971년 육군대위로 제대한 후 1974년 전주 일요 사진회라는 모임을 창립하여 지역에서 사진 작업을 하는 선후배들을 모았고 전북 최초로 전북사진연수회를 만들어 선암사를 시작으로 송광사 등 많은 곳을 다니며 작품사진을 촬영해보며 동료들과 함께 실력을 쌓아갔다. 나의 스튜디오는 1985년 갖게 되었는데 렌즈 등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당시 웬만한 사진관을 10개 정도는 차릴 수 있을만한 돈으로 장비들을 마련했었다. 많은 활동이 있지만 1986년 초대작가가 되었던 것과 제물포사진전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청와대 만찬에 초대되었던 기억이 크다. 완주에서는 2014년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완주지부를 만들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재 소양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진행하신 여러 활동 중 기억에 남거나 특별한 감정을 가졌던 작업이 있을까요?

완주는 자연환경과 먹거리를 누릴 만한 곳이 많은데도 타 지역에 비해 제대로 된 홍보나 사진자료가 부족한 점이 안타까웠는데 완주군에서 위탁을 받아 완주관광사진 전국공모전(완주 9경 8품 8미)을 실시하고, 작품집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먹거리의 경우 맛있어 보이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여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현재까지도 축제나 완주군 홍보에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다문화가정 가족사진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지속되었으면 하는 일 중 하나이다.

선생님과 몇 차례 인터뷰 작업을 같이하며 사진 분야 역시 시대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혹은 지켜야 할 기본소양 등이 있을듯합니다. 사진이 갖는 고유함과 사진작가가 지켜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무엇보다 가정과 맡은 일에 있어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왔다. 가정에서의 조화가 일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었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도 좋은 점으로 작용한 듯하다. 성실은 예술 뿐 아니라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인 듯하다.

사진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소망이 있을까요?

대학 등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 전주의 경우 사진인들이 증가되기도 하였지만 후진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완주의 경우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아 보이며 도움이 되려 노력중이다. 또 하나는 일본전통조경과 중국정원 사진전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정원전을 꼭 해보고 싶다. 조경사진의 경우 두 가지 공부가 된다. 사진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구도와 광선 활용법 사진을 가르칠 수 있고, 조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교육자료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정원에 대한 사진 역시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

전북 예술계 어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이나 예술지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실력을 쌓아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도 전주지역의 선배에게 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실력을 늘려가다 한계가 보여 당시 서울의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나의 작품을 보여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부단히 해왔었다. 성실하게 하다보면 실력은 따라온다.

초대작가가 되는 것은 사진작가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정하고, 소재를 선택하여 많은 작업을 해보기를 권한다. 사진예술인에게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지원이다.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지원이 다양하게 많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완과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는지 현장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아 보인다. 특히 실력이 검증된 예술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진이 꼭 필요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져야 하는데 최근 완주에서 작업한 다문화가정 가족사진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진 작업을 하는 이들은 재능을 사용하며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고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되는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글 · 김진아

16

소덕임

어울림의 마당, 우리들을 품어주는 소리꾼

#공연예술#국악 #?? #난타#민요#온누리예술단

전통국악의 계승발전과 저변확대에 힘쓰는 누구보다 더 국악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진정한 풍유를 아는 소리꾼이자 춤꾼, 그녀와 더불어 한바탕 놀아 보자



보통 판소리는 어릴 적부터 시작하는데 언제, 어떻게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우연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 악기사에서 나오는 우리 음악을 듣고 도립 국악원을 찾아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그 학원을 접기까지 했다. 그때 당시 사회적 인식과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나 커서 5년 동안 쉬게 되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 해서 백제예술대학에 입학해서 국악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깐 국악을 제대로 시작한 때는 30대이고 비교적 좀 늦은 편이다.

지난 3월에 높은 득표율로 전북 국악협회 제33대 지회장에 당선되셨는데, 내걸었던 공약은?

공약은 예산확보를 우선으로 했다. 전국을 다니면서 심사를 하고 공연활동을 하면서 전북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예산확보로 투명하게 정책을 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했다. 또 하나는 전국에는 대부분 큰 대회에 대통령상이 있는데 전북에는 없었다. 그래서 대회의 품격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국악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매년 한 번이라도 '국악인의 밤'을 만들어서 전통문화와 소리를 지켜온 분들을 위해 공로패라도 드리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다. 사실 우리 것을 배우고 이어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회장님으로서 계획,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 국악계를 위한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국악인의 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지회를 돌면서 어려움을 듣고 시정하려고 한다. 특히 완주에는 8대 명창인 권삼득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다.

소덕임 선생님을 대표하는 소리는 어떤 것인지?

아직은 저의 대표적 소리라고 딱히 말씀드릴게 없을 것 같다. 다만 소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원래 시조를 했는데 판소리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 내년에 심청전 완창을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저는 지금 민요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선생님이 하시는 소리는 어떤 바디라고 해야 할지?





동초바디라고 하는데, 문화재이신 김소형 선생님께 심청전을 배우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주로 동초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른 예술처럼 국악도 자기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지?

예술을 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리를 배우면서 예절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옛말에 '바른 말도 어른한테는 말대답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새기면서 웃어른 공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제가 3년 전에 권삼득상을 받은 것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백제예술대에서 공부하셨고, 완주에 거주하면서 활동하시는데, 완주에서의 활동은?

강사를 한 20년 하고 있다. 요즘엔 타 지역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회장이 되면서부터는 많이 줄이고 있어서 완주에서 활동을 못해 매우 안타깝다.

대표를 맡고 있는 〈온누리예술단〉의 활동은?

전북국악협회 지회장직을 맡기 전까지 온누리 대표를 했다. 온누리예술단은 공연을 주로 하고 있다. 와일드축제나 지평선축제, 무주반딧불축제 같은 지역 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에도 9월 27일에 있을 와일드축제에서 공연이 잡혔다.

판소리 고법은 무엇이고,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수하고 계시는지?

저마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친다. 섬세하게 한 대목 한 대목 구체적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기본에 충실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연습, 연습이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현장실습을 많이 한다.

전북 국악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모든 회원들에게 기회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싶고, 소리를 먼저 하시는 선배님들을 존중하면서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고, 국악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일류명창과 동아리와의 상생도 꿈꾸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 예향의 고장이 전북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국악인 소덕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여러 곳곳에 소외계층이나 열악한 곳에 찾아가서 국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리고 싶고, 국악인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듣는 국악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같이 '얼씨구나!'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

대중들에게 어떤 국악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공연도 하고 싶고, 더 나이 들면 남편과 함께 경로당을 찾아 공연봉사를 하고 싶다. 훌륭한 사람보다도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는 사람,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꿈이다.

글 · 정량미

17

김광열

몽상가로 남고 싶은 꽁냥장이

#시각예술#설치#디자인#기획 #봉동 #꽁냥장이협동조합#축제#문화기획

홍대 앞 건축, 인테리어 회사 대표이었던 과거. 꽁냥장이 협동조합 대표인 현재. 2011년 여행 중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처음 와 본 완주에 귀촌했다. 이왕 노는 것 더 신나게, 제대로 놀기 위해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에 거주와 창작, 놀이터가 가능한 예술촌을 직접 투자, 설계, 시공하는 중이다.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후배들이 그를 따라 완주로 귀촌해 왔고 혼자 놀기 심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잔 마음에서 2013년 〈꽁냥장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귀촌 _ 꽁냥장이협동조합, 완주지역공동체협의회

클럽을 워낙 좋아해서 왕년에 직접 서울 홍대에서 클럽 운영도 했고, 건축과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 놀기도 신나게, 일도 바쁘게 하는 편이라 주변엔 늘 사람이 많았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 전라북도 완주군으로 귀촌하게 됐다. 여행을 다니던 중에 완주라는 지역을 알게 됐는데, 유일하게 아는 지인이 없어서 완주로 내려오게 됐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웃음) 저를 따라 완주군에 내려온 사람들이 18명 정도 되고, 같이 활동하는 인원도 15명이나 된다.

완주군에서의 활동?은 놀면서 사는 거죠. 일단, 노는 것은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전부 노는 거죠. 음악 듣고, 술 마시고, 축제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 문화기획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활동이고, 일이고 결국 노는 거죠. 일과 휴식을 구분 짓지 않고 전부 '노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일 자체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 노동, 삶 하면 고단하게 여기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삶이 다 즐기는 게 아닐까.

일이 끝나면 놀고 싶다가 아니라,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상태에서 즐기는 거고, 일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즐기고 산다.

축제 _ 9월부터 12월까지 성수기

완주군에서 재미나게 노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축제 기획이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 〈완주 프러포즈축제〉, 〈어울렁 더울렁 축제〉, 〈전주 독서대전〉 등의 축제의 경관사업 연출을 맡아 하고 있다.

1년 중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축제 기간이 제게는 '성수기' 이다. 최근에는 완주군 축제뿐 아니라 전주, 서울까지 활동 무대가 커지고 있다.

처음 문화기획자로 '축제'에 관여하게 된 건 완주군에 내려와서 처음 한 행사였다. 〈귀농귀촌 협의회 한마당 축제〉에서 그냥 전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달팽이 모양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연출의 스타트였다고 볼 수 있다.

저희가 연출한 축제들에서는 '꽁냥텐트'라는 아이디어 상품을 볼 수 있다. 세모와 네모가 이어진 집 모양의 철 구조 두 개로 뚝딱, 튼튼하고, 보기에도 고급진 꽁냥텐트로 변신한다. 무엇보다 꽁냥텐트는 축제마다 재사용이 가능한 텐트인데, 이런 기막힌 텐트를 고안하게 된 것은 일회용품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축제 기획하는 것이 먹고 놀고 즐기자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축제 현장에서 일회용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좀 하자 싶어서 현수막도 제가 하는 기획에서는 많이 줄였다. 현수막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 틈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다. 막 거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려한 비주얼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뜻이다.

홍대시절엔 일 년 365일 중 300일을 양복만 입고 다녔다. 하는 일이 펜대 들고 하는 디자이너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모습보다 365일 작업복 입고 있는 현재가 더 행복하다. 뭐 65일 정도는 외출복도 입겠지만, (웃음) 현재의 지금 이 모습이 내 안에서는 양복보다 더 화려하다. 작업복 입고 노는 매일이 저와 친구들에게는 축제이다.

놀이터 _ 봉동읍 구암리 〈꽁냥장이 협동조합〉

지금은 꽁냥장이 맴버 스스로의 재능과 노동력으로 '예술촌'을 짓고 있다. 예술촌이라고 부르니 뭐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 같다. 이왕 노는 거 더 신나게, 제대로 놀아보자고 싶은 마음에서 놀이터를 만드는 일이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놀이터의 확장성이다. 음악도 좀 더 좋은 시스템과 공간에서 들으면 좋듯, 시스템을 갖춰놓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이 쉴 수 있고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함께 놀자는 거고, 더 잘 놀기 위한 욕심을 부리는 중이다.

꽁냥장이 맴버는 목수, 음악가, 손 그림 작가, 삽화가, 사진작가, 요리& 데코레이션, 매듭공예가 등 15명 정도이다. 놀이터는 봉동과 삼례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 함께 모여 살며 창작활동도 같이 하고, 아트마켓, 강좌, 전시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꽁냥장이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귀촌 1년 후인 2013년에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 예술전공자나 거창한 타이틀이 있어야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꽁냥장이'가 될 수 있다.

예술가다, 비예술가다 나누지 않고 예술 재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술을 좋아하면 된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놀 수 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머리로 계산하는 이성적인 것보다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니까 내가 더 하든, 들 하든 이해타산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꽁냥장이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통제라는 것도 없다. 서로에 대한 대화를 통한 작은 약속만 존재할 뿐이다. 놀이터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더 따뜻하고 재밌게 소통하길 기대하고 있다.

보물심기 _ 온 국민이 예술을 사랑했으면

내가 원하는 문화기획의 결과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연출한 축제나 문화 기획 등에는 '일회용 쓰지 말자', '재활용 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다.
다른 곳보다 완주군이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지역이다. 일용용품만 사라지는 축제가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축제는 없을 텐데… 그 시작이 완주군이 되면 좋겠다. 자연을 살리는 것은 욕심내야 한다. 과거 뭘 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뭘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세상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우주로 가겠지만 지금은 지구에서 열심히 살고 싶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 꿈은 줄곧 하나다. 몽상가로 남고 싶다. 그냥 꿈꾸는 사람, 그게 젤 행복하다고 믿는다.
글 · 김경화

18

윤지은
아름다운 영화를 기획하여 사람들을 품다

#공연예술 #미디어#기획 #고산 #너멍굴영화제#림보책방#플래닛완주

농촌이 좋아 무작정 내려왔다는 도시 아가씨의 새침함 뒤에 숨은 웃음이 싱그러운 그녀의 상큼한 웃음만큼이나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책방의 운영자.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데워주고 있는 영화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꿈을 꾸어보자



제1회 너멍굴영화제_궤도를 벗어나다

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 기획자인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린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고산 '청년공간림보책방'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다. 이 공간은 군에서 운영하는 청년 거점 공간이고 삼례에 플래닛완주 1호점, 여기 고산이 플래닛완주 2호점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너멍굴영화제'를 3회째 진행하고 있다.

완주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인지 궁금하다.

이 공간은 작년부터 세팅을 했다. 작년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획팀을 꾸려서 공간디자인부터 내용까지 기획을 하고 만들게 되었다. 너멍굴영화제는 2017년에 귀촌을 했는데, 먼저 내려와 귀농한 친구, 영화감독을 지망하는 후배와 함께 친구의 땅에서 1박 2일 텐트촌 영화제를 열었다. '불편한 영화제'라는 테마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완주 군민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각자 텐트와 음식을 짊어지고 오셔서 너멍굴에서 독립영화를 관람하고 캠핑을 하는 축제다.

최근에 진행된 '너멍굴영화제' 활동은 정말 인상 깊다.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부탁드린다.

직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재미있게 하려면 틀을 제대로 짜보자고 해서 각자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프로그래머 등 직책을 맡아서 각자 자기 할일을 제대로 하자고 해서 시작했다. 집행위원장은 총괄 사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첫 회에는 사실 서울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완주에 대해 잘 몰랐다. 지금은 완주에서 살고 있는 제가 완주군과 행정적인 일을 연락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완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너멍굴영화제'를 이곳에서 갖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주신다면?

독립영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지역에 독립영화를 좀 더 쉽게 접 할 수 있게 해보자, 독립영화감독들이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래서 마침 귀농한 친구의 땅에 영화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힘을 합쳐 영화제를 만들었다. 영화를 접하지 못하는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열악한 조건을 가진 젊은 청년들에게도 좋



제3회 너멍굴영화제_안녕 나의 여름, 안녕 우리


림보책방_림보랑 가드닝

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림보책방의 공간지기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림보책방은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림보책방은 책방지기인 통통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저는 작년부터 완주군 청년정책팀과 함께 일하면서 완주군에서 고산에 청년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통통과 같은 공간을 보게 되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서로 이야기하다 책을 매개로한 청년거점공간을 만들자고 뜻이 모여 함께하기로 했다. 분리하자면 책방은 통통이 운영하고, 저는 청년공간의 매니저다. 그렇게 고산청년공간×림보책방이 태어났다.

완주로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고 완주에서의 첫 행보는 어떤 것있었는지?

2016년에 완주로 귀농한 친구 덕분에 완주에 서너 번 놀러 왔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취업준비생으로 서울살이가 지치고 힘들었다. 완주가 살기 좋다는 친구의 권유로 아예 놀러 앉게 되었다.
2017년 3월에 처음 완주로 이사 왔고, 곧바로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에서 마을기자로 활동했다.

귀촌한 청년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귀촌생활은 어떤지?

처음에는 시골 마을에 연세로 집을 얻어 살면서 마당 텃밭에 소소하게 작물을 심어 가꾸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게으르고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은 굳이 농사를 짓기 보다는 문화적인 면에서 지역과 어울리는 것이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일하고 싶을 때는 가끔씩 주변 분들에게 일손을 보태거나 도와드리고 있다.

귀촌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또 다른 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지금까지는 다행히 '괜히 내려왔다'하는 후회는 없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살아볼까 했지만 앞으로 계속 살 것 같다. 이곳은 같이 사는 친구이자 일하는 사람의 경계가 약간 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생활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사생활 보호가 잘되지 않는 시골 특징 때문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싫거나 불편한 분들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관계들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 좋다. 그래서 이곳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 보통 처음에 이주해 오시는 분에게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문화기획자 윤지은으로 활동하며 가장 대표할 만한 (또는 인상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제일 즐겁게 했던 것과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너멍굴영화제'이다.
처음에 술자리에서 재미로 나눴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주위사람들한테 좋은 호응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완주군, 여러 공동체들의 지원으로 이어져 예상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어 '무엇인가 계획하고 실천하면 할 수 있구나!'하는 긍정적인 경험치가 쌓였다. 제가 원래 생각만 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어려워하는 편인데 완주에 와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문화기획자 윤지은으로 꼭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흘러흘러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무엇이든 같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원래 완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도 자주 만나 소통하고 싶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과도. 그런 관계에서 어떠한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축제나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획비' 명목의 비용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엄연한 노동인데 기획비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루트와 지원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문화예술인들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많아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본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다.

이곳에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많은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시선이나 관심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빵 굽는 일을 배우고 싶다. 옛날부터 하고자 했던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볼 계획이다.
글 · 정량미

19

이우엽
고전, 현대를 공존한 예술가

#시각예술#공예#도예가 #소양 #이중상감법#우도예 공방

단국대 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이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도예명장 이우엽 작가. 그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2인자를 추구하지 않는 예술가의 열망 속에서 '이중상감'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상감기술을 착안해 장인정신의 새로운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상감법으로 만든 도자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고향인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원을 서울에서 다녔다. 완주 이곳에 오기는 3년 정도, 전주에서 오래 있었다. 이 작업을 한 것은 30년이 넘었다.

단국대 대학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도자로 전향하였다고 들었다. 도자로 전향하는 계기와 도예를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디자인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 도예과를 전공했다. 계기라는 것은 없다. 도예를 좋아해서 도예과를 들어갔다. 미술을 좋아했다. 미술과 도예는 같은 것이다.

도예의 명장이시라 들었다. 도예의 명장으로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도예란?

전업작가로서 도예를 선택한 것이다. 특별한 것은 없다.

완주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는지?

현재 동상 문화센터에서 문학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준비하는 활동은?

완주문화재단 누에 아트홀에서 술주전자 전시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중이다.

주로 쓰고 있는 도자기 기법 '이중상감'이 무엇이고, 주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중상감은 기법 중의 하나이다. 원래 있었던 기법이긴 하나, 하는 사람에 따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다. 그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에 따라 자기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땀한땀 수를 놓듯 그려가는 예민한 수작업이다. 태토의 내부가 되는 도자기형에 흑화장토를 바르고, 그 위에 백화장토를 5mm내외의 두께로 바른 뒤 2-3일간 습기와 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말린 다음 백화장토 위에 밑그림을 그려 조각도로 새기는 기법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작가들이 거치는 과정이기는 하나 작가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다.

선생님의 작품들 중 멜론의 패턴이라던지, 기하학적인 패턴이 특징인데, 그러한 패턴들의 모티브를 어떠한 방식으로 얻어 표현하는지?



모티브는 거의 자연에서 얻는다. 나뭇잎의 잎맥, 또는 숲, 불규칙해 보이지만 모두 질서가 있다. 기하학적으로 모두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다. 그 질서정연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다.

작품 중 특별하고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면?

이중상감법으로 완성된 작품들이다. 이중상감을 만든 뒤부터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문양, 형태, 색의 표현이다.
제작하는 도자기는 동시에 같은 상감 기법과 형태로 제작해도, 100% 똑같이 만들 수 없으니 기성 제품과는 다른 수제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렇기에 의도치 않게 소성 과정에서 색상이 번져 나와 그라데이션처럼 보이는 기법을 더욱 심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매력을 느낀다. 작품 하나를 새기고 소성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할 만큼 세밀한 작업이다. 서양의 곡선과 직선이 크랙에서 겹겹이 만난 삼각과 사각 격자(네트) 무늬가 동양의 도자기 표면에서 조화를 이룬 이 작가의 이중상감 도자기들은, 도예에 입문할 무렵부터 이중섭·박수근·천경자 작가처럼 작품 하나로도 작가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대표작을 만들고 싶었다.

도자기 평균 한 작품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작품마다 다 다르다. 작품 하나를 새기고 소성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할 만큼 세밀한 작업이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도자기의 매력은?

도자는 장르의 특성상 활용성이 높다. 호리병, 막사발, 접시, 항아리, 주전자 등 다양한 도자 제품을 만드는 한편 색장토들의 강렬한 색상차를 이용한 그라데이션 상감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매력을 느낀다.

현재 예술활동을 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분이 계시는지? (혹은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던지 등등)

개인전은 혼자 하지만 합동 전시를 하게 될 때는 같은 계통의 작가들이 함께 전시회를 가진다.

최근 전주한옥마을에서 공예품 전시회를 했고, 누에아트홀 전시도 앞두고 계신다. 매번 전시를 준비할 때의 소감, 또는 준비하는 각오가 있으신지?

그런 것은 없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작품 활동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슬럼프가 오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

당연히 있었다.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하기도 했고, 중단하기도 했다. 한번 크게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4년정도 힘들어 하며 기법을 바꾼 것이 상감기법이다

전주에도 '우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 완주로 이동해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작업장을 찾아다니다 보니 이곳을 오게 되었다.

선생님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것 또는 전하고자 하는 작품에 담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인정해주고 사용하기를 바랄뿐이다. 도예 문화를 계승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도예작가로서 '이우엽'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내 작품을 잘 만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완주에서 또는 전북에서 활동하시면서 목표나, 계획 또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좋은 작품 만드는 것이 바람이다. 일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 즉 생활과 연관돼 있어 열심히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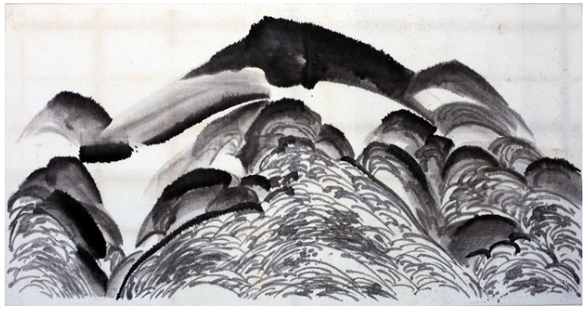
글 · 박은주

20

이철량
수묵화의 거장

#시각예술#한국화 #구이 #수묵화#수채화#모악산

한국화가 이철량교수는 한국 화단에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수묵화의 중견을 넘어 거장이란 이름으로 거론된다. 1980년대 한국화단에서 수묵화 운동이 활발할 때 중심적 역할을 한, 작가 중 한명으로 손꼽히는 이 작가는 자연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 등으로 한국화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언어를 찾아낸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1990년부터 모악산에 터전을 마련한 후, 대자연의 품속에서 원초적 생명력으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작가관을 구축해 왔다.



丘 | 종이에 수묵 | 95x186.5cm | 1982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또는 그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이다. 그 전에는 그림이라는 것은 몰랐었다. 고향은 순창 복흥이었는데 정읍중학교를 다녔다. 그때 미술 선생님이 서양화를 하시고,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승동표 선생님이 계셨다. 그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려 보라고 하셔서 미술부에 들어가서 그림을 하게 되었다. 그 뒤 전주신흥고등학교를 다녔다.

동양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 어느 때 미술선생님께서 동양화를 그리는 것을 보고 매우 묘하고 신기한 먹색과 번짐 등을 보고 매력을 느껴 시작하게 되었다. 중학교에서는 수채화를 그렸고 고등학교에 들어 동양화를 하고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하여 동양화를 전공하게 되었다.

이철량 작가 하면 대부분 수묵을 떠올립니다. 수묵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특별한 재료 선택이 있는지요? 그 이유나 작업 방식이 있는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먹으로만 작업을 해 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양화는 역시 수묵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묵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이 전공해 보지 않는 한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먹으로만 작업을 해온 이유는 먹의 고유한 매력이 특별하다는데 있다. 단색이지만 만색이 들어있는 독특한 그림이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려고 노력 중이다. 그것이 내 작품을 통해 드러나길 기대한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묵이란? 또는 그림이란?

동양화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크지만, 대학교에서는 이것, 저것 다양하게 그렸고, 사실 먹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시작했다.

군대를 다녀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동양화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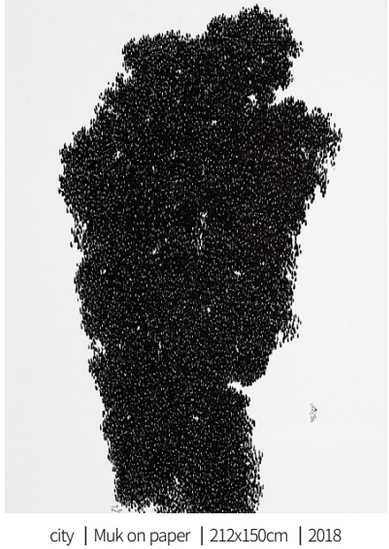


신시 | 종이에 수묵담채 | 133x165cm | 1995

한 아주 기초적이며, 원리적인 이해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동양화의 근본은 역시 수묵에 있다.'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수묵의 세계를 들여다보자고 했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수묵이란? 또는 그림이란? 인간의 내적 근원을 들여다보는 사유로서, 삶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전북대 교직에 계셨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며 교육자로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던 한국의 1970~80년대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거의 매일 사회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고함소리와 절규가 있었던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림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그림이란 삶의 치유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전시는 계속하고 있다. 올 시월에도 개인전을 서울에서 했고, 지금도 도립 미술관에서 수묵전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city | Muk on paper | 212x150cm | 2018

숱한 개인전을 진행하셨고, 전시에 참여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으신지요? 혹은 가장 애착을 가지며 준비했던 전시? 또는 대표작이라고 꼽는 전시라면?
전시를 수백 번 했다.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전시는 아무래도 첫 개인전이다.

보통 작가는 활동 시기마다 조금씩 작품의 표현 방식, 또는 경향이 달라지는데, 선생님은 이런 새로운 시도, 변화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수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실험해 보고 싶었다. 첫 개인전은 산을 그렸고 이후 인물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그리고 모악산에 들어와서는 소소한 자연의 모습과 생명력을 그리려 했다. 아마도 나는 모악산의 정기를 많이 받는 듯하다. 모악산에 들어와서 많은 작품의 변화가 있었다. 살면서 시대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작품도 바뀌기 마련이다. 지금은 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대 도시가 또다른 자연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캔버스에 작업하고 있다.

작품에서 즐겨 쓰시는 모티브? 자주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줄곧 수묵이란 무엇인가? 먹의 본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왔다. 먹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표현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비교적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먹으로 그려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심사이기도 했다. 그간 살아오면서 주변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왔다.

선생님의 작품의 특정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80년대 초반에는 자연을 소재로 하였다. 중반에는 인물을 다루었고, 후반부터는 자연물들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추상적 형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90년도에 완주 모악산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작품 소재가 많이 바뀌었다. 작은 풀꽃들과 곤충들, 새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작품에 많이 등장한다. 주변의 소소한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2천년대에 들어선 지금은 도시 시리즈를 담고 있다.



선생님의 작품 활동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모악산에 들어온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작품에 많은 영향을 준 계기가 된 것이다.
1990년 1월, 우연히 화가 선배의 권유로 끌려오듯 자연스럽게 모악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얀 눈이 모악산 자락을 감싸고 있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어릴 적 고향 마을과 흡사했다. 앞에는 산이 보이고, 그 아래 저수지가 있고, 먼발치로 간간이 차들이 지나고, 마당을 나서면 곧바로 논으로 이어졌던 풍경들이 그러했다. 내 고향은 순창 복흥, 깊은 산골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여기가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거저 얻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기까지에는,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준 아내가 있다. 역시 작품활동의 원동력은 가족의 배려라 할 수 있다.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면?
함께 수묵운동을 했던 스승 송수남이다.

평균 한 작품에 소요되는 작업 기간은? 또는 매일매일 작업 시간은?
정해 놓고 하지는 않으며 작품소요 시간도 작품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작품마다 다르다. 일견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다양한 은유들과 그 변주 속에서, 화가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인간과 순수한 자연 속에서의 물고기, 꽃, 새, 풀벌레 등 자연주의적 소재들은 전통적인 동양적 가치론에서 비롯된다. 우주의 본체는 거대한 생명체이다. 우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작품에는 순간의 덧없음이 있고, 불안정성도 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애정과 함께 동양적인 우주관이, 현대적 조형어로 활발히 변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전시를 하며 느낀 점이라면?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본원적 원형의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은 그리 쉽지 않았다. 또한, 항상 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림을 대하고 전시를 진행한다. 그것은 그림이 항상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작업이(또는 그림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지? 슬럼프도 있으셨는지?
물론 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왜 없겠는가! 그 중에 내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매일매일 사회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고함소리와 절규를 들으며, 내가 그림 그리는 일이 과연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앞으로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같은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나의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완주에서, 또는 전북에서 활동하시면서 화단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서로 교류, 소통이 좀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진취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전통을 개발하고 다져져야 한다. 그래야 예술계가 발전한다. 나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후배들도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글 · 박은주

21

박정순

동초제 판소리 맥을 잇는 소박한 소리꾼

#공연예술#국악#판소리 #상관 #동초제#남도민요#농부

소리꾼 박정순은 농가주부로써 30대 중반부터 소리 스승인 이일주. 김소영명창을 만나 판소리를, 김유앵선생에게서는 남도민요를 배워 활동해 오고 있다. 박정순은 수상한 경력도 있지만, 기량을 겨루는 일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헤치며 배워 온 소중한 소리가 남들에게 귀하게 들려지기를 바란다. 또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정성으로 소리를 가르친다. 자신은 자연과 닮은 것이 많다며 엷은 미소를 짓는, 완주를 사랑한다는 소박한 모습이 정겨운 소리꾼 박정순.



보통 소리는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의 경우는 특별하시다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소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친정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일찍이 결혼하여 남매를 두었다. 둘째인 딸 출산 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산후풍을 겪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척추를 지지하는 파이프를 대야만 하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산후풍도 산후풍이었지만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결혼하여 엄격하기만 했지 다정함이 없는 시부모에 가부장적인 남편, 농촌생활이라 농사일이야 집안일이야 모두를 제가 도맡아 해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으니 바깥 출입은 커녕 제대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던 시집살이가 아니었던가 한다. 우리 아이들 둘을 낳고 더구나 큰동서 아이들 셋을 맡아 키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 시부모님에 아이들까지 아홉 식구를 건사하며 내리 십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다보니 몸은 어느덧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스트레스에 마음도 극도로 피폐해진 것이 몸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큰 수술을 겪고 나서야 그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 인생이 하도 불쌍하고 기가 막혔다. 하지만 '내 팔자이니 어쩌겠는가!' 그래서 '아,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구나, 뭔가를 해야 겠다' 라고 생각했다. 덧없는 내 청춘이 너무 아까웠던 것이다.

서른 중반을 넘긴 나이에, 우연히 소리를 하는 지인에게서 "너는 청도 타고 났으니 소리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그 시절, 난 국악은 아예 몰랐었다. 그리고 그 때만 해도 사람들은 소리꾼을 천박하게 여기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남편의 반대가 심했다.

내가 어렸을 때 친정집은 몹시 가난했다. 어머니는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가마솥에 물만 붓고 곧잘 헛불을 때셨다. 어린 나는 철없이 어머니 곁에 앉아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행동이었다. 부지깽이를 들고 보얀 물김이 오르는 솥단지와 부뚜막을 두드리며 트롯가요, 주로 이미자의 노래를 처량하게 부르곤 했었다. 친정어머니도 목청이 좋았고, 노래도 잘하셨는데 아마 내가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았다.

멕시코에 사는 동생이 내 소식을 듣고 불쌍했던지 형부인 남편에게 "제발 언니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도록 풀어 주세요." 하고, 전화로 통 사정을 했으나 남편은 들은 척도 안했다.

대수술 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부지깽이며 찬물에 손 담그고 그냥 몸빼 차림이 아닌, 박정순으로 살아 봐야겠다고...

'이 처량하고 한 많은 인생, 박정순의 삶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자 반대하는 남편도 두렵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전북도립국악원을 찾았다. 소리를 배우게 된 것이다. '정말 이 한 순간의 시간이 지나면 내 젊음은 사라진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처럼 아픈 것이 사라졌다. 처음엔 육신의 아픔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반신반의하며 공부를 하던 것이 아프던 몸이 아프지 않게 되자 '왜 일까?' 라고 의문을 품다가 생각해 낸 것이 '아! 나에게도 끼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게 신기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으며, 남편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나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살지를 못하겠다. 이제 내 길을 찾아가고자 하니 부디 허락해 주시오." 남편은 나의 간곡한 애원을 들어주었다, 내 안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 준 셈이다.

본래 완주가 고향이신지? 완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완주 상관면 태생이다. 지금은 그래도 도로 사정이 좋아서 들고 나기에 불편이 없지만 옛날엔 수악한 산골이었다. 같은 동네 총각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 지금까지 여기에 눌러 살고 있다. 완주에서 활동은 상관농협 농가주부 모임도 하고 그동안 배운 소리 덕분에 완주군 평생교육의 일환인 희망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하여 어르신들 정서 함양과 치매 예방 등을 위해 지정된 완주군내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우리 민요로 그들과 함께 신명을 내어 보는 일을 하고 있다.

소리를 얻기까지는 많은 연습. 피나는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공부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도립국악원에서 김미정 명창을 만나 소리공부를 한 지 얼마 지나자 판소리반의 조교로 활동하게 되었다. 김미정 명창에게서 소리를 받아 집에 오면 밀린 농사일을 하면서도 미친 듯이 혼자 흥얼거리고, 집안일을 끝낸 후에도 밤늦도록 매일매일 공부를 했다. 아마도 그 시절 부수어 먹은 녹음기가 열대가 훨씬 넘었다.

소리 길에 들어선 사람들마다 애틋한 사연들은 다 있을 것이다. 오로지 그 길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못지않게 나도, 혼자서 다 짊어져야 했던 고된 농사 일, 집안 일 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소리공부였다. 그 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못할 것 같다.(웃음)....

돌아 보건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소리는 어느 선생님께 사사 받으셨는지요?

말했듯이 전라북도립국악원에 나가 만난 분이 김희정명창이다. 나의 첫 번째 스승인 셈이다. 도립국악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아! 소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큰 스승을 만나 정식으로 소리를 배워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첫 스승인 김미정명창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회에 나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한 토막의 소리를 해도, 남들이 듣기에 '정말 잘 배워서 잘하는 구나!' 이런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다. 그간 지도해 주던 김미정교수가 완강히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유인즉 '지도교수보다 조교가 더 잘한다.'는 말도 입소문에 들렸고, 자기보다 앞질러 소리를 잘 하는 내가 마땅치 않았던가 보다. 그만큼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랬던 교수님을 뒤로하고, 그곳을 박차고 나온 나는, 좀 더 큰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도립국악원에서 이미 판소리 동초제를 배우기 시작해서 동초제 소리를 이어온 오정숙국창의 제자인 이일주명창에서 춘향가를 배우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김소영명창을 만나게 된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된 김소영선생님과 인연은 벌써 십 여년을 훨씬 넘었다. 처음 선생님을 뵐 때 선생님은 생활도 어렵고 몸도 편치 않은 상태이셨다. 허름한 집에서 개인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우울증까지 있으셨다. 소리 길에 든 내 사연과 그 동안 배운 소리를 들어본 선생님은 선뜻 나를 제자로 받아들이신다는 허락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구비진 인생을 살아온 서로의 애달픈 사연들이 어쩌면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서로를 껴안아 주고 싶었는지 모를 일이라 생각된다. 선생님께 심청가 전 바탕을 배웠고, 춘향가. 흥보가의 특장 더늠을 배우는데 선생님은 "아이고 이 사람아 나 죽기 전에 어서어서 내 소리 전부 가져 가

게나"하고 늘 말씀하셨다.

선생님을 대표하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처음부터 동초제 판소리를 배워 하고 있는데, 동초제라하면 동초 김연수 선생께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다시 정리하고 엮어 당시 새로운 바람으로 밀려오는 창극을 염두에 둔 짜임으로 법제를 만들어서 전수되어 내려온 것이다.

동초 김연수명창의 애제자가 오정숙국창인데 말년에 오정숙국창은 이곳 완주 운주로 내려 오시어 동초각을 짓고 사시며 우석대학교국악과에 출강도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 내셨다. 그 중 유명한 제자는 전라북도 판소리를 대표하는 명창으로 이일주, 조소녀, 전주판소리 대사습 이사장을 지낸 민소완 이렇게 세 분이다. 아마도 조카뻘쯤 되는 김소영명창도 어린 나이부터 오정숙국창 문하에서 소리를 배워 동초제의 맥을 잇고 계신다.

나는 김소영명창에게서 심청가 한바탕을 배우고 이일주선생님에게는 춘향가 대목의 소리를 배워 굳이 나를 대표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심청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는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지만 전라북도 판소리계의 대부라고 하는 홍정택선생의 부인이신 김유앵선생에게는 남도민요를 배웠다.

소리를 배우며 어렵고 험난한 곡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일주명창에게 춘향가를 배우던 때 일이다.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러 갔을 때, 선생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보시고는 목청이 좋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줌마가 이 힘든 공부를 여기까지 견디며 하느라고 고생했다."하며 나를 받아 주셨다. 대개 선생님들은 주부들은 도중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아 받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특별히 전공자들 사이에 주부인 나를 선생님의 제자로 끼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어려운 문제는 공부보다도 만만치 않은 수강료였다.

그 당시의 농사꾼으로서 자식 둘에 동서 자식 셋을 키우면서 교육비야 뭐야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때이다. 염치 불구하고 수강료를 깎아 달라고 사정해서 조금 깎아 주셨지만, 가난한 시골 아낙으로 솔직히 그것마저도 부담이 컸었다.

소리를 배운지 1년 후, 이수증을 받으라시며 백만원을 요구하셨고, 책거리 비용으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셨다.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등을 보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가난이라는 굴레가 원망스러웠고, 자존심이 상해 울고 또 울었다. 내 사정을 뻔히 아는 선생님인데 그만 두라는 얘기보다 더 힘든 요구인 셈이니, 이일주선생님과의 인연을 일년을 겨우 넘기고 접게 된 것이다. 그 일이 지금까지 소리공부를 해 오는 동안 제일 가슴이 아픈 기억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이런저런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오기가 생겨 이를 악물고 소리에 매달릴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고마운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소리공부의 정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할 텐데, 연습을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매일매일?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옛날 어른들이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들 했는데, 내가 소리를 좋아하지만 본업은 농사꾼이다. 소리를 알고부터 지금까지 연습은 매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소리를 하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일정히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기보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허리에 녹음기를 차고 자연을 벗 삼으며 듣고, 또 듣고 따라 부르기를 거듭하며 공부를 했다. 지금 다시 그렇게 공부하라면 못할 일이지 싶지만(웃음) 지금은 그 때 열정 그대로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이래도 목을 다스리고 소리공부를 한다. 깊은 산골집이다 보니 밤늦게 혹은, 새벽시간에 소리를 내질러도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없어 좋다. 아무튼 집착이 심했던 것 같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 온전히 연습하는 시간이었으니까.

현재 소리를 가르치는 활동도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대중들에게 어떤 국악인으로 기억 되고 싶으신지요?

요즘엔 전주나 완주에 살면서 마음만 먹으면 소리공부를 비롯한 여러 예능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심한 것이 사실이다.





소리가 채 익기도 전에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타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나는 소리공부 십년을 훨씬 넘기고 나서야 선생님이, 대회에 나가 보라고 해서 몇 번 상도 받았지만 아직 대통령상은 받지는 못했다. 물론 상에 대한 욕심도 없다.

이제는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해서 어르신들이나 주부, 어린이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고 있다. 내게서 소리를 배우는 분들이 '박정순 에게서 소리를 배워서 잘한다.'는 그 한 마디를 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젊은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내 소리를 전수하고 싶은 제자가 있다면, 익산 모 단체에서 가르치는 제자들이다. 아마 사십대 후반이나 오십대 초반인 몇 사람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싶다. 또 특별한 아이로 부안국악원에 한 명 있다. 어느 날 소리를 배우러 오시는 엄마를 따라오는 조그만 아이가 다섯 살이라는데 민요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 아이 이름이 소희인데 처음에 오던 날 "소희야! 여긴 뭐 하러 왔어?" 하고 물으니 아주 또렷하게 "소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차고 야무진데가 있어, 목도 보고 싹수가 있나 싶어서 진도아리랑을 몇 소절 시켜보았더니 아주 신통하게도 잘 받아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강료도 받지 않고 소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 단가 '사철가' 까지는 마쳤으며 보면 볼수록 욕심나는 아이이다. 소희가 소리를 계속 하겠다면 내가 겪은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레슨비 없이 제자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다. 그리고 소리문이 트이고 나면, 나보다도 더 큰 명창선생님에게 보내어 앞길을 열어주고 싶은 사랑이 느껴진다. 내 제자로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으나 국악계에서 더 큰 소리꾼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싶은 것이다.

화려한 이력을 갖는 소리꾼이 아닌, 농익은 소리 길을 터득하고, 농가주부로써 열심히 농사를 짓고, 흙과 바람을 닮은 소리를 해서 '정말 소리를 맛깔나게 잘 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소박한 소리꾼이 되는 것이 작은 내 소망이기도 하다.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으신가요?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도 몇 군데 기관과 단체에서 소리를 가르치면서도 나름으로 위로는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소리 한바탕을 다 아우르는 완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나도 심청가든 발표회를 가져 보려고, 몸과 마음을 초심으로 가다듬어 흥부가를 공부하고 있다. 하면 할수록 새삼 소리공부는 끝이 없는 것을 실감하게 되지만, 다만 제대로 된 소리를 알고가자 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활동하는 일에 충실하고자 한다. 무슨 큰 영화나 명예를 바랄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전국에 많은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타려면 기천만원에서 억대를 넘는 돈이 들어야 한단다. 나는 그렇게까지 큰돈을 줘가면서 명예를 얻고 싶지는 않다. 무슨 협회나 단체 활동을 싫어한다. 숨어사는 외톨박이라 한들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는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말을 묻혀 사는 것이 싫은 것이다.

전주에서 연습실을 마련하고 판소리 동호회원도 가르치고 있는데 '소리곶 동호회'이다. '곶'이라는 의미는, 바다와 육지가 처음 만나는 지점이 '곶'인 것처럼 소리와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

다고 한다. 그 밖에는 김제 문화원. 부안국악원, 그리고 완주군 평생교육사업 등에서 나름데로 활동하며 소리와 남도민요를 가르치고 있다.



국악인 박정순에게 고향 완주와 소리는 어떤 의미인지? 이후 계획은?

농사를 지으며 살다 보니 하늘과 땅, 햇살과 바람을 안고 살게 된다. 누구나 자기 고향이 소중하겠지만, 내가 태어나고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에 머문 삼년 이외는 이곳 완주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다. 육십이 다 되도록 자연 속에서 살다보니, 훗날 내 뼈를 묻을 곳도 당연히 '여기구나' 생각하고, 땅에 씨 뿌려 거두며 살다보니 고향인 이곳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는가! 특히 완주는 전설적인 인물인 권삼득국창의 고향이기도 하니, 보람과 자긍심으로 소리의 맥을 이어 가고 싶다. 그리고 어린 새싹들이 소리공부를 하고 싶다면 소중하게 거두어 가르치고 싶다. 재능기부 공연도 하고,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료로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치매예방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일자리가 나면 국악을 통해 어르신들 인지능력을 개선하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창작사업의 일환으로 완주를 소재로 하는 소리를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2017년도 발표한 완주구경가(九景歌)와 2019년도애 발표하는 완주팔품가(八品歌)가 궁금합니다.

완주의 하늘과 땅에 살면서, 또 소리공부를 하면서 '내 소리로 완주를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던 끝에 기회가 되어 완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완주군이 지정한 완주 구경(九景)과 팔품팔미(八品八味)를 바탕으로 홍보도 할 겸 창극과 전통판소리로 엮어 이미 2017년도에 발표를 했고, 올해 11월 23일에는 삼례예술촌 소극장 애니에서 발표회를 갖게 되었다. 완주팔품가는 완주군이 지정한 특산물에 저마다 품격을 붙여 놓은 것으로 동상 곶감, 봉동 생강, 삼례 딸기, 고산 한우, 양파 등이 소재이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런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술인창작지원사업을 주관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완주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완주군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며, 더욱 더 힘을 내서 바람직하게 성장하겠다.

끝으로 완주 또는 전북의 국악계를 위해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군수님은 예술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책과 기반시설을 발전시키고 있어, 다행히라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발표한 내 성과물이 완주를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전북의 국악계를 위한 한마디 고언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 자리를 물리고 참신한 새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물도 흐르지 않고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고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위의 성원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좋은 소리꾼으로 거듭나도록 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익혀 완주군의 '소박한 소리꾼, 박정순'이 되겠다.

글 · 박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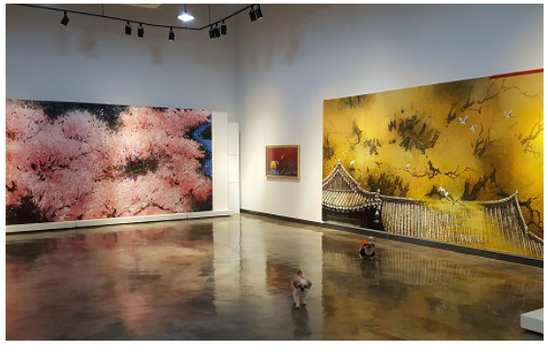
22

김성욱

우리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학 한 마리 같은 화가

#시각예술#회화#설치#기획 #봉동 #천년나무-한옥에 물들다

'한옥에 뜬달 – 사랑하면 만나리', '천년학-가족바라', '한옥에 뜬 달-사랑을 나누다', '지지않는 꽃' 그가 사랑하는 학 한 마리가 말해주듯 섬세하고 따뜻한 우리 정서에 맞는 한국적인 그러면서 낯선 어느 여행지의 느낌 같은 언제나 똑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자신을 엿보는 화가



의 권유로 한국화를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적성이 너무 맞지 않아 대학 휴학까지 생각까지 생각하였으며 그 회피책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후 복학해서 과 선후배들과 야외스케치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한국화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에 보이지 않던 선에서 보여지는 단순하면서도 곡선의 깊이를 찾아가는 표현 했을 때의 느낌이랄까!!

작가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그림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그리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이다. 무엇인가 부족했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나도 그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중학교 친구들은 지금의 나를 보면 너가 어떻게 화가를 그런 말을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너는 당연히 화가가 될 줄 알았어 그런 반응을 한다.

완주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강의를 하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주제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한국화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화를 선택한, 또는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고등학교 시작할 때는 서양화 수채화를 중간에 조소, 디자인도 하고 다양하게 해 봤는데 재수할 때 선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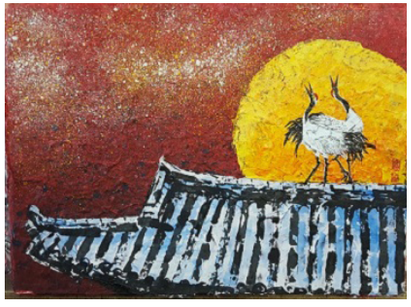
평소 생각하는 한국화란? 또는 그림이란?

그림이라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 한국화의 매력은 선으로 표현했을 때 더욱더 새로운 거 같다. 또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다.

또한 내면적 표현은 붓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지에서 번짐이나 스밈이 의도된 듯 우연의 기법들이 늘 작품하는 데 설렘을 주고 있다.

학업을 원광대에서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또 지금까지 작가로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아쉬웠다. 많은 것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다니며 좀 더 다양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전에는 학습에 의한 활동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작가로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활동은?

현재는 전시보다는 2016년도 개인전 이후에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작품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주로 강의나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작품을 못하는 아쉬움은 틈틈이 야외 스케치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으며 화가로서 3년이라는 공백기가 참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러 번의 개인전을 가지셨는데, 가장 기억 남는 전시가 있으신가요? 혹은 가장 애착을 가지며 준비했던 전시, 또는 대표작이라고 꼽는 작품이 있는지?

가장 기억에 남은 전시는 어려웠던 전시회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전시회는 설렘으로 시작했다면 두 번째 개인전 이후 그림을 많이 그리지 못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나니 현실에 부딪혔고 가장으로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작품을 못 한 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한테는 화가라고 하면서 그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마음에 짐이 커져만 갈 때쯤 2011년도 세 번째 전시 주제로 "자연으로부터의 我" 그림을 못 그리고 있을 때면 그냥 화판을 들고 다니면서 그렸던 스케치 작품들을 모아서 전주 경원아트아트홀에서 전시회를 했고 방송을 통해 어려웠던 화가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대표작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한옥 작가로 알릴 수 있었던 "대원사-가을에 물들다" (완주경찰서 소장)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옥의 단면을 통해서도 한국적인 곡선의 미와 함축성 있는 많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작품의 재료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 역시 새로운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도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료는 대학원시절 '다양한 소지를 주제로 바탕으로 한 한국화의 표현기법' 쓰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한국화를 한지뿐만 아니라 핸디코트, 토분, 캔버스, 광목, 목재 등 다양한 소지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느끼는 재질감 있는 그림을 그리는 편이다. 많은 재료를 통해서 한국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

최근에는 한옥과 학을 주제로 발표하는 작품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 역사성을 반영하는 한옥과 삶을 반영하는 학 혹은 가족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의 삶에서 느끼어지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편이다.

작품에 학이라던지,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혹시 특별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요?

삶이라는 이야기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학은 작가를 반영하고, 또한 학들을 통해서는 가족 친구 우리 주변사람들의 삶속에서 만남과 이별 사랑과 포옹 등을 이야기하며 푸른 달은 저마다의 이상을 꿈꾸며 노랗게 떠있는 달은 현실에 주어진 생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특정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음… 자연에서 주는 모든 것! 자연이 내게는 커다란 스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작업이 (또는 그림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지? 슬럼프도 있으셨는지?

화가는 지금도 슬럼프이고 앞으로도 슬럼프일 것이다. 화가에 있어서 슬럼프는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든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슬럼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작품에 임하기도 한다.



앞으로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작가로서의 꿈은 끊임없이 그림만 그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한 가지는 후학양성인데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화가로서의 꿈을 꾸게 하고 싶다. 열심히 사는 김성욱이 아니라 열심히 그리는 화가로서 후학들과 같이 꿈을 표현하고 화단에서 많은 전시하고 싶다.

완주에서, 또는 전북에서 활동하시면서 화단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학교나 학원 등 미술 전공자 감소는 꽤나 빠르다. 참 심각한 문제인 거 같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술 지원이 다각 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아무래도 먹고사는 생활이 먼저이다 보니 정작 작품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 같다.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 말고 적은 지원이래도 꾸준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작가들도 비록 힘이 들더라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마음처럼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하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 · 정량미

23

오정균

음악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아티스트

#공연예술#대중음악 #삼례 #기타연주#작곡#마스터링 엔지니어#믹싱엔지니어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귀촌을 결심하게 한 '언덕 위의 그 노을'이란 음악과 동행하며 바람 따라 흘러흘러 발길이 머물게 된 곳은 완주 삼례였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음악으로 충분히 표현하고자 노력했다."어느날 밤에"라는 노래는 삼례 비비정 언덕 위에서 바라본 노을이 모티브가 되었다. 김목인 '음악가 자신의 노래' '한 다발의 시선' '콜라보씨의 일일' 믹싱 엔지니어 참여, 드라마 '상속자들' 사운드 트랙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로도 참여했고, 영화 '쏜다' 사운드트랙 기타/신디사이저 연주, 작곡, 편곡, 믹싱 엔지니어로도 참여한 바 있다.



How are you Doing | 싱글앨범 | 2019. 02. 07 발매



까르보나라 | 싱글앨범 | 2019. 09. 27 발매

'귀촌한 종합 뮤지션 오정균'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대도시에서 생활 하시다 완주라는 '시골동네'까지 오시게 된 동기가 궁금하다.

친구를 따라 우연히 완주 고산 땅을 밟게 되었다. 도시에서만 살던 내가 어느 날 밤 시골 언덕위에 펼쳐진 붉은 노을을 보게 되었다. 서녘 하늘을 물들이며 장관을 이룬 처음 본 빛, 순간 그 노을에 매료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신비의 자체였다.

그 노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었기에 귀촌을 결심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련한 추억이다.

전혀 생각 하지도 않던 귀촌을 결심하게 한 '언덕 위의 그 노을'이란 음악과 동행하며 바람 따라 흘러흘러 발길이 머물게 된 곳은 완주 삼례였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음악으로 충분히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음악활동 중 작곡과 기타를 주로 하고 계신데, 첫 싱글 발매를 하신 '어느 날 밤에'라는 곡을 들으며 선생님의 감성을 살짝 느껴 보았다. 창작활동을 하는데 영감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콘텐츠가 있는지 ?

중학교 때부터 악기연주를 시작했고, 군 제대 후 직업으로 음악을 선택했다. 악기연주, 편곡, 믹스 엔지니어로 활동 반경을 넓혀 갔다. 음악을 하는데 특별히 영감을 받은 부분은 없으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는 것 같다.

"어느날 밤에"라는 노래는 삼례 비비정 언덕 위에서 바라본 노을이 모티브가 되었다.

하고 계시는 음악 장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면?

30여년을 다방면으로 팀을 이루어서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작곡과 연주를 해 왔다. 얼마 전에는, 김목인 '음악가 자신의 노래' '한 다발의 시선' '콜라보씨의 일일' 믹싱 엔지니어 참여, 드라마 '상속자들' 사운드 트랙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로도 참여했고, 영화 '쏜다' 사운드트랙 기타/신디사이저 연주, 작곡, 편곡, 믹싱 엔지니어로도 참여한바 있다.

완주로 오기 이전에 창작 활동을 한 다른 지역은?

완주에 정착하기 전 활동한 곳은 서울 홍대 쪽이었고, 그곳에서 15년 정도 음악활동을 했었다.

엔지니어, 음악을 만드는 일, 작곡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열심히 음악활동에 혼신을 다했다.

최근에는 어떤 방면의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완주 군내에서 또는, 그 외에도 계획 중이신 창작 활동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있는지?

현재 지역에 관련된 음악 작업은 계속하고 있으며, 2월 'How Are You Doing?' 싱글 발매 9월 '까르보나라' 싱글 발매하였고, 완주문화재단의 사업 중 하나인 '예술농부 프로젝트'에 참여, 운주면 소재지 산속에서 살고 계신 농부님과의 만남을 모티브로 한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타 교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완주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시골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왜 젊은이들이 시골을 떠날까? 농사라는 것을 탈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상상하게 된다.

'시골은 문화생활도 뒤지고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골에서도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농사 지을 땅을 걱정하는 것보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 그 방향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도 대도시에서 시골로 귀촌을 했지만, 귀농은 아니다. 저는, 저의 재능을 살려 일하고 또, 먹고 살고 있다. 농사 짓지 않고도, 농사지을 땅 한 평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사는 곳, 지역이 어디라도 자기의 재능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다. 시골이라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대기업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재능을 살리려 노력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직업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즐길것들이 있어야 한다. 처음은 작아도 점점 많아지는 소소한 재미를 주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예술가들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글 · 박은주

24

이정지

위로와 용기의 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책

#문학#시#수필#아동 #이서 #백제녀#독서모임휴휴

남편과 영국 유학 중 어학코스 공부 외에 대학교수였던 영국수녀님과 한인 성당, 유학생부인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2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 귀국 후 학교 밖 아이들과 주부들을 가르치다 49세에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독서학과에 진학했다.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주. SNS에 시와 백제녀 편지를 연재. 한국독서문화협회 호남대표, 독서모임인 '휴휴'를 이끌고 있다. 창작활동과 함께'TALK냠TALK냠 북콘서트'와 '내 마음 다독이는 책 읽기'등등 학교와 도서관에서 독서관련 활동을 한다.



이번 인터뷰를 작가로 찾아뵙기는 하였으나 선생님의 분야를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작가라고 불리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소망은 '파티기획가'이다. 독서모임 '휴휴'에서 주관하는 TALK냠 TALK냠 북콘서트도 '책이야기를 맛있게 음식 먹듯 즐겁게 하자'라며 책을 가지고 파티하는 분위기로 진행된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 10년 정도 그려왔고 미술관에도 자주 놀러간다.

그럼 선생님의 그림으로 글과 작업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림책 작가들을 만나다 보니 나의 그림과 글로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되면 그림이나 시화로 전시회를 열어보고 싶다.

글을 쓰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글은 대학 3학년 때부터 꾸준히 써왔다. 결혼 후 영국유학 중 남편은 박사학위를 위해 공부했고 나는 어덜트 스쿨이나 칼리지에서 어학코스를 공부했다. 문법, 스피킹, 리딩, 라이팅의 어학코스 공부 중 라이팅은 거의 매일 A4 두 세 장 분량의 에세이를 써야 했다. 나의 글이 순박하고 진정성이 보였는지 지도교수님은 책을 내보라고 권유하였다. 여유가 없던 유학시절이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영국생활 4년 동안 나 역시 다양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 남편은 나의 글을 30권의 소책자로 엮어주었다. 이 책을 어학코스를 하며 알게 된 교수님들과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이후 귀국하여 수원에 살았다. 향토사학자인 한신대 김준혁교수님의 인문학 강좌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들었다. 안동 장씨 장계향의'음식디미방'을 소개 받았다. 한 가정의 요리책이 그 당시의 중요한 민간사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내 주변의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써보았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이사를 오고 난 후, 새전북신문사의 의뢰로 백제녀의 편지를 연재하였다. 연재한 글을 엮어 낸 책이 '마흔 아홉'이라는 책이다. 판매되는 첫 책이다.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보여지는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아는 이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부끄럽고, 힘겨운 일이다. 하지만 꼭 써야 하는 말을 어떠한 경우라도 직간접적으로 쓰는 것이 작가의 일인 듯하다. 최근 준비 중인 청동기·철기문화와 황방산 유적에 관한 글을 얼마 전 퇴고하였다. 한동안 나를 괴롭히던 먼 곳에서 줄이 끌어당기는 듯한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다. 자리에 누우면 머릿속과 천정을 떠다니며 나를 괴롭히던 말들이 글이 되고 퇴고를 마쳐 화가에게 전달하고 나니 두통이 사라진 것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써도, 쓰지 않아도 버겁고, 힘겨운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으셨겠지만 가장 가까이 두시는 책이 있다면?

중3때 선생님께서 생일선물로 주신 '신약성서'와 '미스 럼피우스'라는 그림책이다. 신약성서는 언제나 지니고 다닌다. 유학시절에도 닳고 닳도록 읽었다. 현재 교회나 성당에 나가지는 않지만 지금도 가까이 둔다. '미스 럼피우스'는 루핀 꽃씨를 뿌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한 사서의 이야기다. 미스 럼피우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재능, 독서로 주변을 돌아보고 싶다. 기회가 될 때마다 권하는 책이다.

저의 경우 처음과 다르게 책을 읽을수록 책읽기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읽기는 어떠신지, 권해 주실만한 책 읽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열등감 극복을 위해 닥치는 대로 명문대나 유명인 혹은 출판사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주로 읽었다. 점점 인터넷 도서검색이나 서점을 방문하여 마음에 끌리는 책을 선택하였다. 책은 주로 혼자 읽지만, 독서모임에서 함께 읽는 것도 즐겁다. 진도가 더디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전문가나 작가를 초대해서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회원끼리 읽을 때보다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서 좋다. 내가 참여중인 독서모임도 초기에는 독서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독서후기와 몇몇의 지식을 전달하는 다소 일방적 진행에 부담을 느꼈다. 회를 더할수록 회원 간의 관심의 차이와 다양성이 보여 현재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가져와서 소개하고 읽는다. 독서모임에서는 1년에 2권정도 회원끼리 함께 읽는 '슬로우 리딩'을 한다. '슬로우 리딩'은 최근 많이 진행하는 독서방법이다. 책을 좀 더 '천천히, 느리게 ,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하고 계신 독서모임 소개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독서모임 '휴휴'는 전북혁신도시에 와서 만들어 매주 모이고 있다. '은가람 공동체'는 월 2회, 그 외 '양현둥지'라는 모임과 독서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독서모임협회'가 있다. 독서모임 '휴휴'는 '쉬고 놀며 책을 읽자'를 지향하며 앞서 말한 대로 고전, 동화책, 심리학 등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같이 읽는 방식으로 1년에 두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 독서모임 '휴휴'와 함께하는 'TALK냠 TALK냠 북콘서트'는 5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최근 17번째 만남에서는 지사랑이 출간으로 나와 이유정 화가가 주인공이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나는 북콘서트로 30분 정도 강의 후, 질의응답하며 관객과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진행한다. 그동안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교수님, 김성주 이사장님, 김승환 교육감님, 김승수 전주시장님, 채형복 시인님, 임병식 기자님, 천진기 국립전주박물관 관장님 등이 함께 하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강의비 마련은 어려워 지역의 토산물을 사랑과 함께 담아 드린다.

'백제녀'라는 필명이 선생님의 온기 있는 글과는 좀 다르게 강단 있는 느낌과 함께 전라도 사람 특히 전라도 여성이 '백제녀'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필명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이곳저곳의 외국에서 살면서 만나본 사람들을 통해 국적은 다르지만 보편적 정서는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지구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다니게 된 대학원 모임에서 10여명의 인원들이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모임 인원 중 전라도와 관련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과 전라도에 대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에 놀랐다. 지구인을 지향하던 내가 '백제녀'라고 이름 지은 것은 전라도 사람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고, 전라도 사람 역시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선생님의 글에서 주위에 대한 따뜻함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주로 시선을 두는 방향이 있는지, 그러한 시선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영국 유학 시절 컴퓨터를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귀국하기 6개월 전 남편의 논문 심사를 앞두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어려울 때였다. 우리 부부가 거주하던 지역의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성당 다락방 미사를 가며 방에 불을 켜두고 가자는 남편의 말에도 전기세라도 아껴보고 싶어 불을 끄고 외출한 것이 화근이었다.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유학생활 4년간의 노력과 성과가 담긴 논문이 저장된 컴퓨터가 도난당했다. 남편에겐 전 재산과 같은 것이다. 남편은 거의 정신을 잃은 듯 당황한 상태였다. 나 역시 이일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몰라 절망스러웠다. 전세금을 다 털어 모두 유학비에 썼다. 남편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영국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 딱히 도움을 받을만한 곳도 없었다. 남편의 학위가 어그러지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4년 동안 다락방미사를 함께했던 메리 수녀님은 우리 부부와 함께하며 울어주었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 있어주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다. 금전적인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임을 알았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며 지향해야할 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살아가는 지침이 되었다. 수녀님은 대학에서 화학을 강의하셨고, 유학생부인들을 모아서 성서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다. 수녀님의 수녀원에서는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방학 전에 유학생들을 초대하여 영국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영국식 정찬을 맛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유학생으로서는 흔치 않은 값진 기회였고 많은 도움이 된 따뜻한 경험이다. 완주 이서에도 농업을 배우러 오는 유학생이나 직원이 많다. 얼마 전 남편과 5년, 10년 전 함께 일하던 필리핀, 파키스탄 분들이 각 나라의 농림부장관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후진국의 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경험한 따뜻함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처음 출간한 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영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MY LIFE IN ENGLAND』라는 책인데 생각하면 뭉클하다. 어려운 유학시절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 절약하기 위해 난방을 켜지 않아 집에 곰팡이가 피었던 일, 영국의 잦은 비를 맞고 다녔던 일, 어려운 가운데 커가던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퇴직 후 영국여행을 오신 부모님의 이야기, 나의 세계를 열고 메리 수녀님과의 즐거운 만남에 대한 글이 담겨 있다. 영국 4년 동안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했으나, 남편과 달리 학위가 없는 것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49살에 대학원에 들어간 후 교수님들로부터 글을 인정받았다.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나의 글을 사용해도 되겠냐는 말을 듣고 쌓였던 열등감이나 아쉬움이 풀렸다. 이 책은 영국유학 당시의 삶에 대한 아픔과 극복과정이 기록된 글이다. 나의 글쓰기는 이 책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출간한 -지사랑이-그림책에서 글과 그림이 같은 작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림에 대한 선생님의 특별한 주문이 있었을까 혹은 두 분의 닮은 정서가 있지 않았을까 궁금하다

도교육청에서 민간협력위원회 농어촌 분과에서 2년 정도 일했다. 농촌학교들을 탐방하였다. 탐방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농촌의 황폐화와 인구소멸을 절절하게 직면했다. 이를 계기로 언젠가 농촌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농어촌 교육을 30년 이상 해 오신 분의 초고를 읽었다. 농촌의 황폐화가 가슴으로 느껴졌다. 그러던 찰나에 조카의 전시회에 갔다가 쓰고 싶던 이야기와 조카의 농촌마을 그림이 잘 어우러질 것 같아 제안하였다. 지사랑이 그림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 바로 학교, 차, 아이들이다. 농촌의 황폐화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10년 넘게 독서치유를 공부하다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고 싶어진다. 책을 읽는 독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신단다. 나는 사는 동안 50권 정도의 책을 쓸 예정이다. 정약용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500권을 쓰신 것을 보고 50권이라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다 못하더라도 독서모임 회원들, 딸까지 함께 쓰면 된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쓸 것이다. 휴휴 회장님과 감사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공동체 활동, 책읽기, 글쓰기 등 다양한 모임으로 사람들과 만나는데 특별히 애정을 갖는 활동이라면?

책 읽는 것은 가장 즐겁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책과 함께 사람을 들여다보는 사람책 읽기 즉, 삶을 나누는 것이 자연적인 독후활동으로 이어져 자양분이 되는 듯하다. 10여 년 전 '사람이 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글을 쓰면서 삶이 글이 되는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서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셨고 지금까지 완주에서의 생활과 느낌은?

만 5년 되었다. 한국출판진흥원이 가까이에 있어서 주소가 출판로 25번지인 점이 좋다. 이곳에 와서 책을 다섯 권이나 내었으니 꿈을 실현해주는 곳이다. 혁신도시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축사에서 나오는 고향 향기는 여전하고, 헬기 소음 등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또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분단되는 지점이어서 지역주민 간의 첨예한 간극을 느끼고 있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을 살려 한국의 보편적 정서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말한 프로필을 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소망하시는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전북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지만 점차 권역을 넓혀가며 글을 쓰고 싶다. 나의 글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각 나라의 좋은 글을 모아 보편적 정서를 보여주는 미국 교과서처럼 나의 글이 언젠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달된다면 전라도의 위상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혹시 준비 중인 일이 있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 독서모임에서 시낭송회가 있고 현재 세 권 정도의 책을 준비 중이다. 지리산 이야기로 연규현 화백과 시 그림 책을 준비하고 있다. 화가의 멋진 그림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몇 년 동안 글을 다지고 있다. 또 하나는 남원의 사랑과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인 책도 준비 중인데 기대감이 드는 책이다. 인물을 잘 그려줄 화가를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주변의 유물과 황방산 이야기를 담은 혁신도시 이주민의 삶을 그려내는 책이다.

글 · 김진아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2020

2020년에는 총 20명의 예술인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때보다도 예술현장은 위축된 상황이였고, 사진과 텍스트 중심에서 작업현장과 예술가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영상기록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상제작자 김병수, 전별이 제작을 맡고, 기획 · 구성작가로 이정신, 곽효민이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다. 완성된 영상기록은 완주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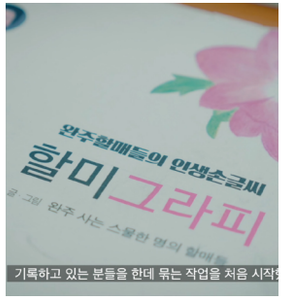
이용규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다

#미디어#지역출판 #완주 #완두콩#지역 월간지#삶의 풍경#우리의 일상

2012년에 설립된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의 대표이다. 2012년 10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월 완주의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을 주제로 지역 월간지를 발행 중이다. 완주의 13개 읍면의 마을들을 기록하고 그 마을에 사는 우리의 이웃을 기록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며 100호를 앞두고 있는 완두콩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의미를 인정받아 2018년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완주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완두콩의 이용규라고 합니다.

완두콩을 알려주세요.

2012년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소식지를 2020년 6월까지 93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완두콩이 시골에서는 아주 흔히 보는 콩인데, 완두콩을 열어보면 콩이 대개 서너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가, 한알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한알 한알 콩들이 어울려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콩알들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한다는 뜻에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완두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011년 6월까지 지역 일간지에서 근무했어요. 그 경력이 18년 정도 되더라구요.
이 지역에서 농사가 아닌 다른 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닦을 수 있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그래도 익숙하고 전에 했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잘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역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기록해보자 해서 완두콩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이유?

대개 우리 사회는 저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뭔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기록하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완두콩은 그런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일상·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이 누군가한테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게 꾸준히 하다보니까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2017년도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업적을 평가받아서 장관상을 수상했는데 그 역시 제도권 기록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기록하는 다양한 기록도 존중을 받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영상인터뷰

지역출판을 지속하는 이유?

지역출판에 관심을 갖자. 지역에서도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직접출판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완두콩의 장미경선생님이 삶의 풍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분들을 한 데 묶는 작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역시 저희들은 유명한 분들보다 평범하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다. 그러한 지표 아래 그런 분들을 한 데 묶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출판을 하게 되었고, 현재 2권까지 나왔고 지금 3권, 3번째 책을 편집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어떤 할머니를 취재했어요. 83세가 되도록 산속에서, 산골에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당신을 인터뷰 한 것에 대해 신기해하면서도 자기같이 시골에 산골에 묻혀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고산성당을 다니시는데 신부님이 어떻게 완두콩을 보시고 아는 척을 하셨나봐요. 할머니를 완두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봤다고, 그 후로 할머니가 자존감이 생긴거예요.
아, 자기도 소중한 사람이다 느끼신거 같아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뿌듯해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 작은 영향을 미쳤구나,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완두콩이 완주에 미친 영향?

완두콩이 매월 내면 되게 구독하는 층이나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젊은 층이나,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 외지에서 완주에 견학을 오거나 완주라는 이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오다가다 접했을 때 어떤 한 분은 이 완두콩을 보고 완주에 귀촌했다 하는 분도 있었고, 1호부터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모아두신 분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작은 매체가 어떤 이 부분에, 어떤 분에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작은 카페나 공공장소에 놔두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우리가 있구나, 완두콩이 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있구나. 그런 걸 느끼죠.

앞으로 활동계획?

우리 구성원들이나 함께 완두콩을 잘 마무리하고 이게 발행되었을 때, 인쇄해서 나왔을 때 가장 마음이 뿌듯하고 가슴이 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우리는 완두콩 발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계속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다만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고 싶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그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서구 작은 매체들 보면 붐이나,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완주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평화, 그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할 때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기에 좋은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일상적이고 평화로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 일이 이어지지 않을까, 중단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02

한송지

예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다

#시각예술#공예 #이서 #별빛공방#위시아트랩#다기#도자기수업#미술치료

도자 공예를 하는 한송지 작가는 예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가 문을 연 별빛공방(이서)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도자, 프랑스자수, 회화 수업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각종 문화예술 강의 및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예의 발전과 공예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시아트랩(we'c art lab)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들과 함께 활동한다.



어떻게 도자공예를 시작했나요?

원래는 시각디자인 전공인데, 대부분의 선배들이 서울로 취업을 갔다가 경력단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경력단절 후에 내가 뭘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 하다보니, 원래 공예를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예 중에서도 도자공예를 선택하게 되어서 이렇게 도자공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공예의 길은 어떤가요?

도자공예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대학교 3학년쯤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1년을 휴학하고 우선 배워보자는 생각에, 1년 휴학을 하고 도자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작업실 겸 작업을 하다가 다시 한번 도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 장작가마를 하고 계시는 군산의 소우 진범석 선생님 아래서 장작가마·전통가마를 장작 나르면서 배우다가, 조금 예술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군산을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을 때 통장에 만원 있을 때 이런 기억·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예술로만 살기로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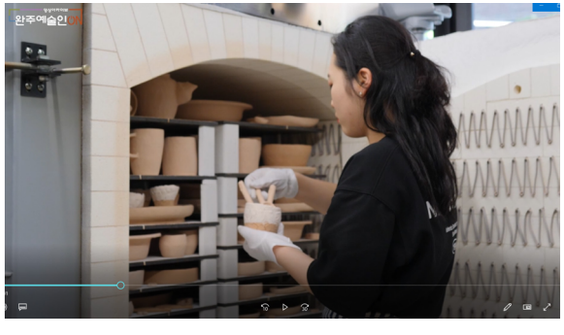
별빛공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다시 한번 '예술로 밥 벌어먹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조금이 공간을 다르게 꾸며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도자 수강이나 프랑스자수 수강 그리고 2020년 5월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회화 선생님으로 오셔서 회화 수업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카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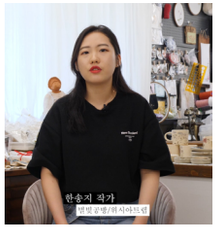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조금 더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게 틀린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시는 거 같아요.
공예라는 부문·도자라는 부문들이 심신의 위로같이 느껴지시는지 되게 공방 수강생 문의도 오셔가지고, 본인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제일 고민되고 있는 경력단절과 본인의 우울감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제일 고민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다 보면 다섯 분의 세 분은 우십니다. 정말 그렇게 그분들이 힘들고 우





울한 그런것을 사실은 남성분들은 잘 모를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생애 주기적으로 여자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겪게 되는 수순인 그 부분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알려주시는거 같아요.



영상 인터뷰

요즘 작품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작년부터 다기에 빠져 있습니다. 차도 함께 배웠고요. 차 하는 저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차분하고 절도있는 차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차에 어울리는 다기를 만드는 것 다기라고 하면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찍어나온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일반인분들은 다도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다기를 기능을 가지고 가되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감성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저는 지금은 되게 모래알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조금씩 풍화작용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점력을 가진 흙이 되겠죠? 그 흙이 훗날에는 제가 이렇게 예술 활동도 하고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던지, 이런 제 삶에 녹아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나중에 완전 훗날을 봤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좋은 이쁜 작품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별빛공방으로 놀러오세요!
어떻게든지 겪어야 되는 그런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좋은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니까요. 다른 공예를 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으로 오셔서 그저 그냥 얘기만 해주셔도 되고 참여 해주셔도 되고. 남성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받지 않습니다.
우리 누나,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동생도 같이 겪어왔고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희망차게 바꿔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주저 없이 별빛공방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도 나눠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역할이 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건?

검은 하늘에 별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나는 완주의 하늘에 나라는 별자리를 새겨 넣고 싶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03

김성석

삶의 이야기를 녹여 담는 스틸 아티스트

#시각예술#조소 #소양 #스틸아티스트#철조각가#조각과에세이

차가운 철은 뜨거운 불과 작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만나 우리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으로 탄생한다.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의 작품은 우리의 삶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와 해학이 넘치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감을 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낸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에세이로 작품과 함께 기록된다. 에세이를 통해서 진정성이 전달되고 그 진정성은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낸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을 주재료로 해서 조각 작품을 하고 있는 김성석이라고 합니다.

작품세계의 주제는?

옛날 우리나라 조상부터 쭉 내려오던 속담이라는 것은 해학이라던가 풍자라던가 유머라던가 이 안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래 베이스가 농경문화잖아요. 농경문화가 바탕이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던 닭이라던가 소라던가 고양이라던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을 빗대서 까마귀가 날고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소식이 오고,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고, 모든 정서에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더라고요. 속담이라는게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을 풍자해서 풀어내는게 속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에 사람을 의인법화 시켜서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작품에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속담으로 작업을 크게 잡고 해왔죠. 그러다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속담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녹아있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작업을 지금까지 쭉 해온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개인전을 하는데 저의 지인들이 전시를 축하해주겠다고 쭉 와계시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 정말 떨렸어요. 첫 번째로 서서 했던 인사말이 뭐였냐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제 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지금 서 있다면 차라기 그게 덜 부끄럽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 작품을 내어놓는 일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까지, 제 마음까지, 치부까지 다 드러내어 놓는 느낌이었어요. 몸은 껍데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차라리 내 알몸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내 알몸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작품을 사람들한테 내어 놓는게 너무 겁나고 부끄럽고 실수투성인 것 같고 잘 못 만드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순간에 그런 인사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노련해져서 그러진 않지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능숙해졌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법도 이제 능숙해졌고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 인사말을 했던 그 순간을 그때부터 였던 거 같아요. 감정선을 유지하는 연습하는





것 왜냐하면 다시 부끄럽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작품 한 점, 한 점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면서부터 완성하는 순간까지 제가 느꼈던 생각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 담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작품 한 점 한 점이 그래서 낙서가 해지게 되고, 제목도 다른 작가들하고 조금 다르죠. 딱딱하지 않고 풀어서 제목을 짓는 것 같고 그런 것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대표하는 색깔인 거죠. 제 색깔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에세이를 쓰게 된 계기?

제 작품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전시장에 놓여있는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은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구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이렇게 힌트를 드리듯이 써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2, 3년 전부터는 해외전시에서는 못하지만, 국내전시에서는 명세표 캡션 안에 짤막하게 글을 좀 넣어놔요. 일반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오히려 제가 짤막하게 넣어 놓은 글들이 작품을 순수하게 감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지나친 배려가 방해가 될까봐 조금 망설였는데, 한 번 정도 큰 용기를 내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에세이를 엮어서 책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꾸준히 하고있는 작업이죠.

매년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작가가 작품을 해서 작품을 발표하는 건 작가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살아있어요. 저 쉬지 않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세상에 알리는 거죠. 개인전을 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작가한테는 너무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평생을 무대를 그리워하면서 살죠. 작가한테 무대는 전시장이에요. 작업실에서 대본을 열심히 쓰죠. 대본을 쓰고, 여기다가 음악 리듬을 입히고 또, 어떻게 뭐 재미있게 뭐 안되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입히고 입혀서 만들어서 전시장에 내놓는 것은 무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게 작가한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내 작품을 보고 즐거워 해주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게 창작의 희열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시회장에서 관객과의 대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는 분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내 표현에 문제가 있나?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보려고 내 표현에 문제가 있나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품은 나는 나의 생각을 담아서 내어 놓는데 까지가 작가의 몫이고 그걸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거기서 감흥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는 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전시장에서 작품 보러 오신 분들하고 대화가 훨씬 풍요롭고 즐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라고 제 작품을 두고 처음 뵙는 분하고 서서 저는 이런 의도로 작품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나는 이 작품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이야기하면,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고, 또,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또 그분은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 아주 즐거워요. 전시장에서 제 작품을 두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작가한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제가 작품을 대하는 자세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건?

저랑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도 중앙으로 서울이나 큰 대도시로 많이들 가버렸어요. 이 지역에 저 혼자 남아있거든요. 많은 기회가 있죠, 정보가 있죠, 대도시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제 정서를 만든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 많은 정보와 많은 기회와 바꾸지 않을 만큼의 제 중요한 정서가 이곳에 있는 거죠. 제가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작업을 한들 지금 하는 감정들이 작품에 제대로 우러나올 수 있을까, 내가 대도시에서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

가지고, 오히려 경쟁하는데 익숙해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가지고 내 작품에 진심을 담아내고 올곧이 작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제가 나서 자란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게 너무 당연한 거고, 소중한 거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로서 이 지역에서 어떤 재원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내가 오히려 제대로 된 작가로 성장을 한다면 전주, 완주 이 지역에 가면 김성석이라는 조각가가 있어.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까지는 해봐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죠. 제가 얼마나 작업을 앞으로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작업은 할 것이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작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인터뷰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04

김홍란

꿈을 이어가고, 꿈을 실현하는 예술인

#공연예술#북한음악#북한무용 #전국 #하나로남북예술단

9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한 김홍란 무용가는 고등학교까지 예술소조(예술 특기반)에서 활동하고 학교 졸업 후 기간 기업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기업소 문화예술선전대, 거주하던 혜동시 문화예술선전대에서 무용을 해왔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유롭게 예술의 혼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다. 북을 떠나 한국에 내려온 뒤에는 자유를 찾았고, 마음껏 하고 싶었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로남북예술단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북에서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꿈을 접어야만 했던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전속가요 반갑습니다로 시작해서 휘파람, 임진강, 고향 떠나올 때 등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민속 가요와 민속춤들로서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2019년 완주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 있으셨다는데?

창작뮤지컬 '우리가 걸어온길'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우리가 걸어온길'의 내용은 북한에서 오신 예술단원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험난한 길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창작으로 무용, 음악, 영상 등으로 모든 것을 창작하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서도 북한 경찰역, 북한에서 엄마가 아들을 잃어버린 일, 브로커가 여자들을 팔아 먹는 일, 어머니와 딸이 갈라져서 총살당하는 일 등 여러 가지 눈물 나는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회상하면서 창작으로 무대에 올린 작품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북한 이탈주민 김홍란입니다. 하나로 남북예술단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남북예술단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로 남북예술단은 특별히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북한의 민속춤, 물동이춤, 부채춤, 계절춤, 북한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하면서 영상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 분이 정말 이런 영상을 보기 드물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통일에 대해서 몰랐던 그런 일들을 알게 되어서 다시 감회롭게 생각했다.
또 특별히 통일 활동을 열심히 일하는 여성회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공연을 완주의 작은 공간에서만 할 수 있겠느냐? 전주시에서라든가 모든 통일 단체에서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완주군에 더 열심히 창작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얻었습니다.



영상 인터뷰

남북예술단 대표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을 긍지 높이 생각합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깊이깊이 생각하면서 완주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높이며, 남북 간의 통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힘있게,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계속 무대에 서는 이유?

저는 9살 때부터 어머니가 해준 옷을 입고 김일성 수령님의 오시는 행사, 김정일이 등장하는 행사에 어렸을 때부터 찬양, 축하하는 춤을 많이 췄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 하나로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는 무대에 서는 것이 좋다.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예술을 통해 통일이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 믿는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05

윤명호
나무를 나무처럼, 산을 산처럼 화폭에 담다

#시각예술#회화 #상관 #실경산수화, 유화와먹의만남, 한국화벽화

70년 가까이 먹과 함께하며 한국화를 그려온 백당 윤명호 선생. 노령의 나이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그림에 대한 애정으로 매일 작업을 한다. 10대 시절 만화로 시작해 동양화에 입문, 관념 산수화를 그리다가 본인 작품에 대한 깊은 고민 후 50대부터 실경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서양화의 유화기법을 도입해서 먹과 물감이 조화를 이루는 산수화를 그린다. 상관에 있는 작업실 청우헌 담벼락에 그리기 시작한 한국화 벽화는 내아 마을 담벼락을 수놓았으며 완주뿐 아니라 전주, 김제 등에서 활발한 벽화작업을 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한국화를 전공했고 이름은 윤명호, 아호는 백당이라고 합니다.

설경 산수화를 그리게 된 계기?

처음에 거의 50대까지는 옛날 전통 산수화를 관념적으로 강가에 배 띄우고 하는 것이 하도 오래 하니 식상할 뿐만 아니라 뭔가 현대에 와서는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도 있어서 다시 공부하는 셈 치고 실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경을 하면서도 채색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 있고 먹으로만 하는 스타일이 있고 완전 채색으로만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사실적인 것에 가깝게 먹과 색을 사용하면서 해보자 하고 그걸로 전시작품도 하고 개인전도 하려고 80여 점 정도 만들어 놨었어요.

작품을 대하는 마음가짐?

지금도 어디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그 어떤 작품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종전에 내가 알았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무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그때 또, 생각을 해요.
붓을 잡기 전에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붓을 잡고 또 해놓고 나서 전에는 붓을 잡으면 뭘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을 냈다고요. 이 한국화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중간에서 한번 붓을 놓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지요.
그게 이 선 하나, 획 하나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 그때 마다 스타일이랄까 무엇이 다 조금씩 달라져요. 기법이라든가 소위 60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는거에요.
어떤 식으로 하던지 하는데 항상 왜 내가 이것을 그려야 하고 왜 라는걸 꼭 집어넣고 어떻게 왜 어떻게를 그게 머리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지요.

벽화를 그리게 된 계기?

우연히 내 집 벽에다가 내 집 벽만 하다가 보니까 또 앞집에서 우리 집도 해줘요. 하다 보니까 이게 동네 사업이 되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소위 작가가 그림 좀 그린다는 사람들이 그 벽화를 하면 훨씬 우리 문화 수준도 좋아지고 보기가 좋아질 것이다 싶어서 한번 내가 그걸 시도를 해봤지요.
한국화하는 사람으로서 페인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할 판인데 시도를 해보니까 처음 쓰는 재료지만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또 하면서 재미가 있어. 이게 일단은 화판이 커.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큰 대작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도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벽면이 크니까 작업하는 맛도 있고, 또 똑같은 소재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이제 다른 소재를 찾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 전체가 다 이루어졌죠.

기억에 남은 벽화작업?

작년에 완주문화재단에서 벽화 보수작업을 했잖아요. 동상면 면사무소 앞에 그 벽면이 커서 거기 감나무는 진짜 감나무만 해요. 조금 시간이 넉넉히 주어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더 그렸으면 싶다라는 아쉬움은 있어도 일단은 큰 작품을 해본다는 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청우헌 화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80여점 전시를 하려고 마지막 내 인생 피날레 전시라는 기분으로 그 80점 그림이 홀라당 타버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청소 한번 완전히 깨끗하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탁 들어요. 뭔가 새롭게 한다는 그 어떤 신의 계시같이 기분이 뭐 딱 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웃고 나중에는 좋아서 웃었어요.
무엇인가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감이 팍 들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나는 새로움이 즐겁다?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자체가 좋아요. 내가 지금 여기 유화를 하는 것도 뭔가, 뭔가 얻어지려면 다른 장르도 알아야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세세하게 상당히 공부했어요.
유화는 유화대로 맛이 있고 색과 먹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색만 가지고 하면 쉬워요. 먹만 가지고 해도 조금 편해요. 그런데 색과 먹을 같이 사용할 때 먹을 빼면 안 된다고요.
한지에 먹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성이고 상당히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먹이거든요.
먹은 먹대로 살려서 채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내 과제라 생각해요.





백당 윤명호 팔십전?

내년이면 팔십이 돼요. 내후년까지 81세까지는 80세로 봐야 한다고요. 만으로 치면 80세니까 팔십전 이라는 것이.
화가가 팔십전을 한번 한다는 건 큰 자랑이고 그만큼 장수를 했다는 얘기고 자기 인생의 정리이니까 그러면서 화집다운 화집을 하나 발간하고 내 족적을 남겨놓고 가는 모습으로 그 전시를 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소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 생각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건?

영상인터뷰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이번에 나 사는 상관면 말고도 완주군 벽화작업을 하면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참 인심도 좋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동네들이 많아요.
완주군이 그 전에 젊었을 때 많이 돌아다녀 보고 스케치하느라 여행도 많이 해봤지만, 완주군은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완주군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커요. 완주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06

정철휘
지역을 그리고 꿈을 그리다

#시각예술#회화 #용진 #완주청년화가#삼일월#오솔길행복상점

정철휘 청년화가는 버섯농장에서 버섯을 키우고, 농장일을 마친 후에는 틈나는 대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린다. 대학 때 그림을 전공한 그는 계속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생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농장일을 돕겠다고 설득했다. 농장 이름도 "그림그리는 농부의 버섯농장"이다. 요즘은 나고 자랐지만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싶어 완주를 소재로 한 그림에 몰두하고 있다.



화가 정철휘는?

저는 완주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버섯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과 끝나면 작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을 했었는데요, 작업 활동을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작업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하시는 버섯농장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섯 농사와 그림 작업을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일단, 패턴이 잘 잡혀야 되니까. 일 하면서도, 일 끝나면 지치더라고요, 지치다 보니까 그림을 잠깐 잡다가도 놓게 되고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 부분이 해결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하다 보니 그 부분도 적응하고 몸으로 습관적으로 베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하다 보니 되긴 되더라고요. 2시간씩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주의 지역을 소재로 하여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

일단, 완주군이라는 지역 자체가 제가 살아온 지역이니 편했어요. 타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작업 활동하고 그러는데 많이 편하고 익숙하고, 제가 처음 인터뷰 갈 때는 그려준다고 하니까 호의적으로 나오는데도 있고, 너무 바쁘니 멀리하는데도 있었는데 호의적으로 나오는 분은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보내드렸는데 좋아하시고, 카카오톡 메인 사진으로 해놓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되게 뿌듯하죠, 좋았습니다.

예전에 지역을 그리기 전 그림에 대해 알려주세요

졸업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린 작품이 무엇이냐면 슬레이트를 봤는데 물결이라는 느낌과 비슷하더라고요. 부드럽게 꺾이는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고기를 그리면 어떨까 그때는 되게 여유롭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슬레이트에 물고기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역을 그리는 작업을 하며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이전에는 솔직히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



졸업작품으로 슬레이트 위에 그린 물고기

은 아니였어요.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조금 쉬고 그런 것이 좋았는데, 하다 보면서 돌아다니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많았어요.
완주군에서 튀지는 않더라도 은은하면서 쉴 만한 공간, 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구나. 물론 좋은 공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나가면서 완주군의 좋은 점이나, 좋은 면들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인터뷰

예술을 위해 7년의 노동시간 활동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집안에서도 막내로 자라다보니 어떻게 보면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 몰랐어요. 이런 일을 하고 현실에 부딪혀서 살다보니까 현실이 더 보이고 작업 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거의 내가 진정으로 느껴서 깊이 있는 그림이 아니라 1차원적이고 단순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붓을 놓았다고 해서 그게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사이에 저는 세상을 느꼈으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

완주군 숨은 명소들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다니면서 사장님이나 예를 들어 시장을 가면 시장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걸모습은 좋잖아요. 가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한 번씩 찾기도 하는 공간인데 대화를 통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된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들 이런 다양한 이런 감정들, 사람마다 나름 각자 사연이란게 있잖아요.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믹스하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계획 중입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젊은 청년 예술가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 장르가 합쳐지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완주에서 꿈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07

유순애
완주 구석구석을 예술로 물들이다

#시각예술#회화#디자인 #삼례 #공공미술, 주민친화예술가, 에코예술창작소

완주군 구석구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순애 화가. 13개 읍면의 크고 작은 마을의 경관조성뿐 아니라 둘레길, 축제 경관아트 등 완주군을 예술로 물들이는 작업을 해왔고 계속 진행중이다. 오래된 마을들을 보기 좋게만 만드는 작업이 아닌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마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정한 공공미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에코 예술 창작소 유순애입니다.

하고 계신 작업은 무엇인가요?

예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벽화 내지는 구조물로 테라코타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마을을 꾸미고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마을마다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항상 저희 작가들이 그냥 들어가서 디자인해서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을에 가면 마을 이장님하고 부녀 회장님하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주민들과 함께 항상 회의를 거쳐서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스토리텔링,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든지, 이 마을은 예전에 뭐가 있었던 마을 그래서 인디기 (인덕) 마을이 왜 됐고 싱그랭이 마을이 왜 됐고 그 마을 이름 따라서 다 전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던지 딱 어디 와서 봐도 아~ 이 마을은 호랑이하고 뭔가 연관이 됐나 그러면 호랑이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 어떤 얘기 속에서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만들고 같이 조형을 했죠.

공공미술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 마을 같은 경우는 메주를 만든다고 해서, 발효식품 청국장을 한다고 해서 흙으로 메주를 빚어 가지고 메주 형상도 만들고 그 미꾸라지 형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이 열 마리, 다섯 마리씩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각 이름도 쓰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붙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들 작품이 거기 마을에 있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손자들이 와도 외부 손님들이 와도 본인이 했다. 어르신이 했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애착도 가지시고 주변 청소도 하시고 그래서 마을도 깨끗해지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조용했던 마을이 서울에서도 블로그 보고 찾아오고 사진을 올려 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그 오지 마을을 학생들이 와서 이제 마을이 조금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동네가 이제 사람 소리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굉



장히 친절도 하시고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어르신들이 미꾸라지를 직접 자연산을 잡아서 관광객들한테 추어탕도 끓여주고 그래서 마을의 소득원도 됐고.

공공미술의 지역에서의 가치는?

공공미술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공공미술, 예술의 가치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점이 참 좋았던 거 같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술가라고 해서 예술가 혼자 작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소통, 단합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혼자면 조금만 하겠지만 여럿이 하니까 그 양도 많아지고 그 효과도 그 배가 되는 거 같아요. 하면서 제가 좋았던 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공공미술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 많은 사람들과 주민들과 진짜 13개 읍면의 그 마을 사람들, 오지 마을 사람들 우리 행사 때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그런 어떤 소통.

그거에 굉장히 저는 보람 느끼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마을이 예뻐지면서 우리 마을에 뭔가 소득원으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끌어냈던 거 그게 보람이었던 거 같아요.

와일드푸드축제 곶감덕장 조형물을 만드셨는데요

완주는 너무 많아요. 감, 수박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조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이 적정했었고 이게 이제 일반 그냥 제작도, 그냥 찍어 내도 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만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재도 그 한지가 대승한지, 우리 지역의 대승한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지를 소재로 택해서 이제 덕장, 감 하나하나를 감나무에 걸린 감보다 곶감이 유명해서 곶감을 말리는 덕장을 표현하고 만들다 보니까 감 줄을 만들게 됐죠.

그게 이제 어떤 조형을 처음에 시도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만들어서 한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 해마다 하게 된 것이 이제. 이게 다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자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래서 주민, 선생님들 몇 분이서 계속 1년 동안 만들어서 축제 때 같이 참여하게 되었죠.

보람을 느낄 때는?

저는 가서 해놓은 그런 것도 보람되지만 주민들하고의 그 얘기나 그 어르신들. 10년 후에 갔는데도 반겨주시고 그 분들이 너무. 저는 잊어버렸을 거 같은데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도 쪄서 주시고 밭에 나는 농작물도 싸주시고 올 때 그럴 때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계획?

계속 이런 저기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발판이 돼서 좀 더 제 손이 가서 좀 더 예뻐지고 누구한테든 기분 좋은 뭐가 된다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냥 즐기고 일 자체를 저는 일이라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냥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또 가면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하나 더 알아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알아지고 또 그분이 어디를 갔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일을 하면서 저도 가져 오는게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줬다라기보다 제가 받아오는 것들이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을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다니면서. 완주 구석구석 예쁜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자체로도 이쁘고 요기만 조금 이렇게 터주면 좋겠다. 여기에 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항상 다니면서 머리 속에 그려지고 스케치되고 그런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지만 그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어떤 자문이라던지 다니면서 이런 덴 이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 여기에서는 넘쳐나는 것이 여기는 부족하면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인터뷰

완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건?

예술인으로 완주에서 살아가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했고 그동안 많은 질타도 받고 뭐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걸 왜 하냐고 원망도 듣고 했지만 오래 두고 본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되게 보람되고 행복했어요. 저 나름대로 즐겁게 일했고. 즐겁게 저는 즐겼던 거 같아요.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08

류재현
희망과 빛을 그리는 아름다운 사람

#시각예술#회화 #전국 #길, 숲, 빛, 희망, 자연, 아름다운 사람

사회적인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들을 길을 통해서 풀어내면서 그 길이 숲으로 들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류재현 작가. 길과 숲을 통해서 생명을 그리고 있다. 길과 숲을 통해서 희망을 그리고 있다. 길과 숲을 통해서 빛을 찾고 있다. 그림을 통해 밖으로, 세계로 나가고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간다. 또 사람들은 그를 통해 여기! 전북 그리고 완주를 알아간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길과 숲을 그리는 화가 류재현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학교를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전업으로 작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갔기 때문에 학교에 발령을 받고 오랜시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다가 제 원래 꿈이 원래 화가였기 때문에 제 작업을 많이는 아니지만 친구들과 같이 전시를 하면서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제 나이 45살에 첫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되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쭉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제가 좋아했고, 다른 것보다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노트나 교과서에 낙서하고, 그래서 선생님, 부모님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뭔가 내 스스로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또 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게 그림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로를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부모님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진로를 고3이 되어서야 미술대를 가기로 확정을 하고 진학 준비를 했고, 대학을 미술교육과를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과 숲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아마 저희 세대가 대학 다녔던, 옛날 386세대라고 했는데 군사독재 말기의 어지러웠던 암울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사회문제들이 강하게 저희를 짓눌렀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들을 길을 통해서 풀어오는 작업을 꾸준히 대학 졸업 무렵 때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쭉 이어오면서 나이가 40 중반이 되면서 그 길이 숲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난 조그만 오솔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전 젊었을 때 그렸던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주는 메시지가 사회적인 저항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거티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 인생 중반을 넘어오면서 숲으로 들어와서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생명이고, 희망이고 그래서 빛을 추구하게 되고 과거의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뀌는 현재는 숲속에 난 길을 통해서, 경우에따라 물길을 통해서 길 너머에 있는 공간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고, 내 삶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고 숲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인터뷰

그림 그리는 일 외에 하는 일은?

제가 시골에 들어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농사도 짓고 싶었고, 야생화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화초를 키우고 싶어서 전원주택이 필요했고 서둘러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물론 미술전공을 했기 때문에 작업실을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로망이었습니다. 도시를 나와서 작업실을 갖게 되고, 작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춰서 고추, 배추, 상추를 심고, 오이도 심고 수확해서 가족들이 같이 먹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 주고 아주 큰 재미죠.
저는 시골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작업하고,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젊어서 못했던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작년에 입학했으니까 올해 2년차 인데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하려니까 현재는 작업하고, 틈틈이 책보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그게 저의 일과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들과 길을 함께 했는데, 친구들 소개해 주세요.

대학 졸업하고 사범대학이었기 때문에 바로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교직에서 계속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작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학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하고 의기투합해서 녹색종이라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발기했던 친구들이 8명이었는데, 친구들과 매년 전시를 꾸리면서 그나마 1년에 3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서, 준비하고 전시하고 그러다가 다시 생활로 돌아와서 물감하고 이별하고 살다가 또 다음 전시 시즌이 되면 다시 또 작업하고 근 20년을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같이 했던 그룹의 친구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작업하는 화가로서 설 수 있게 한 정말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아마 일찍 붓을 던져버리고 교사로서, 그냥 생활인으로서 끝났을 텐데 그 고마운 친구들이 항상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작업을 이어올 수 있었고 지금 내가 늦게나마 작품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이란 것들을 항상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음악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표현을 노래방가서 쉽게 노래 부르고 거기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나 노래 잘 못 부르는데 하는 것 보다는 음치면 음치대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미술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미술교육에서 사과를 내놓고 똑같이 그려라하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굳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림은 흔적이 남잖아요.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 같아요.
노래는 한번 부르면 흘러지나 가지만 미술도 똑같이 낙서하듯이, 생활하면서 흥얼거리듯이 느낌 있을 때 아니면 뭔가 그리고 싶으면 그냥 그리고 그 두려움 없애면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은 듣는 거고 내 공간에서 라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지만, 미술은 내가 전시장 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전시장 가는 것을 생활화하면 미술관하고 가까워지고, 동네에 있는 갤러리하고 가까워져서 틈날 때, 주말에 가서 자꾸 보고, 많이 접하는게 가까워지는 조건인 것 같아요.
미술을 지식적인 것보다는 미술은 느낌으로, 감정으로 받아 들여야지 분석해서 이론으로,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어려워요. 쉽게 가서 느끼고, 자주 미술관을 가서 우리와 가까워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림을 통해 밖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를 알아갑니다.
또 사람들은 저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전북 그리고 완주를 알아갑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09

윤혜진

문화예술의 텃밭을 가꾸는 기획자

#시각예술#공연예술#기획 #전국 #문화예술교육#생태놀이터

문화기획자로서 그는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다. 완주군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에서 문화예술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일방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자립적인 상상과 경험을 하게 하는 그의 기획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하며 하얀 도화지를 내미는 손길, 앞으로 그가 펼쳐 보여주는 도화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혜진입니다.

문화기획자란?

보통은 기획자로 통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공연기획이 있는 것처럼 축제도 기획을 하고 전시나 지역문화예술 교육이나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들을 기획하는 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기획자가 된 계기는?

네 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무용을..쭉 해왔었다가 대학교때까지 무용을 하고 제가 스스로 좀 행복한 것을 찾고 싶은 갈증이 있었어요. 무용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능력 그리고 바라보고자 하는 지향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느꼈었고 그렇다면 어떤 걸 하는게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성향과는 어떤 직업을 찾는게 좋을까라는 고민 중에 예술경영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시작이 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거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 계기는?

이쪽 일을 처음 시작한 건 축제인데요. 축제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즐기고 가는 건데 저희가 포커싱을 할 수 밖에 없는 대상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축제 공간에 와서 잘 즐기고 경험하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이 더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의 기회를 주느냐가 되게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느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필요성을 느껴서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해왔고 이제는 더 집중하고 확장시켜 보고자 하는 과정인 거죠.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릴적 경험 그것이 이건 이렇게 하는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통해지는 교육적 가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었고 사실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행동, 문화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뿌리내리는 것이 공연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모든 세대를 관통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 소중한 중요한 시기가 어린이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생태놀이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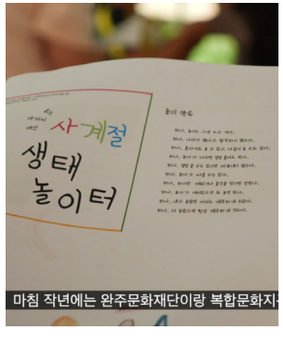
제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도 어린이 대상으로 예술교육 활동을 했었어요.
하면서 나름 저나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랑 지키고자 했었던 철학, 소명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어른들의 역할은 그런 바탕을 깔아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주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있고 생태적인 환경이 있고 하니 여기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마침 작년에는 완주문화재단이랑 복합문화지구 누에 팀에서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거점화 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에서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버려져 있는 공간이긴 했지만 거기에 흙 붓고 나무 기둥 세우고 불 가지고 놀고 물 가지고 놀고 하는 진짜 생태로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었던 거고.

생태놀이터가 갖는 메시지는?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었던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보통 놀이터라고 하면 기구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구보다는 아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자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놀지 않을 때 그 공간을 보면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면 그곳이 무궁무진한 콘텐츠나 재미가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에 나무, 흙, 불, 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했었고 했었을 때 아이들만큼 엄마, 아빠들이 엄청 재미있어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섭없이 자유롭게 흙에 정말 뒹굴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시간 그걸 보는 엄마, 아빠로서도 좀 많은 느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언제 또 놀 거에요? 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 팀분들이랑 올해는 자립적으로 꾸준히 아이들을 만나 보자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죠.

부모와 함께하는 생태놀이터는?

어떤 프로그램은 부모님을 못 들어 오게 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 간섭없이 너희 마음대로 노는 곳이야 라고 마련해주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생태놀이터는 엄마도 아빠도 같이 놀아야지 아이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







영상 인터뷰

마, 아빠도 그렇게 제대로 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같이 경험하고 느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거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는 모두가 경어를 쓰잖아요. 아이들도 저희한테 '뭐 뭐 해죠.', '뭐 뭐 할까?', '뭐뭐 할게' 라고도 하고 그 호칭과 말투를 엄마, 아빠에게도 똑같이 쓰게 해요. 그러다 보면 놀이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립적이기도 하고요. 엄마, 아빠라고 해서 그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나중에 놀다 보면 엄마, 아빠들이 되려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각자 개체로 따로 놀게 되거든요. 저는 그 분위기가 사실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서로 경어를 쓰기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갖게 되고 약간 자립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해죠'라는 말을 점점 안 쓰게 되요. 왜냐면 동등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뭔가 부탁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기획자로 갖는 가치관은?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우선 기준입니다. 작가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 지역에 우리의 활동이 어떤 효과나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기획자로서 책임감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그게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획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저는 늘 하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도 찾고 관련된 키워드나 여러 가지를 해외사례도 찾고 뭐 여러 가지로 찾는 것 같아요. 수시로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메소드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카드식 아이디어 저장법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는 해요. 활용을 하는데 최근 제가 드는 생각들은 그런 카드를 아무리 많이 해놓고 마인드맵으로 아무리 정리해봤자 제가 몰입하는 순간에 그 몰입도 떨어지면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몰입의 기술에 대해 그걸 막 찾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있으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프로젝트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저의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그런 밀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문화기획이라고 하는게 장르에 국한되기 보다는 삶 속으로 많이 영향을 주는 편이라 저는 다양한 방면이기도 하지만 삶 안에서 많은 영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찾는 문화기획은?

사람에 집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문화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징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사람과 만나는 그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노력, 책임감 그런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실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직은 완주에 온 지 얼마 안되서 그 지역적 특징, 지역적 문화 지역적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죠.

문화기획자에게 완주란?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은 저는 텃밭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술적 요소, 문화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잘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게끔 하는 토양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기획자로서 완주란 아직 일궈지지 않은 텃밭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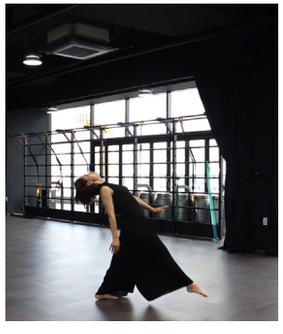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10 황은아
춤을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다

#시각예술#공연예술#기획 #전국 #라인댄스#문화대장간 초연#예술극장 초연

"제가 여기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춤은 무엇이냐? 마을에서 밭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할 수 있는 춤! 마트에 가서도 음악이 나오면 춤출 수 있는 춤! 우리가 플래시몹 이야기하듯이 어떤 한 동작, 두 동작이 완주지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춤을 만들어 다같이 천안에 흥타령이 있는 것처럼 함께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한판 노세!"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 춤을 통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그녀의 이야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라인댄스로 전라북도에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무용과 라인댄스를 접목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는 모토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도 둘이서도, 여럿도 가능한 것은 춤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무용을 하면서 사실 제가 엄청 춤을 잘 추는 테크닉이 좋은 사람이 아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춤을 통해서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게 아이디어가 되어서 여럿이 함께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술극장 초연은?

처음에는 연습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싶냐고 이야기했을 때 춤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공연 연습장 사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내려와서도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공연장을 대관하는 그 자체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들을 표현할 수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화대장간 초연은?



대장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광로 속에 쓸모없는 재료들이 담아져서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새롭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어려운 현실이 많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공간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고 속에서 새롭게 재탄생하듯 노인분들이 새로운 삶을 갖고 문화예술로서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서 다시 행복한 삶을 갖게 하자.

초연이 완주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흥이 있습니다. 그 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완주에서 활동했습니다. 장파마을에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허리도 아프고, 쭈그려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춤을 추게 하고, 운동도 되게 하면서 튼튼하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다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춤은 무엇이냐? 마을에서 밭에서 농사 지으면서도 할 수 있는 춤! 마트에 가서도 음악이 나오면 춤출 수 있는 춤!
우리가 플래시몹 이야기하듯이 어떤 한 동작 두 동작이 완주지역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춤을 만들어서 다 같이 천안에 흥타령이 있는 것처럼 다 함께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한판 노세!"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인터뷰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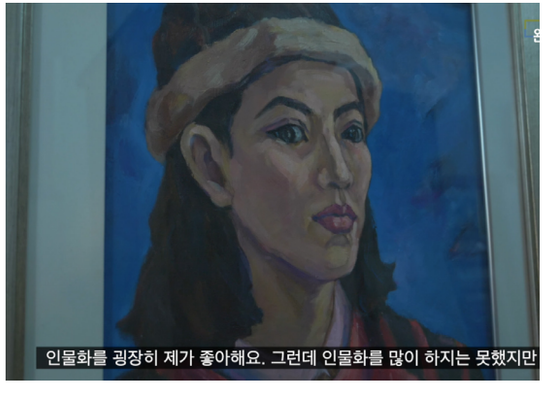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춤을 통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11

노정희
봄, 꿈을 꾸는 화가

#시각예술#회화 #상관 #조각보, 내면의 창, 봄꿈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한다. 작업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하며 잠 못 이루며 작품에 한없이 빠져들기도 한다. 반면 그의 작업방식과 표현하는 기법은 과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뤄온 그의 작품세계는 하나의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에 빠지게 한다. 봄, 꿈이라는 큰 주제 아래 순간의 감정과 관점을 여러 부제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관람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아에 대한 질문을 한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감정들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노정희라고 합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 자신에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미술 시간에 하는 그런 정도도 너무나 좋고 미술 시간이 미치게 기다려지고 그림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 열정 그런게 있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나는 꼭 계속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열망 그런것 때문에 가게 된 거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 같고 제가 크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제 열망이나 욕심만큼은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제가 그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작품의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지?

주제를 미리 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의 저의 관점이 있잖아요. 제 감성과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작품의 세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부제가 거기서 또 다시 탄생하는 것 같아요. 쭉 이어지는 '봄, 꿈'이라는 주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거든요. 계속해서 통하는 그런 맥이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부제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화풍으로 변하게 된 계기?

제 내적으로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다른 유명한 좋은 작가들,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작품, 화집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쭉 그런 어느 시점까지는 이어져 왔는데 내 내면세계를, 정신세계를 좀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지만 작품에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심하던 시기쯤 김현희라는 조각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런데 그분의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색채라던가, 면 구성이라던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고 왔는데 제 나름대로 그것을 같이 조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작품들이 초창기에 그렸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조각보를 상당히 많이 그 이미지를 제 작품에 같이 조합하고 그 시도가 거기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만족감이 왔어요. 그리고 물감도 바꿔졌어요.

이전에 유화물감을 썼지만 아크릴 물감으로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색채도 대부분 원색을 쓰는데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잘 썼을때는 굉장히 강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저에게도 그런 울림을 받을 수 있고 치유나 위로나 만족이라던가 그런 감성에 충족감도 올 수 있지만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전달력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내 자신에 우선 만족스러운 소재와 작품세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변화의 큰 시점이.

작품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산란하게 하지 않는 거.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많이 만난다거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저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작업실에 사람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솔직히 반갑지 않았었어요. 이제 제가 안정되고 나서 작품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게 된 게 여기가 그림 그리는 작업실 공간이야 그걸 모를 정도로 거의 한 여기 이렇게 소통한 지는 열리고 사람들과 소통한 지는 2~3년 됐나요?

그 이전에는 여기를 공개하지도 않고 집중하기 위한 오로지 그런 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음악도 듣고 주변 환경에서 몰입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기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명상이라는 것도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 다 털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요. 비워내고 다시 이제 끌어들이고 또 다시 끌어내고 그런 것을 까다롭다거나 고집스럽다거나 뭐 도도하다던가 그런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영상인터뷰

알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생을 여기다 완전히 정말 제 욕심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치면서 이끌어 왔는데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다른 욕심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래도 다 제쳐 내고 오로지 그냥 그림을 향해서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을 위해서 다 왔는데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작품세계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구축이 됐지만 여기서 이대로 끝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시도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더 기법들을 가지고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기법들은 다를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더욱 깊이 있게 계속 몇 가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어느 정도 나의 시점이 됐을 때 그동안에 했던 작품들이 있잖아요. 쭉 세월 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제가 시도했던 작품들. 하다못해 스케치에서부터 인물화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물 모델을 쓰지 못하니까. 인물화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인물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때 제가 스케치했던 어린아이들 스케치부터 예를 들면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유화했던 그런 시기부터 지금. 어느 그 나이 때 시점까지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크게 어느 공간에서 흐름을 가지고 전시를 한번. 정리를 할겸 했으면 좋겠고 이건 꿈이에요.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건?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건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조금 시내에서 보다는 번잡한 시내에서 벗어나 답답한 곳에서 벗어난 그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 편하고 자유롭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도 외로움은 있네요. 나름대로 지금 제가 현재 완주지역에 소속되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심도 더 가져주시는 것 같고 저에게는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외롭지만 자유롭다. 그러나 약간의 부족함도 느낀다.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12

임혜민
K-MUSIC의 대표장르 이제는 국악이다

#공연예술#국악 #삼례 #창작국악#25현 가야금#대금#해금

K-MUSIC의 대표 장르로 '국악'이 자리하게 하고 싶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임혜민 연주자.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우리 국악이었으면 좋겠다. 완주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세계가 우리 국악에 열광하는 날을 꿈꾼다. 창작 국악 앙상블 'J국악단'도 이런 노력의 하나이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창작 국악 앙상블 J국악단 대표 임혜민입니다.
가야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치원 방과 후 활동에 가야금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금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학원에서 활동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에 수석으로 계신 박달님 선생님을 만나서 가야금을 전공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야금에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했었던 정악가야금 그리고 민속악으로 분류가 되는 산조가야금 12현,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12줄 가야금이고요. 3번째는 개량 가야금인 25현 가야금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25현 가야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의 매력은?

가야금을 처음에 입문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25현이라는 가야금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가야금의 매력이라고 보면 일단은 깊은 소리가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꺾고, 떨고 그건 모두가 국악에 있어서 통용하는 소리지만 가야금에서 깊이가 있고 그렇게 굵직함이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가 가야금인게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함께 저의 동반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을 잠시 놓았던 적이 있다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인데요. 아이들을 일찍 가져서 엄마가 일찍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싶은 가야금이라는 길을 이전에 걷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의지에 달렸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 자신 '임혜민'을 찾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보면서도 물론 그 주변에 저의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도움이 있어서 제가 활동을 하고 가야금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 의지 이 마음 하나로 가야금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J국악단은 어떤 곳인가요?

J국악단은 2019년도 작년부터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J국악단은 민요를 주제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민요라고 하냐면, 저희가 옛날 시절을 보면 현재는 대중음악이 K-pop도 있고, 가요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하는데, 그러면 옛 시절에는 K-pop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그게 바로 민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민요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음악을 만들어보자 해서 J국악단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J국악단의 단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임혜민이고요,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해금 연주자가 있는데요 해금은 김수진이라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가 한 명 더 있어요. 편수정이라는 가야금 연주자가 한 명 더 있고요, 그리고 대금 연주자인 김종현 연주자로 4명이 구성하여서 현재 J국악단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인터뷰

J국악단의 꿈이 있다고?

저희가 향후 미래에서는 지금은 대중음악이 서양음악도 있고 가요도 있고 많지만 국악이 정말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음~~흠~~' 흥얼거리는 노래로 발전이 되면서 모두가 그냥 그 옆에 항상 국악이 함께 있었으면 싶은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J국악단으로 오세요! 완주군에 새로 개발 지역구인 삼봉지구에는 J국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J국악단 사무실에 오시면, 우리나라 악기인 국악기를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대금도 배워보실 수 있고, 가야금도 배워보실 수 있고, 해금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음악회를 열면서 즐겨볼 수 있는 소통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다. J국악단으로 많이 와주세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사람들의 입에서 국악을 흥얼거리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사람들의 입에서 국악을 흥얼거리게 하고 싶습니다! 완주 J국악단이 K-MUSIC의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13

김은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전하다

#공연예술#대중음악#기획 #고산 #타악기#음악교육#타키, 치다, 세악사

자신만의 색깔과 방법으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티스트 김은수. 모든 소리가 샘플화되어 쓰여지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의 날것 그대로의 소리를 손으로 두드리고 치고 때려서 나는 그 소리를 오롯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 되새김질 되는 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퍼커셔니스트이자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한 예술교육을 하는 교육가이다. 또 누구나 쉽게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쉽게 악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가이다. 그만의 철학을 기반으로 예술가, 교육가, 사업가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보란 듯이 해내고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완주지역에서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수라고 합니다.

타악기 연주가, 퍼커셔니스트?

퍼커셔니스트를 잘 모르세요. 또 지역에서는, 전라북도권에서 퍼커션을 활용하는 밴드가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적어 좀 아쉬워요. 그래도 한 번씩 만나뵈면 일단 저는 굉장히 신기한 연주자예요.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퍼커셔니스트가 된 계기는?

제가 백제예술대학 실용음악학과를 나왔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항상 정기연주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가 콩가를 엄청 신기하고 맛깔나게 연주하는 거예요. '저런 소리가 나는 악기들도 있구나. 와~ 저거 배워봐야지' 해서 장학금을 털어가지고 주말마다 서울로 퍼커션을, 콩가를 배우러 다녔던 게 퍼커셔니스트로 전향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이고요. 또 드럼이 내주는 음악에서 담당하는 부분과 퍼커션이 담당하는 부분이 되게 다른데요. 중심보다는 주변부를 속속 채워주는 그런 매력이 퍼커셔니스트로 전향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팀들은?

퍼커셔니스트로 활동을 한 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퍼커션을 쓰는 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나니레' 라는 국악관현악단의 퍼커션도 맡았었고, 그리고 '이희정밴드'. 그리고 지금 '오호밴드' 라는 어쿠스틱한 어반한 음악을 하는 팀인데요. 어반 어쿠스틱을 하는 팀인데 그 팀에서 퍼커션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퍼커션의 범주가 조금 넓어서요. 국악이나 그런 타악기들도 거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싶어서 만든 '세악사' 라는 팀에서도 활동합니다.

추구하는 음악스타일은?

저는 다양한 소리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소리가 진짜 다양하다 보니 오히려 그 다양한 소리들을 하나하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악사' 라는 팀을 같이 하자고 제가 꼬셨는데 이 팀은 미니멀리즘, 메디테이션 이런 느낌의 장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하나하나를 조금 오래 씹는 소리를 들려드리는 밴드인 거죠. 저 역시도 소리를 좀 오래 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퍼커션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 받나요?

곡 작업은 주로 스토리하고 소리에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팀원들과 같이 '고산가까' 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산에 와서 느꼈었던 그 소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전주에 살 때 도시에 살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으레 듣는 소리들이. 예를 들면 학생들 학교 등교할때 호루라기 소리라던지 아니면 자동차 경적소리 차들 지나다니는 소리. 그런 도시의 소리가 있는데. 고산에 들어오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런 고요함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진행하게 된 게 '고산가까'라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런 소리들에서 받는 영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산에 실제로 사는 분들 혹은 제가 영감을 받는 곳에서 사는 분들의 스토리가 음악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작업을 할 때 어찌보면 뮤즈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음악인으로 산다는 건?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희도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너 어떠니?" "너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고 홍대에서 재즈클럽에서 호스트 드러머로 활동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저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음악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 서울로 올라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 다시 지역에 내려와서 음악을 해보니 편해요. 예술하기 되게 편해요. 물론 예술가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되는 권리도 있고, 당하는 부조리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서울보다 음악 하기에 편안하고, 그리고 또 걱정이 덜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증명해줬기 때문에.

예술창업에 도전한 이유?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항상 느끼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굉장히 터놓고 서로 공유해요.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여기까지는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 지속이 되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도 똑같이 불평을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특이점이

온거에요. 해결되지 않은 거죠. 아~ 그때 느꼈어요.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아. 이게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가야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네. 나랑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작하게 된 게 처음 '두드림공동체타키'를 시작하게 됐고 '콘텐츠 무브먼트치다' 가 그 다음 발걸음이기는 한데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두드림공동체타키'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이윤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술교육의 혜택을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서른이 넘으면서 저한테 돌아오는 적금처럼 만기 된 적금처럼 돌아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예술을 향유한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간다는 거. 굳이 대학입시가 아니어도 내가 예술로 돈을 못 벌어도 그런 하나의 시작점을. 제가 느꼈던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쉬운 예술의 시작점이요.



영상인터뷰

예술교육의 철학?

예술을 혼나면서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예술을 할 때 예술은 쉬운 거고 네가 그 손가락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혼낼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악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악기가 너희들보다 소중하지는 않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예술가, 교육가, 사업가?

예술가 김은수로서는 여러분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모습에 있어서 한가지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 위에 서는 선생님. 그리고 교육자 김은수로서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중간과정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가 김은수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악기를 쓰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는 싸이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국에는 이게 어찌 보면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술을 만나고 향유하고 삶이 윤택해지고 다시 새로운 예술을 만나는 싸이클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예술가라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타키'도 계속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 신나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예술가 김은수로서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 작품들을 무대 위에 서면서 스스로 그 준비과정부터 기획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보여드리는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도 좋은 무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무대를 홍보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고 한 가지 더 제 정체성이라면 사회혁신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저는 제 주변에 같이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한 동생들이 벌어 먹고 살 수 있어야지 만이 제 직업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데이터면 데이터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이면 사회공헌활동, 캠페인이면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팀원들과 고민하고 있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건?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존에는 선생님이 나눠줬어요. 하얀색 도화지를 주고 이거를 가로 열 칸, 세로 열 칸 나눠 가지고 "자! 이 칸이 니 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도시의 삶이 있다면 완주에서는 그 도화지 8절지를 주면서 "니가 원하는 걸 그려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완주에서의 예술가로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14

정은지

완주의 사람과 완주의 자연으로 음악을 만들다

#공연예술#대중음악#작곡 #고산 #칼라페스타#작곡가#오손도손멜로디

"완주에는 자기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완주에는 음악을 즐기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주에는 조금만 나가면 아름다운 산과 물, 들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음악을 만드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밴드 칼라페스타의 멤버인 정은지 작곡가가 완주에서 만들어가는 멜로디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곡하는 사람 정은지입니다. 지금 개인 앨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몇 곡을 쓰고 있고요, 이전에는 밴드 활동을 위주로 했었는데 처음으로 개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 작곡도 시도중에 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시작했고, 작곡까지 하게 되었나요?

악기는 처음에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처음 접했고요, 곡은 어릴 때 쉬운 곡을 끄적끄적 거리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노숙인 자활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힘들 때 모티브 같은 게 계속 떠오르고 해서 작곡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 해서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완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완주에 내려온 지 3년 됐는데요, 이곳에서 중창단을 결성했어요.
2년 동안 '오손도손멜로디중창단'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노래를 가르치고 같이 공연 다니고, 시골의 어르신들 찾아뵙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 공간 오손도손 멜로디라는 음악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음악감상도 하고요, 같이 프로그램 모임,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음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가르치고, 어떤 친구는 2~3년 잘 배워서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활동 중인 칼라페스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어쿠스틱한 음악과 쉽게 들을 수 있는 라틴음악 위

주로 곡 작업을 해서 들려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저도 여기 멀리 떨어져 와 있고 보컬 노래하는 친구도 육아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멤버들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제 곡 작업을 하고 조만간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영상인터뷰

완주 오기 이전의 작업과 완주 내려온 후를 비교하자면?

도시에서 할 때도 원래 자연적인 소재를 가져다가 곡에 쓰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더 그런 소재들이 풍부하고 만경강에 반짝거리는 물이 있잖아요. 윤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좋은 영감들이 떠오를 때도 있고 제목으로 쓰고 싶은 어떤 소재들이 더욱 풍부한 것 같아요.

작업 중인 신곡이 있다는데 소개해주세요.

"월요병"- 이번에는 직장인에 비애를 표현한 제목으로 월요병이라는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월요일에 항상 힘들잖아요. 그것을 한번 곡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라는 곡이 있어요. 좀 무기력한 감정을 가지고 음악으로 풀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데 나를 조금 내버려둬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자장가"- 불면증을 지닌 그대들에게 보내는 자장가를 하나 썼습니다. 편안하게 듣고 잠들기 좋은 곡입니다.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곡은 거의 나왔고요. 편곡 중에 있습니다. 음악가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조만간 레코딩할 예정입니다.
오손도손멜로디로 오세요! 이곳에 오시면 제가 좋은 음악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나를 위한 이런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생각이나 느낌들을 말씀해주시면 당신만을 위한 곡을 만들어드리기도 합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건?

이곳에는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음악을 즐기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금만 나가면 아름다운 산과 물, 들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음악을 만드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오손도손멜로디음악감상실 칼라페스타 추천곡은?

'비타민'- 다 명곡들이라 너무 좋지만 쉽게 들을 수 있고 저희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연인 간의 풋풋한 마음을 노래에 담은 곡으로 쉽게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곡입니다.
'아카시아'- 다음 곡으로는 아카시아가 있는데 이 곡은 제가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았을 때 멜로디가 떠올라서 그 모티브를 가져다가 썼고요, 아카시아는 삶을 노래하고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단순하게 노래하는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월'- 저희 발라드곡이 한 곡 있습니다. 오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가장 아름다운 오월에 빗대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15

한봉림
흙에서 찾는 영원한 운동

#시각예술#공예 #소양 ##작은미술관 #새로움을찾다

흙에서부터 시작한 도자기의 새로운 형태를 스스로 '영원한 운동'이라는 주제로 명명하고 자아의 세계부터 우주의 사고까지 넓게 표현하고 있는 한봉림 도예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새로운 소재들과의 접목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재는 흙만을 소재로 하지 않고 그림과 오일페인팅 등을 이용한 작품활동도 하고 있다. 자신의 작업공간을 후배 작가들과 함께 쉐어하며 사용중인 그는 이곳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고자 계획 중이다.



자기소개

도예를 하는 한봉림입니다.

도자기

도자기라고 하면 사용이라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 사용이라는 목적과 또 거기에 기왕이면 사용하는데 아름다운 표현을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거죠.
어느 유명한 미술 평론가가 그분이 한 얘기가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도자기는 가장 추상적이다.'
도자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항아리도 지구상에서 닮은 것도 없고 가장 추상적인 표현을 가장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 조상들과 지금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작품세계를 말한다면?

그런데 제 작품에서는 흙도 하나의 껍질을 벗겨줘야 된다. 기능만 담은 형태로서는 제한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껍질을 벗기는 것을 지금까지 찾아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내 작업인데 그래서 영원한 운동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제 작품을 그래서 영원히 찾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흙도 제 모습을 찾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단순히 흙이 그림이나 돌조각처럼 작가에 의해서만 외부 표현이 돼서는 안 된다. 본 모습도 찾아봐 줘야겠다. 하는 게 제 작품입니다.

영원한 운동

나는 영원한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운동이라는 건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고 또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원하는 정신세계에 접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있던 것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 같아요. 찾을 뿐이지.
새롭게 한다는 건 그건 이미 내 기준이 되어버려서 기준이 경직되기 때문에 그건 작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새롭다는 거 보다 항상 찾는 행위. 그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신가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군요.

영감

그런 건 없어요. 막걸리 한잔 먹으면 생각나니까. 아주 자연스러울 때 생각나지. 뭐 철학적이라던가 심오한 것을 갖고 했다면 경직돼서 안될 것 같아. 사람의 정신이 경직되면 표현도 경직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사람만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자연스러운 모습, 자연스러운 나를 찾으려면 그런 경직된 사고가 생기면 버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들

인사동의 자유로운 작가들, 각 분야의 작가들 회화를 한다던가 음악을 하는 작가들, 문학을 하는 작가들 선배도 있고 후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많은 젊은 작가들하고 어울리고 또 서울 친구들이 후배, 선배들도 집에 많이 와서 같이 담소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죠. 그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진 것 같아요. 다른 장르. 나는 구별을 안 해요. 지금 내 작업도 흙만 다루지 않아요. 그림도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의 표현도 하고 그걸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흙 재료 자체에 있어서 한정되는 그러한 작가가 되기보다는 오일페인팅, 수채화, 돌, 도자기 전부 왜냐면 그거 하나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나면 이 소재로 또 표현도 하고 그러는 게 예술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꽤 오래돼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나는 진짜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조금 더 후배들과 같이 어울리면 서로가 정신교류 또 표현해서 격려도 해주고.

계획

새로운 걸 찾는 게 내 계획입니다. 그리고 즐겁잖아요? 새로운 걸 찾는다는 게.

그리고 작은 미술관은 여기 초등학교 많잖아요. 특히 초등학교는 그래도 그림 그릴 시간이 있지마는 중고등학교는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미술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런데 나는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애들부터 유치원 애들까지 그 시간에 그림 그린 것을 여기서 전시하고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옛 모습을 옛날에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또 지금 현재 미래에 자식에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작은 미술관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애들 때부터 정말 여기오면 재미있다. 여기서 마음대로 앉아서 그림도 그릴 수 있다. 그럼 그림 그려 놓으면 다음 주에는 내가 압정으로 붙여서 전시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애들 때부터 우리가 못한 자신감을 좀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적당한 나이가 돼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작은 미술관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거죠. 유명한 작가나 기대하는 젊은 작가 전시만이 아니고 아무 그런 것 관계없는 진짜 소녀, 소년 같은 아주 아름다운 나중에 보면 낭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내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도와주면 가능할 거 같아요.

영상인터뷰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야, 여기가 내가 있으면 좋겠다. 여기다 가마 박고 여기서 도자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래서 거기 동네 분한테 누가 여기 터 좀 판다면 얘기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내 도자기 가마 박고 딱 살기 좋은 거 같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여기로 들어왔죠.

완주는 특별하게 나에게 좋은 곳으로 생각해요. 내가 완주의 이곳을 선택했다는 거 그런데 선택한 거 자체도 내 의지가 아니고 그런 기회 이런 인연이 됐다. 그래서 나름대로 완주를 상당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16

최현
완주의 자연물, 그림이 되다

#시각예술#회화 #상관 #자연물#낙엽#재료

"완주의 자연은 저의 작업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연환경에 가까운 저는 물질적이나 정식신적으로나 작업하기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완주의 자연물을 통해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비구상과 구상작업을 병행하다가 현재는 비구상작업을 몰입하고 있는 최현 작가의 말이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최현입니다. 저는 전업작가로 1997년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주, 완주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비구상과 구상 작업을 하다가 현재는 비구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작업을 저의 기억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다 겪는 보편적인 사건이더라고요.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성되고 과정을 거쳐서 소멸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존재에 대한 관계가 변형이 이루어져요. 그 부분이 계속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순간순간 포착해서 그림에 표현합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곳에 투영이 되고,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자연을 소재나 재료로 삼는 이유가 있다면?

자연물 낙엽을 재료로 사용한 건 1998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재료를 찾는 중에 길을 가다가 그날따라 낙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낙엽을 만져보는데 땅에 떨어진 낙엽이 층에 따라 점점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지는 순간에 놓여 있는 낙엽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잎을 보는데 과거와 현재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생성과 과정, 소멸에 대해 생각이 들면서 그 존재와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낙엽을 가지고 오랜 시간 작업하다 보니 낙엽은 작업하기에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과 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낙엽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술이 생소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미술작품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편견 없이 작품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눈으로 보고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작품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작품





과 대화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가의 정신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작품을 먼저 만나고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느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작가도 작품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감상하실 때도 조금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즐거움을 알게 되고 미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완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편이 상관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상관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상관에서 아이도 낳고 생활을 하며 작업을 한 게 20년이 되었습니다.
완주에서 일어나는 미술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누구나메이커' 프로그램으로 상관주민들과 미술 활동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예술로 방콕프로그램으로 상관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시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상인터뷰

자연물이 다 똑같은 것인 줄 알았었는데 다르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주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완주에서 나는 자연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연물과 또 다른 재료를 접목시켜서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내년 12월에 서울의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회가 잡혀 있습니다.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게 저의 작품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주의 자연물을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의 자연은 저의 작업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연환경에 가까운 저는 물질적이나 정식신적으로나 작업하기 좋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완주의 자연물을 통해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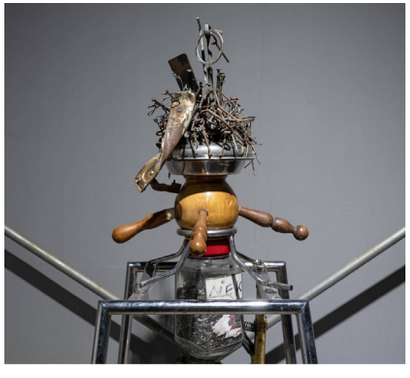
김영봉
모두의 지구를 위한 작은 움직임

#시각예술#회화#설치#공예 #전국#경천 #설치미술#공공미술#생태#환경

생태와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김영봉 작가. 스스로 환경운동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생활은 환경을 위한 당연시되는 행위들의 연속이다. 오래된 것들을 수집하고 물건들을 버리지 않으며 또한 식물들을 키우고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버려지고 폐기되어지는 것들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내 이웃과 자연을 바로 보고 옆에 있는 이의 심장을 따뜻하게 끌어안을 방법을 찾아 이젠 서로 마주보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한다.



공든탑 | 폐전선, 절연 테이프 | 가변크기 | 2022년



첨탑 | 폐자재, 폐목재, 자석 | 37x47x99cm | 2022년

안녕하세요. 회화를 전공하고 최근에는 주로 입체 작업을 하는 김영봉이라고 합니다.

생태와 환경

제 일관된 작업의 주제는 굳이 키워드로 이야기하자면 생태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요즘 자연 환경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자라온 환경과는 너무 달라졌기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무겁지 않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지나친 에너지 사용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식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고요.

회화작가에서 설치미술작가

결정적인 계기는 네모난 캔버스 화면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공공미술이 막 유행하던 시기에 참여했던 다양한 프로젝트와 경험들이 큰 자산이었고요. 당시 지역을 기록하고 대중과 만나는 접점이 넓어지면서 작업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작업함에 있어 전공이나 장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도시농업에서 생태와 환경을 알게 되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가장 결정적이었는데요. 서울은 여러 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무엇보다 속도와 자본이 우선시 되다 보니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들은 어느 도시나 비슷비슷하지만 당시 서울 생활은 정말 저에

겐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삭막한 도시 빌딩 숲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뭘까?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방치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도시농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단체와 대안학교, 빈 그릇 운동을 하는 식당과 함께요. 뜻이 잘 맞는 좋은 지인들이었는데,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예술적 생태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료 예술가들과 생태적 작업 방식을 연구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작업을 위해 버려진 폐기물이나 오브제를 수집한 일들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각종 부산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흙 한줌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네요. 그때가 아마 작가 생활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 2010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오래된 것들이 주는 감정

낡은 재료는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연도 많다는 것이죠. 직접 발품 팔아 수집한 것들은 보고만 있어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작업에 영감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도 원재료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너무 번잡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한 작업

작품이라는 것도 사실 산업 폐기물의 일종일 수 있어요. 특히 저같이 폐자재로 작업을 한다거나 구매욕이 샘솟는 작품이 아닌 경우는 더 하죠. 요즘은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폐기하는 순간 어떻게 잘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막대한 에너지나 비용을 초래한다면 그 역시도 문제겠죠. 그래서 작품의 재료나 접근 방식, 과정 자체를 단순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를테면 폐기되더라도 자연 분해가 된다든지 폐목재가 난방의 재료가 된다든지. 고물상에 보내서 또 다른 어떤 원재료로 가공되는 폐자재를 사용한다든지요. 이런저런 순환의 과정을 생각하며 작업을 하다 보니 작품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영상인터뷰

두 번째 개인전 저항의 씨앗

두 번째 개인전은 첫 번째 개인전 이후 10년 만입니다. 완주에 거주하면서 진행했고요. 오랜 만의 전시라 긴 호흡으로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준비하면서 지역을 둘러보니 완주도 점점 자연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주변에서 고통 받으며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던 것이죠. 그것들을 수집하고 기록했던 전시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작가

시간이 흐를수록 욕심을 좀 버리고 작업에 있어 기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작가라면 성장할수록 더 세련되고 완성형이 되고 싶은 게 대부분이죠. 저는 단지 담담하게 담백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고 소박하게 작업을 이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더 크죠.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직까지는 유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제법 많아서 좋고요. 경험해 보니 예술에 대한 태도들도 대체적으로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가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이웃들의 모습도 긍정적이고요. 한 지역에 완전히 스며들기까지 오래 걸릴 순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완주는 어떤 가능성과 기대감 같은 게 보이기도 합니다. 묵묵히 그리고 즐겁게 작업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건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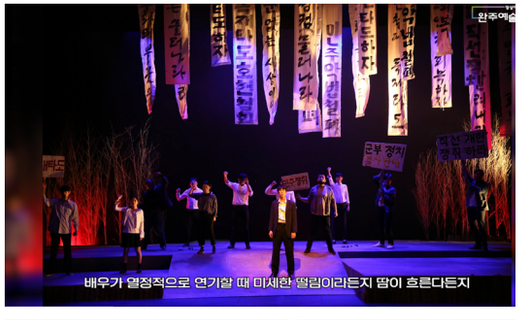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18

이종화
연극을 통해 따뜻한 완주를 꿈꾸다

#공연예술#연극 #삼례 #연극배우#삼례문화이장#가정식백반#전용공연장

"철이 들고 보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보이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 저의 혼을 불어 놓고, 저의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행복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고 말하는 연극배우 이종화 씨. "평소에 연극이나 연기에 관심 있었던 주민분들 우리 함께 연극해봐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창작극회라는 연극단체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 스태프 일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사무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극단의 살림 이것저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연극을 시작한 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4살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기린극회라는 연극동아리가 있습니다. 연극이 하고 싶고, 영화 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보면 성대모사를 하고, 역할을 따라 하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대 후 복학하고 기린극회에 들어가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복학생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서 잠깐 포기했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 평생지도교수제가 있는데 교수님께 연극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했더니 교수님 지인이었던 창작극회 대표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창작극회에 들어오고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연극을 한지는 10년 정도 되어가는데 많은 작품을 참여했습니다.
많은 작품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은 서른 살 때 2인극이었는데 함께한 친구와 공동연출로 작업을 했습니다. 연극 제목은 "가정식백반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특이한 게 소극장 안에서 연기를 하면서 가정식백반을 직접 만들고 요리를 하고 소극장 안에서 가스레인지도 직접 설치하고, 물도 나오게 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동연출했던 그 작업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연극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연극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극을 한번 보시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현장감 때문에 다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데 연극은 현장에서 직접 관객으로서 배우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배우가 열정적으로 연기할 때 미세한 떨림이라든지 땀이 흐른다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현장성 하나만으로도 다른 장르에 비해 연극은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영상인터뷰

완주에서 새로운 연극을 만드신다고요?

2005년도부터 삼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학교에 왔다 갔다 통학만 하고 극단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주에서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완주의 문화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극단생활에만 관심이 있었지, 전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연극에만 관심이 있었고 연극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연극 활동을 하다 보니 연극작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부딪히는 작업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새로운 완주사람들과 해보면 저도 좋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삶의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완주에서 내가 지금까지 전주 창작극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에너지를 완주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어떤 무대를 그리시나요?

연극만이 아니라 공연할 수 있는 완주의 전용 극장이 생긴다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공연하고, 공연을 보기 위해 주민들이 찾아오고 완주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전용 극장이 생긴다면 더 많은 예술가가 완주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고 극장 하나를 통해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따뜻한 완주를 만드는 데 큰 정점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연기, 연극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본업으로 연극을 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나 연극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삼례문화이장"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채널에 친구가 딱 7명 친구추가 해주셨는데, 많이 추가 해주시고 1:1 채팅창이 있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어떻게 하면 연기를 할 수 있나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삼례문화이장" 검색 꼭 부탁드립니다.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이 들고 보니 내가 사는 곳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혼을 불어 놓고, 저의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행복한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19

최용선
나는 완주예술가이다

#시각예술#조소#설치 #전국 #알루미늄 #네모 #원 #하늘을바라보는우물

고산에서 나고 자라 완주에서 예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용선 조각가, 지속적으로 작품의 재료를 바꿔가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알루미늄을 재료로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설치미술에 가까운 대형작품들 위주로 전시를 진행했다. 네모에서 시작된 조각의 파편들이 원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원과 네모들이 품고 있는 자신과 타인의 다름의 근본적인 철학적 사고를 관객에게 질문하고 설득한다. 네모와 원을 통해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현실과 비현실의 그 어디쯤에 있는지 상상하게 한다.



제 작품은 그 테두리, 원의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저는 지금 원 안을 현실 세계로 보고 있거든요.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비현실 세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알루미늄을 네모난 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을 용접해서 그 네모가 또 어떻게 보면 원이 되고 그 원 속에서 추구하는 나만의 내면,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세계가 궁금합니다

기호학적인 문제에서 도형적인 문제로 보면, 원과 네모라는 도형을 가지고 조형성 있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 원은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불멸한 그런 변하지 않는 원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불멸한 그 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그라미, 내가 찾는 동그라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생각할 때 동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바퀴라든지 일상생활에 많이 보이는 컵이라든지 접시라든지 많은 원이 있는데 무심코 우리는 그냥 "아. 이게 원이구나. 동그라미구나. 네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에 대한 것을 집착하다 보니 그 원에 대한 안과 그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그 테두리, 경계. 이 경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조각을 하면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조각가라면 물론 여러 재료를 다룰 줄 알고, 또 자기 작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부 때 배웠던 석조라든지 철조라든지 목조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업작가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물성을 찾고 어떤 재료를 찾는지가 큰 숙제거든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의 물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맞는 재료를 찾는 거죠.
재 경우에는 엄혁용 교수님께서 알루미늄 작업을 초반기 때 작업을 많이 하셔서 알루미늄을 권하셨어요. 교수님께서 "한번 써 봐라. 물성을 찾아서 네 나름대로의 작품하고 맞는 재료를 찾아봐라." 해서 알루미늄을 시도했는데 처음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낯설었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있지만 그 알루미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료 찾기라든지 아니면 재료에 대한 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2년 정도 알루미늄으로 계속 작업하다 보니 오히려 스테인리스, 철 같은 재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재료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영상인터뷰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나요?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하지만 자기 전에 스케치북을 머리맡에 두거든요. 자기 전에 하루를 회상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영감을 얻을 때가 많아요. 아,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럼 매일 스케치를 하세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 가다 생각이 날 때 항상 조그마한 수첩이라든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잠깐잠깐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아, 또 저런 작품은 저렇게 있는 그 형상이 내 작품하고 맞을 수 있는 콘셉트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그때그때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죠.
저는 디자인. 에스키스라고 하는데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쓸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작품에는 어떤 재료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결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죠. (디자인이 나왔는데 재료 특성상 디자인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다시 재료를 선택하죠. 알루미늄이 안 맞으면 철이나 나무도 있고, 철을 같이 쓴다든지 그렇게 융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디자인을 먼저 하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막내가 아빠는 작업을 왜 하냐고 가끔 물어봐요. 저도 일단은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밥을 삼시 세끼 먹잖아요. 그 밥과 똑같은 거 같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안 하면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말할까? 항상 막내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생활의 욕구다. 어떻게 보면 내 생활에 작업을 안 하면 배가 고픈 것처럼 그 배가 고픈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힘닿는 데까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고향이 또 고산이고, 고산초, 중·고등학교까지 고산에서 나왔어요. 고향에서 작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는 걸 떠나서 완주 하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품같은 곳입니다. 완주에서 제 개인전을 한 번도 못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아 전시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건?

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나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게 재밌고 행복합니다.
영상 아카이브 · 김병수, 이정신

20

신재승
완주의 자연을 영원히 담다

#시각예술#공예 #삼례 #비비정예술열차#야생화#들풀#압화공예#압화장신구

자연의 들풀과 꽃들을 오랜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게 압화공예의 매력. 여러 형태의 작품, 공예품으로 변신하니 압화공예는 자연이 주는 선물인 셈이다. 신재승 압화공예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압화 작품 감상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오랬동안 간직하고 싶은 바람을 이루었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압화공예품을 통해 완주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계속 봄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압화공예 작가 신재승입니다. 현재 비비정예술열차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압화공예 작품과 아트상품을 판매합니다.

압화공예는 무엇인가요?

압화공예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에서 피어나는 들풀, 꽃들을 조심스럽게 아주 예쁘게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눌러서 수분을 제거해서 말리는 게 압화입니다.

이렇게 압화 한 것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접목해서 생활용품, 액세서리를 만들고 작품에 담아서 승화시키는 것이 압화입니다.

압화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대학을 원예학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예학과에 다니면서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다른 친구들과 선배들은 분경이나 분재, 꽃꽂이로 전시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에 있는 어떤 공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압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구 공방에서 압화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준비를 작은 소품에서부터 꽃을 담아 하는 큰 액자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직접 꽃을 채집하고 말리는 순간순간들이 다른 일을 할 때보다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꽃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눌러서 말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완주에서 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완주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완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라는 학습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연히 또 압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 이거 대학 시절에 너무 느낌이 좋게 작품을 만들었는데"라는 생각에 다시 압화에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무언가 특별하게 해보자는 마음을 가졌고 서울로 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압화공예 3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그동안 압화공예를 해오면서 한 20년 정도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프레임에 꽃을 채집해서 담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제가 전라도로 시집을 왔고 전라북도는 한지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에 압화를 담아서 무언인가를 표현하면 참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한지등, 한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에 꽃을 담고 저만의 색을 입혀서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이즈만 큰 것 같았고, 특별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것을 만들고 싶었고, 장신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니라 한지를 활용한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지 대학원에 다니면서 한지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한지와 결합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꽃지담', 꽃을 한지에 담다라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양한 압화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꽃지담'의 가능성을 봤다고?

영상인터뷰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한지의 원료인 닥섬유로 몰드를 만들고, 그 몰드 위에 자연의 천연색으로 채색하고, 자연의 들풀, 꽃들을 담아서 예쁜 장신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꽃지담을 가지고 중국, 일본에 가고 매우 먼 곳인 키르기스스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곳들을 다닐 때마다 세계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새로움'이었습니다. 돌처럼 무거워 보이는데 매우 가볍고 착용했을 때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에 좋아들 했고 장신구에 진짜 꽃을 담았다고 하는 것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MOU 체결도 많이 맺고 오고 저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작품 계획은?

세상도 둥글고 모든 것이, 지구도 둥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의 액자가 사각이 아니라 원에 압화 작품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에 표현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원에 천연의 염색재료를 가지고, 천연의 압화를 성경 말씀을 담아서 만드는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4월에는 전시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압화 작품을 통해 하나, 완주의 자연을 영원히 담을 수 있는 일! 둘, 완주의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일! 셋, 완주의 것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 할 일 많은 완주가 참 좋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곽효민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2021

2021년의 기록은 손과 눈을 나눠 완성했다. 이야기를 묻고 받아 적는 일은 이보현, 김자연 작가가, 영상으로 남기는 일은 전스비쥬얼랩과 삼동이엔지가 맡았다. 예술인 창작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지원사업에 참여한 8명의 예술인이 함께했고, 그들의 작업현장과 호흡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아울러 오픈형예술인DB를 열어 언제든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본 서에는 싣지 않았으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01

김헌수
시를 그리고, 그림을 쓰다

#문학#시 #완주 #삼례터미널#오래만난사람처럼#펜드로잉

어린시절부터 쓰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학창시절 글쓰기와 그림에 젖어서 살았다는 김헌수 시인. 우석대학교 대학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면서 글쓰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대상의 이면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힘을 키우며, 내면을 밀도있게 그려놓는 글쓰기의 방향을 세웠다. 간결한 시어의 조율과 안정된 이미지와 구도를 통해 낮고 약한 자의 삶과 우리들이 사는 배경을 담아내고 싶은 그녀이다.





시인이 꿈이셨나요?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는 화가나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시를 써서 삼남일보에서 특선으로 상을 받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도 백일장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문학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시화전을 하고 독서토론을 하고 글에 젖어 살았죠.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쓰고 그리는 창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인이 되다

2010년도에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마음 둘 곳, 숨구멍이 필요하던 차에 '전북여성백일장'의 공고문을 보고 도전하게 되었어요. 상금이 많더라고요. 덜컥 수상을 하고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들 모임인 글벗 동인들과 한 달에 두 번씩 만나 꾸준히 시를 썼습니다. 깊이 있는 글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2014년에는 한국문학예술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18년에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계속 읽고 쓰는 사람이었지만 신춘문예, 문예지에 당선되고 나니 글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졌어요.

10년 동안 신춘문예 도전

공부를 하게 되면서 글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기준도 높아지고 작가로서 독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신춘문예에 도전했어요. 자꾸 떨어졌지만 글벗과 대학원에서 만난 문신 교수님께서 '어느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는지 모르니 항상 도전하라, 계속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가족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듯 꾸준하게. 계속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원고 보낼 때 색실을 넣으면 된다더라, 집게를 파란색으로 하면 된다더라, 쌀 알 세 개를 넣으면 된다더라 하는 것도 따라해 볼 정도였죠. 계속 도전했고 2018년에 당선되었어요.

글과 그림까지 '다양한 재능'



그림을 워낙 좋아하고 계속 그렸어요. 펜드로잉, 연필소묘, POP, 다양한 공예, 캘리그라피도 하고요. 교회 주보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성냥갑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그린 적도 있고요. 집을 꾸미거나 공간을 정리하는 일을 좋아해서 전시장을 꾸미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종이공예나 클레이아트, 냅킨아트 같은 예술체험 활동을 아이들과 하기도 했고요. 동인지를 낼 때 동료 문인들의 작품집에 삽화나 표지화가 필요할 때 기꺼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명희문학관에서 동화 형식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네가 기다림을 버리지만 않는다면'에 삽화를 그렸고 5월까지 전시중이에요.

2020년 2권의 시집 출간

힘들었죠. 〈오래 만난 사람처럼〉은 펜드로잉 삽화와 시를 엮은 시화집이고, 〈다른 빛깔로 말하지 않을게〉는 2020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출간된 시집이에요. 열심히 했죠. 제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활동적, 진취적인 성격이거든요. 오랫동안 시를 써왔는데 등단은 상대적으로 늦게 된 셈이니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기도 하고요.

동료 작가들과의 교류

전북작가회의에서 만난 작가들과 월례문학 토론회를 하며 문학교류를 하고요, 소모임을 꾸려서 작품집을 준비할 때 서로 합평하면서 의견을 나눠요. 동시랑에서도 동시집이나 동화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못 만나고 있지만요. 시를 쓰고 최소 7~8번 퇴고를 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타인들이 보면서 의견을 주니까요. 그래도 결국은 혼자 하는 작업이긴 해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영상인터뷰

직접 독자를 만나면

작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면서 글쓰기와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요. 신춘문예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시 창작과 펜 드로잉 강연도 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잘 쓰시고요. 요즘은 직접 책을 만드는 독립출판물도 많이 하니까 더욱 자기표현과 글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 있고 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시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많이 읽는 게 좋더라구요. 제 작품집도 〈오래 만난 사람처럼〉 보다 〈다른 빛깔로 말하지 않을게〉가 좀 더 어려운 거 같다. 잘 안 읽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가끔씩 다른 시인들의 시를 곰곰히 여러 번 읽기도 해요. 누구에게라도 쉽게 잘 읽히는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려운 일이지요. 많이 읽으면서 시인의 감정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의 출간 계획

완주문화재단 예술인창작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연탄재, 연어, 예천산천의 시인 안도현처럼 자기 사는 지역과 사물을 시에 담는 시인들이 많은데 저도 완주를 이야기하는 시인이 되고 싶어요. 등단작이 '삼례터미널'인 것처럼 구체적인 지명과 지역에서의 경험들을 쓰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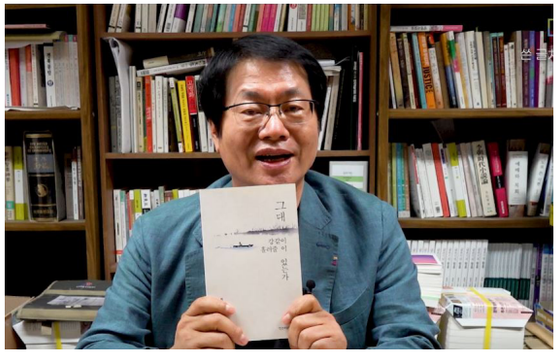
글 · 이보현

02

최재선
숨 쉬듯이 쓴다. 삶이 곧 창작이다

#문학#시#수필#아동문학 #상관#소양 #문안하라#삶장이

"삶은 곧 창작이고 창작은 곧 내 삶이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창작은 내 심장이자 멎지 않고 흐르는 혈류이다. 오로지 작품으로 말하고 평가 받는다."라고 말하는 최재선 작가. 다른 직업은 정년이 있고 전직이 있지만, 작가는 창작하는 동안 언제나 현직이다. 오늘도 그는 작품을 통해 여러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변혁하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듯 시 쓰는 근육이 항상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매일 쓰려고 노력합니다. 시나 수필, 시조, 동시 다양한 장르로 글을 씁니다. 매일 쓰는 시가 다 작품이 되지는 않지만 한 시간 걸려 쓴 글이든, 한 달에 걸려 쓴 글이든 중요한 것은 고쳐쓰기 퇴고입니다. 글을 써 놓고 한 달 뒤, 두 달 뒤 시간 나는 대로 전에 써놓은 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삶이 곧 글, 매일 매일 쓰는 삶

매일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은 불편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일상 생활하듯 글을 쓰면 삶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두 시간 이상씩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언제나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귀여겨들으면서 글감으로 삼습니다. 문학은 우리 삶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소재를 찾고 그걸 시적으로 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메모를 합니다. 잠자리에도 핸드폰을 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니까. 음악을 듣고 운전을 하다가 생각난 어떤 어휘나 착상 떠오르면 차를 세우고 메모를 합니다. 거의 일상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운동선수가 기본 체력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은 언제나 쓰는 사람

어렸을 때 외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방이나 책이 가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책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문과냐 이과냐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종 형님께서 시인이시라 청년시절에 가까이서 시 쓰는 모습, 시인의 삶도 지켜보았습니다. 온통 글쓰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시인은 공인, 쓴 글처럼 살아가는 삶장이가 되어야

글만 잘 쓰는 것은 글쟁이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글처럼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쓴 글은 글이 아니라 사금파리다. 미처 글이 되지 못한 매듭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글장이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외롭고 힘든 사람을 글로 보듬는 삶장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인터뷰

매해 책 출간해 지역주민, 학생, 독자들과 함께한다

문학은 문학가나 매니아 독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일반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하는 것까지가 작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완주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완주군내 551개 모든 마을에 2권씩 책이 갈 수 있도록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 하고 싶습니다.

매해 책을 내는 것도 작가로서 작품을 통해 사회와, 독자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시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편이지만 수필은 자기 개성과 주관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저의 개인적인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시켰을 때,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독자들이 눈물을 흘려주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 작품이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주는 걸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모르고 있는 것을 염려해라

인문고전 읽기를 통해 학생들과 안내자로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이 나를 몰라주는 걸 염려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모르고 있는 것을 염려해라'(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논어 학이편 제16장)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가는 내가 쓴 글에 모든 독자가 다 좋아하고 환호할 거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앓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아파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 낭떠러지에서 곧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내 글을 읽고 그걸 희망의 사닥다리로 여겨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독자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이보현

03

강유진
익숙하지만 이질적인 풍경을 질문하다

#시각예술#회화#설치 #전북#삼례 #전북청년21

강유진 작가의 작품에는 건물과 나무, 아파트와 숲, 공사장과 연못 등 자연물과 인공물이 함께 존재한다. 우리네 일상 속의 풍경이 그러하듯 자연 옆에 인공, 인공 옆에 자연. 둘은 익숙한 모습으로 나란히 위치하지만 조화롭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작가는 개발의 이름으로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건물과, 그 건물을 다시 자연처럼 가꾸는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자연과 인공 사이의 익숙함과 불편함을 그린다.



"자연물과 인공물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봤을 때 일상이거든요. 흔히 보이는 모습인데 저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자연을 밀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연물을 심고 예쁘게 가꾸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개발을 하잖아요.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 작가는 세 번의 개인전 〈INVISIBLE AREA〉 〈노스텔지아 판타지〉 〈Guerilla Gardening〉을 통해 꾸준히 자연물과 인공물이 충돌하듯 만나는 지점들에 집중해왔다. 올해 전북도립미술관에서 7월 25일까지 열리는 '전북청년 2021展'에 '게릴라가드닝-여행지'라는 이름으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으로부터 시작된 작품들도 포함되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는 설레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홍콩여행을 갔을 때 거기도 어김없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흔한 풍경이구나. 그래서 이번 전시에 여행지를 소주제로 잡았어요. 과연 이대로 가도 우리의 미래가 괜찮을지 의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지속적인 개발은 불안함을 준다. 무턱대고 문명의 편리함을 그리거나 자연의 위대함만을 표현하지 않는다. 작가가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얼핏 보면 아름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량하고 쓸쓸하다. 반면 디스토피아를 그리면서도 온기를 더한다.

"딱 봐도 부정적인 느낌을 갖지는 않게 해요. 오히려 그림이 화려하고 자연물들이 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을수록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예쁘다고 느끼잖아요. 제 그림을 자세히 보면 공사의 현장들, 바퀴 자국 같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그린 게 아니었다는 제 메시지가 와닿을 수 있게 했어요. 실제 현실에서도 예쁘게 조성된 곳들이 많으니까 제 그림에서처럼 현실에서도 그런 곳을 보면 한번 더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름답게 표현된 그림을 통해 개발과 훼손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서 만나는 풍경에서 사유가 실천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작가가 찾은 예술의 영향력이다. 예술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전업 작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절, 예술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와닿은 경험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자연스럽게 예술고등학교, 미술대학을 가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예술가들은 그림 팔아서 돈 벌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 예술가로서 작업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술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 있는데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 사람들이 절망적인 삶을 살면서도 지갑에 조그맣게 뭘 넣어다니면서 꺼내서 봐요. 화가가 잃어버린 가족의 몽타주를 이미지화시켜 준 거죠.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이 바뀌거나, 실제 그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요, 제 작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점점 예술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예술의 힘을 믿는 전업 예술가로 살아가기는 버겁다. 수도권에 비해 전시장도 제한적이고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미술 전시나 공연 등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예술가들은 생계를 위해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부업으로 강사일을 한다. 강 작가는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1년 3개월 정도 장애인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사무일도 함께 보는 풀타임 직장인으로 살았다. 이제는 작가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만, 일을 시작했던 시기만 해도 지금만큼의 입지가 다져지기 전이라 직장생활을 한 데 대해 후회하지는 않는다.

"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직장에 매어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작가 레지던시도 들어가보고 싶고,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밖에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되니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간 꾸준히 하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올해 강 작가는 동료 서수인 작가와 함께 비틀레마 그룹전을 준비한다. 지금까지 붙들어온 주제와 컨셉을 꾸준한 맥락 안에서 발전시켜나가는 개인 작업과 달리 더 주제나 형식면에서 직접적이고 다양하게 다른 장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주제를 선정하고 전시장을 정하는 기획부터 설치 작업까지 전부 직접 한다. 각자의 그림을 가지고 모여서 단체전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청년답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오래 알고 지낸 데다 친한 동료 작가와의 협업이라 어려운 점보다는 도움

이 되는 면이 많다.



영상인터뷰

"같이 하다 보니까 정보력도 확실히 좋아요. 제가 본 전시랑 친구가 본 전시가 다르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간접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표현하면 더 자유롭고 도전적인 전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일치하니까 거기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서로 반문하는 게 아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번 전시는 일반 전시장이 아닌 코로나로 비워진 상가에 설치해보고 싶어서 벌써부터 설레면서도 불안하다. 설렘과 불안이 함께 한다. 상상하면 재미있는데 실제로는 누가 상가를 빌려줄까 싶어서 걱정도 된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헤쳐가는 게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 해보고 싶어진다고.

"예술가가 상가 건물주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작업실 구하는 거 아니면요.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걸 개척하겠다는 데 되게 재미를 느끼는 거 같아요."

강 작가는 앞으로 다양한 매체 작업에 도전하고 싶다. 재작년부터 설치, 사진, 영상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생각 중이다. 관객들에게 예술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고 싶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전시를 봤을 때 어렵다 느끼기도 하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설치 작업, 영상 같은 걸로 작가가 보여주는 게 많아지면 관객들도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려고 작정한 〈Fising Holiday 피싱 홀리데이〉 전시에서 관객들이 남긴 텍스트를 열어보고서는, 다음 전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상상했다. 이 시대의 청년으로서 청년들이 느끼는 막막함이라는 주제는 올해의 전시에도 이어진다. 차근차근 자료 수집과 기획 회의를 하며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이보현

04

서수인
사라짐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재배치하다

#시각예술#회화 #용진 #비틀레마#청년작가#서양화

서수인 작가의 작품은 시간에 관한 인식과 사유로부터 시작된다.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망각하고 사는 것들이 문득 깨달아지는 순간, 전과 같은 일상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여기 낡고 헤진 의자가 있다. 아무도 앉을 수 없는 고장 난 의자는 의자인가 의자가 아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자도 여전히 의자로 불린다.

영상아카이브 완주예술인ON

사라짐에 가까워지는 것들을 재배치하는 작가

작가 서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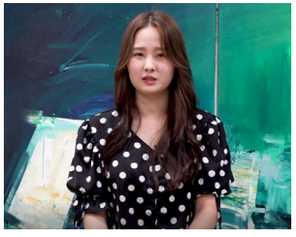
작가가 문득 깨달은 것은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매순간 감각하기는 쉽지 않다. 당연하고 익숙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 순간, 생명과 죽음의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 빠르게 흩어지는 도시의 시간과 멈춰선 듯 천천히 흐르는 자연의 시간이 작가의 사유로 흘러들어온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늙고 죽는 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산 동물이 많았어요. 살아있던 생명이 죽어서 딱딱해진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했어요. 스무 살이 되었을 때도 내가 늙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잘 죽고 싶고 잘 버림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질문을 했던 거 같아요."

고장 난 의자는 잘 버려지기 위해 작가의 작품 안에서 재배치된다. 미술관의 조명을 받으며 작품 속에서 우리에게 흐르는 시간을 인식시켜준다. 젊고 늙고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한 사람이 한결같기란 또 얼마나 어려운가. 과연 젊고 건강한 몸을 가진 이보다 늙고 고장 난 몸을 가진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작가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무엇이 아닐까. 이를테면 '의지' 같은 것.

고장 난 이미지를 통해 작품 속에서 시간과 의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매체에, 다뤄보지 않은 도구에 도전한다.

"완주에서는 친구들도 계속 똑같고 주변 풍경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구에서는 시간이 엄청 빠르게 느껴졌어요.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정을 붙였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사라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크게 와닿았죠. 흩어지고 있는 시간을 고착화시키고 싶은 시간으로 그리고 싶어서 나이프를 이용했어요. 붓으로 그리니까 입시미술에 익숙한 표현 방법으로 자꾸 모사를 하더라고요. 아예 그런 형태를 없애려고 나이프로 그렸죠. 그런데 다시 완주 돌아와 보니까 거의 십 년이 지났는데 풍경이 똑같아요. 움직이기는 하는데 멈춰있는 듯한, 같은 한 시간인데도 오늘따라 되게 시간이 안 가네, 하는 것처럼 제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영상인터뷰

"설치나 영상이나,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루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상 작업이 결과물을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건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따라해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너무 그냥 한 것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설치는 어떻게 해야하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걱정이 있어요. 계속 평면으로 페인팅만 하니까 뭔가 도전을 하고 싶기는 한데 개인 작업에서 갑자기 '봉' 도전하긴 너무 어려우니까 그룹 만들어서 힘든 거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같이 하면 든든하기도 하고 둘이니까, 머리가 두 개니까."

동료 작가와의 협업을 '머리 두 개'짜리 작업이라고 유쾌하게 표현한다. 2021년 완주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받아 강유진 작가와 함께 비틀레마 그룹전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이자 예술가로 맞닥뜨리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저는 어디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공공미술 사업, 파트타임, 예술인 파견사업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방과후 강사도 했다가 미술학원 아르바이트도 했다가 동화책 삽화도 그리고, 강의도 나가고, 그림 빌려달라는 데 빌려주고,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고, 이런 거 다해요. 작업을 계속하고 싶으니까 이걸 위해서 다른 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커져버리는 거죠. 예술가 아닌 청년들도 그렇고, 40~50대 소위 안정권에 드신 작가분들도 다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버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2021년에는 팔복예술공장의 레지던시 작가로 입주해있다. 8월에 열릴 계획인 기획 전시에서도 작가가 붙잡는 시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2년 정도 고산에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만경강 주변으로 물놀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고 가는 그런 숙박업소를 운영하셨어요. 최근에 어른이 된 뒤로 찾아갔는데 냄새가 똑같은 거예요. 물곰팡이 냄새 같은 거. 그곳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은 곳인데, 살짝 화려했을 그 당시로부터 남아있는 용 동상이나 분수대, 펭귄 상을 담담하게 그리고 낡은 건축물의 이미지를 벼대로 전시해도 재밌겠다 싶어요."

작품에 대한 구상을 막 마치고 밤낮없이 작업실에서 그리고 또 그린다고 한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서 그림을 보면 집중해서 그림만 그릴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고. 작가를 만나 인터뷰를 한 날도 일주일 넘게 작업실에서 그리고 잠들고를 반복하다 겨우 집에 들른 날이었다. 작가의 작품 속에 작가가 감각하는 시간이 의도적으로 붙잡혀 있다면, 실제 작가의 시간은 작품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영상 아카이브 · 전별, 이보현

05

박심준

흥 많은 완주 소리꾼

#공연예술#국악 #전북#삼례 #판소리, 차오름, 흥보가, 국악, 창작소리극, CM송

박심준은 완주군에서 나고 자랐다. 8대 명창을 비롯한 유명한 명창과 풍물패, 공연예술집단이 동네에 들려 먹고, 놀고, 쉬었다 가곤 했던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완주의 흥'을 보고, 듣고 자랐다. 봉동초등학교 4학년 시절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소리에 입문, 지금까지 '완주의 흥'을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다.



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나고, 자란 환경이 제가 소리를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완주군 용복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제 고향은 참 흥이 많은 동네였어요. 농사철에 들에서,동네 이사집, 잔치집이 있으면 마당이나 골목에서 창과 풍물 소리를 흔하게 듣고 컸던 것 같아요. 마을 곳곳에서 먹고, 놀고, 쉴 때마다 창과 풍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팝송이나, 가요보다 저는 풍물과 창에 더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완주의 흥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에 권삼득 선생님이 계시면 완주군 용진읍 용복리에 박심준이 있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운 건 언제인가요?

봉동초 4학년 때 창을 시작했어요. 주변 분위기가 흥 많은 분위기다 보니 엄마 아빠가 판소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빠도 할아버지께서 풍물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성장하시면서 국악에 큰 관심이 생겼는데, 그 꿈을 저를 통해 실현? 하신 거죠.

아빠 영향으로 4학년 때 창이 뭔지, 소리가 뭔지도 모른 채.... 아빠 손잡고 이순남 선생님 집에 가서 시작했는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제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했고, 재미있기도 했고, 친구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한다는... 특별함? 도 있었고요.(웃음)

소리꾼 박심준을 있게 한 고마운 사람은?

부모님이시죠.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지치지 않고 저를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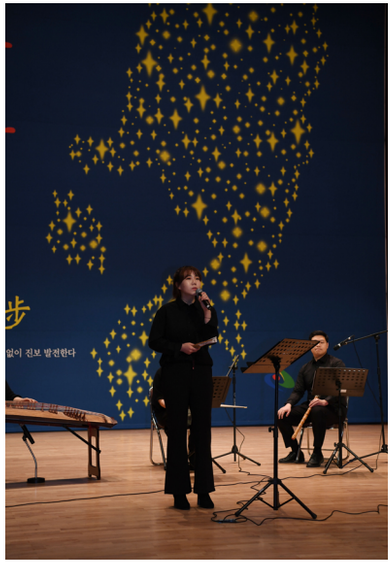
하세요.

좌절의 시기는?

당연히 있었죠. (웃음) 대학 다니면서 지쳐있었어요. 저는 사춘기가 그 때 왔나봐요. 소리가 싫을 때도 많고. 그 영향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1년을 쉬었어요.

소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역시 흥이었죠. 저는 소리가 싫어 쉬지만, 제가 국악 전공자다 보니 친구, 선, 후배, 교수님, 선생님 제 주변 지인들은 더 다양한 시도로,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하잖아요.



그 무대를 보고, 소리를 들으면 흥을 주체 못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무대 위에 있고 싶다! 그 간절함이 다시 소리를 하게 했죠. 한번 방황하고 난 후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그런.

이것저것 국악을 통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죠. 국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음악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우리 흥을 느끼게 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창작음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최근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소리꾼으로 활동 중입니다. 차오름 활동으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전주문화재야행, 전주소리축제 챌린지 공연 활동을 했습니다. 또 국악을 바탕으로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2021년 5월 23일 창작 소리극 – 21세기 차오름판 전래동화 新심청전 공연에서 원고를 직접 쓰고, 배우로 출연도 했습니다.

차오름 활동을 통해서 성과있는 음악적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음악적 성장을 느낍니다.

소리꾼으로서 가장 큰 매력은 무엇입니까?

저의 노래나, 공연 보고서 사람들이 그 순간 잠깐이라도 힐링을 느끼고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과 더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겨나요.

공연 문화를 시도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시대가 와서 관객과 소통이 어렵게 됐는데 비대면, 온라인 공연… 라이브 송출 방송 등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일도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지난 5월에 정말 오랜만에 대면 공연을 했어요. 우진 문화재단 우리소리 우리가락 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공연 작품을 할 수 있었는데 관객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 현장에서 공연은 역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했고요. 공연은 매진됐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완주군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완주 홈페이지를 보다가 완주 9품 등을 보게 됐어요. 유튜브 CM송에 관심 많던 때였거든요. 그때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 완주군 홍보도 하고 좋겠다 싶어서 완주문화재단 〈2021 청년 예술인지원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주에 가면, 완주9품 있고!'라는 CM송을 만드는 일인데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목해서 '곶감, 생강, 딸기, 대추, 양파, 마늘, 수박, 배, 토마토' 9개 완주 특산물도 알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불릴 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작국악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통해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꼭 해보고 싶거든요.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융복합 프로그램 만들어서 음악적 활동 계획하고 있고요. VR이나 홀로그램을 활용한 음악 콘텐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차오름 팀이 음악적으로든 프로젝트로든 한발 한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소리문화 전당에서 판소리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 강사로 활동 중인데요.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악을 알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보면 아이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반응도 좋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에게도 국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국악교육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넓게는 국악교육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이 들고, 이루고 난 후에는 마을마다 돌면서 봉사 공연처럼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듣고 익숙해진 흥을, 그렇게 다시 전하고 싶어요.

영상 아카이브 · 김자연

영상인터뷰

06

김소라

삶에 대한 질문을 무대에 올리다

#공연예술#연극#뮤지컬#전통극 #전북#이서 #연출가#극작가

작가겸 연출가 김소라는 지역을 터전으로 관객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악기, 창, 노래, 고향의 문화를 고루 담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내가 아닌 관객의 반응을 최우선으로 작품을 만듭니다. 완주군 스토리텔링의 보편화를 본격적으로 시험하고 싶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확대시켜 보는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 어떤 관객이 봐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많이 하게 됩니다."

작가이면서 연출을 하는데 어릴 적 꿈이었나요?

제 전공이 정치외교입니다. 대학 졸업 후 당연히 전공 관련 직업을 위한 공부를 하던 중에 우연히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뮤지컬, 공연? 극작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바로 극작을 위한 공부를 알아봤죠.



작가를 선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지, 연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등의 답은 제 작품을 경험한 관객분들의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제 스스로는 재미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절 더 노력하게 하거든요.

김소라에게 '결핍'은?

큰 건 아니고요. 보통, 연극 연출이나 극작을 하는 분들은 전공이 국어국문이나, 문예창작 등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공이 정치외교 거든요. 작가가 되고 싶은 후, 문예창작 석사도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전공에 대한 결핍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웃음)

요즘 드는 생각은 이쪽 일을 처음부터 더 일찍 준비한 사람들 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저에게 결핍은 일종에 욕심을 부축이기 위한 채찍 같은 거죠.

작가, 연출가가 되기 위한 노력(과정)은?

처음엔 공연예술 쪽 보다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서울을 오가며 한국 방송작가협회를 수업을 수료하고 하던 중에 우연히 작가 입봉을 지역 극단에서 하게 됐어요. 그렇게 극단에서 대본작업과 연극 조연출을 하다가 2017년 한예종 뮤지컬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뮤지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극단 '두루'를 소개해 주세요.

몇 년도,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만든 극단입니다.

앞으로도 〈극단 – 두루〉를 통해 작품을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대 공연은 관객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에 적응해서 관객과 만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극, 뮤지컬, 창작 시트콤, 극작, 연출, 작사까지 활동 분야가 다양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욕심이 있기 때문 같아요. 다 잘하고 싶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할 뿐이죠. 정말 다 잘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들어간 '서사'를 좋아하는데, 뮤지컬이 그렇잖아요. 이야기, 노래, 춤, 연기 다 들어있죠. 어쩌면 다양한 장르에 제가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인 제가 다양한 장르를 이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극작가 김소라를 있게 한 고마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겠지만요. 극작을 하는 사람에게 가족은 이야기의 기본을 만들어주는 작품의 성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가족과의 추억? 기억은 세상을 바라보는 온도를 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 덕에 포근하게? 따뜻하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년시절 봉동에서 자랐는데 그 때 외삼촌도 가까이 사셨어요. 어릴 때, 성장하면서 가족, 외삼촌 등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지금 저에게 따뜻한 깨달음이 되는 걸 느껴요. 연출을 할 때도, 대본을 쓸 때도 불쑥불쑥 외삼촌의 응원, 지지 같은 것이 떠올라 울컥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를 고민하게 하는 문제는?

잘하고 싶다!죠. 극작이냐, 연출이냐 둘 다 잘하고 싶은데 과연 잘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만 잘해야 한다면?

(고민하는 모습으로) 극작? 연출? 저는 욕심이 진짜 많은가 봐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연출가로서, 극작가로서의 매력은?

뮤지컬은 노래, 춤, 연기가 융합된 종합예술이라고 말해요.저는 욕망과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았고 이를 채우고 싶은데, 연출가로 채워지는 것, 또 대본을 쓰면서 얻는 희열이 있어요. 연출로 참여하든, 대본으로 관여하든, 관객들이 나의 시선과 마음에 공감하고 반응할 때 저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품이 관객들과 통하는 지점에 대해 고민할 것이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습니다. 항상 끝나고 나면 미처 보지 못했던 허점들이 보이거든요. 바로 관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김소라 작가만의 창작 기법이라면?

제 위주가 아닌 관객의 반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구상합니다. 관객들에게 흥미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글을 쓰는데, 저는 자기비판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없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정이 많아지는데 심사숙고 할수록 결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품을 보면 완주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있는데, 소개해 주세요

삼례 금와습지에 사는 금개구리와 백석시인의 동화시 '개구리네 한 솥밥'의 이야기가 엮인 창작판소리 음악극입니다. 2018년 10월 삼례문화 예술촌에서 공연으로 어린이 관객들과 어른 모두 즐거웠던 작품입니다.

어린이 창극 달을 품은 호랑이는 완주 만덕산을 배경으로 한 도공 이야기예요. 2018년에 처음 시연을 했고 완주문화재단 예술인창작지원사업 다시지원으로 선정되어 재공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저의 터전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모르는 고장의 이야기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 터전 이야기를 배경으로 작품을 쓰지만, 저는 지역성을 강조하는 작품보다 보편성을 확대되는 쪽

으로 작품을 의도합니다. 이유는 어느 지역, 누가 보아도 재미있는 작품이면, 전국, 세계 관객은 박수치고 호응해주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작품은 어느 지역이 스토리의 무대가 됐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들 하니까요.



영상인터뷰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매해 꾸준히 창작극을 올리고 싶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제아동연극축제인 아시테지에 출품하여 완주군 스토리텔링의 보편화를 본격적으로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김자연

07

박창은
다양한 표현과 변화를 시도하는 인체 조각가

#시각예술#조소 #전북#삼례 #조각가

"나는 삼례가 어릴 적부터 좋았다.어릴 때 우스갯소리로 〈삼례특별시〉라고 했다. 삼례는 어릴 적부터 살던 곳이라서 익숙하고 포근하다. 말 그대로 고향이다."
유년의 박창은을 품었던 재미있고 따뜻한 골목과 지금도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믿음 가는 그 곳, 삼례에서 시작된 〈조각〉은 지금도 절찬리 진행 중이다. 그의 고민은 '인체'에 관한 모든 것! 인체에 기반한 것들에 대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형태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작업에 몰두해 있다.

본인의 직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각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입체조형가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조각가 박창은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하면 사람들 반응은 "아, 그래요?" 그러실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저는… 뭐, 조각가로 봐주는 게 좋죠.



'조소'란 무엇입니까?

조소와 소조 합친 말이죠. 깎고 붙이는 작업인데요. 어릴 때부터 조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무찰흙으로 놀던 초등학교시절, 찰흙으로 자동차, 사람 등을 만들어서 이백 원, 삼백 원 정도에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다시 찰흙을 사기 위한 방법이었죠.

잘 팔렸습니까?

꽤 인기 많았어요. 제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체에 관심 갖은 계기

저는 사람 인체에 관련된 것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체 하나만 파는데… 똑같은 인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인체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다르게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인체 형상 자체를 만들어 내는 걸 수도 있고, 인체를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형을 띄기 보다는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인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작업이죠.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부분만 확대할 수 있고, 이게 인체인지, 단순 덩어리라 할 수도 있는 작업. 어쨌든 표현된 것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인체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인체는 외형적인 인체도 있겠지만 사람의 감정 등 뭐,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저는 미니멀한 작품을 좋아합니다. 시간 관계상 크게 작업 못하는 게 단점도 있고요. 장기 프로젝트로 끌고 가기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 작업을 하다가도 당장, 내일, 모래 일 연락이 오면 바로 갑니다. 애 둘 아빠니까. 내 꿈 전에 살아야 하니까 혼자였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나 보다 싶어요.

인체에 꽂힌 이유?

인체에 꽂힌 이유요? 고무찰흙 가지고 놀던 어릴 때 팀버튼 감독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런 영화 보면서. 팔, 다리 만들어서 가지고 놀다가 뭉개고 만들고 놀고 뭉개고를 반복했던 것 같다.
팀버튼 영활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기괴한데 저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철사 주워 찰흙 붙여서 팀버튼 감독 흉내 내보기도….
나란 사람 자체가 사람이고 인체니까 나의 형상에 자연스럽게 관심가게 된 것 같습니다. 놀이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인체를 붙잡고 있는 거죠.

부모님께서 재능을 알아보셨나요?

부모님도 제가 잘 만들고 가지고 노는 것 아셨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입시 있고 공부해야 해서 공부했습니다.
미술학원 가고 싶다 했는데, 반대하셔서 체육 선생님 되려고 공부하다, 의상관련과도 갔다가 결국 그만뒀습니다. 나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때 부모님 반응은?

뭐가 하고 싶냐? 그때 미술하고 싶다. 영화 더미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알아보라고 하셔서 미대 진학을 하게 됐죠.
처음 미대 들어갔을 때 자유 주어지면 놀았어요. 신나게 놀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신 차렸죠. 하고 싶어서 했던 것 하면서 살자.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행복할 때?

저는, 딱 개인전 오픈할 때가 가장 좋다. 두 번 밖에 안했는데, 짧게는 4-5개월 길게 1년 준비해서 기간 안에 보통 10작품 만드는데 개인전 생각하면 설레고 좋죠.

어떤 재료를 좋아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써보려고 한다.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 작가들 하나 잡아서 그것만 파요. 그거 별로라고 하죠. 뭐 다른 작가들은 시리즈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것 하는 걸 싫어합니다. 조형성을 찾는 건 좋은데 그게 매너리즘이 아니면 뭔가 싶죠.

주변에서는 제게 자기 스타일 하나 찾아서 파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제 취향이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예술가는 상상하는 사람인데 고정된 매체 안에서 상상하면 재미있는 상상의 변화가 나올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최근 3년간 작품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2014년에 대학원 다니면서 '꿈- 트다'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했어요. 그리고, 16년에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작업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작업량이 현저하게 저조해지고, 개인 작업을 못했죠. 그때는 1점도 겨우 하고 심플한 작품 4점 정도겨우 하고 작품을 못하니까 안 행복하죠.
2019년 말쯤 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작업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2020년에는 꼭 개인전을 하자' 굳게 결심하고, 마음먹고 1년을 열심히 작업을 했죠.
그렇게 2020년 12월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어요. '불쾌의 형질' 이란 주제로 전시했는데 '불쾌의 형질'은 신체의 부분이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기반으로 해요. 그 표면에서는 신체와 유사한 색감과 부위에 대한 직, 간접적 묘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작품은 신체의 심미적 이상을 벗어난 형태로 나타나 강렬한 형질을 뿜어내며 불쾌로 감각되어지도록 의도한 전시였습니다.

가장 '애정' 하는 작품은 무엇일가요?

2020년도 작업 중. 제목, 불쾌의 형질전시할 내용 다 잡고 작업 들어가요. 만들면서 추가하지 않고, 기획 후 픽스하고, 준비하는데 작업을 재미있게 하고 싶었어요.

조각가 박창은에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결혼 전에 작업 열심히 안한 것, 더 작업 열심히 안한 것, 작품 양 좀 늘려놓을 걸 하는 것하고.
또 6년의 텀이 있었어요. 2014년 2020년 전시회까지. 물론 6년 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았겠지만 조각을 시작한 이후 무색해진 시간, 꿈이 사라진 시간이어서 다시는 이런 시간을 안 오게 하고 싶다.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매해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 2년에 한번은 하자. 그 작업이 크든 작든, 전시가 크든 작든. 그런 다짐을 하게 됐죠.

작업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괴리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표현되는 것의 괴리.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과 관객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의 괴리. 가장 큰 괴리는 작가로서 나와 가장으로서 나. 작업만 하고 싶지만, 현실은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는 괴리? 둘 다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웃음)

조각가로서 가장 큰 매력은?

머릿속에 있는 걸 실체화시키는 것, 현실에 가져다 놓는 것, 실물화시키는 것이죠.



작업과 관련해 희열을 느낄 때는?

작품이 마음에 쏙 들게 나올 때, 모든 게 다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 다작을 해서 그리는 데도 작품화시키는 것은 몇 개 없다고 한다. 그런 것 보면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다 맘에 들진 않는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다.
음, 또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아빠 조각가라고 자랑했을 때?

조각가로 살면서 가장 고마웠거나 힘을 내게 해주는 분은?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와이프도 고맙고.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교수님까지 나는 주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작업은 각자 개인이 하는 거고 작업적인 것을 떠나서 찾아줘서 일하고 일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

그동안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꿈 - 트다 전시가 기억이 남는다. 첫 개인전이라도 그렇지만 유독 작품 파손 사고가 많았던 시리즈여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개인전 당일 오픈식 중에 관람하던 모녀가 기념촬영 중에 실수로 작품이 산산조각 났던 일
- 다른 전시에서 어린이가 좌대 밀어 작품 조각난 일,
- 작품 소품 도난 사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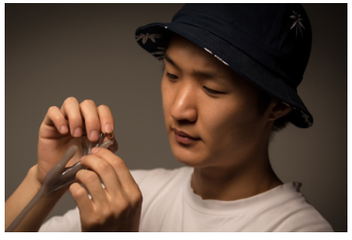
앞으로 진행하는 활동계획?

2022년 3회 개인전을 열고자 준비 중이다. 계획을 안 잡으면 밑도 끝도 없이 작업 안 하는 시간이 쭉쭉 늘어난다.
2020년 전시회 준비하면서 내가 왜 작업을 하는가에 대한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을 다시 받게 돼서 22년에 개인전을 하고 싶은 것 같다.
이번 전시는 인체의 변형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 채 순수한 자기실현적인 리얼리즘 인체 조각을 창작하려고 한다.
다시 전시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작품 준비하고 전시회는 조각가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조각가 박창은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어요?

고정된 사고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나이 먹는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다'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후배와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선배 어려워하지도 않고 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은 그런데 현실은 성격이 활발하고 살갑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우보만리'라는 격려 말씀을 해주

셨는데요. 우보만리,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서 만리를 가라는 말인데요. 초반에 나를 채찍질(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업할 수 있는 나이가 25년 정도 시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시 10번 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데 천천히 가자, 길게 가자, 오래 가보자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인터뷰

박창은의 꿈은?

작업만 하며 사는 것. 생계영향 안 받고, 작업관련 생각만 하고 사는 것. 예전에 꿈은 작가로서 성공하는 것이었는데 성공하면 좋죠. 작품 잘 팔리겠고, 작업만 할 수 있겠죠?
성공이 먼저인가? 돈이 있어야 작업을 하니까. 생각하다 보면 그럼, 작업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하는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꿈은 성공보다 작업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간혹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작업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정말 극렬한 취미다. 미친 사람들이다.
주변에 그만두는 선배들 보면 유혹? 현실에 부딪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나도 언제까지 꿈을 밀고 갈 수 있을까? 걱정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다시 마음을 잡는 이유가 딴 거 하면서 살면 공장, 회사 들어가든 먹고 살기 위해서인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나?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져. 내 부모는 나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나도 내가 받은 만큼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싶은데... 그럼, 내 욕심을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 들지만 그냥 이기적이고 싶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요.
영상 아카이브 · 김자연

08

진정욱
분청사기의 맥을 잇는 완주 도예가

#시각예술#공예 #전북#소양 #도예가#봉강요

소양면 위봉마을에 자리잡은 봉강요가 진정욱 도예가의 일터이다. 22살이던 그는 흰 눈에 덮인 이곳을 보자마자 두 번도 고민 안 했다고 한다. 22년 동안 〈봉강요〉에서 수많은 도자기를 빚어 왔고,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될 터전이다.
"원광대학교 공예과 3학년이던 2000년에 이곳에 터를 잡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눈팔지 않고 '흙'과 '불'을 숙련되게 다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예를 시작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입시미술학원을 다녔는데 대학 진학은 진짜 관심 없었어요. 반항, 사춘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한 학창생활을 한 거죠.
대입 원서도 안 썼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모르게 공예과 원서를 접수하셨고 합격한 거죠.
도자기는 공예과에 전공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후부터는 저 스스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작업합니다. 그 목표는 곧 제가 이루려는 구체적인 꿈이기 때문에 공부와 작업을 의도하게 되는 거죠.

공예과에 간 후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학교를 갔죠. 공예과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배 중에 한 분이 도자기를 알려주더라고요. 딱히 하고 싶은 전공도 없고, 마지못해 도자기를 했는데 선배가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했죠. 매일 권태롭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와중에 흙을 만지면서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칭찬을 들은 거니까요.
그 칭찬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그때부터는 열심히 했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작업 공간에 기웃거리고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불량학생이었는데 전공에 대해서 관심 갖고 도자기를 전공을 해야겠다는 확신까지 생기면서 열혈학생이 됐죠.

도자기 이외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한 적은?

군대 가기 전에 도자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대학 1학년부터 지금까지 사명감 같은 의미로 쭉 해오고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었던 데는 멘토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군대 제대 후 복학했을 때, 멘토 유경상 교수님께서 깊이 있는 활동을 위해서 더 공부하기를 권하셨죠. 도자기를 평생 할 건데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더 하라고 권유하셔서 편입을 했죠.
그때부터 학교 안에 숙식공간을 만들어서 작업하다가 3학년 겨울 때 위봉마을에 작업실을 마련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때가 IMF시절 이었는데요. 내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과 뜻이 너무 크고 간절하니까 부모님께서 기특하셨는지 토대를 마련해 주셨죠. 대학 4학년은 위봉마을 〈봉강요〉에 박혀서 작품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도자기 이외 다른 직업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었죠. 도자기라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실체했고, 또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마에 집착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도자기에 관해서는 전통을 꼭 살리고 싶은데, 사실 전통 장작 가마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학원 때에는 전국에 장작 가마가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가마 공부를 했습니다. 현장 공부를 해서 경험하고, 시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지금 〈봉강요〉에는 장작 가마, 전기 가마, 가스 가마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제 나름에는 전라북도에서 장작가마를 때는 확고한 작가로 이미지를 심고 싶죠. 제가 공부하러 전국 가마를 찾아 다녔듯이 전라북도, 봉강요에 가마를 공부하러 올 수 있게.

완주 분청사기를 계승하고 계시는데요

처음 작품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만든 도자기를 가마 안에 넣고 3, 4일 나무를 때면 나무 재가 날려 도자기에 얹어지면서 재가 녹아서 유약을 대신한 효과를 내는 일본 말로는 비젠 도자기, 우리말로는 무유소성 작품을 주로 했죠.
30대 중반부터는 소품 도자기가 아니라 대형 도자기를 만들어 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형 도자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청사기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통 분청사기보다는 실험적 도자기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맥락은 다 분청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죠. 2016년 완주군에서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됐다는 기사가 났고, 그 파편들을 전주국립박물관에서 기획전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완주에 분청사기 터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갔죠. 더욱이 소양에 가마터가 있는데, 위봉에서 내가 그동안 해오던 도자기도 분청사기라는 점에서 더 확실하게 계승하고 전통을 이끌어야겠다는 소명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발굴된 자기 파편들이 주로 인화문 기법이었어요. 2016년부터 '인화문기법'을 공부하고, 올인하게 됐죠.
또 과거 왕실용 도자기를 구워내기 위한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직영관리하던 가마를 '관요'라고 했는데요. 이 관요에서 생산되는 자기의 가운데에 관사 명을 찍습니다. 2018년 부터는 도자기에 새기던 관사명을 응용하는 작업에도 하고 있습니다. 민화에서 많이 그렸던 문자도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응용하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고증된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어간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인화문기법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도자기에는 푸른 빛깔을 띠는 청자가 있고요. 이 청자는 흙과 잿물에 포함된 철염의 성분이 푸른빛을 띠게 하죠. 이 청자는 무늬가 독창적이고 섬세하고 미묘한데요. 고려시대 청자에 있던 학은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분청사기는 조선초기 도자긴데요.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준말입니다. 회색이나 회흑색에 하얀색 백토를 채워 넣은 방법으로 여자가 화장을 하듯이 청자 흙에서 하얀색으로 분칠한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분청사기에도 여러 기법이 있는데 저는 완주 분청사기의 특징인 인화문 기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화문 기법은 점이나 여러 모양의 도장을 이용해서 점토에 문양을 찍어 무늬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봉강요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 있나요?

'봉강'은 삼씨세끼 고창편 촬영지명입니다. 그 곳 고창 '상하'라는 곳에 진씨 종친들이 해마다 수련하던 집 이름이 '봉강'입니다. 처음에 '봉강도예'라 이름했는데 가마가 있는 자리라 해서 '가마요(窯)'를 써서 '봉강요'로 바꾸게 됐죠.
〈봉강요〉 공간이 나만의 작업공간이 아니라 완주 군민이나 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도예공원으로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인터뷰

도자기를 하지만 맹목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산업화하는 미술이 한 축을 이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도자기가 꼭 작품 개념보다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자기를 이용해 문화상품, 관광상품 개발 등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는 전북이 또 완주가 공예 산업화와 전통공예가 문화와 잘 섞이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완주의 분청사기를 이어나가야 할 친구가 없어서 단절되면 어쩌지?

제가 대학에서 지도도 하고 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도제식으로 배움보다는 창업이라는 길이 열려있어서 상가에서 창업을 하지 선생님에게서 과정이나 배움으로 가지 않는 추세라서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를 전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후배나 제자가 뒤를 받쳐주고 그러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수할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죠. 전승하는 제자나 친구가 있어야 내가 앞에서 끌어지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최근에는 완주의 분청사기를 이어나가야 할 친구가 없어서 단절되면 어쩌지? 싶은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어려운 점이죠.

가능성입니다

도자기를 통해서 제 능력치가 발휘 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도자기를 알릴 기회가 꾸준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분발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마흔 여섯인데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가능성 있고, 희망도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제 일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 마음이 가득한 가능성 아닐까요?

시작은 어머니, 지금은 와이프

도자기는 제 일이고 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의욕 없던 저를 도자기와 만나게 한 건 어머니셨죠. 나쁜 길로 갈 수 있었던 아들인데,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은 어머니 사랑 덕분이고요.
지금은 작업만 할 수 있게 응원해주는 아내 덕분에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와 와이프 덕분에 제가 무한한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지금은 인위적이지만 인위적이고 싶지 않다

〈봉강요〉가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도예로 이끌기 위해 미술관이나 야외 조각 공원 같은 공유 공간으로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완주 예술가와 일반인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고요.
제가 겉으로는 목표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마음속에서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을 닮은 자유분방하게 정점에 도달하면 인위적인 것을 내려놓고 자유스러움을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즉, 진정욱은 인위적인 사람이 아니고 싶습니다.
영상 아카이브 · 김자연

완주예술인 발굴·기록화

2022

2022년, 기록은 릴레이 인터뷰로 이어졌다. 한 예술인의 추천이 다음 예술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두 갈래 선으로 1차부터 10차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스무명의 기록이 모였다. 추천자는 인터뷰어가 되어 추천의 이유와 인상을 글로 남기고, 사진, 드로잉, 짧은 시, 한 줄 수필 등 작은 작품을 곁들였다. 작업실, 연습실 등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한 장면은 현장의 기록으로 묶여 본문에 담았다. 더불어 기록화의 일환으로 카카오톡 기반의 '완주 예술인 담쟁이 네트워크'를 열어 지역 예술인과 단체, 활동가가 소식을 잇는 개방형 정보창구도 함께 운영했다.

01

송은숙

미디어 교육과 기획을 하는 북에디터

#미디어#기타 #완주 #북에디터, 느림잡지, 미디어 교육, 기획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시골로 내려와 책과 함께하는 일상이 궁금하다. 혹자들이 말하는 돈도 안 되는 책을 만들고 기획하는 일을 들여다보면서 북에디터의 사명이랄까? 특히 우리가 사는 완주에 대한 이야기와 귀농 귀촌인들, 지역과 연계된 소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나만의 책을 만들어 보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수업

완주 경천에 살고 있는 북 에디터 송은숙입니다. 책을 만들고 책과 놀며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책'을 좋아해서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어린이, 청소년들과 수업을 하고 직접 책도 만들어요. 한 줄로 표현한다면 '미디어교육과 기획을 하고 있는 북에디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새로 시작한 일은 책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책이랑'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은 부모와 함께, 중고등학생은 친구와 참여해서 원하는 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죠. 주변에서 책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책을 만나다, 사람을 만나다

그동안의 직업도 쭈~욱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었어요, 잡지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신문과 잡지에 글을 오래 썼어요. 또 실용서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며 건강, 요리 분야의 책을 주로 만들었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 줄 글의 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게 일했어요. 책과 나를, 책과 당신을 잇는 일을 하면서 글을 쓰는 일을 즐기면서요.

그런데 결혼 후 하나이던 아이가 둘, 셋이 되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출퇴근을 하는 데 지쳐갔어요. 더 늦기 전에 해보자는 마음으로 2013년, '겨리'라는 작은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겨리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의 순우리말이에요. 나와 우리, 시골과 도시, 사람과 자연, 아이와 어른,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책을 만들고, 시골살이의 행복을 전하고픈 간절한 바램을 담아보기로 했어요.

시인을 꿈꾸던 꼬맹이, 완주살이하며 다시 꿈꾼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인'을 꿈꾸었어요. 이 꿈이 변하진 않았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ㅎㅎ 그래도 전공을 살려 글을 쓰는 일이 직업이 되었고, 기사를 쓰고 책을 만드는 동안 시인의 길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런데 완주로 귀촌해 살면서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섯이던 우리 식구는 이제 풍금이와 복이(개), 뭉치와 레이(고양이) 외에도 직접 부화시킨 닭 4마리까지 대가족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비까지 집을 지어 이사 왔어요. 이런 완주살이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 볼까? 가끔은 웃으며 생각합니다.



완주살이 이야기를 담은 느림잡지

서툰 대로 배우며 산다

우리 가족이 완주살이에서 가장 힘든 일은 바로 집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2016년 가을, 남편 혼자서 준비해 보겠노라고 용기를 내어 자동차에 몇 가지 짐만 챙겨 그렇게 완주살이를 시작했어요.

남편 혼자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운주의 빈집에서 10일 살다가 봉동에 셋집을 구했어요.이때 시골로 이사 가기 싫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을 설득해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됐어요. 이후로도 고산을 거쳐 어렵게 3년 전에 경천에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들기름을 현관에 두고 가시고, 어느 날은 양파를 나눠 주시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이 되어 사는 요즘이 행복합니다. 마당 텃밭에 딸기, 감자, 당근, 고추도 심고 이것저것 심었는데 농사에 서툴러서 마을 어르신들께 하나씩 배웁니다. 시골살이의 정겨움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느림잡지를 만들다

2019년 말, 완주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계간잡지 '느림'을 창간했어요. 우리 가족이 완주살이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니 '느리게 함께 건강하게'와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편집장을 맡아 주민들의 글을 모아 8호까지 느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지인들에게 정기구독 신청서를 내밀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독자가 정기구독 신청을 하면서 '오래 만들어 달라'고 격려해 주실 때는 기운이 솟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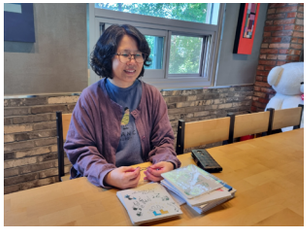
하지만 꼬박 2년을 만들고 나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속해야 할까 하는 물음표가 이어져서 봄호를 휴간했어요. 독자들과 소통해서 이 고민에 마침표를 찍고 여름호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만든 책들은?

초기에는 온 가족 건강 식단으로 좋은 사찰음식을 소개한 〈아이좋아 가족밥상〉 (전효원, 홍승스님 지음) 손바느질 소품 만드는 방법을 담은 〈처음 손바느질〉 (송민혜 지음) 여성실용서 위주로 책을 펴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새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생태 에세이 〈우리가 아는 새들 우리가 모르는 새들〉 권오준 지음, 환경정의 '청소년 환경 책' 선정, 교양 교육 (신득렬 지음, 2016 우수출판콘텐츠선정) 등의 책을 만들었어요.

또 '인간극장' 프로그램에 여러 번 소개된 김길수씨 가족의 여행학교, 놀이학교, 자연학교 이야기를 담은 〈수남아, 여행가자〉 〈바람이 가는 길〉도 만들었고요. 길수 씨 가족은 완주 바로 옆 동네인 진안에 사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길수 씨네 놀러도 가고 즐겁게 책을 만들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이 인연 덕분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완주로 귀촌하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았나 가끔 생각합니다.

완주살이를 시작하면서 사라져가는 지역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책이 〈홍시 먹고 뱉은 말이 시가 되다〉 (2021) 라는 동상면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은 구술시집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만경강사랑지킴이'와 함께 〈나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책으로 꿈을 빚고 책으로 소통하며 손 내미는 편집자, 뭉치와 레이를 키우는 고양이 집사이면서 책을 키우는 책집사, 만경강 줄기에 부는 선선한 바람 같은 책쟁이, 한 줄로 표현한다면 '미디어교육과 기획을 하고 있는 북 에디터'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느리게 함께 건강하게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찾고 기록하는 것, 주민들과 함께 느림 잡지에 차곡차곡 담아내는 일이 큰 과제죠.

그 중의 한 가지 시도로 이번에는 완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와 영상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문화예술,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귀농 귀촌인들의 생생한 완주살이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는 종이잡지로 만들고 있는 느림을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느림은 '느리게 함께 건강하게' 사는 삶으로 지역과 지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을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느림'으로 보내 주세요. 느리고 더디지만 함께 가는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싶어요.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삶, 책과 함께 웃음이 번지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글 · 김헌수

02

김동헌

나무에 새 숨결을 불어넣다

#시각예술#공예 #고산 #상감공예#전통가구#전통공예

상감공예로 전통가구에, 나무장난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김동헌(43, 봄사이클링 대표) 상감공예가. 나무 표면 위에 색깔이 다른 나무를 박아 넣어 문양을 만드는 조금은 생소한 상감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나무와 함께한 시간 때문일까, 몸에 밴 나무향 때문일까. 김동헌 상감공예가는 어쩐지 한 그루 나무 같은 사람이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해가도 듬직하게 늘 그 자리를 지킬 것만 같은 ….





최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좀 독특한 가구와 조형물(정크아트 같은)을 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가 떨어지는 시기가 와서 푹 쉬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전통가구에 대해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들기 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요즘은 나무 표면 위에 색깔이 다른 나무를 박아 넣거나 붙여서 문양을 만드는 상감작업에 몰두하고 있어요. 상감하는 방법이 어렵고 여러 날을 주구장창 해야 하는 지루한 작업이어서 하는 사람이 적은데, 저와는 잘 맞는 부분이 있어 재미를 느낍니다.

생각해 보니 전통가구를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도 만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가구도 만들지만, 형상, 오브제, 조형물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나전칠기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 상감공예를 만나게 된 거죠. 나전칠기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는 5개 분야 장인의 기술이 함께 어우러져야 해요. 패각으로 자개를 만드는 섭패장, 자개재료를 사용해 나전기법에 따른 문양을 만들어서, 기물에 장식하는 나전장, 나무재료를 사용해 기물을 만드는 소목장, 기물에 칠을 입히고 장식된 나전의 상감효과를 내며 연마해 광택을 내는 칠장, 백동재료로 기능성 장석을 만드는 두석장인데요. 상감작업을 하면서 직접 만든 전통가구나 나무장난감에 상감공예를 접목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상감공예로 주로 하는 작업이 궁금합니다

했어요. 이곳에 나무를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하는 CNC 기계가 있었는데, 입력값을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고 나무의 물성을 잘 알아야 해요. 1년 동안 공부한 이후부터 수작업과 CNC 기계작업을 병행해 가구와 나무장난감에 상감작업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산속에 살다 완주로 정착하며 힘든 적이 있었다면?

사실 완주에 오고 나서 날마다 안 보던 사람들을 만나고,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 적응이 안 되어 다 힘들었어요. 공방이 생기기 전에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는 다른 공방을 빌려 사용하려다 이유 없는 냉대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게 일종의 텃세였나 봐요.
버리기 쉬운 파렛트로 가구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을 두 달여 하고 나서는 파렛트 분진 때문에 마른기침에 시달린 적도 있어요.
작업할 때의 어려움은 작업과정 전단계인데 나무를 수급하고 말리고 제제하고 하는 전과정이 고되죠. 많은 나무가 잘 건조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영광에 있어서 왔다갔다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고.
다행히 지난해에 봉동에 작은 땅을 마련해 직접 집을 지었어요. 물론 집을 짓는 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중간 과정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반은 셋이서 마무리를 했어요. 18평쯤 되는 작은 집을 원룸으로 지었어요. 지금도 완성은 아니고 처마도 만들고 하나씩 완성하는 중이죠.

작업은 주로 어디서 하세요?

대부분의 작업은 고산에 있는 공방에서 하고, 전통가구에 상감을 넣는 과정은 천철석(전북 무형문화재 19호, 장인공예사 대표) 선생님 작업실에 같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13살부터 전통가구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작업실에 들어가면 오래된 공간 안에 낡은 기계와 수십 년 사용한 수공구들이 즐비해요. 어둑어둑한 곳에 있는 수공구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기계인지, 그냥 오랜 시간 서 있는 기계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상감작업을 하는 요즘은 많은 힘을 보태줍니다. 일부러 작업이 없는 날에도 선생님 작업실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드리고 그냥 있다가 오기도 해요.

앞으로 집중하고 싶은 작업은?

앞으로는 작은 도깨비에서 더 크고 재미있는 기술적 요소를 넣은 장난감 조형물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도깨비 장난감을 만들다 보면 '이건 아무도 만들지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인지 이미지가 독특하게 잘 형상화됐을 때 행복합니다. 가구에 상감을 넣는 작업도 계속하고요. 다만 사용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소장하고 싶은 소장가치가 있는 미니멀한 상감가구 위주로 하고 싶어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올겨울에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전시회를 열 생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건 천철석 선생님과 전통가구에 상감을 넣는 작품입니다. 선생님과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어려워서 속도가 느려요. 천 선생님은 수작업으로, 전 수작업과 기계작업을 병행해서 상감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번 상감작업은 제게 다 맡기고 계세요.
'상감을 넣어 만든 전통가구'라는 결과물이 첫 느낌에서 주는 가치나 희소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사실 상감작업을 한 전통가구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더 부담과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누구에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지는 않은데요.(웃음) 굳이 기억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좋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좋고, 만드는 것도 좋다.'

글 · 송은숙

상감작업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한 방향의 주제는 '도깨비'예요. 도깨비는 어느 나라에나 다 설화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도깨비를 캐릭터화해서 상감작업이 들어가는 나무장난감(미니)을 다양하게 만드는 시도를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작업은 전통문양 중에 주로 오래된 수막새(목조건물의 처마 끝에 있는 무늬기와. 삼국-고려-조선)에 새겨져 있는 귀면화, 도깨비, 용 문양 등을 가구에 그림 같은 느낌으로 상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구를 만드는 작업도 틈틈이 계속하고 있는데, 상감작업이 들어가는 가구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나무를 계속 만지게 되셨어요?

오래전에 취미로 잠깐 했고요. 10년 전쯤, 대전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배낭 하나만 메고 「야생초편지」를 쓰신 황대관 선생님을 만나러 전남 영광에 갔어요. 그곳에 사는 주민들도 들어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길이 험해 눈이 오면 한 달은 고립되는 태청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글을 쓰러 다른 지역으로 가신 황 선생님 댁에서 농사를 짓고 지내게 됐어요.
산에 살면서 닭을 키우면서 '닭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잘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나무와 다시, 제대로 만나게 됐어요. 산에 쓰러진 나무들을 주워서 투박하게 만들었는데 계단도 만들고 예쁜 닭장을 만들게 된 거죠.
전통가구는 접합하는 결구법을 한옥부터 시작해 독학으로 배웠어요. 작업하다가 막히면 책을 통해 계속 배웠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나무가 있나요?

전통가구는 오동나무, 느티나무, 참죽나무, 먹감나무 같은 나무로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전통가구를 좋아하면서도 수입산 나무를 즐겨 썼어요. 예를 들어 빨간색인 파덕, 검은색인 흑단 같은 나무는 장난감을 만들 때 색감이 좋아요. 하지만 이런 나무들을 벌채하면서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함부로 안 사려고 합니다. 영광에 있을 때 벌목했던 참죽나무나 향이 좋은 국내산 삼나무를 좋아해요.

나무작업 외에 즐겨하는 것은?

공방에 있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요. 완주에서는 작은 텃밭을 하고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영광에 있는 무화과농장에 다녀오고 있어요. 땅을 구하면 농사를 지어볼 생각입니다.

완주는 어떤 인연으로 정착하게 되셨어요?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영광에서 완주로 오는 계기가 됐어요. 영광은 산속에서 지내니 너무 추워서 치료가 안 되기에 대전과 영광을 오가는 생활을 6~7개월 정도 했어요. 그런데 완주에 친구들이 있어서 중간에 거쳐서 여러 번 들르다 보니 완주에 이사까지 오게 됐어요.
2020년 여름, 완주군창업보육센터에 공방을 마련











03

여은희

자연과 책을 좋아하는 타피스트리 미술가

#시각예술#공예#설치 #구이#이서#화산 #실,회화,화가, 젖은 날개를 말리는 시간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디자인을 하고 목공예, 금속공예도 조금씩 했다는 여은희 작가. 대학교 3학년 무렵부터 타피스트리 작품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2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작업이 재미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





타피스트리 작품을 주로 하고 있는 여은희입니다. 타피스트리는 한국말로 직조라고 해요. 엮고 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걸이, 양탄자 문화에서 온 건데, 한 줄로 말하면 '실로 그리는 회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미대를 가려고 화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미술실 복도를 지나다가 직조하는 걸 봤는데 물감이 아닌 다른 재료로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작품을 하는 데 반해 버린 거예요. 물감이 아니고도 특별한 재료(실, 천, 한지)로 작업하면서 회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에 매료된 것 같아요. 복도에서 작품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디자인도 조금 하고 목공예, 금속공예도 조금씩 했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타피스트리 작품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25년 정도 한 것 같네요. 지금도 작업을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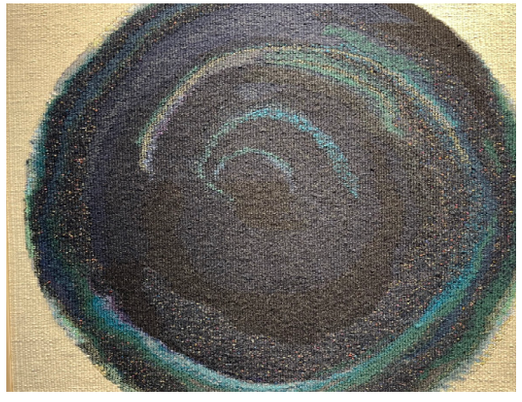
작업 환경과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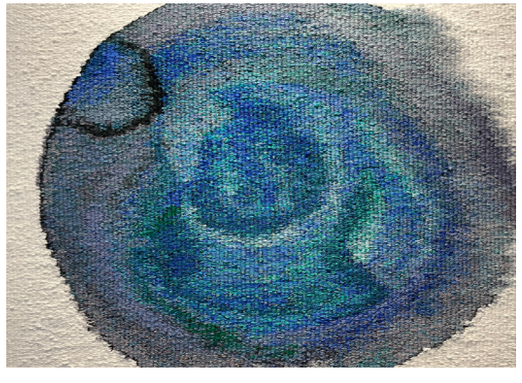
작업은 주로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한 공간만 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제 작업은 물감이 번지면서 회화적인 느낌을 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하루에 4~5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시간을 넘기지 않고 작업하려고 해요. 그리고 40호(100.0cm × 80.3cm)도 되는 사이즈의 타피스트리 작품은 한 달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작품을 만들면서 꾸준히 표현하고 싶은 건 자연의 원리를 담고 싶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연적인 순환의 원리가 되는 것들에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

어려운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이것보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예술가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싶은데 판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작품의 대중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작가가 맞는지, 창작의 구상도 떠오르지 않고 작품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만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을 때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40대 초중반에 작업이 잘 안될 때가 좀 있었어요. 전업작가가 되려고 하다가도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작심하고 최소한의 경제문제만 해결하고 끝까지 전업작가가 돼보자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고민 때문에 힘들었는데 매일같이 작업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런 시간들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고 3년 전에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신체적인 아픔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으로 지내다 보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작가로서 가장 행복했던 때와 기억에 남는 순간은?

보통 행복할 때는 작품을 보고 순수하게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관객을 만났을 때예요. 내가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의가 드는데,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관람객을 만났을 때 뭉클하면서 보람과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작년 2021년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 같아 특별히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작품도 작년에 한국공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 '젖은 날개를 말리는 시간'이란 주제를 담아 만든 작품이에요. 2019년 완주 한달살기 예술가 레지던시를 참여한 일과 완주 레지던시를 하는 동안 완주 주민들과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예술가의 역할과 보람을 느끼며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이 커진 것도 기억에 남네요.

좋아하는 취미가 있나요?

그냥 음악 듣는 거, 산에 가는 걸 좋아해요. 텃밭 농사에도 관심이 있고 나중에는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해요. 나중엔 텃밭이 있는 곳에 살면서 자급자족하고 싶어요.

작품 영감은 주로 어디서?

자연하고 책에서 주로 얻는 것 같아요. 매일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일부러 산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찾는 것 같고 책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스콧니어링 자서전이 저의 인생 책 중 하나인데요. 스콧니어링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작가 중에는 신용복 선생님을 좋아해요. 책에서 많은 힘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 활동계획과 꿈은?

하루살이의 삶에 충실하며 살고 있는 지금은 큰 계획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가니까 작업에 대한 계획은 감동을 주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싶긴 해요.
희망 사항인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겸손하면서 존경받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저 역시 다른 예술가를 바라볼 때 작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적으로 아닐 때는 작품도 훌륭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앞으로도 작품 이전에 사람이 괜찮은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건 멋진 일입니다. 좀 더 괜찮은 예술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를 지원하는 정책들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완주의 예술가로의 자부심과 동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자연과 책을 좋아하는 타피스트리 미술가
글 · 김동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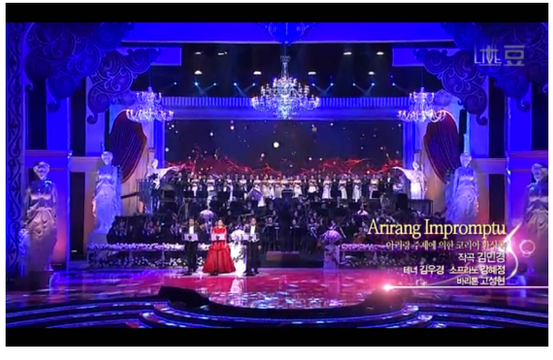
04

김민경

음악, 소리는 나를 표현하는 도구

#공연예술#음악 #고산 #작곡#편곡#현대음악

어릴 때 피아노와 첼로로 음악을 시작한 이후 서울시립합창단을 거쳐 선화예고에서 작곡을 전공한 김민경 작곡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 중 가장 손에 익은 것이 음악, 소리였기에 작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020년 완주문화재단의 한달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문화예술도시 완주에 정착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Arirang Impromptus

저는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5세경부터 피아노와 첼로로 음악을 시작하였고, 이후 서울시립합창단을 거쳐 선화예고에서 작곡을 전공하며 "음악, 소리는 나를 표현하는 도구 중 저에게 가장 손에 익은 것이었다" 는 것이 작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한 꿈이 확실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릴적에는 생각이 없는 돌멩이가 되고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 귀국 후 대한민국실내악작곡제전 IV에서 "MU II"를 발표, 이듬 해 조수미의 'missing you',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의 편곡을 맡으며 전문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클래식 기반 현대음악 작편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대음악으로의 현대음악을 작곡하거나 타장르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멀티미디어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며, 기능음악으로는 무용, 방송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연주자들의 공연 혹은 음반을 위한 곡을 작편곡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강아지를 세 마리 키우고 있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와서 오래된 구옥에서 기름을 때며 살고 있고, 혼자서 사는 큰 애기이고, 할머니들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이 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기에 현대음악을 한다.

합창단에서 자주 다루던 르네상스음악의 담백한 울림을 좋아했습니다. 이후 세상이 들려주던 고전과 낭만, 인상주의, 대중가요 등의 음악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 처음에는 빠져들었지만 너무 달고 세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때 일본에서 처음으로 현대음악 공연을 접했습니다.
공연장 사방에서 검은 우산을 들고 노래를 하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던 소리와 홀 전체가 무대가 되어버린 어두운 공간, 갑자기 내 옆과 특정할 수 없는 방향에서 동시에 들리던 소리들, 그 안에 앉아버린 관객들 사이에서 확정할 수 없는 미상의 아름다움을 처음 음악으로 느끼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서워서 우는줄 알고 위로해 주었는데(혹은 아직 공연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저는 그냥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는 중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작곡가의 작품이 특별히 좋았거나, 제가 무엇인가를 느꼈다기보다 작곡가와 청중간 그 시대에 함께 느꼈던 것 중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날 그 음악이 저에게 특별히 다가왔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르에 꽂혔다기보다는 현재를 살기에 현대음악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슬럼프가 있었다면? 또는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나요?

예전에는 슬럼프가 오면 그것에 휘말린 나만을 보느라 어쩔줄몰라하며, 극적인 감정에 빠져 바닥까지 치고 내려가 스스로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아주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이제는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호들갑 떨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그럴 기미가 보일 때 다른 방식의 준비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들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슬럼프라는 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때 오는 것 같아서 슬럼프가 오려는 기분이 들 때 그 현상을 정확하게 생각하려고 반복해서 시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주제 파악이 되면서 비능률적인 시간의 원인이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모습이 동떨어져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사회가 바라는 나도, 부모님이 바라는 나도 없는, 결국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애매한 시간에 저는 극도로 지치고 예민해져서 밤에는 룸노래방에서 주방일을 하며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계약해 놓은 곡들의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곡은 하나도 못 써도 밤마다 과일 안주를 열심히 조각하다 보니 업장 사장님이 솜씨가 좋다고 시급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가장 행복할 때는 요즘 몇 년입니다. 누군가에겐 미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남들 일할 때 시골에서 평일에 놀면서 일하고 낮잠도 자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나를 보면 예술가라는 직업 참 좋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활동경력 및 최근 활동은?

저의 짧은 프로필: 작곡가 김민경은 비엔나 국립음악대학을 작곡 및 전자음악을 전공하며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최고점으로 졸업하고, 파리고등국립음악원(CNSM)의 교환학생으로 발탁되어 수학하였습니다.광주문화재단 관현악 창작곡 공모전 입상, 테오도르 쾨르너 대통령상 (Theodor Korner Preis) 작곡부문 수상, 오스트리아 문화교육부 장학금 수혜 등의 다수의 수상경력과 함께 오스트리아 대통령궁의 초청으로 작품발표연주회를 가졌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市)와 펠트키르헨 박물관의 위촉을 받아 시즌개막연주를 하였습니다.귀국 후 한양대, 숙명여대 등의 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하며 동시에 국립무용단, 대전시립무용단 등 다수의 단체와 협업을 통한 무용음악 및 설치 음악을 작곡하였으며, 조수미, 리처드 용재 오닐 등 클래식 음악가들의 음반 및 공연분야, 그리고 김종학프로덕션의 "베토벤 바이러스", KBS FM"생생클래식" 등의 방송 분야를 어우르는 폭넓은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민경의 작품 중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12월의 노래"는 Deutsch Grammophone 음반사를 통해 발매되었으며, 또한 KBS 1TV 특별생방송 새해맞이 음악회를 통하여 "Arirang Impromptus"를 초연하며 다양한 장르의 작,편곡가로서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2020년 완주문화재단의 한달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문화예술도시 완주에 정착하여 음악외 시각예술, 청소년문화예술, 생활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 분야를 넓혀가며 문화예술단체 소리•점•빵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중 초겨울에 "호우(好雨)"라는 제목으로 뉴에이지 음악을 발표 할 계획입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과 가장 '애정'하는 작품?

매번 새로운 시도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도 되나 싶은 것을 한다고 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모르고 시작한 작업들도 우위를 가릴 것 없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애정하는 작품 중 20살 때 썼던 첼로곡 MU 시리즈를 애정합니다. 클래식 작곡은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큰 선생님께 들어가기 전 시작한 곡들입니다. 소리의 깊이, 나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있을 때의 저의 모습이 가장 많이 담겨있는 곡들인 것 같아 어수룩하지만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들립니다.



작품과 관련해 어디서 영감을 얻고, 작업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작업은 주로 집 컴퓨터 앞에서 합니다.
어느 순간, 어떤 곡, 어느 연주자에 의해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완벽하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걷고 있는 내 앞에 강이나 바다가 있어서 더이상 갈 수 없다고, 당신의 한계를 보여주며 더이상 헤매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자처럼, 상상속의 완벽이 아닌 귀로 들려주는 완벽의 미를 내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울림으로 들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완벽한 안정감과 희열을 느낍니다.
저는 영감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작품은 평소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하는 것 중에서 동기를 시작합니다.
요즘들어 주변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밤을 새는 일도 이제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자고 내일하자~" 라는 마음이 더 강합니다.

여러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면서도 항상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어딘가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 저는 항상 사람이 왜 사는지 궁금했고 그런 이유로 인생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여전히 조금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 살다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라며 짐작이라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 장면들을 대충대충 넘어 가는 일입니다.
작품에서도 클라이막스를 넣으려고 하지 않고, 극적인 큰소리, 혹은 극적인 작은 소리 뒤에 항상 여운을 두어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배치하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결말을 낼 능력은 없으니 결말을 열어놓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도 해놓으려고 합니다.
나는 답을 모르니, 내 곡에도 답이 없고, 그냥 어딘가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고 조금만 말하고 싶은데...라고 중얼거리기...
(물론 기능성 음악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가장 고마웠거나, 덕분에 힘을 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요. 정말 다행히도 해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가 고맙고 덕분에 삶이 아주 무의미한 것 같지는 않아서 힘이 납니다.
(하지만 가끔 완주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하실 때마다 진짜일까 깜짝 놀랍니다. 오늘도 어떤 할머니가 "이번 생은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예술활동 계획과 대중에게 어떤 작가로서 기억되고 싶은가요?

완주에 이주한 이후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그동안의 일들이 퇴비처럼 쌓여 음악으로 다시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는게 계획입니다. 꿈은 행복하게 살다가 고통없이 죽기입니다.
옆집에 사는 음악가라고 시끄럽지 않았던 사람, 사람들에게 큰 피해주지 않았던 사람. 예술가라고 이상한 행동 하던 사람이 아닌, 전반적으로 멀쩡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 지금의 내가 완주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행운입니다. 예술인이어도 좋고, 강아지여도 좋고, 농부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지에 달린 문제이겠지요.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대충 막 사는 작곡가
글 · 여은희

05

임유진

진정성 있는 춤꾼

#공연예술#한국무용 #전국 #작곡#편곡#현대음악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함께 무용학원을 다닌 일로 인해 한국무용가 임유진 씨의 인생은 바뀌었다. 무용을 전공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 유학하며 중국 민속춤을 접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춤의 멋과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금까지 우리춤의 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음에 힐링이 되는 예술가

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무용가 임유진입니다. 주로 전통무용을 기본으로 교육, 공연,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주로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저의 개인 연습실에서 합니다. 무용학원 운영을 함께 하고 있어요.

무용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17세때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함께 무용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가 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재능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 무용과 진학 후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유학하며 중국 민속춤들을 접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춤의 멋과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춤의 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유학에서 만난 친구의 권유로 홍콩시주최 국제무용대회 참가의 기회와 현지 무용전공자들에게 한국춤을 전수하고 온 일이 기억에 남네요. 어렸을 적에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영화나 TV에서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전공으로는 조금 늦은 나이에 접한 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만의 특징은 춤이 무겁고 호흡이 깊어 춤의 감정선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는게 특징이자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애정하는 춤은 예기 수건춤과 부채춤이에요. 대중에게는 마음에 힐링이 되어주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언제나 온 마음을 담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스승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요. "머리로 생각한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느낀 것을 사지로 전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관객들이 내 춤을 보고 무언가를 느껴 가슴에 울림이 생긴다면 그보다 감동스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춤을 대하고 그것을 관객과 소통할때의 성취감은 느껴 본 사람만 아는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여러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면서도 마음이라는 한 가지는 꾸준히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춤에 마음이 담겨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춤은 나의 숙명

슬럼프는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는 대학입시의 치열함 속에서, 20대는 젊은 열정으로 뭐든 다 도전했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흐르는 상황들에 회의가 든 적도 많았고요. 30대는 아무래도 결혼과 출





산이 활동경력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용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춤은 나의 숙명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내 업이다 생각했던 거죠.
지금 40대에 들어서고 보니 지난 과거의 시간들도 모두 실이 아닌 득이 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들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게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가족들의 응원이 있기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춤, 그리고 희열

아무래도 작품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대위에서 표현해 내야 하기에 무대예술에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작품세계를 온전히 표현하기에는 자본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완벽한 무용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춤 작품 하나하나를 대할때마다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신적인 것과 체력적인 부분들의 소모가 크긴 하지만 그것으로 얻어지는 경험들 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기회가 생길때마다 느끼는 희열 같은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작품속에 녹아들어 춤을 표현할 때는 지도한 선생님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작품과 관련해 희열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관객들의 반응에서 오는 희노애락이 아닐까 싶어요. 작품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관객에게도 있으니까요.

우리 춤의 연구와 확장

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어 있는 예기무 보유자 김광숙 선생님 문하에서 춤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예기수건춤으로 서울 포스트 극장에서 한차례 발표도 했고요, 앞으로는 예기무 이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김백봉류 부채춤 이수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채춤이 올바르게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은 예기무를 이수하는 일과 김광숙 선생의 스승이신 박금슬 예인의 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예술가들과 작업하고 소통하면서 예술세계를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사항도 있습니다.

자연속의 몽상가

저는 자연속에 있을 때 몽상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몸을 이완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불현 듯 스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의 감정선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공간이나 느낌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면서 마음대로 작품을 만들었다 지우는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계속해서 되내어 지는 것 같아요. 꼭 한번 무대에서 표현해 내고 싶다하는 의지가 생기죠.

어디든 무대가 되는 곳이라면

조금씩 저라는 무용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어떠한 장소이든 무대가 되는 곳이라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여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마음에 힐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부터가 시작이겠지만 저는 완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이곳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진정성 있는 춤꾼
글 · 김민경

06

강지수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자

#공연예술#음악 #완주 #바이올린#완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지수 예술가는 완주에서 서양악기인 바이올린으로 클래식연주 이외에도 다양한 창작 작업을 한다.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각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완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고 있고 앙상블 프레이즈의 리더 및 가온 스토리 클래식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우연이 운명이 된 순간

바이올린 연주자 강지수입니다. 현재 완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고 있고 앙상블 프레이즈의 리더 및 가온 스토리 클래식의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입니다.
처음 바이올린을 시작한 건 7살 무렵 바이올린을 놀이처럼 배우는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원래 꿈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릴 땐 무척 힘든 악기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바이올린 연주자를 꿈꾸게 된 건 중학교 현악부를 하면서부터예요. 저희 학교에 출강하는 강사 선생님이 너무 멋지고 예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선택한 이유

제가 느끼기에 바이올린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악기예요. 그만큼 디테일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악기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함께하는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느껴지고 매순간 즐거워요.

다양한 장르를 맛있게 연주하다

저만의 바이올린 연주 특징이 있다면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곡을 맛있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음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도 소통하며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초연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멋진 작품도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슬럼프는 누구나 한번쯤은 겪는 과정 같아요. 슬럼프가 찾아오려고 할 때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딪치며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해요. 이를테면 연습이 정말 하기 싫고 힘들 때마다 짧은 리듬 하나를 여러 가지 리듬으로 변형시켜서 연주해 보는 놀이처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슬럼프라고 생각했

던 순간들도 어느새 좋은 영감과 소스를 가져다주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관객에 웃고 관객에 울다

가장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관객이 아닐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연주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객과 소통하지 않는 시간들은 연주자들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코로나가 완화된 요즘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에서 큰 에너지와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텐데요. 공연을 하면서 희열을 느낄 때는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 되어 공감하는 순간 같아요. 연주자에게 '공연'은 그만큼 큰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지역의 카페나 공원 등 예술인들에게 꾸준한 공연의 장이 생기길 희망합니다.

활동경력 및 최근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2018년도에 창단된 완주군의 유일무이한 클래식 단체인 완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완주가 소재지인 앙상블 프레이즈의 리더로서 기관 및 학교에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번 완주예술발굴기록을 발판삼아 완주군의 예술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융복합 예술 창작'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예술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가령, 음악과 무용, 미술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는 거죠. 모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 예술 생각만해도 재밌을 거 같지 않나요.

작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완주소셜굿즈센터에 있는 완주필하모닉사무실 또는 앙상블 프레이즈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내용

완주군, 완주향토예술 문화회관에서 주최한 '문화가 있는 날'에 밴드와 함께 일렉 바이올린으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일렉 바이올린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클래식의 공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사운드들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공연이었고 관객들의 호응도 좋아서 정말 짜릿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지금까지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어요. 그래서 딱 제가 아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던 거 같아요. 우물 밖으로 나와보니 완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양한 창작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고 그려나갈 수 있는 완주 예술인으로 거듭나보려고 해요!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행복 에너지를 전하는 '아티스트'

글 · 임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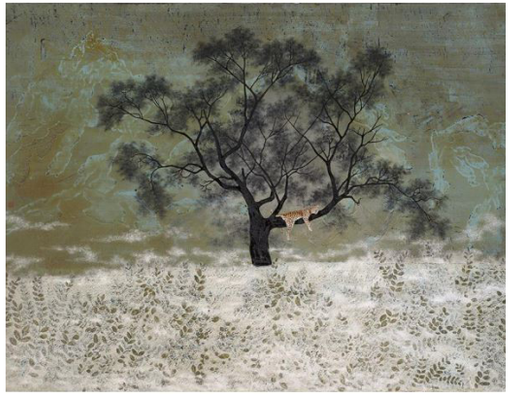
07

박지은

잔잔한 평온함으로 애잔한 감성을 전하다

#시각예술#회화 #소양 #옻칠화#한국화

옻칠을 활용한 한국화를 그리는 박지은 화가. 옻칠이라는 재료적인 특징도 독창적이지만 '텅에'라고 해서 공간과 여유를 느끼고 엄마 품 속을 그림에 담아내려고 한다. 현재는 조각가인 남편과 함께 완주 송광사 산자락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



그저 그림이 좋아서

옻칠을 활용한 한국화를 그리는 박지은입니다. 저는 화폭에 '텅에'에 대해 말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옻칠이라는 재료적인 특징도 독창적이지만 공간과 여유를 느끼고 엄마 품 속을 그림에 담고자 했습니다. '텅에'라는 말은 '둥우리', '둥지' 라는 방언으로 어머니의 품을 비유하여 보금자리의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한국화를 그리게 된 이유나 매력은 여백의 미에서 나오는 그 공간의 깊이가 좋았고,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동양화로 잘 구현되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그림이 좋아서 꾸준히 그리며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회를 열게 되었고 물이 흘러가듯 삶을 수용하면서 오직 그리는 것만이 천직이라고 알고 그림을 그려온 거 같아요.

현재는 조각가인 남편과 완주 송광사 산자락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작업을 하며 어엿쁜 딸 아이와 살고 있는데요. 가족이 있기에 외롭고 고독한 전업작가의 길을 쉼없이 그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족 그리고 그림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텅에-보금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하고 표현할 계획이예요.

작품 몰입의 힘이 된 슬럼프

'슬럼프는 언제였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번 전시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였던 거 같아요. 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는 공허함과 평가에 대한 시선을 마주하면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하나의 전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전시를 바로 준비하는데 많은 생각이 겹치면서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더 작품활동에 몰입하면서 다음 작업을 이어 나가는 것으로 극복해 나갔던 거 같아요.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작품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슬럼프라는 것도 잊어버려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작품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모든 예술가들의 대답이 같을 거 같아요. 전에 전주에서 기획을 하였을 때 관람객들과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제 작품에 애정을 갖고 소장하실 때 그리고 대







중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히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행복한 거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을 때는 우리 딸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그림을 그리는 엄마를 공감해줄 때인 거 같아요. 사실 작업을 할 때는 잘 놀아주지 못하는 데도 이해해주고 자랑스러워해 주는 것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시간을 들이는 것은 마음을 담는 것

작품에 시간을 들이는 것은 인내와 작업에 대한 깊은 진정성이기에 계획한 작업들이 시간에 쫓기어 마무리되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인 거 같아요. 이건 다음 작업의 계획성을 다듬는 중요한 마음이기도 하고, 시간과의 싸움은 나를 더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애정하는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모든 작업 하나 하나에 애정이 있고, 한 터치마다 마음이 깃들어 있거든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

모두들 한 번쯤은 경험하는 순간일 텐데요.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그림이 마음처럼 잘 그려지지 않아서 힘든 작품을 만나게 되죠. 사실 멈추고 다른 작품을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지만 그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몰입해 그리다 보니 종내는 만족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 순간, 스스로의 한계를 깨고 한 단계 넘어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뭉클한 희열감이 느껴졌어요. 그 작품이 전시에서도 호평과 함께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었고 참 기뻤죠.

화폭 안에서 떠올리는 영감

새하얀 화폭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동안 제가 삶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의 총합일 테죠. 그렇게 천천히 작품에 몰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 중에 항상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게요. 그것이 부드러운 하얀색이기에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새빨간 붉은 색에서도 편안함을 주는 그림을 만나 보다 보면 색보다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그림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완주의 자연이 좋고, 제가 엄마가 된 곳이기도해서 그 의미가 깊어요. 이곳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주의 자연처럼 엄마같은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림은 곧 자신

"박지은의 그림은 박지은이다." 담백하게 결국 그림은 곧 저 자신인 거 같아요.

글 · 황세화

08

정혜영

자연의 편안함을 수묵화에 담다

#시각예술#회화 #삼례 #고산천의 가을#대둔산 가는 길

"그림을 그린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순지(종이)를 펼칠 때면 설레요. 이 하얀 종이 위에 어떤 그림을 새겨 놓을지 기대도 되고 묘한 희열감이 차오르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그린 그림이 너무 거창하기보다는 친구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보는 이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고산천

자연의 편안함을 수묵화에 담아 그리는 정혜영입니다.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중 단연 '그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작업활동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건 일단 그림을 좋아하고, 나와 잘 맞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편안함이 좋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부담 없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작품을 보는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주로 먹으로 풍경들을 그리곤 하는데 최근 전시에 수묵 담채화를 순지에 먹과 함께 동양화물감이 아닌 수채화 물감으로 작업을 했어요. 많은 작가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자기 표현방식의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먹을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나만이 느꼈던 색감이나, 동양화에서 중시되는 물의 운용력 등을 경험해보면서 수채화 물감으로 작업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올해 전시를 통해 채색을 원없이 써보아서 그런지 오히려 묵향이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수묵담채화 작업들을 다시 먹으로 집중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연 예찬론자가 되다

결혼해서 살게 된 완주 주변의 풍경의 편안함을 그림으로 담고 표현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풍경은 보고 있으면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케치도 가끔 하지만 주로 사진으로 장소의 풍경들을 담아와서 삼례에 있는 작업실에서 그려요. 또 작업을 시작할 때면 작품 속 장소를 여러 번 찾아요. 그동안 '고산천', '진안 용포리', '운장산', '대둔산', '만경강'의 풍경들을 그리면서 자연 예찬론자가 되었어요. '바람 소리', '봄이 오면', '운장산 오르는 길목에서', '대둔산 가는 길' '고산천의 가을' 저의 작품 제목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먹과의 교감이 무거울 때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면 매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작품과 교감을 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작업의 결과물들을 보면 애정이 생기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재료인 먹과의 교감이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동양화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낄거예요.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매력과 동양화의 최대 강점인 선내지선의 속도, 무게감, 담색(淡色)을 축적하여 그 깊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매력적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그러한 슬럼프 아닌 슬럼프 같은 마음들을 자연을 더 찾아다니며, 자연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금 풍경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된 것 같아요.



바람소리



봄

그럼에도 계속되는 설렘

그림을 그린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순지(종이)를 펼칠 때면 설레요.(웃음) 이 하얀 종이 위에 어떤 그림을 새겨 놓을지 기대도 되고 묘한 희열감이 차오르는 기분이에요.



오히려 묵향이 좋아졌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과의 작업이 힘들었을 때 담채화 작업을 하면서 채색을 원 없이 써보아서 그런지 묵향이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 수묵담채화 작업들을 오히려 먹으로 더 집중해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 구도상 편안함을 위해서 시원한 구도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구도상에서도 본 듯한 편안함을 주는 그림을 앞으로 그리고자 합니다.

그림은 나의 평생 친구

제 그림을 보거나 전시장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그림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게 제 그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저도 그런 풍경들을 좋아해서 완주의 대아리, 만경강, 산동 등을 자주 찾아가요. 자연을 자주 만나면서 자연을 통해 힘을 얻고 꾸준한 작업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그림은 제 평생 친구입니다.

영원한 응원자인 어머니께 감사

지금까지 해왔듯이 항상 작업을 하면서 일 년에 한 번씩은 개인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아요. 그동안 개인전 3회와 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원화회 등 단체회원으로 전시해왔어요. 그림을 그릴 때 희열을 느낄 때가 많아요. 당연히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지만 생각한 그림이 화선지에 펼쳐져 느껴졌을 때, 마무리되어가는 작품을 보면 마냥 좋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응원해 주는 가족, 친정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되고 감사하죠.

어떤 작가로서 기억되고 싶으신지

제 그림이 너무 거창하기보다는 친구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는 이와 소통'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동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편안함과 수묵향이 느껴지는 그림들을 그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부담 없이 소통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 전 '복합문화지구-누에'에서 제3회 개인전인 아직 채우지 못한 그림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집오면서 전주로, 삼례로 오게되었고 이제 완주가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글 · 박지은

09

김나연

제자를 사랑하며, 열정이 충만한 소리꾼

#공연예술#음악 #전국 #생판소리#김나연 판소리연구소#문화예술교육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소리를 접하면서 소리꾼의 삶에 입문, 아직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소리를 하고 있는 김나연 예술인.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 완주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김나연 판소리 연구소를 열어 제자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판소리를 하는 김나연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판소리보존회 완주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나연 판소리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로 활동하며, 바쁜 와중에도 매년 정기공연과 5~6회 다양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저만의 판소리 한마당을 만들어 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1회 달구벌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받으며 종합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가슴에 안으며 소리꾼의 삶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판소리는 언제부터?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소리를 접하면서 소리꾼의 삶에 입문하게 되고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4학년 때 정읍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들어가면서 다양하고 폭넓은 공연들을 접하고 만들어 가며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옮겨 다양하고 많은 공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꾼의 가족

가정을 만들어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는데 공연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심 끝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소리꾼으로서 삶을 몇 년간 접어두게 되면서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은 양육과 가정에만 신경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던 남편과 아이들이 다시 소리꾼의 엄마로 아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





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내년 3월쯤에 '심청가' 완창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2년전 우석대 백성기 선생님의 곡을 받아 공연했던 콩쥐팥쥐 공연을 매년 올리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지역 구석구석을 판소리 노랫말로 작사하여 '완주가'를 만들었습니다.

집 마당에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편안하게 스며들어가며 소리꾼의 삶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완주에 바라는 것은?

소리꾼으로 완주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완주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고 뿌리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정혜영

10

송민경

잡초처럼 강하게 살고 싶은 예술인

#시각예술#공예 #봉동 #도자기#문화예술교육

생활 속에 묻어나면서도 자연적인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 송민경 도예가. 흙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도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예이다. 꾸준한 창작활동과 함께 아이, 어른을 대상으로 한 도예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과의 수업중에 발견하는 순수함에서 영감을 느끼면, 아이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하는 접근으로 창작을 한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완주 토박이로서 여전히 완주에서 살고 있는 송민경이라고 합니다. 공예 분야에서 아이들을 주로 가르쳐 왔으며 최근엔 주부를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강습을 한다면 주로 만드는 공예품은?

강습 대상자분들의 니즈에 걸맞게 주로 생활자기 공예를 강습하고 있습니다.

공예 작가로서 시작의 계기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기도 했고,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목표로 강의를 수강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타인과 함께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미술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예, 특히 흙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도 모두 즐길 수 있는 도예계의 매력에 빠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교감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의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 묻어나면서도 자연적인 것. 아이들이라면 어떤식으로 만들까 하는 원초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작품을 만듭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의 결정체이며 그런 아이들의 시각으로서 창작에 접근하여 서툴러서 웃음이 나올지도 모르는, 하지만 그 서투름만의 매력이 있는, 있는 그대로의 생활속에 묻어나는 자연스러우며 순수한, 아이 같은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작품활동 중 슬럼프가 찾아온 적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딱히 작품활동을 하며 슬럼프라고 느꼈던 적은 없지만, 공예 창작자로서의 자신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겹쳐 피로를 느끼게 된 적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남편이 든든하게 제 짐을 덜어주고 곁에 있어주어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품활동 중 행복했던 경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통학했던 학교에 제가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라는 존재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상호작용에서 느꼈던 감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감정이네요. 그것을 느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경력이 궁금합니다

센터 등에서 단체 그룹의 형태로 주부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부분들이 자신의 자아를 찾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공예 강의를 통해 미용이나 의류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로 나아가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는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도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경우엔 어떤 작품을 완벽하게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창작을 하기보다는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 흙을 갖고 노는 형태로 창작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순수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다가 지금의 바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올해 문화예술사 자격 이수를 마치고 내년 정도부터는 예술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할 만한 일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네요.

작업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역시 개인 공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수강생들에게도 공방에서의 활동을 추천합니다. 창작은 모방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작품이 있는 공방에서의 강습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작품들 중 특별히 애정하는 작품

작가에게 있어서 작품은 모든게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나만을 꼽긴 어렵지만, 장르로 따지자면 도판 작업이 과정 중에 마음이 편해지기에 도판을 통한 작업물을 전체적으로 좋아합니다.

도예 공예인만큼 가마를 사용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많죠. 일 자체의 번거로움도 많았지만 열선의 고장으로 한참 굽던 작품들을 멈추고 또 그것이 식기를 기다리고, 가마를 수리한 다음 그 미완의 작품들을 다시 구워야 하는 등 금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전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마가 고장난 적도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인 중 한 분이 박물관에서 수업한 작품들을 굽는 것을 부탁받아 굽는 도중 가마가 폭발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개인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지인분께 폐를 끼쳤다는 감정에 꽤나 힘들었었답니다.

창작인 만큼 영감을 얻을 소재가 필요한데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아이들과의 수업중에 나온 작품속의 순수함에서도 영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 특유의 순수함과 그 순수함으로 인한 해학적 느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 주부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는 가지각색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개인의 독특함에 저의 발상을 얹어 공동으로 창작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작가 활동을 하며 고마웠던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역시 남편이 1등이네요. 언제나 저의 짐을 덜어주는 우리 남편, 그리고 그와 함께 내게 힘을 주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 꿈은?

사실 제 꿈은 다 이루어졌어요. 초창기, 도예를 시작할 때 이루고 싶은 몇가지가 있었는데 딱 한번 여는 걸로 만족할 수 있었던 개인전을 몇 번이나 열 수 있었고, 자기개발적 차원에서 생활속에서 배움을 지속하며 공방에 찾아오는 손님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차 한잔을 대접할 수 있는 찻집을 운영하는 것까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다 해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에게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재미있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네요.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여러 호칭으로 불리게 돼요. 뱀 선생님이나 하트 선생님 등의 호칭이 기억에 남네요. 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뱀 모양처럼 길게 말아서 그것을 쌓아올리는 형식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설명을 하다가 얻게 되었고, 하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어볼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하트 모양을 원하고, 그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줘서 하트 선생님이라고 불리게 되었네요. 하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감도, 뜻도 어렴풋이 이해되지만, 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보기에 조금은 부정적인 별명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겐 정말로 순수하게 지어준 별명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만이 지어줄 수 있는 별명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게 누군가의 기억에 긍정적으로 남게 되듯이 그런 재미있는 사람으로, 작가로 남고 싶네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을 찾자니 나를 더 많이 내려놔야 하고, 나 스스로 하려 하니 확실히 지원이 필요하고, 조금은 배고프고 외로운, 창작에서의 고통을 너무나도 쉽게 느끼게 되는 환경인 것 같아요. 예술인끼리의 커뮤니티나 군 차원에서의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잡초처럼 강하게 살고 싶다.

글 · 김나연

11

경보비

우리 소리 널리 알림이

#공연예술#국악#뮤지컬#전통극 #이서 #대중음악#가수

"노래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 가르칠 때,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해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던 아이는 한번 시작하면 세 시간은 기본으로 웅얼웅얼 하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 그 아이는 이제 21년 동안 판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꾼이 되었다.





소리꾼 경보비라고 합니다. 판소리를 햇수로 2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공연예술 쪽 활동도 하고 있어요. 강의로는 한국예술진흥원 지원사업 중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부분에서도 창의력체험과 교과과정이 있는데, 저는 교과과정 분야를 맡고 있어요. 학교 음악 교과서를 보면 국악도 있고, 서양음악도 있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전문국악인이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접하고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 다문화센터의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전통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쪽으로는 작년에 음반을 냈는데요. 하나는 판소리 흥부가에서 '밥 먹는 대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밥심이 국심'이라는 곡이구요. 하나는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는 뜻을 가진 '함께 아리랑'의 국악가요까지 두 곡입니다. 작년 완주군에서 진행한 청년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되서 경천면에 있는 '화암사'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창작판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공연은 크게 행사와 연주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연주회는 국악만 할 때도 있지만 국악뿐 아니라 서양음악과 함께 콜라보하면서 공연하기도 하고요. 행사는 각종 축제나 주최측에서 초청을 해 주셔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 요즘에는 비대면도 많이 활발해져서 유튜브로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공연활동은 개인 활동인 '꿈꽃' 단체와 사사 받고 있는 선생님 단체 활동, 그리고 우리소리 '아세헌'이라는 팀 등을 통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 목이 쉰 아이

목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허스키했어요. 요즘은 연습도 하고, 학교 수업을 나가서 아무래도 말과 노래를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 평소보다 목이 더 쉰 편이

에요. 아낀다고 아꼈는데 인터뷰하는 오늘도 목이 더 쉬었네요. 하지만 제가 목이 쉰 날과 안 쉰 날은 저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웃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를 따라다녔는데요. 그때 할머니 따라 자주 가던 마을회관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도 쉰 제 목소리를 듣고 목이 쉬었으니 명창이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판소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애기 때부터 워낙 노래하는 걸 좋아했대요. 한번 시작하면 세 시간은 기본으로 웅얼웅얼하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웃음) 정식적으로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국악이 판소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악 하는 사람들이 다 목이 이렇게 쉰 줄 알았어요. 식견이 좁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랬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까지 전문 예술고등학교가 아닌 인문계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돼서 다른 악기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간문화재가 꿈이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이번에 인간문화재로 등록되셨어요. 그 밑에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판소리의 매력

제가 느끼기로는 가요보다는 국악이 훨씬 더 찐하다고 해야 하나? 그 쾌감이 있어요. 제 취미가 바느질인데요, 직선 박기를 완벽하게 하면 카타르시스가 와요. 시김새라고 해서 목 기교를 내거나, 제가 원하는 음색을 내면 그때 카타르시스가 딱 오는 그 쾌감에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통통 튀는 느낌, 그리고 약간 흥분된 느낌, 텐션이 높은 느낌이 제 판소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 판소리를 듣고 관객분들 기분이 더 좋아지라고 일부러 그렇게 무대에서 하는 것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좀 더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 말을 좀 더 빨리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게 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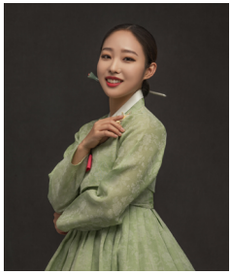
가장 힘들었을 때와 행복했을 때는?

가장 힘든 때는 슬럼프가 올 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목표가 있어서 목표만 바라보고 지냈어요. 대학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했던 데다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컨트롤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프리랜서다 보니 마인드컨트롤이 진짜 중요하고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연 관련 예술인이다 보니 전염병이나 사회적인 이슈 등으로 공연이 끊길 때, 아무도 날 찾지 않는 느낌을 느껴요. 그럴 때는 진짜 마인드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걸 체감해요. 그러다 보니 슬럼프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올 때는 목표를 설정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슬럼프는 시간이 많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더 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취미가 많은 편이에요. (웃음)
반대로 노래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 가르칠 때,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해요.
어렸을 때 무대에서 가사를 까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가사 트라우마가 생겨서 대회 나갈 때마다 가사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사만 안 틀리면 입상할 수 있는데, 너무 떨어서 가사를 까먹으니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회가 아닌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됐어요. 그래도 떨리긴 떨리죠. 긴장을 많이 해서 손끝도 차가워지고요. 하지만 무대가 끝나면 되게 뿌듯해요. 뭔가 오늘 잘 해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은?

아무래도 잘한 공연보다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공연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

인데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선생님 수하들끼리 했던 적벽가 완창을 연창 식으로 불렀던 무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다음으로 제가 한 것도 영향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연습을 많이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성격인데요. 올해 목표는 대학원 석사 논문이에요. 또 선생님이 서울에 계셔서 판소리 배우러 매주 서울 가서 적벽가를 배우고 있어요.
3년 전에 지금 배우고 있는 적벽가를 끝내서 완창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리다 보니깐 목표했던 게 느슨해지면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게으름 피우다가 올해 적벽가를 다 배워서 내년에 적벽가 완창 발표회를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통과 퓨전 중 고르자면 전통

창작판소리를 할 때, 판소리에서 영감을 얻어요. 판소리가 심청가, 춘향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이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속에는 백성들의 삶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부분도 있죠. 이번에 앨범을 냈을 때도 흥보가 중에 '밥 먹는 대목'을 모티브로 창작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도 '밥'이 정말 중요하다고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한국인은 '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인사할 때도 "밥 먹었니?"라고 하고, 걱정될 때도 "밥은 먹고 다니니?"라고 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할 때도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할 정도로 '밥'이 안부의 뜻으로도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뭘 먹든 끝은 항상 밥인 것 같아요. 삼겹살 먹고 밥 볶아먹고, 떡볶이 먹고 밥 볶아 먹고, 샤브샤브 먹을 땐 죽이 빠지지 않는 등 음식의 끝은 밥인데다가 종류도 정말 많아요. 나물밥, 비빔밥, 주먹밥, 잡곡밥 등….
이 판소리 사설이 쓰일 때도, 지금도, 밥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게 맞아떨어져서 만든 게 이번 음반이에요. 이 밖에도 판소리 사설 중에 재밌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창작할 때 판소리를 참고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통과 퓨전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전통을 고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기준이 잘 잡혀있어야 창작을 하더라도 주제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과 퓨전 속에서 위화감 들지 않는 그런 창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자 적벽가 중에 경보비가 있었다

학교에서 활동하다 보니 가끔 아이들이 편지를 써주는데요. 판소리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고 해요. 어떻게 열심히 안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주변에서도 응원해주는 분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가장 힘과 응원을 주고 있어요. 그 힘과 응원을 받아 노래 잘하는 사람, 판소리 잘하는 사람, 적벽가 잘하는 사람, 여자 중에 적벽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꿈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애정하는 판소리가 적벽가거든요. 가장 친해지고 싶은 바탕소리이기도 하고요. 적벽가는 남자 소리꾼들이 주로 하는 소리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친해지고 싶어요. (웃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발표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적벽가 중에 경보비가 있었다고 기억되고 싶어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군은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청년지원정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들에 관심을 가진 예술인이라면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기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연 등 문화 향유계층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문화 활동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글 · 정철휘

12

정혜민

다시 꺼내 보게 되는 웹툰 작가

#시각예술#미디어 #이서 #웹툰, 만화, 영상,디자인,미디어아트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제가 만든 작품이 전시로 이어질 때예요. 그간 준비했던 만큼 결실을 이루는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죠."
주로 웹툰과 캐릭터디자인, 일러스트 등을 작업하고 있는 정혜인 작가. 독자들이 어렸을 때 작품이 나중에 커서도 다시 생각나서 꺼내 보게 되는 웹툰을 그린, 그런 작가로 대중에게 기억되고 싶다.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진로를 정할 때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얌전한 또라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거든요. 가끔 태풍 오고 비 오는 날 빨래할 옷을 입고 흠뻑 맞는다든지. 친정이 멀리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도시락을 싸서 가곤 하는데 남편 도시락에 몰래 재밌는 일을 한다든지. 남들은 생각만 하는 일을 진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반항심이 작가를 더욱 하고 싶게 만든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이어서 좋았어요. 외부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집이나 작업실의 공간의 제한 없이 혼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많이 느꼈죠. 저는 보통 작업실과 집 두 곳에서 작업하는데, 다른 그림과는 달리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두 장소 모두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요. 두 곳 중에 고른다고 하면 저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 엎드려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을 고를래요. (웃음)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 대중적이다 보니 특별한 작가가 되기보다는,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책은 어른이 되도 가끔씩 생각나기도 하고 꺼내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제 작품이 나중에 커서도 다시 생각나서 꺼내 보게 되는 웹툰을 그린 그런 작가로 대중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술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힘들었던 순간과 슬럼프는?

남편이랑 여행을 가면 함께 그 지역에 열리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전시회를 꼭 가보곤 하는데 직접 가서 보는 그림과 인터넷 속에 있는 그림은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은 쏟아질 정도로 정보의 양도 많고 트랜드도 정말 빠르게 바뀌다 보니 시대에 도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사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건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실력과 현실에서 인정받는 실력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 아닐까요?
그래서 그림은 항상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일이 되면 아무래도 힘이 들더라고요.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마감일이 임박해지면 그때야 부랴부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딱히 슬럼프라는 게 없었지만,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난 후에 개인적인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하나? 남편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일들이 많아져 버리는 바람에 개인적인 활동이 많이 줄어 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일로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을 연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서 그림을 그리다가 집안일을 하고 다시 와서 그림을 그려도 되기 때문에 진도가 더디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슬럼프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웃음) 그림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안의 보람과 평화, 행복했던 순간과 힘을 주는 존재는?



가장 행복했을 때는 제가 만든 작품이 전시로 이어질 때예요. 그간 준비했던 만큼 결실을 이루는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기죠. 전시회를 하면 보러 오신 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많은 응원과 격려들도 해주셔서 기뻐요. 전시회를 하면 느끼는 부듯한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정이죠. (웃음) 그 순간이 가장 보람찬 순간인 것 같아요.
작가 초창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해 나갔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초창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열릴 전시회 준비 때문에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쪽잠을 자면서까지 일하는 상황이라 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죠. 하지만 저희 집 고양이. 코코와 망고 덕분에 힘을 내고 있어요. 작년에 완주군 청년 예술 지원 사업에서도 출현했었던 고양이들이죠. 고양이들이랑 있으면 평화로워지는 기분이 저를 좋게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일하는 삶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통해 릴렉스해 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고양이들만의 발랄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귀엽고 그게 저에겐 정말 큰 활력소에요. (웃음)

기억에 남는 활동과 최근의 활동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내용은 처음으로 맡았던 큰 브랜드에서 브랜드 툰*이라고 해서 첫 광고를 받았던 작품이 생각나요. 그때는 초창기라 거의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던 시기였는데 그 광고를 받고 나서 받은 페이가 컸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남편과 해외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행복했었던 기억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그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올해는 전시회를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2022년 07월)에 일단 서울에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가 있을 예정이라 그 준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쁘고요, 광주와 부산에서도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보통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며 전시회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시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전시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시회에서는 보통 전시회뿐 아니라 피규어, 인형 등의 굿즈 등도 준비해야 해서 더 바쁘지 않나 싶어요.
*브랜드 툰 : 웹툰에 스토리와 정보를 담아 관공서나 기업 브랜드를 자연스레 홍보하는 마케팅의 일종

작품을 만들 때 어디서 주로 영감을 얻나요?

저는 동화책을 좋아해서 동화책이나 어린이 만화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치열한 내용을 담은 어른들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를 보다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제게 좋은 영감을 주더라구요.
동화 중에서는 전래 동화같이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동화들, 설화같은 것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에 준비하는 캐릭터는 '오수의 견' 이라는 전래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진행하고 있고, 예전에 했던 작품에서는 완주군 대표 전래동화인 '콩쥐팥쥐'에서 영감을 받아 참새와 두꺼비 캐릭터를 기획, 제작했었습니다.
오수의 견에 나오는 강아지를 캐릭터로 디자인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 주변 캐릭터를 추가하여 우리, 오수와 새삶이 라는 삼총사 느낌의 캐릭터를 디자인했고, 캐릭터간의 에피소드들을 구성하여 세계관을 넓히고 있습니다.
콩쥐팥쥐 캐릭터의 경우 완주의 와일드푸드 축제나 물고기 마을 등과 연관지어 참새와 두꺼비로 캐릭터 디자인을 했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콩쥐와 팥쥐의 사람 형태에서 디자인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확실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동물로 디자인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애정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설화에 등장하는 두꺼비와 참새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작품들을 선호하고 독특한 느낌과 디자인의 작품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만드는 웹툰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구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는 지금 사는 이곳이 정말 맘에 들어요. 복잡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이곳이 저에게 더 맞는 거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캐릭터 디자인, 웹툰 같은 일이기 때문에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다른 예술인 분들보다 적어서 사실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이곳이 저에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주는 여유로움과 한적함이 치열한 일상에서 살짝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저에게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일러스트, 캐릭터, 만화, 웹툰, 게임, 영화 등의 서브컬쳐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과 새로운 장르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글 · 경보비

13

한아름
뮤지컬은 내 운명

#공연예술#연극#뮤지컬 #이서 #문화기획자#배우

" '헤어 스프레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처럼 뮤지컬 동호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는 연극, 뮤지컬의 기획, 연출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한아름 씨. 또 전주의 한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역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는 문화기획자의 삶을 살고 있다.





'공연 나눔'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이자, 전북에서 공연예술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공연 정보도 공유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MJR 컴퍼니'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 연극과 뮤지컬 기획 및 연출로서 활동하고 있는 한아름입니다.
또 전주의 인후생활문화센터라는 기관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시설에서 지역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는 문화기획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헤어 스프레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대학교 근처에서 발견한 '뮤지컬 동호회 참여 모집' 포스터를 보자마자 '운명인가?' 싶었어요. 공연이나 예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을 선택했을 정도로 이쪽과 인연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안했었는데 말이죠.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필요한 값비싼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만큼 매력있지 않나요? 무대에서 춤, 연기, 노래까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종합예술의 끝이니까요. 다양한 기술로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점이 가장 꽂혔던 지점인 것 같아요.

잃고 싶지 않은 건 바로 나

뮤지컬 배우로서 저의 특징은 아무래도 무대에서 표현하려고 애쓰다 보니 평상시 목소리도 너무 크고, 작은 것도 손발짓을 해가며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작품을 해오면서도 잃지 않고 싶은 건 바로 '나'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분석하고, 연기하고, 때론 연출하지만 그 속에 파묻혀 있다 보면 길을 잃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 막이 오르는 순간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때는 함께하는 단원들이 고생할 때인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레슨이나 소품, 의상 등등 금액적으로 충당하기 버거울 때 대표로서 안타까움과 힘듦을 느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이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공연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갔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적인 제약이 생기니까 '그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고생 끝에 공연의 막이 오르는 순간, 조명을 받으며 관객 앞에 서면 모든 고생은 사라지고 행복했던 기억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다른 것보다 배우들이나 스텝(작가, 작곡가 등) 간에 합이 잘 맞아서, 그게 무대에서 제대로 빛이 날 때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 친밀함이나 끈끈함이 무대에서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느껴져요. 하지만 연극이나 뮤지컬이 워낙 협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서로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걸 전체적인 작품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작품을 준비할 때는 예민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활동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소개한다면?

2019 청년소통프로그램 – Shall we musical, 2019 전주독서대전 – 전기수 이야기, 2020 전주독서대전 – 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 2020, 2021, 2022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JB문화통신원(완주), 2021 완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지원사업 – 니맛대로 내맛대로 등의 활동을 했구요,
현재는 아트컴퍼니 두루 공감 유니버스와의 협업과 2022 인문실험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2019년에 했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가 마침 단체가 막 성장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규모가 큰 극도 처음으로 시도해 보고, 영상으로 담는 작업도 다른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행동으로 실행해 보았어요.
그래도 가장 잊히지 않는 작품은 뮤지컬 "빨래"라는 작품이에요. 뮤지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작품 중 하나인데, 28살 때 주인할매 역할을 맡았는데 제 인생 캐릭터가 됐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관찰하면서 저만의 "주인할매"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내년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창작극을 못해도 1~2주 정도 장기로 올려보고 싶어요. 사실 작품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1, 2회 공연으로 끝나버리는 것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더라구요.

작업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따로 작업실이나 연습실을 두지 않고 지역의 연습공간을 두루 사용하고 있어요.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의 집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연예술연습공간이나 시민놀이터 같은 공동연습공간을 대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작품을 만들 때 어디서 주로 영감을 얻나요?

요새는 고전이나 동화에서 많이 얻고 있어요. 작년에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각색하는 작업을 프로젝트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나름 흥미로운 점이 많았어요. 다시 고전이나 동화를 살펴보며 현대적으로 비틀어 보기를 연습하고 있어요.







가장 고마웠거나 힘을 내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이웃사촌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트컴퍼니 두루의 '김소라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지역에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 너무 잘 알지요. 간단한 지원사업 하나도 쉬운 게 없으니까요. 서울을 오가며 지역을 배경으로 작품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멋진지 꼭 응원하고 싶었어요. 저도 덕분에 활동하면서 지치지 않고 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어떤 배우(기획or연출)로서 기억되고 싶은가요?

뮤지컬 하는 문화기획자. 꼭 무언가로 기억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심심한데 공연이나 보러 갈까?", "내일 밥먹고 전시회 보러 갈래?"이런 대화가 당연한 일상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건?

넓은 지리적 범위만큼 활동하기엔 조금은 어렵지만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즐겁게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글 · 정혜인

14

김덕주

늘 공부하는 열정적인 연극인

#공연예술#연극 #삼례 #배우#연출#예술감독#무대감독#극단오락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가 대학에서 처음 연극을 시작한 김덕주 배우. 대학에서 번역극, 마당극을 통해 시대의 역사를 극으로 표현하면서 기본기가 탄탄해졌다.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후 극단에 입단했다. 첫 작품 '태(胎)'에서 등장인물의 한을 소리로 표현하기 위해 창(唱)을 사사받으며 연기했던 기억, 어느새 35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 부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극단오락 대표 김덕주입니다. 완주지역에서 작품제작에 따라 배우가 되기도 하고 또는 예술 감독(연출자, 제작) 활동하는 역할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아직도 열정이 남아 있어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합니다.
연극은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다양한 채널로 대중들에게 다가가지만 제가 과거학창시절에 활동할 때는 연극 무대는 시대를 반영하고 깊이 있는 사회 비판적인 엄혹한 현실을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연극(演劇) 연습과정에서 작품을 통해 시대적 역사 분석, 작품분석, 인물분석으로 다양하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학습을 하며 늘 공부하게 되는 연극인으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연극의 장르는 예술의 꽃이라고 봅니다. 열정적인 연극인, 늘 공부하는 연극인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관심과 대학 입학해 처음 시작했어요. 대학 극(劇) 활동할 때 번역극, 마당극을 통해 시대의 역사를 극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바탕으로 기본자세가 탄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연극제 참여와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후 극단에 입단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 태(胎)에서 등장인물의 한을 소리로 표현하기 위해 창(唱)을 사사 받으면서 열정적으로 배우면서 무대 위에서 연기했던 기억이 벌써 35년의 시간이 흘려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되었네요.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나요?

연극은 절대적으로 협업(協業)이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좋은 작품은 끊임없이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다보니 서로 기다려주는 과정이 가장 어려움 점이라고 생각해요. 연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무대 위에 오르기 전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힘들고 제작이 쉽지 않죠. 다양한 문화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했거든요. 지속적인 지식의 습득 및 체득이 무





대 위 제작자로 또는 배우로 성숙되고 완성으로 마무리가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활동경력 및 최근 활동은?

전주와 완주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어요. 완주에서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극단오락 창단 이후 매년 정기공연과 완주역사 인물 찾기 시리즈로 완주의 역사 인물을 발굴해 창작 시나리오 제작해 완주 역사 시리즈 1탄으로 독립투사 김춘배 '홀로 아리랑' 공연과 시리즈 2탄으로 조선후기 명필 창암 이삼만 묵향을 찾아서 '완전한 고을 속 푸른 바위. 이삼만'을 공연준비하고 있으며 신진작가의 작품 러브이즈(Love Is) 시나리오 창작해 찾아가는 공연으로 진행했으며 창작극 '고물은 없다' 완주연극협회와 협업형태로 연습 중에 있으며 연말에 무대 위에서 공연으로 찾아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은 활동내용과 기쁨을 주는 순간은?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은 어떤 역할로도 저에게는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1980년 중반에 막 연극을 시작하면서 아동극을 참여했는데 연극을 보려고 아이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어 객석을 가득 매운 관객과 그들의 제잘 거리는 소리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 전국연극제'에 대통령수상과 순천 시립극단 객원으로 출퇴근하면서 배우로 활동과 그 외에도 「태」, 「오장군의 발톱」, 「 신의 아그네스」, 「혈맥」, 「햄릿」,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메밀꽃 필 무렵」, 「러브이즈(Love Is)」 등 제작하고 참여하는 동안 기쁨과 성숙의 기억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어디에서 주로 영감을 얻고, 표현하고자 하나요?

기존엔 작품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다면 지금은 기다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다보면 제가 총괄하고 연출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창작의 기다림이 훨씬 완성도와 조율로 좋은 작품을 발견하게 되며 함께하는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인물분석에 많은 시간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인물분석은 시대 분석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식(服食)까지도 구상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관계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감을 받습니다. 섬세하게 무대 위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고마웠거나 힘을 내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3년 전부터 여성 연극인들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 그 자체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현역배우로 극단대표로 제작자로 기획자로 학교 연극지도 선생으로 좋은 점, 어려운 점을 같이 의논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허락하는 날까지 그들과 무대 위에서 변함없이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주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체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진짜 나를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 지역에서 같이 연극했던 '정상식' 완주연극협회 지부장님께서 마침 불러주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건이 연극인들이 활동하기에 힘든 것 같아요.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열정적인 연극인

글 · 한아름

15

이영화

다채로운 언어감각으로 새 메커니즘을 추구

#문학#시시조 #용진 #소요(逍遙)#문학고을#첫시화전

유년 학장시절부터 시인의 꿈을 향해 매일매일 일기와 습작을 해온 소요(逍遙) 이영화 시인. 2020년 계간지 문학고을과 신문예 등 다수의 잡지에 등단, 신인상을 받았다. 또한 완주지역 신문과 완주군 정책지에 시와 에세이를 꾸준히 기고하고 있다. 완주에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언어감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접점을 엮어낸다. 그리고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재료를 통해 실험적 접근을 추구한다.





위로의 이불이자 촌철살인의 지적해머

2020년 계간지 문학고을과 신문예 등 다수의 시잡지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완주라는 아름다운 고장에 살면서 지역신문과 정책지에 다양한 종류의 시와 에세이에 꾸준히 기고하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명, 인간의 접점들을 저만의 시작으로 엮어내며 정진 중입니다.

유년시절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학교 내외 문학대회에서 시, 시조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적었던 일기장과 습작들을 꺼내 3년 전부터 시인으로 작가로 꿈을 품고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써 보자고 저 스스로와 약속한 끝에 2020년도에 시인으로 등단의 결실을 맺었어요. 새로운 미학을 구현하는 인간정신의 해방을 지향하기 위해 다채로운 언어감각을 배양하며 작시에 도움이 되는 사고와 인식의 깊이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꾸준히 배우는 중입니다.

시라는 것은 때론 '위로의 이불'이고 '촌철살인의 지적해머' 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시를 읽는 쉼표와 같은 따뜻한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회 부조리와 인간의 심연의 바닥까지 파고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구조와 형식으로 시를 쓰지만, 현실을 직시함으로 삶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단초 역할을 하는 시를 쓰기 위해 항상 시선은 사람을 향해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시조를 통해 세대 간에 관통하는 영향력과 공감대를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시서화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시인이라는 무게감



등단 직후에 제 이름을 걸고 시를 쓴다는 것과 시인이라는 옷의 무게감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무게감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에 몰입하며 퇴고에 집중했습니다. 미장센(mise en seene)이 뛰어난 영화와 음악을 많이 접하면서 좋은 노랫말 가사에서 집을 잃고 벌판에서 떠도는 시어들이 한편의 시로 태어나 이 작품들을 대중에게 선보였을 때 힘과 감동으로 피드백이 돌아오면 짜릿한 희열을 느낍니다.

세상과의 공감과 연대

최근에 저만의 날카로움을 간직한 채 세상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길을 찾기 위해 완주 지역신문에 전통적인 운율을 갖춘 '뚝새풀 연가'와 향토 시어로 이루어진 '만경에 폭을 대다' 등을 준비해 발표했는데요. 발표 후 지역 독자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가 이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시(時)

시를 쓰고, 몰입하게 된 건 아무래도 '시(時)'가 나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시(時)가 자신을 두드려 노크해 줄 때까지 기다리며 삶의 공통분모는 자신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닌 외부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던히 밟힌 풀들을 내가 우연히 보았듯 길을 내어 주고 그 풀들이 나를 기다렸듯 그렇게 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며 시를 건져 올리는 과정이 참 좋았고 여전히 좋습니다.

꿈의 무대가 되는 작은 테이블

젊었던 시어들에 주름을 얹고 팔딱이던 심장이 피워 올린 불꽃같은 구절들을 깜깜한 밤의 등불을 삼아 모두 잠들면 혼자만의 작은 테이블이 저의 작업실이자 꿈의 무대가 됩니다. 그 안에서 저의 모든 창작이 이루어져요.

다채로운 시로의 접근

시화전과 첫 시집 발간 준비를 위해 꾸준히 시집의 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림과 글꼴로 시를 표현하기 위해 캘리그라피와 수목담채화, 나무아트를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 기존의 한 방향이고 정직한 방식을 탈피하여 작은 음악회 및 시화그리기, 시구 붓글씨 등 다채로운 방식의 형태로 다가서는 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곳곳에 숨어있는 특별한 자연과 예술로 꽃피우는 완주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정말 값지고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다채로운 언어감각으로 새로운 매카니즘을 추구하는 시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글 · 김덕주

16

황세화

자연과 함께 마음을 이야기하는 화가

#시각예술#회화#디자인 #화산 #화가#미술치료#일러스트

화산면에 거주중인 황세화 화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여러 장르의 작품을 창작, 온라인과 sns를 통해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자연과 웃음, 온기를 담고 있는 작품들은 보는 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25년 넘게 미술 강사로 아이들에게 자연미술을 가르치고 요양병원 미술치료 수업, 아크릴화와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자연주의 화가이다.





자연과, 사람과 함께 호흡하다

어려서부터 화가가 꿈이었어요. 미대 졸업 후, 1996년부터 다수의 그룹 전시회를 가지며 서양화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일러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프리랜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대국민화가 모지스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전원생활을 하며 세속에 매이지 않고 자연과,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운영한 블로그를 통해 따뜻하고 밝은 그림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달의 블로거로 선정되기도 하고 드로잉 관련 전자책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의 소재로 시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움 때문에 아크릴화, 일러스트 장르를 선택했는데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허락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도예 캘리그라피, 드로잉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림을 통한 마음치료 화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명상을 통한 내면의 힘

20대 후반 강사를 하면서 작품활동에 경제적 부담도 컸었고 화가로서 자존감이 위태했던 순간이 작가에게 찾아왔었어요. 화가로서의 개인적 유명세나 명예에서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이런 내적 고민과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30대 초반부터 시작한 '명상' 덕분이었어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워내자 내면의 힘이 생기면서 그림에 몰입할 수 있었고, 그 후 '나' 만을 위한 작품 활동이 아닌 '대중을 향한 미술'을 해 보자는 마인드의 전환이 왔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도 갖게 되어 블로그에 작품을 올리기에서 시작하여 함께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마음이다

아이들과 그림 작업을 할 때면, 아이들 속에서 감성을 자극 받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그림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의 그림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그래









서 기존의 미술 수업 방식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그리는 야외 스케치나 흙을 만지는 작업을 하며 아이들과 호흡하는 방식을 택했죠.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수업에서 "그림은 마음이다" 말해주며, 솔직한 마음은 꾸미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의 향기가 그림에 담겨짐을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자연과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핸드폰에만 빠져 깊이 있게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안타까웠어요. 아이들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전에 작업했던 아이들을 위한 드로잉 e-book 다음 권을 틈틈이 준비 중입니다.



생이 빛을 발하는 것

최근 요양병원의 어르신들과 4년 동안의 미술 치료 수업에서는 할머니들의 그림 속에서 세상 어머니의 모습을 배웠어요. 평생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는데도 인생의 무게와 깊이가 무언지 모를 형상으로 다가왔고,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그림 같은 그림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 온 생이 빛을 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그림들 속에서 세상의 위대한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이 남는 의미 있는 활동은 요양병원 어르신들과 재능기부자들 100여명의 협업으로, 도자기를 이용하여 꽃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벽화설치미술을 기획 실행했던 것인데요. 구슬을 꿰듯이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끼는 작품은 최근에 그린 '겹매화꽃'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품 섭외가 들어와 지금 브룩클린의 한 사업장에 다수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예술의 끈을 놓지 않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비용과 부족한 작업공간 때문에 어려웠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기획했던 목적대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 보아주는 이들이 자신의 그림을 통해 평온함과 치유의 감정을 느꼈다고 해줄 때 가장 예술가로서의 희열을 느꼈기에 이러한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어요. 주로 집안 작업실이 저의 공간이지만 여전히 예술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 속에 담긴 이야기를 담백하고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곧 완주군 인근 독립서점에서 그동안 완성한 작품을 모아 선 보이기 위해 가을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다

저는 작품을 하면서 주로 영감을 자연에서 얻으며 자연에서 받은 영감에 일상을 얹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는 편이에요. 한 예시로는, 최근 완주 화암사 부근의 예쁘게 피어있는 댑싸리를 만났는데 그 안에 폭 안겨있는 댑싸리꽃이 너무 예뻐 꽃말을 찾아보니 '겸손'이어서 댑싸리나무와 꽃에서 얻은 영감과 '겸손'이라는 미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주제로 작품을 표현하면서도 항상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즉 '공존'입니다. 세상 만물은 홀로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함께하는 따뜻함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서, 각박한 현실속에서 서로 연대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온기 가득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의 평정과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기까지 가장 고맙고 힘이 되는 분들은 블로그 및 SNS 이웃분들의 응원과 격려였어요. 그림을 쉬고 싶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했지만 보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시 시작해 봐야지 하는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저 자신도 더 나아가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지 않았다면 몰랐을 자연과 이웃의 감사함을 그림에 오롯이 담기 위해 더 들여다보고 더 소통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작업대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글 · 이영화

17

은호등
가족과 여행의 행복을 그리다

#시각예술#한국화 #봉동 #가족

어느덧 완주에 정착한 지 16년,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 작품 활동을 병행하기엔 버거운 점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붓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체전을 통해 틈틈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작품 활동을 해왔다. 가장 애틋한 주제는 가족으로, 최근에는 삶의 터전인 완주의 여러 풍경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으로 남기듯, 작품으로 추억을 그리다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 전북예술 회관에서 학사 논문 청구전을 연 후 약 12년 동안은 오롯이 제 작품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작품 활동을 병행하기엔 버거운 점이 많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붓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단체전을 통해 틈틈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나의 시간을 나만의 작업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014년 전주의 갤러리 카페에서 초대전 제의를 받게 되었고, 너무나 설렜어요. 오랜만의 작업이었기에 관객들과 더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길 원했어요.

고심한 끝에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다가서자'라고 생각했어요. 일상을 뒤돌아보니 가장 크게 자리한 것이 '가족'이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면 이야깃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한 장소에 대한 추억이 많았기에 작품에 여행을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다녔던 여행지가 작품의 풍경이 된 거 같아요. 여행을 가면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듯이 작품도 하나의 앨범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애틋한 주제는 '가족'

가장 많이 생각하고 애틋한 것을 주제로 삼다 보니 '가족'을 그리게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던 일,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그런 일상의 삶을 담았어요. 가족의 현재와 미래, 과거의 모습을 추억하는 그림으로 보는 이들에게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떠오르기를 바라면서요.

조명을 통에 빛과 그림자를 넣어보았고, 인물을 따로 종이에 그려 오브제형식으로 붙여 입체감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제 그림에는 인물의 표정이 없어요. 보는 사람 각각의 경험치대로 인물에 감정을 넣어 감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작품을 모두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최근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삶의 터전인 완주의 여러 풍경들을 담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여기서 행복하자

작년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여행, 여기서 행복하자展'란 전시를 진행하면서 완주군의 다채로운 풍경을 담았는데요. 이 전시로 프로이트가 말한 행복의 3대 조건 사랑, 일, 놀이를 주제로 표현된 작품을



강천사의 가을



통해 지금 하는 일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놀이로 만들 줄 아는 여유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어디서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상황으로 인해 통제되고 갑갑하기만 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작품 속을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어주었기를 바래요.



각자의 생이 만나 우리 인생이 되기까지

코로나 이후 많은 작업을 하지 못해 아쉬웠을 때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에서 '썬데이 완주'란 기획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 기획전은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으로 바뀐 삶을 완주에서 시작하여 살고있는 예술가 부부 세 팀이 함께한 전시였는데요. 참여 작가들의 작업실 일부 모습과 작가 본연의 습속들을 전시장에 제안하여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작가들의 활동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줘도 뜻깊은 활동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을 일렁이는 풍경을 포착하다

영감을 주는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아무래도 '풍경'이에요. 그중에서 노을진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으로 일렁여요. 사실 하루 중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찰나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자연이 주는 선물같은 풍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친한 친구하고도 함께 나누고 싶어지죠. 그렇게 그린 작품들 중 가장 애정하는 작품은 2020년에 그린 '강천사의 가을'이에요. 강천사 스케치를 갔을 때 그 평온함과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 그린 작품인데 섬진강 강천산 전국사생공모전에서도 좋은 성과까지 얻게 되어서 더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여유, 그럼에도 꾸준한 작업

창작을 하려면 생각을 정리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작업과 작업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생활도 하다 보면 작업을 해야 한다는 여유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늘 아쉬움을 남기고 작품을 끝내곤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리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살다보면 또 예기치 않은 변화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럴 때에도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에요.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건?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기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가 한 살 무렵 완주에 살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완주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준 곳이기에 새로운 기회를 얻은 곳이자 다시 태어난 제2의 고향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 · 강지수

18

장해숙

따뜻한 작품, 따뜻한 사람 무르익는 삶 살고파

#시각예술#한국화#문인화 #봉동 #캘리그라피#천아트

유년기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청소년 시절에는 막연하게 다양한 전시회 등을 빠짐없이 순회하던 소녀는 문인화가가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작가로서의 자산이 되었고 이후 작품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창작활동을 하는 동시에 문인화와 캘리그라피, 천아트, 캘리그라피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다.

막연한 끌림으로 시작한 그림



전주 문화센터, 완주 근로복지관, 주민센터에서 문인화와 캘리그라피를 가르치며 천아트, 캘리그라피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해숙입니다. 2005년 초대작가가 되기 전인 1990년부터 협회나 그룹 활동으로 작품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유년기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막연하게 다양한 전시회 등을 빠짐없이 순회했었어요. 이러한 관심은 작가로서의 자산이 되었고 이후 작품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우기보다 비우는 여백의 미

제가 붓을 잡고 처음 시작한 것은 서예였어요. 그 다음 문인화를 하게 되면서 붓글씨를 충분히 활용하게 되었죠. 문인화는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여백을 우선하는 그림이에요. 여백은 비어 있음이 아니고 사색과 휴식,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수묵의 농담과 운필의 속도는 인위적 가공을 떠나 내면적 정신성을 표현하는 일로 시각적 회화의 세계를 심미의 식으로 표현되어야 해요. 저 또한 결혼과 육아로 작업시간이 부족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도 있었지만, 작업을 대체할 시간과 공간 활용을 철학과 문학 서적에서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작가들, 지인들과의 만남의 장이자 작품 구상을 하는 공간인 작업실에서 2023년 제4회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감의 원천은 '자연'

작품의 영감이 되어주는 건 '자연'입니다. 매번 다루는 소재(素材)이지만 실제 존재를 만나기를 원하게 되면서 소재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계절과 관계없이 물과 산 나무를 만나러 발품을 팔고 집 나서기를 자주하는 편입니다. 비록 선인들이 추구하는 천지자연의 모든 것이 물아일체, 영묘한 지경을 동반하는 일에 다다르지는 못 할지라도, 만남에서 느끼는 생동감은 대단히 중요하며 작품구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만족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

자기 자신의 작품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나 작가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아닐가 싶어요. 사실 만족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고 만족스럽더라도 작가 본인은 아무래도 부족함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가끔 의도한 목표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면 다음 작업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느낌과 구상 의도가 부합된다면 좋은 작품이 되겠지만 정말 가끔



있는 일에 불과해요. 매번 작품을 그릴 때마다 만족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뿐입니다.

선으로 표현하는 자유분방함 (작품 표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작품 표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주로 선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자유분방하고 호방함을 그려내는 일이에요. 사생(寫生)을 중시함과 동시에 깊고 심오한 사상으로 의경(意境)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주로 수묵 문인화(文人畵) 작업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디딤돌 역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활동 중 의미 있는 일은 중년이 넘어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어서 여러 사정으로 접어두었던 개인의 소망이나 꿈들을 펼치며 자기만의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그림 그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접근방법을 함께 찾아보며 디딤돌이 되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은 또 다른 보람이 됩니다. 실력을 연마하여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또 공모전에도 출품하도록 이끌어 주어서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며 자아실현의 토대가 되기도 하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2023년 개인전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여러 전시회에도 참여해야 하며 해마다 지도하는 전시회도 전주와 완주 그룹이 있는데요. 새로운 소재와 장르를 위하여 연구하고 지도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어요. 문화센터 복지관 등의 수업도 주 5~6회 정도 되는데 수업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작업시간은 항상 부족하기만 합니다. 가을 공모전 출품 지도는 상당한 부담감이 따르는 일이에요.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외면하기 어렵고 아직은 홀로서기 어려운 회원들이기도 하므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만드는 따뜻함

작품에서의 공감과 소통은 저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작품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 삶도 잘 익어가겠죠.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작품에 대한 쉼 없는 열정으로 붓을 놓지 않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완주에서의 작가·작품생활은 같은 길을 가는 동료가 있기에 외롭지 않고 더 정진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글 · 은호등

19

권성수

풍요로운 나태보다 고독한 날카로움

#시각예술#조소 #상관 #여정#공간예술가

2002년에 “갈등으로부터 분출”이란 주제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아홉 번의 개인전을 했으며 2022년 완주 복합문화공간-누에에서 “여정”이란 주제로 제10회 개인전을 가졌다. 일상생활을 모티브로 한 작품세계를 추구해 왔고, 최근 전시를 마친 “여정”이라는 작품 6점은 전시장 전체 공간을 조율하고 작품과 작품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조각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권성수입니다. 2002년에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작가로서 첫발을 디뎠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학창 시절부터 미술부 활동을 해오다가 큰 이변 없이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현재까지 전업작가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 “갈등으로부터 분출”이란 주제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전주, 서울, 완주, 익산, 대전 등지에서 아홉 번의 개인전을 했으며 2022년 완주 복합문화공간-누에에서 “여정”이란 주제로 제10회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초대전 및 단체전을 약 150여 회 정도 활동했으며 익산국제조각심포지움에 참여하였고 전라북도 조각가협회 회장, 여러 미술 공모전에 심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미술협회 조각분과 이사를 역임하면서 전업작가로 여러 미술 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재료의 물성과 공간의 확장

일상생활을 모티브로 한 작품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에 작품의 영감은 따로 찾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양한 재료를 다루는 조각 특성상 재료의 물성과 작품이 놓일 공간에 대해 늘 생각하고 다듬는 데에서 오히려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이 작품하고 어울리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공간에 맞게 작품 제작을 하는 데 애를 씁니다. 작품의 형(形)을 구축하거나 감정을 재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재해석할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작품을 통해 우리 일상 주변의 소소한 기억으로부터 시간을 되돌리고, 과거도 현재도 아닌 시간의 공유를 통해 공간의 확장 개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공간의 공유를 통해 소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늘 있었으나 그걸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업작가로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상했던 것과 실제 제작했을 때의 예상하지 못한 차이점이나 여러 형태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조금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작품을 완성시켰을 때의 행복함이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죠. 가장 큰 희열감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다시 찾는 '여정'

저는 작품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초현실적인 정신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것은 따뜻한 기운의 소중한 기억일 수도 있고,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의 아우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공간을 인식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인식된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또 다른 공간입니다. 그렇게 작업해 온 작품들 중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익산 중앙 체육공원에 설치된 "순환"이라는 4m의 거대한 화강석 작품과 가장 최근에 전시를 마친 "여정"이라는 작품 6점에 애정이 갑니다. 철과 스테인레스, 자연석 등을 조합한 조각 작품들은 차가움의 행성에 따뜻함을 찾는 여정의 작업이었고 나 스스로를 다시 찾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공간의 확장과 시간의 공유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두고 소중한 시간을 들입니다. 그 목표가 성공으로 끝이 나든 실패로 끝이나든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아름다운 노력과 지나온 시간들이 빛이 되어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저는 가장이자 조각가로 이 우주에 살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들의 여정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안착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반짝이는 행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

> 여기 방황하는 한 행성이 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암흑 속을 떠돌다 간혹 한줄기 빛이라도 보이면 그곳을 향해 막연하게 가고 있다. 그러나 그 빛은 어디서 어떻게 발하고 있는지 전혀 감지 못한다. 어쩌면 그빛은 허상일수도 있다 과연 그 행성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 – 제10회 개인전 〈여정〉 작가노트 中

가장 최근에 전시를 마친 "여정"이라는 작품 6점은 전시장 전체 공간을 조율하고 작품과 작품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앞으로 4~5년 정도는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본질을 찾는 공간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보다 근본적인 본질을 찾는 데에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고 제작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완주는 제가 태어난 곳이자 동시에 현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작품 제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완주는 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 장해숙

20

김귀복

내면세계를 추상조각으로 표현하다

#시각예술#조소 #상관 #생성과 소멸#카오스#예술치료

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연이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하면서 조각가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김귀복 조각가. 졸업 후 전주로 내려와 스물일곱부터 대학교 시간강사 일을 하면서도 조각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전라북도 미술대전 조각 분야에서 4년 연속 대상, 우수상, 특선을 했고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조각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귀복입니다. 전주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성신대학원 조소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선을 하였고, 그 이듬해에도 입선을 하여 조각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전주로 내려와 스물일곱부터 대학교 시간강사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조각 작업을 하여 전라북도 미술대전 조각 분야에 4년 연속 대상, 우수상, 특선을 하여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기가 되어 전라북도 최초 추상조각 개인전(1984.6)을 열기도 했습니다.
'생성과 소멸'이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전주, 서울, 일본 등지에서 16회 개인전을 했으며, 초대전과 단체전을 약 200회 정도 활동하였습니다.
15년 정도 전주대, 우석대, 중부대, 성신대에서 시간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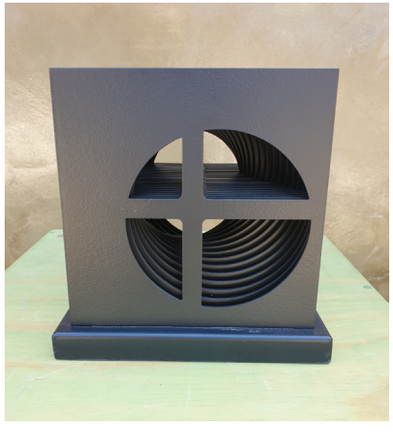
를 하다가 예원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조교수까지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예원대학교에서 일하면서 조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예술치료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또 미술 심의 위원정,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라북도 미술대전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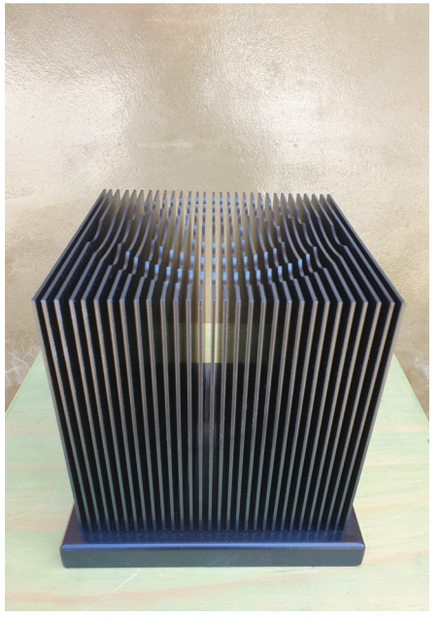
작품을 시작할 때는?

작품을 시작하고 끝남에서 또 다른 시작이 될 때 오는 즐거움은 상상 그 이상의 희열이옵니다. 자연과 심상이 하나가 되어 왔을 때입니다.
인간의 심성과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면과 선으로 형상화하고 싶습니다.
제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작품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상하고 스케치하고 생각하는대로 작품이 제











작되었을 때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최근에 새로운 작품 '카오스'를 시작으로 1~2년 안에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항상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로, 또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면세계(분노, 고통, 사랑, 우주)를 추상조각으로 표현하는 작가

글 · 권성수

완주예술인 발굴·기록화

2023

2023년의 기록은 두 작가의 손끝에서 모였다. 김유진과 최민주가 전문 에디터로 참여해 열 네명의 예술인을 만났고, 이야기를 다듬었다. 덕분에 한 해의 결이 한층 고르게 정리되었다.

01

권원덕

전통을 현대화시키는 법고창신

#시각예술#기타 #전북#소양 #소목장

"어린 시절에 자연 속에서 나무를 가지고 놀던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물성보다는 따뜻함도 있고,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뭔가 만들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나무에 대한 애착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이 애착 때문일까. 반도체와 전기를 전공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나무 만지는 일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권원덕 소목장의 이야기.



대학원 작품 Face ÷ Line

어린시절이 궁금합니다

익산에서 태어났어요. 익산에서도 약간 변두리에요. 집 뒤에는 크지는 않아도 나지막한 산들이 있었어요. 소나무 밭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놀고, 뭔가 하는 기억이 많았어요. 그 기억이 지금 이 일을 하는 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를 가지고 놀던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나무는) 다른 물성보다는 따뜻함도 있고,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뭔가 만들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나무에 대한 애착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완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반도체와 전기를 전공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고민하다가 나무 만지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소목을 하기로 결정하고 은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완주 용진이 저희 은사님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군 생활을 하기도 했구요.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졌던거 같아요.

완주는 산이 많은데 엄청 높은것도 아니여서 포근하고 아늑했던 느낌이 좋았어요.

전통 소목장을 하다가 현대 가구를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은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점이에요. 홀로서기를 해야 할 상황이 온거에요. 전통 가구를 더 팔지 나무에 대한 표현을 더 할지 고민하다 홍대에 계신 아트 퍼니처 최병훈 교수님 작업을 보고 배워보고 싶





위부터 법고창신 燈, 법고창신 櫃



서안 참죽, 먹감나무



먹감나무 서랍장



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였어요. 지금 전통과 현대를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줬거든요.
전통과 현대 그 중간 지점의 작업을 하는 게 제 포지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컨셉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나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쉽게 쓸 수 없는 말이 아니기에 그 말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방향이에요. 저는 전통 가구를 만드는 기법이나, 소재 아니면 형태적인 재미난 요소를 찾아서 현대적인 가구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건 큰 틀이에요.
재미난 요소라고 하면 손잡이, 가구를 만드는 기법, 가구에 쓰이지 않았던 것들을 접목해서 쓰는 거에요.



은사님과 함께

앞으로 계획은?

큰 맥락에서는 전통을 현대화시키는 '법고창신'이라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작업이 어떤 주제, 형태로 표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양한 전시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변 확대 차원에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통 가구를 만드는 기법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느린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제 나름의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죠.

어떤 예술가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옛날 전통 가구 중에 반닫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지역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색이 가미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나라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가구를 만드는 건 아닐테니까 제가 이 소양이라는 곳에서 만드는 가구가 나중엔 한 분류처럼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이 담기면 분명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별화되는 부분일 거거든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새롭게 작업하는 것들이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 소양에서 이런 것들을 작업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남으면 좋겠어요.

글 · 김유진

02

김예진

누군가에게 연주가 위로일 수 있다면

#공연예술#음악 #전북#삼례 #목관악기바순#바수니스트

전주가 고향인 김예진 바수니스트,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전문사 오케스트라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앙상블이내 단원, 헤르츠 앙상블 단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세 번의 독주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바순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Love is all 포스터

바순과의 우연 같은 운명적 만남

예고에 입학하여 피아니스트나 작곡가가 되기를 꿈꿨는데 한 선생님께서 바순을 연주하는게 어떠냐고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바순이라는 매력적인 목관악기를 접하게 되었죠. 그때 선생님이 제게 바순을 권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였어요.

단지 학교 오케스트라에 바순 연주자가 필요해서였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클래식을 좋아하는 아버지께서 이왕 할꺼면 남들이 안하는 악기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떠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연히 바순을 시작했지만 한 번도 바수니스트가 된 것에 대해 추회한 적은 없어요.

바순은 생소한 악기인데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바순은 겹리드를 통해 깊은 울림을 내는 목관악기로 첼로 베이스와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중요한 악기예요.

낮은 음역대의 악기라 리듬이나 베이스 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특유의 묵직하고 따뜻한 소리를 통해 다양한 색깔을 전할 수 있어 솔로의 강점이 있는 악기예요.

지역에서 바순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시는데요

전북대 음대를 졸업하고 한국종합예술대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전문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사실 서울에서 더 활동을 하고 싶긴 했는데 제가 설 자리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주자들도 넘쳐나고 설 자리는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바순 연주자가 많지 않아 그만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완주 삼봉지구에 터를 잡고 전라북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채로운 연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꾸준히 협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 번의 독주회를 열며 관객들에게 바순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의 독주회, 어떻게 진행되었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들으면 독주회를 여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연주자 개인을 위한 문화사업 자체가 많이 없다 하더라구요.

다행히 전라북도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이 많아 제가 설 수 있는 무대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첫 독주회를 열기 위해 '독주회 적금'을 들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여러 지원 덕에 생각보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무사히 독주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세번의 독주회를 진행하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독주회 때는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연주만 했어요. 세 번째 독주회를 통해 관객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독주회는 클래식 음악 대신 가곡과 재즈 음악으로 구성했어요. 늘 하던 공부가 클래식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게는 정말 도전이고 모험 같은 일이었어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관객 분들이 없었더라면 해낼 수 있는 연주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악이 주는 힘을 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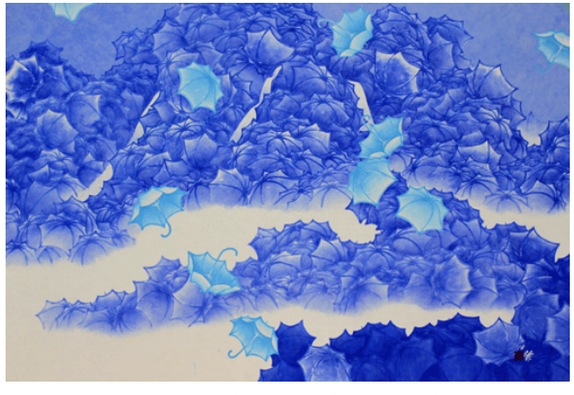
사실 지역에서 젊은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바순이라는 악기 자체를 모르거나 클래식을 잘 듣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주는 일 자체도 쉬운일은 아니에요. 독주회를 연다고 생계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예술가로서 대중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치열하게 생각해요.
바순 연주를 들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없어요. 음악을 듣는 방법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저 음악을 듣는 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음악에 집중하다 보면 연주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고스란히 전달 될 거라고 생각해요. 꼭 연주자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순간 느낀 음악이 정답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음악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순간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기에 제 연주가 단 한명에게라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음악이 주는 강한 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그 힘을 알게 만드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예요.
글 · 최민주

03

박인현
우산작가

#시각예술#회화 #전북#동상 #동양화#연석산미술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제스스로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재능은 출중한데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림을 중도하차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8년 여 온갖 정성을 쏟아 붙고 공들여 이룬 '연석산미술관'을 설립취지를 살려 가장 잘 이끌어갈 제자에게 넘긴 박인현 작가, 이제 오롯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몰입하고 있다.



Umbrella-인왕제색 | 한지에 채색 | 88.8x130cm | 2016

나의 고향과 부모님

저는 1957년 생으로 당시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김제에서 태어나 7살 때 전주로 이사왔어요.
이사 온 곳은 피난민촌으로 기다란 지붕 하나에 30여 가구가 모여사는 일종의 다가구 주택이였지요. 수평적 구조로 황토벽으로 앞, 뒤, 좌, 우를 나눠 양옆집의 작은 소리까지 생생하게 전해져서 이만저만 불편했던 게 아니였어요.
그럼에도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하고자 하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널 가르칠 테니까 열심히 해라" 라며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제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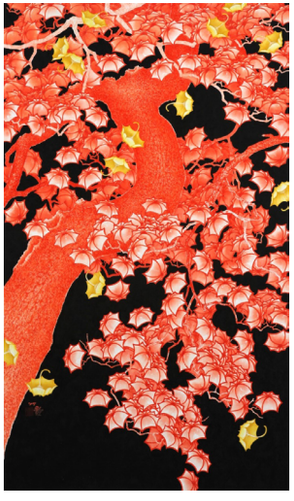
처음 재능을 알아보신 분은?

초등학교 5학년 특별활동 시간에 축구반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키가 큰 애들이 먼저 뽑히고 중간 정도에 있던 제 앞에서 순번이 끝나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난처 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특별반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배정받은 게 미술반이였어요.
"인물을 그릴 때 그냥 밋밋하게 서 있는 사람은 운동감이 떨어지니까 넘어질 듯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그려야 그림이 생동감이 넘쳐 활기가 찬 그림이 된다."
어머니 같이 포근한 인상의 선생님께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고 너무 흥미롭게 들렸어요.
이 후 각자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라 하셨고 저는 운동장에서 공차는 아이들을 대상 삼아 그림을 완성했어요.
제 그림을 보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며 굉장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첫 미술대회 수상

미술 선생님은 저에게 소년한국일보 주최, 전국어린

이미술실기대회 참여를 적극 권하셨어요. 저는 축구대회는 알고 있었어도 미술실기대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낯설게 들렸죠.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갔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지요.
방학 직전에 하는 종업식으로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있는데 교단 위에 웬 트로피와 상품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누가 상을 받나부다' 생각했는데 그게 저였어요.
제가 잊고 있던 그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 트로피를 잘 보관하고 있는데, 트로피를 대할 때마다 당시의 상황이 뚜렷하게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이후에도 선생님께서 각 미술실기대회에 참여를 권했고 저는 참여하는 대회마다 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면 배고프다는 말이 있어 중학교 진학 뒤에는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멀리했지요.



Umbrella _가을나무 | 한지에 수묵채색
가을나무 70x120cm | 2017



Umbrella_달빛소나타17
한지에 수묵채색 | 70x120cm | 2017

미술 시작의 계기

중학교 2학년때였어요. 환경미화를 위해 그린 그림이 교실 태극기 밑에 걸리게 되었고, 그 그림을 수학선생님이 보시고 유명한 화가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故 박남재 선생님이세요. 수학선생님께서 박남재 선생님을 만나러 가라며 약도와 두툼한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어 보신 박남재 선생님께서 석고예수상 각 면을 그려보라 하셨고, 이후 그림 그릴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셔서 저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선생님께서는 부담 갖지 말고 시간이 될 때 화실에 나와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저는 원래 서양화로 홍익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1, 2학년 과정에서는 동양화, 서양화, 조소를 모두 이수해서 3학년 때 각 전공으로 나누게 되는 지금의 학부제와 같은 계열을 모집했어요. 저에게는 행운 같은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전까진 동양화를 접해 볼 기회가 없었지요. 동양화 첫 수업시간에 사군자를 배우면서 화선지에 먹이 잠잠하게 머금으며 스미고 배어드는 현상이 그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수업이 끝나자 마자 바로 붓과 벼루 등 재료 일체를 구했고 이후부터 동양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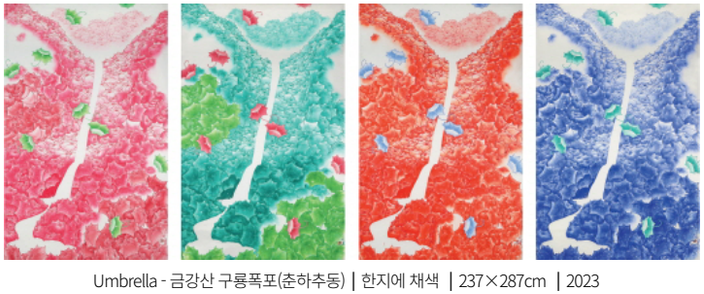
하지만 동양화를 전공으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어요. 새로운 전공을 한다는 것이 겁나기도 했고 오랫동안 서양화를 해오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기에 결정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데생 수업 중에는 한 교수님께서 제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바로 데생이다." 라는 큰 칭찬을 하셨지요. 그리고 서양화 전공을 간곡하게 권하기도 하셨지요.
하지만 결국 제가 동양화를 전공하게 된 결정적 판단은 '우리의 것' 이라는 점이였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서양화는 결국 그들의 모방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생각과 세계적인 작가로 진출은 바로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지요.

동양화의 새로움, 빛을 보다

동양화전공 후 첫 작품은 '맥'이라는 작품으로 보리를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을 채색으로 완성한 작품이에요. 당시 전통 회화로서 비닐이라는 소재가 결코 나올 수 없는데 저는 도전적으로 시도했던 거예요. 그 뒤 대학원과정에서 수묵으로 이와 유사한 비닐을 소재로 '투공'이란 작품을 이루어 중앙미술대전이라는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심사과정에 있던 일을 들었는데 제 작품이 지나치게 실험적이고 새롭다는 점 때문에 자칫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로 대상후보에서 입선에 그쳤다는 거예요.
실험성 짙은 도전적 작품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는 이후부터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요.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개인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50여회의 개인전에 이르게 되었어요.
마침 1980년대 초부터 우리 화단에서는 실험성 짙은 작품을 추구하는 현대수묵운동이 남천 송수남 선생님을 중심으로 커다란 열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 역시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으로 화단에 굳건히 자리매김 하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산작가

제가 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학시절부터 비 오는 날을 기다리다 술 한잔하는 것을 즐겼어요.
어찌보면 비와 우산은 서로 상대적 개념인데도 비오는 날의 풍경으로 빗속에 받쳐 든 우산은 서정적 낭만의 대명사가 되었지요.
빗속 우산은 사랑, 정, 배려, 나눔, 동행 등의 따스함과 함께 잔잔한 감성마저 자극해 낭만적 시상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요. 이를 작품으로 연결하기 위해 저는 비와 찰떡궁합인 우산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작품 속 우산은 문명의 산물로서 현대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고, 우산이 펼쳐지고 접히는 것에 나름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지요.
1986년 딸이 태어나고 불과 8일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허무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시기 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인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떠올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해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우산이라는 매체를 끌어들여 동양의 산수경을 착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생-유년-청년-장년-노년-죽음'이라는 장편의 시나리오를 담은 풍경 산수라 할 수 있지요.
이 작품이 1987년에 발표한 약 40m의 '비가…' 라는 작품이에요. 이 전시는 화단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89년 한국미술평론가협회에서 선정한 '제8회 석남 미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Umbrella - 금강산 구룡폭포(춘하추동) | 한지에 채색 | 237×287cm | 2023





하얀산수, 그리고 …



그 뒤 수많은 언론매체에서 인터뷰, 출연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우산작가'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지요.

다시 우산작가

제가 33살로 너무 젊은 나이인데 '우산작가'로 고착화 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젊었기에 당시 성과에 안주하고 만다면 앞으로 이어질 제 긴 작품 인생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투철한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움에 대한 꾸준한 도전이 제 나름의 작품에 대한 철학이였으며 예술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짧은 거리를 목표로 하는 단거리선수가 아니라 꾸준히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라는 신념이 확고했거든요.
이후 제 작업은 자연을 향한 치열한 구애였어요. 어린시절 자연을 벗 삼아 뛰어놀던 추억들을 연상하며 자연시리즈를 제작했어요.
이 시기의 작품들도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작품들임에도 주변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당시의 작품을 두고 굿이 우산작품을 끄집어 내어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산작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곤 했었어요. 그런 아품을 15년을 견뎠어요. 그러고 나니 50살을 내다보는 나이가 되어가면서 저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준 우산작품을 다시 연결시키고자 시기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우산작품으로 초대 요청이 왔고, '2004 다시 찾은 우산전'이라는 타이틀로 우산작품 전시를 열게 되었어요.
지금 곰곰히 돌이켜보면 자연을 소재로 한 지난 15년이란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작품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요.
근자에 저의 작품들의 주된 대상은 선조들의 작품들을 제 나름으로 재해석하거나, 실존하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이룬 '정방폭포', '계산행려도', '금강산 구룡폭포' 등 일명 '우산 산수'라는 명제로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과'가 되기도 하고 '새와 나비'의 대체물로 우산이 등장해요.

앞으로의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을 조금 더 내실화하면서 체력이 허락하는 한 대작들을 중심으로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교직생활도 정년으로 마무리되었고, 8년 여 온갖 정성을 쏟아 붙고 공들여 이룬 '연석산미술관'도 설립취지를 살려 가장 잘 이끌어갈 제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 그림을 그리며 먹고 살아왔던 제 스스로가 이루고자 했던 사회 환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제 스스로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재능은 출중한데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림을 중도하차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저는 사회로부터 받은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이제 저의 또 다른 목표는 작품에 전념하여 더 좋은 작품을 제작함으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글 · 김유진

04

박종갑

삶과 죽음을 치열하게 탐구하는 예술가

#시각예술#회화 #전북#용진 #한국화#수묵화

예술적 토양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동양학과를 졸업하였다. 송은미술상 , 이당 미술대상 , MBC미술대전 '우수상', 중앙미술대전 본상 등을 수상하였다. 개인전 22회, 단체전 300여회를 전시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화전공 교수 겸 미술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운명적으로 화가를 꿈꾸던 어린시절



바람(부분)

아버님이 서예가셨고 어머님은 전주에서 화랑을 운영하셨어요. 친형을 비롯해 친척 중에서도 모필이나 수묵을 활용해 작업을 하는 화가들이 많아 어른들의 먹을 갈고 물감을 갈아주며 펜보다 붓을 편하게 사용하는 아이로 성장하였어요.

이런 특별한 집안 환경 덕에 일찍부터 미술대회를 휩쓸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생 미술대회 대상, 원광대학교 미술대회 대상 2회 수상 등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미술부로 활동하며 미술대회에서 17번이나 상을 받았어요.

지난날 쓴 일기장을 보면 온통 그림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올 수 있던 건 환경이 지속적으로 절 이끌어 왔기도 하지만 온몸을 던져서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전 화가로서의 삶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재수없던 천재

10대 때부터 주목을 받던 저는 서울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실기실에서 살다시피 그림을 그렸어요. 촌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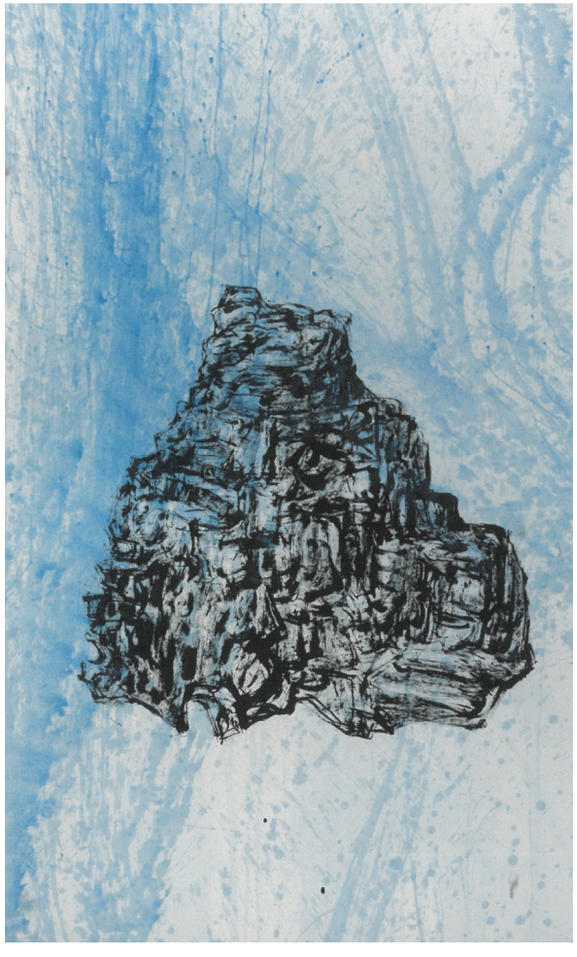
뭔가 의욕은 넘치고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큰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면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대학교 1학년 때는 보통화판을 안쓰고 사군자 작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저는 목재소 가서 나무 사다가 화판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 실기실에 가져다 놓고 한쪽 구석에 내 그림들을 그려 쫙 붙여 나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재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하지만 나는 꿈이 화가이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계속 그렸어요.

제가 그때 가장 주목하고 그린 건 바로 지하철의 다양한 사람들이였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호선 순환선을 타고 종일 지하철 속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출근길의 회사원, 졸고 있는 노숙자, 신이 난 어린이 등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외양을 관찰하면서 삶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사



검은 돌



장벽 _ 인류의 길

유를 담은 작업물들을 완성했어요. 그 결과물들을 통해 23살에 한국미술계 공모전 중 가장 권위있는 시상 중 하나인 후소회 대상전에서 대상을 거두게 되었어요.



삶과 죽음에 천착한 작품활동

후소회 대상전에서 대상을 받고 본격적으로 작가활동을 시작했어요. 3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담은 작품을 그려왔어요. 특히 군대에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마주했어요. 1993년 서해 페리호가 침몰해 300여 명이 사망한 참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전주에서 헌병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 헌병이란 보직이 사망자 신원을 조사해야 하는 거라 한 달 넘게 시신들을 마주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죽음을 접하고 나니 삶이 허무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을 겪었죠.
제대 후 1996년에 높이 3m, 너비 56m의 '인간 순례기'라는 대작을 전시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는 인간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힘

도시생활에서 자연을 접하는 시간이 더해지게 되며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는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자연 곁에서 살게 되니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자연에도 물론 죽음이 많지요. 하지만 봄이 되면 풀들이 마당에 힘차게 올라오는 것처럼 자연에서 살다 보니 생명의 힘을 무척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죽음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생각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인의 길을 묻다

어느날 재료를 사러 화방에 가는데 대학시절 은사님이신 故 송수남 선생님을 횡단보도에서 마주쳤어요. 진중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는 분이시라 긴장해 인사드렸더니 제 눈을 빤히 보시며 '너 어디 가?' 이러시는 거예요. 화방에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너 어디 가?' 다시 물으시더라구요. 그렇게 다섯 번을 반복해 묻고 가셨어요. 재료를 사서 돌아가며 선생님이 장난할 분도 아니시고 왜 그러셨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 제 인생길, 예술의 길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셨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던지신 화두에 대해 고민한 그 날이 지금까지 들어온 그 어떤 수업보다 더 큰 작업의 동력이 되었어요. 지금도 제 작업실에 '너 어디 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적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다 대학에 와서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상황도 많은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묻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선생님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나?

저는 선배예술인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작가예요. 저에게 영감을 준 위인전 속 화가들처럼 역사에 남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는 유치해 보인다 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붓을 잡아요.
글 · 최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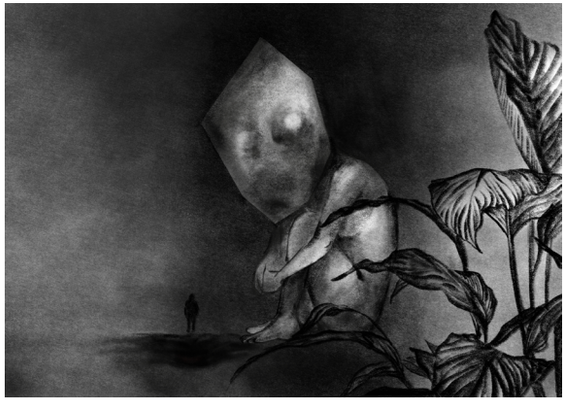
05

강소연(설레)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

#시각예술#기타 #전북#봉동 *웹툰#일러스트#완두콩

"독립이 너무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계속 집을 알아보던 때가 있었다. 한 2년 동안 집을 계속 찾았는데, 집값은 너무 비쌌다. 고민하던 차에 일하던 단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친구 따라 완주에 놀러 왔고,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있어 내려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2년 정도 일하다가 서울 갈 생각이었던 그녀의 완주살이는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대표작

작가의 어린시절은?

거제도에서 2살 때까지 살고 경기도 산본에서 오래 살았어요. 산본은 주변의 상황이 되게 다 비슷해요. 사람들의 면면이나 사는 환경, 생활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산본 사람을 만나면 그냥 몇 단지라고 이야기 하면 대충 어디쯤 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타지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몇 단지에 살았는지 이야기하면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겠네?" 까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비슷했어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심한편이라 치료제를 맞고 있어서 아직도 마음 쓰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기준을 잘 잡아주셔서 엄마한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컸어요.
몸이 안 좋으니 병원을 다니는 일부터 전반적인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상의 패턴이나 규칙같은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이야기도 해주세요

만화를 6학년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난 친구들과 정말 즐겁게 지냈어요.
고등학교때 만화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출품을 하려고 밤샌 적 있어요. 시나리오 짜고 그림체 정해서 그림 작업하고, 작은 캠코더를 하나 구해서 장면 찍어서 연결하고, 촬영하고 출품했어요. 결과는 떨어졌지만 그 동아리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렇다 보니 미대 진학을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간 선배가 초청해서 회사에 다녀오고 나서 마음을 접었어요.

만화를 좋아하는데 왜 접었나요?

동아리 활동이 너무 즐거웠는데 문하생이나 애니메이션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당시에 2차 창작 활동으로 코믹월드와 같은 크고 작은 이벤트에서 만화에 관련된 발표나 활동 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가장 좋아하는 일로 내 본업을 찾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굳이 대학을 가지 않고 활동하는 선배 만화가분들이 너무 많으셨거든요.
그 이후로 동호회 활동으로 1년 분기마다 친구들과 함께 만화를 그려서 을지로에 가서 인쇄하고, 동인지를 팔고, 코스프레도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지 말자는 생각으로 10년을 보냈어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지 않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뀐 계기가 있나요?

결국 그리게 되나봐요. 동호회 활동도 한계가 있고, 완주에 온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완주에 내려오니 집값이 싸서 돈을 벌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버텨볼까?' 하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외주를 받아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계속 원하는 걸 그려오다가 상대가 원하는 걸 그려야 하니까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시안을 3개 보내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절대 채택되지 않더라고요.



삼다수 25주년 브랜드북 삽화

그걸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고민이 많았죠. 여기 지인분들도 시각 활동하는 분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떤 분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디자인은 일이니까 클라이언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저의 일이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은 "내 개인 만족은 개인 작업물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어차피 외주에서는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요.

완주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독립이 너무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계속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한 2년 동안 집을 계속 찾았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고, 아파트에서만 자라다 보니 쉽사리 빌라로 못들어가겠는 거예요. 귀농, 귀촌에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진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고 또 제가 일하던 단체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친구가 완주에 아는 분이 사는데 일도 도와줄 겸 놀러 오라고 하셔서 '놀러나 갈까?' 해서 놀러 왔어요. 그때 형님 집에서 만난 분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해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2년 정도 일하다가 서울로 갈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10년이 흘렀네요.

완주에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완주의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재미나게 지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하고 또 목공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 아주 재미 있었어요.
또 한 1년 동안 고산청년공간이었던 림보책방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소자보 디자인 작업을 주로 했는데, 제일 재미있던 건 프로그램별로 출석 도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몇 개를 모으면 연말에 선물을 주는 도장이었는데, 메인 캐릭터인 토끼 인간을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완두콩이라는 지역 소식지에 연재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처음 2년 정도는 완주에 귀촌해 살면서 느낀 걸 주제로 잡고 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엉뚱하게 느껴지는 생활 모습들이요. 그 후에는 '완주에서 자리를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상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요즘엔 약간 실험하듯이



완주지역 소식지 '완두콩' 연재만화의 일부



편하게 그려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수묵화를 배우고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리고 싶은 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려보고 다양한 도구도 써보는 게 재미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도구를 열심히 잘 써보려구요.
콜라보도 해보고, 아직 나는 뭔가 많이 해보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게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데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기술적으로도 늘어야 하고, 내 생각이 깊어져야 그림도 깊어지는 거니까 계속 공부해야죠.

어떤 예술인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기억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스스로 만족스럽게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어디 가서 그림 그린다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순간이 자주 오면 좋겠어요.

글 · 김유진

06

윤미순

전통이 주는 황홀함을 지키다

#시각예술#회화 #전북#구이 #민화

우연히 잡지에 실린 민화 한 점에 빠져 2007년도부터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10년 동안 민화를 배웠다. 그렇게 전라북도 1세대 민화작가가 되어 활발히 활동해온 윤미순 작가. 현재 완주군 구이면에서 두 번째 개인전 준비에 매진하며 대중에게 민화의 매력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안도



미인도

민화와의 운명적 만남

고교시절 미대 진학을 준비하다 낙방했어요. 그 이후 대학 진학대신 취직을 선택했었죠. 취업 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이를 낳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어느 날 소아과 병원을 갔는데 우연히 잡지를 보다 풍경화를 봤어요. 그림 속 풍경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 좋아서 설명을 살펴보는데 민화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그림이었어요. 그 시절엔 전주에선 민화를 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는데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민화반을 개설했단 소식을 접했어요.

민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

당시 민화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자택이 서울이셨는데 연세도 많으신 분이 매주 전주까지 내려 오셔서 수업하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평생교육원 강의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선생님이 열정적이셨으니 배우는 사람들도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당번을 정해서 선생님을 터미널까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또 도시락을 싸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10년 동안 한 식구처럼 민화를 배웠어요. 모두 민화를 사랑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민화 작가로 홀로서기

취미로 시작한 민화였지만 긴 시간 민화를 그리며 민화만의 넓고 깊은 매력에 점점 빠졌어요.

2015년도에 평생교육원의 선생님이 노령의 나이로 인해 더는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셔서 다른 민화 선생님을 찾아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 생각처럼 여





책가도





화첩도

의치 않았어요.

어느 정도 나만의 색감을 알다 보니 새 선생님 수업이 잘 안맞더라구요. 저는 좀 다르게 해 보고 싶은데 항상 이건 아니라고하시니까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작품을 배우면 선생님께 가져가는 작품 하나, 집에서 나 혼자 하나 이렇게 두 장을 동시에 그렸어요.

그렇게 혼자서 작업을 시작하고 제 색을 가진 민화를 그리게 됐어요.

민화작가로 활약하다

처음에 2~3년 정도 혼자 그릴 때는 정말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고비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넘겨보니 나만의 작품이 나오고 혼자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생겼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전통 공예 전국대전에 초대되는 등 어느새 지역에서 민화작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어요.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전통의 가치'

제가 민화를 배우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민화를 한다는 사람 수는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하지만 이게 민화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변형되었어요.

그런 작품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과연 민화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어요. 혹자는 민화를 베끼는 그림으로 가볍게 치부하기까지도 해요.

근데 베끼는 그림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기법은 없어요. 전통을 재현하고 계승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통을 계승하는 민화작가의 자부심

저는 민화 작품을 보면 황홀하다는 생각을 해요. 보통 민화는 서민들의 그림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궁중에서도 많은 화원들이 민화를 그려 왔어요.

밑 선을 그리고 색을 올리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민화만의 곱고 자연스러운 색이 완성돼요. 여기에 호두 껍질, 오리나무 열매 등 천연 염료로 염색해 조선 시대 민화 작품 속 얼룩까지 재현하려는 노력이 더해져 저만의 특별한 민화 작품이 탄생해요. 보통은 민화 한 점을 완성하는데 2~3개월이 걸리고 10점 정도 그림이 들어가는 병풍 같은 경우에는 2~3년 걸려 완성해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려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완성됐을 때의 성취감은 말도 못하게 커요.

민화의 발전

제가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까 아파트 실내와 어울리는 민화가 많지 않더라구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 민화를 소장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민화를 사람들에게 더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무신, 도자기 천 등 여러 오브제 위에 민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고수하며 진지하게 민화를 대했지만 대중들이 민화를 친숙하게 여겨야 전통의 명맥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민화를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옛날 제가 민화를 배우러 다녔는데 그때의 저처럼 민화를 배우기 위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매주 저에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 옛날 저처럼 민화를 향한 설렘과 열정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부터 '화가'라는 말보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 살면서도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젠 제 꿈을 나누게 된 사람이기도 하구요.
글 · 최민주

07

정승준

좋은 동화책같은 춤 출래요

#공연예술#무용 #전북 #현대무용#초침은 움직인다#너니까 오류

"저는 무용에 관련된 건 거의 다 해요. 가르치기도 하고, 무용단과 크로스오버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무용단에 속해 있기도 해요. 플레이어도 하고 있고. 취미가 작곡이기도 하고 많은 걸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내년에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정승준 무용가. 속해 있는 것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술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

나의 어린시절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때문에 전라도 지역 안에서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목포, 여수, 순천 등 실제로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남원이라 남원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남원은 소도시인 만큼 초·중·고가 밀집해 있어서 학우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초등학교 전학을 하도 많이 다녀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친구들과 친해질만 하면 전학을 가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 정착한 남원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처음으로 길게 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춤을 시작한 나이이기도 하구요.

학교생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친구들이랑 공원에 가서 춤추고 음료수 마시고, 또 춤추고 그랬어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예술의 경지가 아니라 순수한 춤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해요. 고등학교는 남원에 있는 예고로 진학했어요.
타 지역에서 많은 예술인이 모였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포부를 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입문은 쉬워도 전공자로 임했을 때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전공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보니 무용 기본기에 대한 부진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예술성 & 무용에 대한 반대

아버지께서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고, 미술도 좋아하셨어요. 집에는 아버지의 미술방이 따로 있었어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기타 연주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예술 쪽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더 반대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안하고 춤을 춘다고 하면 '딴따라'소리를 들었을 때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왜 춤을 추냐며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일단은 돈이 안 되는 걸 너무 알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오로지 춤이 좋아서 예고에 진학을 했죠. 나중에 아버지랑 얘기해 보니까 제가 잠깐 혹 한 게 아니었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다 하시더라구요.

잠깐의 연기생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춤을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데서 추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진찰을 받아보니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무런 상의 없이 과를 연기 영상과로 옮겨 놓으셨어요. 입학을 하고 보니 연기과였고 강제로 10개월간 연기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과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무릎은 멀쩡했고 성장통이어서 허락을 받고 무용과로 전과를 했어요.

잠깐의 연기 생활이 준 도움

지금 제가 추는 춤 스타일 자체가 집중 포인트를 가지고 감정적인 걸 끌어내는 건데, 그 집중력을 연기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집중력이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품을 보면서 표정이 많이 바뀌고, 순간 변화하는 감정을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느꼈어요. 맞나요?

맞아요. 정말 빠져들어서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사실 절대로 표정을 연습하거나 연기하지는 않아요.
파트너와 이 장면에서 이런 표정이 나와야 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작품에 빠져들고 올인해야 나올 수 있는 감정과 감각,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을 통해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표현?

제가 재작년까지는 계속 콩쿠르도 나가고 안무자 보다는 플레이어 입장으로 무대에서 역할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는 좋은데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게 해소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안무를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조금씩 해결이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 관객들의 니즈를 못 맞춘 거죠. 제가 아무리 순수예술을 해도 대중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저 혼자만의 예술이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춤을 봤을 때 헷갈리거나 많은 감정이 상상되는 퍼포먼스보다는 딱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내용은 무겁지만 보는 사람은 편하게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젠더리스를 추구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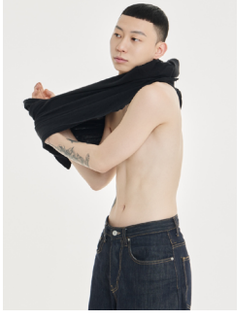
어느 순간 제 춤을 보는 게 지겨울 정도로 재미가 없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주변을 보니 남자들은 항상 과격하게, 여자들은 항상 유연하게만 춤을 추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자가 유연하게 움직이거나 손끝을 우아하게 쓰면 여성성이 보이고 젠더리스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남성도 여성도 강하지 않거든요. 그 중간에서 놀려고 하는게 제 춤의 방향성이기도 해서 젠더리스한 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게 역할극 같아서 재미있어요.

공부의 이유

사실 매일 똑같은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고 연습하면 본인한테 잘려요. 저도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도 자신에게 질리는 순간 한 일주일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을 되게 많이 바꿔요. 불도 꺼보고, 시야를 아예 차단한 상태에서 춤을 취보고, 가장 작은 빛만 사용해서 춤도 춰보고 또 아니면 제일 강한 빛을 비춰서 빛의 구도를 바꿔보는 거죠. 그게 계속 좋은 영감을 주고 도전 정신과 추진력을 일으켜주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의 노하우이자 제 일상 패턴이죠.





전국 무용제 솔로&듀엣 부분 대상

작품명이 「너니까 오류」였는데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짠 작품이에요. 책의 내용이 연애를 오래 하고 있는데, 문득 여자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구요. '내가 왜 좋아?' 이 질문에 보통 남자들은 귀찮아서 또는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그냥 '너여서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런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왜 좋은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재미 있었어요.
"내재적 가치를 설명 해줘라"이거죠.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예뻐서, 직업이 좋아서인데 이 내재적 가치 중에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그래도 과연 '너여서 좋다'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걸 작품으로 표현했어요.

작품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에는 속옷에 가까운 팬츠와 탑만 입고 서로를 막 많이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옷을 벗었다는건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자 남자 둘만 남겨 놓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조차 다 벗겨지고 너랑 날 마주했을 때도 '너여서 좋냐'는 이야기를 한 작품이에요.

다양한 작품활동

제가 최근에 뮤직비디오 작업을 진행했어요. 음악 중에 국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국악하면 한국 무용이 따라오는데, 그 틀을 깨고 싶었어요. 국악에 현대무용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에 다짜고짜 멤버를 모았어요. 그렇게 하나 둘 채워 나가다 보니 안정화된 팀이 만들어졌고 제가 대표로 있어요.
완주라는 지역에 온 개념도 있고, 지역 상생의 개념도 있으니 좀 더 한국적인 장소를 찾아서 우리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신곡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예술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는 일은?

제가 나르시시즘이 강해서 제가 알려지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기사가 많이 올라왔을 때 가장 뿌듯하기도 했구요.
콩쿠르 입상도 기분이 좋았지만 저의 개념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상을 받았을 때 좋았어요. 또 인정된다는 개념보다 불쾌하지 않게 들렸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술활동 하면서 힘든 일은?

전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요. 제가 댄서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저도 나이도 어린 아마추어 무용수이자 초보 안무자거든요.
안무자가 댄서들에게 빨리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해줘야 좋은 리서치 환경이 만들어 지는데, 아직은 제

가 그 작업이 좀 미숙해서 댄서들한테 혼동을 주지 않나 생각해요. 다행인건 주변에 있는 댄서들이 워낙 긍정적이고 제 작품을 존중해 주는 댄서 들이라서 정리가 안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뭔가 해답을 많이 던져주기도 하고해서 같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계획, 기억되고 싶은 나는?

저는 무용에 관련된 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무용단과 크로스오버 단체 팀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무용단에 속해 있기도 해요.
또 취미가 작곡이기도 해서 많은 걸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 이렇게 속해 있는 것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술인이 되는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은 동화책을 매년 써주는 예술인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있는 책이 동화책이지만 동화책이라고 익살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동화책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무거운 뜻이 많은 거예요. 편안하고 솔직하고 순수하지만 무게가 있는 것, 동화책은 그런 요소들이라 너무 매력적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글 · 김유진

08

이은경
매일 숨 쉬듯 연주하다

#공연예술#음악 #전북#구이 #피아니스트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분위기에서 자란 그녀는 숙명처럼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에는 이미 피아노와 피아노 악보 전집이 있었죠.” 구이면에서 고교 시절을 보낸 그녀는 숙명여대 음대에서 학사 학위를, 전북대 음악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쳤다. 이제는 매년 독주회와 협연을 통해 피아니스트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너무 자연스러운 피아니스트의 꿈



제 기억속엔 언제나 피아노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즐겨 치셨고 외삼촌은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셨어요.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가풍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에는 이미 피아노와 악보 전집이 있었죠.
어린시절 교회에서 반주도 도맡아 하고 자연스럽게 동네 피아노 학원도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현실의 벽

전주예고를 졸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이라는 낯선 환경을 홀로 견디며 비싼 학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과외로 학비를 충당하며 열심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장학금을 받으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구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독일 유학을 준비했는데 숙명여대 음악대학원과 전북대 음악교육대학원을 동시에 합격했어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학비 부담도 있고 또 독일이라는 낯선 환경이 무섭기도 하고 해서 유학도 포기했어요.
만약 함께 공부하는 친구나 이끌어주는 교수님이 계셨다면 유학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해요.

또다른 현실

유학을 포기했다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한건 아니였어요. 전북대 음악교육대학원에 입학해서 연주자와 교육자의 삶을 병행했어요.
근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생실습까지 마치는 과정에서 음악교사라는 직업이 잘 맞지 않더라구요. 행정업무나 학부모 응대 등 음악을 가르치는 일 외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신 피아노 교습소를 열었고 ‘학원을 운영하는 일이 연주자로서 삶을 방해한다기 보다 오히려 피아노학원장으로서 일해왔기에 피아니스트로도 살 수 있었다. ’고 생각해요.

예술 교육자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술 교육자로 활동하며 저는 매일 피아노를 쳤어요. 오랜 시간 동안 피아니스트가 된 제자도 생겼구요.



모든 순간이 뿌듯하지만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피아노 연습을 계속 하는 제자를 보면 가장 뿌듯해요.
일하면서 피아노를 계속 친다는 건 피아노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커서도 제자들의 일상에 피아노가 함께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나만의 교육법

교재 순서대로 피아노 연습을 시키는 대신 아이들이 원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요. 바이엘, 체르니 같은 딱딱한 교본 대신 카카오프렌즈, 흔한 남매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교재를 사용하고 보로로 주제가나 아이돌 노래 등 아이들에게 맞춤한 곡을 선곡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살피면서 피아노학원을 지긋지긋한 곳이 아닌 즐거운 놀이터로 기억할 수 있도록요.

피아니스트로서의 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연주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서울 아트홀, 한벽루,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과 연지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독주회, 협연을 했지만 저는 완주 삼례에 위치한 완주향토문화예술회관을 가장 좋아해요.
피아노가 조금 빡빡한 거 말고는 전부 마음에 들어요. 특히 사람들 표정도 다 보이는 게 좋아요.
공연 중에 피아노에 관한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요. 풍선에 달린 사탕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손들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이런 건 큰 무대에서는 나오기 힘든 장면이죠.

피아니스트라는 숙명

세상에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은경'이란 사람이 과연 독자적인 예술인으로 바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도 계속 숨을 쉬는 것처럼 저에게 있어 피아노는 어떤 정직된 목표가 아닌 삶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 딜레마가 사라졌어요.
저에게 피아노는 숙명이에요.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글 · 김유진

09

조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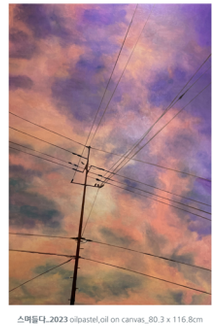
하늘을 주제로 위로를 주는 작가

#시각예술#회화 #전북 #하늘

"하늘이라는 소재는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 같아요.… 같은 시점에 보는 똑같은 하늘일지라도, 라도, 마음은 모두가 다르잖아요. 이별하거나, 원하던 일이 성사되었거나. 제 그림을 보면서, 당시의 하늘이 다시 생각나고 그걸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거 잖아요."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하늘을 보게 해주는 작가가 되고 싶은 조누리 화가의 이야기.



하루의 끝에서



스며들다 2023

작가의 유년시절

저는 대구 수성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초,중,고 생활은 지극히 평범하게 지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들이 그렇듯 미술 학원을 다녔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예고를 갈까도 생각해 봤지만, 집에 미술을 전공한 분도 없고 내가 특출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즈음에 건축을 하고 싶어했어요. 미술을 배우면 건축학과를 가지 않아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에 미술을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한편으론 어렵기도 했구요. 저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큰 상도 받게 되면서 미대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술을 시작한 것 같아요.

나의 예술적 영향

저한테 예술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찾아보면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엄마가 다시 태어나 직업을 갖는다면 '예술가'라는 직업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해요.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래요. 육아를 하는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준 적이 별로 없는데, 집에 걸려 있는 그림 하나를 보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아이가 자라서 화가가 되고자 한다면 조력자가 되어



퇴근길

주고 싶어요. 같이 전시하는 상상도 해요 .

예술활동의 다짐

그림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마지막 학기 때에는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을 했어요. 전시 기획을 하면서 앞으로 개인전을 열 때 어떤 과정으로 일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 때 많은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미술 쪽에서 굵직한 아트페어가 있는 곳이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많이 배우면서 그림 그리는 일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졸업 전시를 하고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들도 뒷받침되야 했고, 또 저도 노력하지 않았아요. 그러다 인연이 닿아서 누에에서 지원해주는 작업공간이 생겼어요.
한 10년만에 붓을 새로 잡았고 전시활동이 이어지니까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자연에서 느끼는 여유

저와 남편은 자연에서 느끼는 여유를 좋아해서 캠핑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아등바등 살거나 뭐에 꽂혀서 사는 게 아니라 편함을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게 좋잖아요.
아이들도 자연을 좋아하고 여유를 느끼고 하는 거요.

제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저와 같은 시선으로 하늘을 봐요. 제가 찍는 사진을 아이가 찍기도 하고.

작가의 예술 세계

하늘이라는 소재는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했던 작업도 표현법은 미숙하지만 소재는 쭉 이어져 왔거든요.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이어갈 것 같아요.
작업과 전시를 하며 들었던 생각은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 감각이란 게 있구나'였어요.
모네의 전시를 보면 200호 짜리 연못을 그려서 연못과 하늘이 비친 그 작품이 강렬하진 않지만 그 크기와 표현이 좋았어요.

저도 큰 작업을 해서 전시장에 딱 들어가면 '하늘에 둘러 쌓여 있다.', '하늘에 있다.' 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오감이 작용하는 전시요.
제 그림의 모토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로와 공감

저의 작업 중에 '퇴근길' 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진짜 퇴근길에 본 하늘의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분홍빛이었어요. 제 작품을 보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피어오르다_2023 oilpastel,oil on canvas_233.6cmx80.3cm

피어오르다



좀 쉬어도 돼_2023 oilpastel,oil on canvas_91cmx116.8cm

좀 쉬어도 돼

'오늘 하루가 되게 치열했다.' 생각하고 집으로 가면서 분홍빛 하늘을 보는데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말해주는 빛 같이 느꼈는데 이 퇴근길 작품이 그날 본인이 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 보는 똑같은 하늘일지라도 마음은 모두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목을 퇴근길로 지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표현하고 싶은 하늘

저는 형태보다는 색감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면 보통 파스텔톤의 예쁜 하늘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색감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구름 자체가 형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요. 색감 표현을 위해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색감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학부생 때부터 남은 캔버스 천조각을 잘라서 나만의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나만의 색 조합을 계산해서 만들며 대조해 봤어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 지금도 내가 보는 색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언제가 될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주의 하늘을 담고 싶어요. 여행 중에 좋은 일 외에도 많은 일이 있으니 그런 다양함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경력이 짧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작업과 전시를 충실이 해나갈 것 같아요. 하늘이라는 큰 주제는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구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전시를 할 때 전시장에 오셨던 분이 본인의 사진첩을 꺼내면서 여기서 본 하늘이라고 이야기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늘 있는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올려다 볼 용기가 생겨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또 오늘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그림을 보고 우시면서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내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다는게 너무 뿌듯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은 제가 좋아서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고 또 설명하지 않아도 온전히 와닿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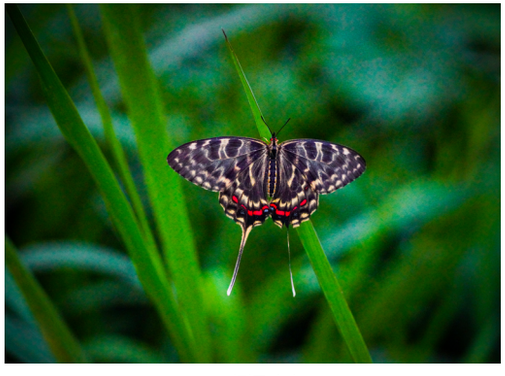
글 · 김유진

10

이호연
위하는 마음을 담아

#시각예술#사진 #전북#용진 #만경강사랑지킴이#만경강생태가이드북

고교 시절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며 사진을 처음 접했다. 성인이 되어 구이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영농 지도와 유통, 홍보에 관련한 사진들을 찍었다. 그러던 1995년 전국의 돌 형상 사진 기획 전시회에 출품한 사진들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되고, 1998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만경강 생태가이드북 발간(2019), 환경보전 생태 사진전(2022) 등 만경강 생태 사진 작가로 활약하며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꼬리명주나비

그 시절 귀했던 카메라

저는 완주군 용진읍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한국전쟁 이후 모두가 빈곤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 덕에 자유로운 학생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무렵에는 용진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는 열 명도 채 안됐어요. 그때 학교가 있는 전주까지 거리가 10km가 넘었는데 매일 걸어 다녔죠.

고등학교에서 사진 동아리를 들어가 처음으로 사진을 접하게 됐어요. 매주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활동 시간에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단 한 대의 카메라만 주어졌지만 그 카메라를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발견된 재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이 농협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서 사진의 맛을 처음 봤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진에 자연을 담는 일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영농 지도나 유통, 홍보 사진 등을 찍는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일 때문에 필수적으로 촬영 기술을 읽혀야 했고 자연물을 사진에 담는 게 익숙해 졌어요.

일하면서 참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마주했어요. 예를 들어 구이면의 경각산과 너른 들판, 여기서 농부가 암소와 밭을 가는 장면을 본다면 누구라도 사진으로 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본격적인 예술가의 길

당시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라북도 순창군 출신의 시인이자 사진작가인 권진희 은사님을 만나 십여년이 넘게 사진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어요.

1995년도에 동호회에서 전국 돌 형상 사진 기획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분야를 나눠 주셨고 저는 불교 색채가 나는 돌들을 찾아 찍었어요.

그 후 전시를 했는데 관람객이 정말 많이 오고 반응도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장의 사진이 이렇



아름다운 만경강
(전주박물관 아름다운만경강사진공모전 대상)



꿈



고산 세심정



수줍은 신부 느시



억새 길 _ 삼례

게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걸 체감하게 되었어요.
그 전시회를 기점으로 1998년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이 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25년의 세월 동안 다양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진은 바로 만경강 생태 사진이에요.



만경강 생태 지킴이

우연히 만경강 생태 아카데미 과정을 신청하면서 시작 되었어요. 그렇게 만경강 생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레 '만경강 사랑 지킴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만경강의 많은 자료를 수집해 사진으로 기록하며 만경강 도보 여행, 만경강 어린이 생태 체험 등 만경강 보전에 힘썼고, 2019년에는 만경강 생태 가이드북까지 출판했어요.

소중한 자연의 현실을 기록

느시라는 새는 50년 전에는 만경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 2021년도에 50년 만에 다시 만경강에 나타난 거에요. 하지만 한 달쯤 머물다 사라졌어요.
꼬리명주나비는 암컷은 색이 어둡고 수컷은 색이 하얗죠. 이 나비는 쥐방울 넝쿨이라는 식물에만 알을 낳아요. 애벌레는 오직 이 풀만 먹고 자라는데 만경강에서 쥐방울 넝쿨이 사라지면서 개체 수가 줄어 굉장히 희귀한 나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태 사진은 다른 예술 사진과 가치를 따지는 기준이 달라요. 다 정말 귀한 사진인 거죠. 생태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레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록물이 될 수 있어요.

눈높이 사진

언젠가 가족사진을 찍어주는데 누가 무릎까지 꿇고 사진을 찍냐 하더라구요. 나는 내가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는 줄도 몰랐어요.
그저 눈 높이를 맞춰야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대부분 표정이 굳어 있거든요? 그럼 "이쪽 보세요", "하나, 둘, 셋, 김치" 뭐 이런 것보다 한 5~10분 정도 이야기 하고 약간 장난도 치고 하면 환한 표정들이 나와요. 그렇게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사진을 찍어요.

아름다운 재능 기부

저는 마음을 담아 사람을 웃게 하고 행복을 기록해요. 3,500여 명의 장수 사진(영정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간 어떻게 사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어떤 사진을 보면 가족들의 마음이 편할 것 같은지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어요.
또 지적 장애인의 가족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사진을 받고 저를 찾아왔더라구요. 제가 자리에 없어서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은 건 처음이라며 정말 감사하다고, 저를 평생 못 잊을거라고 말해주더라구요.
그 얘기가 사진작가로서 활동하며 가장 가슴에 닿았던 말이에요.

기억되고 싶은 나의 모습

저는 매스컴을 타는 유명한 예술가로 기억되기보다 지역에서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함부로 셔터를 누르지 않겠다는 게 저의 예술관입니다.
글 · 최민주

11

하구은
될 때까지 해내고 마는 종합예술가

#시각예술#공연예술#회화#국악#양악 #전북 #풍물#피아노#예수재활원

문화예술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자발적인 시작이 아니었다는 하구은 씨. 하지만 풍물, 피아노에 그림까지 두드러지게 재능을 보였고 그녀 스스로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내고야 마는 노력파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상을 받고, 전시회를 하며 한 단계씩 성장하는 종합예술가로 불린다.





나고 자란 곳은?

옛날부터 예수재활원에서 자랐어요. 여기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지금은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다 특수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파견학급에서 공부를 했어요. 특수교사가 이곳으로 지원을 왔어요.

특수 학교만 다니다가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서 일반 학생들과 만나는게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친구와 같이 어울리게 되면서 재미있어졌어요.

풍물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예수재활원 교육프로그램으로 풍물을 가르쳤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었죠. 다른 친구들은 잘 안되면 싫어하기도 하는데 저는 싫어한 적이 거의 없어요. 휴강을 하더라도 다음에 그거 언제하냐고 묻는 등 언제나 적극적이었어요. 늘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소양초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할 때 같이 발표해 주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 긍정적인 효과를 봤어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문화예술의 길로 접어들게 된것도 자발적인 시작은 아니였지만 두드러지게 재능을 많이 보여서 칭찬도 많이 듣고 하니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풍물은 여럿이 하는데 피아노는 혼자 하는 거라 처음에 혼자 하면 사람들이 저만 볼 것 같아서 두려웠지만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손가락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형이다 보니 성과가 더 좋아졌어요.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자신감도 더 생기고 재미도 느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클래식을 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그걸 될 때까지 했어요. 손가락에서 안 되는 부분은 좌절하기도 하지만, 될 때까지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상도 받았어요.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도 하셨는데요

그림은 주로 풍경을 그려요.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전시도 했어요.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피아노를 그려서 전시를 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을 아크릴로 그리고, 테라코타로 피아노 치는 여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미술 작품을 했지만 스케치는 어려워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도와주고 물감을 혼합해서 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주로 했어요.



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저는 풍물, 피아노, 그림 다 재미 있어요. 뭘 하든 간에 하기 싫다고 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못 할 거예요. 욕심도 많아서 다 참여하고 싶고 그래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도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해나가면서 약간 침체기가 왔어요. 예술인으로 살아간다 해도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많아요.

지금 시점에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자립하는 것은 공통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비장애인 중에서도 커서 부모와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려서부터 독립해서 커가는 사람이 있듯이 여기 장애인들도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자립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져야 하는데,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어려움이 많죠.

장애 예술인의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장애 예술인을 향한 정당한 대우가 없으니 힘들죠. 반주를 통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고 풍물도 우리를 초청하면 공짜로 오라고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요. 장애 예술인들에게도 정당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글 · 김유진

(이 글은 하구은 님의 인터뷰와 더 설명해주신 도우미 선생님의 대답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12

전병한
자연과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화가

#시각예술#회화 #전북 #서양화#자연#고향#청운갤러리

어린시절부터 고향산천을 그리며 네 살부터 자연스레 화가라는 꿈을 키워온 전병한 화가. 기획 초대 및 개인전 16회, 단체전 360회 등 꾸준히 서양화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청운갤러리 관장으로서 대중에게 여러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살에 화가를 꿈꾸다



새 희망

전 어린시절부터 고향산천을 그리며 네 살부터 자연스레 화가라는 꿈을 키워왔어요. 왜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 물으면 '좋아하니까!' 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더 괜찮은 문구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제겐 그 말밖에 할 수 없네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힘들까봐 그만하고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냥 좋아서 행복해서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좋으면 힘든 게 생각이 안 나서 밤새고 그린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했지요.

본격적인 화가의 길

원광대학교 순수미술학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섰어요. 어린 시절 마을 뒷동산에 올라 고향의 산과 강을 그리던 아이가 서양화가가 되어 고향의 풍경을 100호, 500호 같은 커다란 화폭에 담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한권의 책을 쓰듯 고향을 화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죠. 아름답고 진한 추억이 있는 그곳을 한 컷 한 컷 영화처럼 넘기듯 차곡차곡 화폭에 그려 마음 기록장에 저장하는 중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하늘이에요. 서로의 다른 고향이지만 우리의 고향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요.

나의 영감

저는 제 고향인 전북 진안군 마령읍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난 건 축복이며 고향에서 언제나 깊은 영감을 얻고 있어요.
그렇게 고향에서 받은 걸 나누기 위해 20년 넘게 고향에서 어르신들과 실버 아트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미술은 커녕 한글도 잘 모르시는 고향 분들을 위해 글까지 가르쳐드리며 어르신들께 희노애락을 종이에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렇게 매년 전시를 준비하는데 세월이 흐를 수록 편찮으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때문에 마음 아픈 걸 빼면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흔이 넘은 어르신께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예쁘게 땋아주신 머리를 스케치북에 그리시고 발표할 때 어머니 생각에 우시는 걸 보고 저 또한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실버 아트 전시회는 제 사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이처럼 감사와 보람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기획

여러 장르를 그리며 대중과 소통하여 기획 초대전 및 개인전 16회, 단체전 360회 등을 통해 인물화, 추상화, 드로잉 등 다양한 그림들을 전시했어요.
그러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에게 예술을 선보일 방법을 생각했는데 '누구나 M.A.K.E.R-무엇이든



고향의 향수 1.



고향의 향수 2

할 수 있는 화이트 큐브 큐레이터 되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군과 작업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화이트 큐브 홀(미술관 홀)안에서 작가와 시민이 만나 함께 공간을 채워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시장에 걸려 있는 예술 작품이 화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친숙한 그림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참가자들 모두 일반인이다 보니 붓을 잡는 것도, 뭘 그려야 하는지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잭슨 폴록처럼 뿌리거나 던지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미술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갈 즈음에는 자신이 그린 작품이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물감으로 칠해진 우리 모습이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구요.

저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지지해주고 대중에게 예술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나가고 싶어요.

복합문화공간 청운 갤러리

예술가와 대중 사이를 잇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청운 갤러리를 세웠어요. 갤러리 공간이 크진 않지만 이 작은 홀이 여러 이야기를 공유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해요.

그림뿐 아니라 연주나 춤, 노래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을 연결하고 싶어요. 매년 '청운제'라는 이름으로 예술제를 열고 있는데요, 갤러리 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거리에서 난장 및 콩장 등 여러 지역과 거리예술제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친근한 예술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억되고 싶은 나의 모습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 행복한 화가, 전시를 통해 관객들을 위로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한 화가, 어르신들이나 장애단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그림으로 도울 수 있는 행복한 문화예술 기획자, 예술가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예술가와 관람객의 만남을 보며 행복한 갤러리 관장으로 남고 싶어요.

글 · 최민주

13

허은서

일러스트, 버츄얼 유튜버

#시각예술#기타 #전북 #버츄얼 유튜버

"원래는 고고학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얘기, 속에 있는 거를 표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그리고 싶은 잔상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그걸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예술의 길에 접어든 허은서 씨는 일러스트, 버츄얼 유튜브 작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나의 고향은 어디일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2살 때 튀니지로 갔다가 3살 때 사우디로 가서 2~3년 살다가 7살 때 쯤 한국에 들어왔어요.

10살 때 다시 브라질로 갔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일로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고향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제 고향은 어디예요."라고 말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자라는 곳의 기준이 몇 년 이상 산 곳인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년에도 엄청 바뀌잖아요?

한국을 떠날 때는 이런 동네였는데, 다녀오면 이전과는 다른데 '여기를 자란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같은 생각을 해요.

한국에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한국에서 자랐다고 하기엔 문화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근간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적인 특징이 없어서 작업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에 집중해서 파고든다면 저는 잡식성처럼 다양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탐구하게 되요.

이색적인 학교생활

브라질에서의 생활이 기억에 남아요. 브라질 학교에서는 페라디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영국식 학교여서 기숙사도 있고, 하우스별로 대결하거나 primary부터 secondary까지 전체 학생이 수학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통째로 공간을 빌려서 체육 대전표를 짜서 대결하고, 텐트 쳐서 동굴 탐험하고, 배낭 메고 오지 탐험하듯이 밧줄 메고 강물에 쓸려가지 않게 하려고 밧줄 잡고 이런 것들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브라질이니까 경험할 수 있던 야생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자주 타러 나갔구요.

나의 적응기

브라질에 있을 때는 얌전한 성격이고 조용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나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도 한국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친구들도 저한테 적응하지 못했구요. 의사소통도 어려웠는데, 영어에서 농담 따먹기가 있는데, 한국엔 그런게 없으니까 소통되지 않아서 서로 오해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당시 저에 관한 근거 없는 헛소문이 돌아서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저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니또라는 게임을 했는데 저를 뽑은 친구가 선물을 하나도 안 주다가 마지막에 100원짜리 작은 캔디를 천원어치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친구를 마니또로 뽑았고 '마니또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줄 마음으로 매일 아침 쪽지 써서 선물 공세하고, 먹고 싶은 거 사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저에 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른 애들한테도 제 오해를 풀어줬어요.
사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후유증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스스로 부끄러움 한 점 없이 고개 벗벗하게 들고 살려고 노력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 시절의 패기로 가능했었지, 다시 하라면 지금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외국에서는 'why'라는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답도 잘 해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가 어디 있냐며, '그렇다면 그런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 가족들과 갈등이 되게 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이해를 했음에도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림은 언제부터?

학창 시절에 의상 디자인 같은거나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주변에 웨딩 디자인 하는 지인분이 계셔서 남는 천을 받아서 옷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얀 종이에 선을 그었을 때 입체적으로 변하는 소묘 과정이 재미있기도 했고, 외국에는 쪽 만화책이 없어서 직접 만들기도 했었어요.
소설도 많이 쓰고, 그렇게 다양한 창작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어떻고 그림은 어떻고, 이것저것 보고싶고 뭔가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메모한 노트나 스케치도 많아요.

예술의 길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뭐든 일단 해보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머니는 힘든 길 말고 공부해서 쉬운 길로 가라며 예체능을 반대하셨어요.
저는 원래 고고학을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그리고 싶은 잔상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 내 속에 있는 것을 표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적인 예술활동

다양한 예술활동을 했는데 이건 캐릭터를 그린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말고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디자인을 했어요.
'지나'라는 캐릭터는 서구적인 아가씨 느낌이지만 한국 아가씨 같은 고등학생이고 '무녀일홍'은 무당에 대한 무서움, 거리감을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려고 했어요. 한국에 원래 있던 무속신앙, 무형문화재인데 일제시대에 좀 사장된 문화가 있고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생겼으니까요.
또 3D 작업도 했는데 이걸로 짧은 영상을 뽑은 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원하는 스토리나 배경을 작업했어요.
그 중 하나가 서양의 SF소설을 한국에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를 주제로



무녀 일홍



지나



한 영상인데, 판소리 하듯 대사도 넣고, 또 동자처럼 생긴 친구 둘이서 모험을 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루프가 되는 식의 이야기로 풀어서 세상의 진리를 알려면 무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식의 이야기로 풀었어요.
어떤 작업을 하든 기반은 한국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 것 같아요.
맛집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석한 일러스트 작업도 했어요. 그리고 미래의 유산으로 남을 만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오래 되었고,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은 과거의 흑백 사진과 매치해서 복구 아닌 복구를 하게 되었죠.
항상 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을 섞어서 작업하다가 온전히 실재해 있는 것을 저의 느낌으로 재해석 하려니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존재하는 유산을 작업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기도 했구요.



버츄얼 유튜브?

전공이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다 보니 사용자의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가 이루어지는 인터렉션이라고 쌍방에 관심이 많아요.
시청자의 행동의 결과가 스트리머한테 전해지고, 그 반대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2~3개의 통로를 뚫어보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예술 세계

제가 철학을 해서 그런지, 최초의 과학자는 미술, 의사는 다 철학자였기 때문에 예술은 철학에서 시작되고, 철학의 목적은 인간의 본질 탐구와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이란 결국 내 세계를 알리고 다른 세계를 접하고 공유하는 거니까 한 사람 인생의 한 부분을 엿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한 부분도 조심스럽게 꺼내 보는 거기도 하구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상 '뭘 해야지!.' 하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작업이 안 되더라구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느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내가 정의를 내기를 것도 웃기다 생각하거든요. 접하는 사람도 다양한 생각의 여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요.

향후 계획

정의가 없으니 한계가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생각해요. 저는 특히 디지털 쪽으로 코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버추얼에 관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AI 프로그램 중 얼굴 근육을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이 표정을 지으면 저절로 내가 정해둔 표정이 애니메이팅 연결되도록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표정을 인식해서 저절로 애니메이팅 되게 하는 것과 도구없이 자연스러운 트래킹이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에요.

어떤 예술인이고 싶나요?

다른 사람들에겐 사실 별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흩어져서 사라지고, 잔상처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도로의 인상을 남기고 싶고 제 스스로는 더 행복해 지고 싶어요. 제 가장 큰 장점은 도임을 가지고 어리게 산다는 것에 있거든요.
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시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 시선을 이해하고 유지하며 사람들이 잊어버린 가슴 속 동심을 건드리고 싶어요.
글 · 김유진

14

최무용

움직이는 조형물로 관계성을 말하다

#시각예술#기타 #전북#삼례 # 키네틱 아트#조소#노마드#제로컬렉션

동료 예술가들과 삼례의 공동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최무용 키네틱 아티스트. 그는 시각예술단체 노마드와 새활용브랜드 제로컬렉션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2020년부터 문화예술 교육과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진심이다. 새로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를 주위에서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남다른 예술고집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지우개를 깎으며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조소를 공부하기 위해 예고 입시를 준비하며 작가의 길을 꿈꾸고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거세게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시 준비를 해서 전주예고에 들어갔어요.

예고를 다니는 와중에도 아버지께선 자퇴를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만두겠단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키네틱 아트에 빠지다

대학교 2학년때 '키네틱 아트'라는 조소의 한 장르에 푹 빠져들게 됐어요. 키네틱 아트는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것이에요. 널리 알려져 있는 키네틱 아트의 대표 작품으로는 '칼더의 모빌'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에게 생소한 예술 장르인 것이 사실이죠.

키네틱 아트에 대한 수업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우연히 한 수업의 발표를 위해 공부하고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들어 보면서 빠져들었어요.

움직이는 걸 한번 만들고 나니까 안 움직이는 작품들은 정적이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구요.

주변에서 키네틱 아트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염려도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충분한 이유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즐겨요. 끊임없이 작업 방식이나 재료 등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작업을 해왔어요.

대체로 모터보다는 자연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걸 선호해요. 기계라는 예측 가능한 동력을 사용하기 보다 바람, 중력, 사람 등 환경에 따라 그때 그때 변하는 작품을 만드는 걸 즐기는 편이에요.

그런 이유로 작품의 운동성과 예측 불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키네틱 아트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장르예요.

표현하는 작품 세계

'인간의 관계'에 통찰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기계적 인간관계' 시리즈나 '조립식 관계' 시리즈 등 인간 관계의 위태로움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요. 제 작품들은 작가인 저와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며 '전시'라는 필요성에 의해 조립되고 생성되요.

지나간 작업물들은 필요에 의해 빠르게 해체되어 다른 작품들의 부속들과 연결, 조립되고, 새로운 작품으로 변해 관객들과 만나게 되지요.

관객은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작품의 많은 면을 감상할 수 있고, 각자 다양한 생각을 품은 채 전시장을 떠나게 되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을 만드는 사람

저는 주위에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들 해요. 뭐든 새로 도전하길 좋아하는 성격에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노마드'라는 청년시각예술단체 대표로 문화예술교육과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뜻맞는 예술인들끼리 즐겁고 재밌는 일들을 벌여보자고 시작했는데 어쩌다 대표직까지 맡에 되었어요.

또 함께 활동하는 예술인들 중 환경에 관심이 많은 예술인들을 모아 '제로디렉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기후 변화 등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환경을 위해 예술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하다 업사이클링 가구나 폐건전지 등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한 소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해서 팔찌, 키링, 반려견 장난감 등 버려지는 것들에 새로운 쓸모와 미적 아름다움을 더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영화관 폐스크린을 재료로 한 상품을 구상중이에요.

나의 쓸모

예전에 타지역에서 '임시 가구 수리소'를 연 적이 있어요. 못 쓰게 된 가구를 가져오시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는 활동이었는데 마을 주민분들께서 고맙다며 라면 한 박스와 과자 등 이것저것 잔뜩 가져다 주시더라구요. 그때 '내 능력이 뭔가 쓸모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보람찼던 기억이 나요. 또 노마드와 제로디렉션 대표로 활동할 때 받은 감사, 전시회에서 관객이 보내준 찬사, 최선을 다한 작품이 팔렸을 때 느낀 성취감 등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요.

어떤 예술가이고 싶은가요?

전시가 시작되면 작품과 저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해요. 관람객들도 저와 작품들을 연결짓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한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주위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정도로 남고 싶어요. 하지만 제 작품들은 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예술품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글 · 최민주

완주예술인 발굴·기록화

2024

2024년에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과 협력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12명의 예술인을 기록했다. 완성된 이야기는 매거진 〈완두콩〉과 재단모바일소식지 〈e문화밥상〉에 매월 연재해 지역과 만나는 접점을 넓혔다.

01

정상현

해와 달, 별,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사랑하다

#시각예술#회화 #전북 #수채화

"그림 좋은데? 미술부 안 해볼래?" 이리동중 1학년 미술 시간. 감나무 스케치가 마음에 들었는지 선생님은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교실에 건 뒤 모나미 물감, 수채화 이젤, 켄트지를 주면서 미술부 활동을 권했다. 정상현 작가의 수채화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고등학교 때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리고 1학년 미술 시간에 정물화를 그렸는데 당시 미술선생님도 그림이 좋다며 액자에 넣어 교실에 걸어 놓으셨다. 그는 졸업하며 돌려받은 이 그림을 평생 간직해 오고 있다.

정상현 작가는 전북 익산에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지금처럼 화가라 불릴 줄은 몰랐다. 학창시절 스승의 칭찬과 응원이 소년의 재능을 깨웠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붓을 들게 한다.

"마음의 여백을 채우듯 사라져가는 아쉬운 장면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덧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자연에 순응하고 주위의 아름다움을 표현함으로써 힐링이 되고 수양도 되는 그림 그리기를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정상현 작가는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전북사생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전미회 이사, 완주문화재단 이사, 바이올렛아티스트갤러리 관장, 인권교육 강사 등으로 왕성한 예술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종종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도 돕고 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동시에 고려하되,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 잘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후 좋아하는 일과 병행하는 게 전문화 시대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걸어온 삶이다.

왜 수채화였나요?

처음에 접한 게 수채화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물감과 물만 있으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재료 구하기도 수월하고. 유화는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제가 유독 유화물감의 냄새에 민감한 것 같아요. 수채화도 투명, 불투명, 번짐 등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림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많이 보고 꾸준히 그리고 있어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동료작가를 찾기도 합니다. 일요화가회라고 있었는데 일요일마다 만나 야외에 나가 같이 그림을 그리는 모임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하반영 선생께서 당시 지도교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즉 작품활동과 교류활동 속에서 자연스레 습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게 고행 같은 거지만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직업이 예술적 성취를 방해하진 않았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는 생





위부터 고1 때 그린 정물화, 행복한 미소(2012),

각도 들어요. 예술가는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풍경을 많이 그리시는데요

자연을 좋아해요. 가만히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나와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립니다. 내 그림을 통해 산야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상상하며 확장해 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애착 가는 작품이 있나요?

'행복한 미소'라는 작품입니다. 2012년에 완성한 작품인데 2016년 개인전 도록에 실려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그 의미 때문인지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누가 팔라고 하는데도 안 팔고 화실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들자면'숲속의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벌레 먹은 나뭇잎이 모티브인데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둘 다 2018년에 완성했는데 그 시기에 사랑의 의미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연의 신비로움을 그리다 보면 마음에 사랑이 머무르게 되고 귀중한 생명 같은 작품이 탄생하는데 이 두 작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시련이 있었다면?

그림이 잘 그려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시련이라고 할 만한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50대 전에는 그림이 안 될 때마다 나 자신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더 깊게 배워야 하나 하는 조바심도 났어요. 그런데 전공자나 전업작가들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남들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음이 단단해진 느낌이랄까.

예술가로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술가는 어떤 사물, 어떤 풍경이 됐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2016년 개인전 때 도록에 '그림 이야기'라는 시를 써 봤어요. 이게 제가 예술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이야기

고운 구름을 달래 하늘을 열고
열린 하늘을 배경삼아 산과 바다를 화폭에 담는다.
캔버스에는 아름다움이 한아름 배어오고
마음속에는 그림에 대한 사랑이 머무른다.
그리움과 사랑은 별도 되고 달도 되고
꿈과 희망은 코스모스 가득한 꽃길을 달린다.
열정과 세월이 모아져 귀중한 생명이 탄생된다.
그림에 대한 향그럼 들이 마신다.

개인전 '해와 달 그리고 별과 그림, 행복한 미소' 도록 中 에서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궁금합니다

요새 어린 친구들을 만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그림을 통한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의 사례가 그 친구들의 진로선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계속 그려야죠. 그룹전이나 개인전 같은 전시회도 열고요.

02

김맹호

유화에서 출발해 도자의 세계로 나아가다

#시각예술#회화#공예 #전국 # 수채화#도자기

서양화를 전공하고 37년간 중등 미술교사로 재직한 김맹호 화가. 2023년 2월 명예퇴직한 후에는 도자기를 직접 빚어 야생초들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리며 작가로서의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다. 직접 빚어 구운 도자기라는 이 새로운 캔버스에 그동안 추구해온 예술세계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그의 현재 숙제다.





법학 전공자로서 논리가 강하고 권위적 성향을 지녔던 아버지는 일찌감치 셋째 아들인 저를 육사에 진학시키고 싶어하셨기에 '맹호부대'를 본 따 아들의 이름을 '맹호'라 지으셨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감히 카리스마 강한 부친의 뜻과 다른 진로를 꿈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언제 그림으로 길을 정했나요?

고교 입학 당시까지는 언제나 육사에 진학하라는 아버지의 희망을 의식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아버지 뜻을 따라 육사에 진학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화실에 합류하게 되면서 화가로서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고2 때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감행했지요. 제가 고교 졸업할 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에 미술교육과가 처음 생겼어요. 이렇게 교사와 화가를 꿈꾸며 전북사대 미술교육과 1회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데요

대학시절, 그리고 사명감과 열정 넘치는 첫 교직 생활로 이어지는 80년대는 민주화를 향한 사회적 열망이 분출하고 미술계에서는 민중미술이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민중미술을 접하면서 그동안 추구했던 미술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는 내적 자각이 일어났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나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구나, 내면의 본질적 아름다움이 아닌 피상적인 아름다움만을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민중의 아픔이나 시대성을 결여한 채, 대상의

겉모습이나 색상만 아름답게 묘사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러한 자각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북지역 현실참여 미술동인'들, 바람, 사람들'에 참여했고, 꼬박 3년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교 현장으로 복직한 후에는 전북민족미술인협회(전북민미협) 창립 멤버로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끊임없이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면서 역사관, 세계관 및 예술관이 꾸준히 확장 심화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화 전공자로서 유화로 출발했고, 지금은 도자예술에 닿아 있습니다.

화가로서 어떻게 살아왔나요?

어릴 때부터 그리는 게 좋았어요. 교사와 화가의 길을 걷고자 미술교육과에 진학했죠. 86년 대학졸업 후 민중미술을 접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고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고 당시 전북지역 현실참여 미술동인 '들, 바람, 사람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사장교로 군 복무 후 전북민족미술인협회(전북민미협) 창립에 참여하고 작품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관심 가졌던 주제는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실패했지만 우리 역사상 가장 자주적인 민중운동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제였죠. 동학의 시대정신과 민중의 역동성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나무나 산, 강처럼 영속적인 느낌을 주는 소재를 즐겨 그렸는데 아마도 그 속에서 민중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2012년에 만경강을 주제로 첫 번째 개인전 '만경에 물들다'를 열었습니다. 출퇴근 길에 마주하는 만경강에 사로잡혔지요. 강은 서정적인 풍경으로 다가오지만 사실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 즉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한동안 만경강을 주제로 그려 나갔습니다.

유화에서 도자기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2001년 장수에 있던 도예가에게 물레를 처음 배웠습니다. 2002년 소양에 작업실을 겸한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는데, 시골에 터를 잡으니 자연스레 정원과 텃밭을 가꾸고 일구며 흙을 만지고 땀 흘리는 노동에 익숙해지면서 도예의 세계에 마음이 가더군요. 틈틈이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서양화 전공자로서 유화물감을 쓸 때마다 물감 성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유화물감 냄새가 좋았는데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흙냄새에 익숙해져선지 어느 순간부터 유화물감을 다룰 때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2014년 중국여행을 계기로 도자기에 그려진 섬세한 표현들에 매료된 후, 작업의 방향이 직접 성형한 도자기 위에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2017년 도자기 작품들로는 첫 개인전 '백자 야생초 그림전'을 열었습니다. 시골에서 항상 흙, 벌레와 곤충, 풀과 꽃, 나무를 다루며 사는 제 입장에서는, 생태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소망을 표현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예술 방식 중 하나가 도자예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지요.
도자기 빚는 작업을 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내 모습을 보며 저와 잘 어울리는 매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자기의 하나로 칭송되는 달항아리의 제작을 집중 공부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이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혼자 주변 도예가,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아 독학하는 힘든 과정이 이어졌지요.
최근에는 달항아리 기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빚은 후 청화, 철화, 그리고 고화도 채색 안료 등으로 풀과 벌레 등이 어우러지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자연과 생명의 순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감과 소통을 이야기하고 싶지요. 저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들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넘게 시골 생활을 하며 그동안 제가 관찰한 땅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바로 해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려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씨를 맺고 떨어져 다시 살아나 주변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내는 잡초들, 즉 야생초들의 모습이지요. 저는 이 모습들을,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연대하고 다독이는 보통사람들과 연결하여 직접 빚은 도자기에 표현합니다.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 생명의 순환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요. 젊은 시절에는 동학이나 민중처럼 거대한 담론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골살이를 하고 흙과 풀을 접하면서는 생태 순환적이고 미시적인 세계에 빠져들었죠. 근본적인 마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전에 소나무나 강에서 민중을 보았다면 지금은 질경이나 엉겅퀴, 나비같이 주변의 일상적인 존재에서 역동성과 주체성을 지닌 보통사람들을 떠올리니까요.



작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 문명은 근대 이후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문명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1980~1990년대의 민중미술이 독재나 인간을 억압하는 시대에 저항하는 미술이었다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 또는 문제의식인 '인간과 자연의 상생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작품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다양한 도자 작품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제 작품이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작가로서의 고민이 있다면?

작가로서 작품판매에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습니다. 도자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실용적이고 장식적 기능을 두루 가진 예술입니다. 생활자기를 함께 제작하면 작품제작 비용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작품세계가 확실히 정립되기까지는 생활자기 제작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기존의 도자작품과 차별되는 저만의 고유성이 있어야 미술계에서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방식을 연마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소화해야 인간과 자연의 상생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험하려고 합니다. 도자기 작품 하나하나에 사라져가는 생명체를 그려놓고 이를 입체적으로 자연에 설치하는 작업도 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작품은?

오래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던 '봉기'라는 작품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폭정에 견디다 못한 민중들이 보리밭을 가로질러 조병갑을 잡으려고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을 도자 작품의 주제로 표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적 성취를 높이기 위한 작가만의 방법은?

직접 일구는 밭이나 들에서 노동하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성찰과 묵상을 합니다. 저는 저만의 독창적 세계관, 기법, 삶과 예술의 일치를 중시합니다. 도자 제작의 숙련된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도자와 장자, 양자역학 등도 관심을 가지고 지구 위기에 대한 대안철학에 대해서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도자기에 회화성을 보다 완숙한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설치 작업도 작품 제작에 응용해보고 싶어요.

예술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80년대와 90년대의 민중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미술사조라는 것과 불의의 시대에 저항하는 강렬한 예술가 정신 때문입니다. 21세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시대정신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상생입니다. 이를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가가 제 작품의 핵심 주제입니다. 고온의 불 속에서 살아남는 도자의 제작방법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직장인, 그리고 가장의 역할들과 병행하느라 시간에 쫓기면서 했던 작품들은 볼 때마다 어딘가 부족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무르익어 가려면 작품에 매진하는 것과 작가로서의 프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열심히 작품에 매진해 보려고 합니다.

03

이창훈

돌 틈에서 결핍과 희망을 보다

#시각예술#조소 #전국 #돌#틈#새로고침 : 여생

대학과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 돌을 주재료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창훈 작가. 2018년에는 전라북도 미술대전 조소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개인전 5회와 60여 회의 기획단체전을 열었다. 현재는 작품활동 외에 문화기획자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된 작업재료는 돌

조소는 깎는 조각과 붙이는 소조를 포괄하는 미술 장르다. 이창훈 씨는 조소 작가다. 그의 작업 재료는 돌이다.

"대학교 2학년 테라코타 수업시간에 흙 판을 만들어서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형태의 작업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수업 주제가 시를 표현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 대신 김윤아의 노래 '야상곡'을 선택했는데 그 가사를 스케치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말라서 갈라진 바닥에 꽃이 있는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때 갈라지는 흙 모양에서 선과 면을 보았고 그 정적인 느낌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4학년이 된 이창훈 작가는 졸업 작품을 고민하다 2학년 때의 경험을 떠올렸고 당시 작업을 재해석해보기로 하는데 돌이 깨질 때의 형태가 흙이 갈라지는 모양과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때부터 돌과 그의 인연이 시작된다.

그가 처음 갈라진 돌에서 본 건 '고정관념'이었다. 지금은 '결핍과 고난'을 보고 있다. 때때로 예술가로서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잘 견뎌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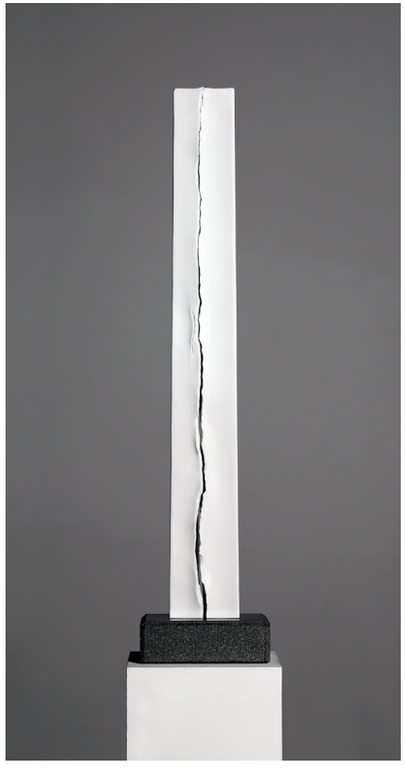
그는 2016년 첫 개인전 '틈'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전북대학교 미술대학 조소전공 동문 3명과 함께 완주에서 공방'날맹이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날맹이는 전라도 방언으로 산봉우리다.

어떻게 전업작가가 되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선생님이 그걸 알고 일반 미술학원이 아닌 조소 학원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때 조소를 알게 되었죠. 대학전공도 조소를 택했는데 당시만 해도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택했고 먹고 사는 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치면서 이 작업활동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오는 보람이나 성취감이 대단했죠. 그래서 전업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고정관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갈라진 땅의 모습과 차가운 철 틀이 마치 우리의 현실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에서 생겨난 관념과 관습이 고정관념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그걸 깨뜨리기 위한 노력을 갈라진 돌에 빗대 작품화했죠. 근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뭄이 왔을 때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가뭄과 메마름의 이야기로 메시지를 다시 구성해보자고 생각했죠. 지금은 갈라짐이라는 형태 안에서 빈곤, 결핍,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한기_비(碑) | 대리석, 오석 | 200 60 810mm | 2022



인류한기_유(類) | 대리석 | 260 180mm | 2022

고정관념이라는 주제는 사라진 건가요?

흙이 갈라지거나 돌이 깨져 있는 형상을 처음에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껍질을 벗어버리는 개념으로 바라봤던 걸 지금은 메마름, 결핍, 고난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또한 깨뜨려야 할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처음 고민했던 주제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관객들은 제 작품에서 고정관념을 볼 수도, 빈곤과 결핍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무엇을 보든 관객의 몫이니까요.

작업에는 주로 어떤 돌을 씁니까?

첫 개인전 때는 화강암의 일종인 마천석을 썼어요. 오석이라는 까만 돌이 있는데 입자가 곱고 때리면 유리처럼 맑고 얇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좀 비싸요. 마천석은 그 대체품이었던 거죠. 건물 외장재로 많이 쓰이는데 오석만큼이나 까맣고 입자가 고급스러운 돌입니다. 지금은 대리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은 조금 더 비싸지만 경도가 화강암에 비해 낮아서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돌을 가공하면서 몸이 받는 충격도 덜하고요.

가공하다 돌이 제멋대로 깨진다면?

저는 재료 고유의 성질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스케치 없이 돌을 깨서 작업하곤 합니다. 그래서 돌을 깼는데 스케치한 것과 다른 금이나 형태로 나왔을 때, 그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접착제로 다시 붙여 활용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연성을 가미한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금속 조각이나 흙 작업, 목 조각 등 분야마다 그 과정이 세밀하게는 다르지만 대부분 에스키스라는 스케치를 먼저 해요. 이후 실험적인 작품이나 처음 하는 작업일 때는 기법에 대한 실험을 좀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왔던 작업은 실험까지는 안 하고 그냥 에스키스 스케치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죠. 작업 전 실험은 재료의 물성을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본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에스키스라고 하면 보통 스케치를 이야기하는 데 조소는 소품을 만드는 과정도 에스키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평면적인 에스키스, 재료 물성 실험, 입체 에스키스, 본 작업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마음 가는 작품이라면?

최근에 했던 작업이 마음에 들어요. 4회 개인전 '인류한기'를 교동미술관에서 열었는데 공연 예술인들이 그 작품을 창작극으로 재해석했어요. 저는 그 공연 영상이랑 이야기를 다시 전시장으로 끌어와 '새로고침: 여생'이라는 5회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작업이 전체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색다른 시도가 좋았고 그만큼 성취감과 보람도 컸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도 있으셨나요?

4회 개인전 전에 회의감이 강하게 왔어요.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제가 생계를 위해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는데 기획자가 되고 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예술인가'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게 과연 남들에게 예술로 불릴만한 활동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 거죠. 취미생인지, 예술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4회 전시를 하고 그걸 다른 예술가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저는 또 그걸 받아서 5회 전시로 잇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 작품을 예술로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성취감이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아요.

어떨 때 자신이 예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작품 하나 끝났을 때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멋진 걸 만들어 낼 때, 그리고 그게 전시가 될 때 그 순간순간 예술인으로의 자각과 성취감을 느껴요. 무엇보다 내 작품을 찾아주는 기획자가 있을 때, 즉 전시에 초대받을 때 확실히 내가 예술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끝으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은?

미술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업하는 예술인이 있고, 작품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이 계시잖아요. 저도 좋은 작품, 좋은 전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돈 걱정 덜하며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문화기획자로서 저의 목표입니다. 예술가로, 또 기획자로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4

윤수연

긍정을 전하는 세계 최초 피겨플루티스트

#공연예술#양악 #전국 #피겨플루티스트#백당아트갤러리#학부모교육 긍정특강

세계 최초의 피겨플루티스트이면서 완주군 홍보대사인 여니 윤수연 씨. 상관면에 연 백당아트갤러리를 운영하며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긍정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요즘은 자기계발서 '기회도 내가 만든다(가제)'를 집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2020년, 한일전 국제하키대회에서 애국가와 축하공연을 하며 피겨플루티스트로 정식 데뷔한 여니 윤수연 씨. 세계 최초이자 지금까지는 세계 유일한 아티스트로 피겨스케이팅을 하며 플루트를 연주한다.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굴곡진 삶을 살았다. 가난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노력해 음대에 진학했지만 믿었던 이로 인한 배신감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어렵게 다시 일어나려 할 때는 큰 화재를 만났다. 삶의 중요 고비마다 그녀에게 역경이 있었다.
이런저런 굴곡의 삶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완주를 알리는 홍보대사, 아티스트, 긍정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니(Yeoney)라는 영문명으로 세계 최초 피겨플루티스트로서의 해외 활동을 준비 중이고, 요즘은 '기회도 내가 만든다'라는 자기계발서를 만들기 위해 글쓰기에도 한창이다.
여니 윤수연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긍정의 힘으로 기적을 이뤄냈고, 또 그 긍정을 전하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플루트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중3 겨울이 되는 날, 플루트를 처음 봤어요. 저건 뭐지? 반짝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저에겐 먼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계속 그 악기가 생각이 났고, 전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아버지는 한국화가신데 대금 연주와 판소리가 취미셨어요. 얼마 후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플루트 하나를 사 오셨고 선생님에게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때 아버지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그때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아야지' 하고 결심했어요.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그렇게 플루트를 만났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연습해 음대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는 갚으셨나요?

우여곡절 끝에 2023년 상관면 내아마을에 재건축한 백당아트갤러리가 그것입니다. 2016년에 아버지 화실 겸 갤러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공수래공수거'를 외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KBS1 인간극장 '윤 화백이 웃던 날' 5부작으로 방영되기도 했죠. 하지만 화재보험도 들지 않아 현실은 참담했어요. 그 시간을 겪어보니 지금껏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당아트갤러리는 작년에 완공했는데 아버지께 보



답하는 마음으로 지어드렸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건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빚을 내어 건축했어요. 집에선 빚까지 내 짓냐고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밀어붙였죠. 대출금이야 갚으면 되지만 아버지는 계속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삶이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련이라고 느꼈던 많은 사건이 깨닫기 위한 과정의 해프닝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별거, 왕따, 폭식증에서 다이어트 성공, 다양한 아르바이트, 믿었던 이의 시기와 질투, 이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제 인생 가장 힘든 시기는 우울증의 늪에 있을 때였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상태였을 때 놀라운 꿈 3개를 꿨어요. 하나는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잔인한 꿈, 두 번째는 백지 같은 꿈, 세 번째는 한 줄기 빛과 함께 음악이 들리고 방긋 웃는 아기의 모습이었죠.
꿈에서 깬 그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오랜만에 플루트가 보이고, 아버지 화실창고 안에서 미친 듯이 연주를 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 비우고 다시 시작하자.' 원래 제 이름은 윤현숙인데요. 이름을 뒤집어 받침을 떼고 윤수연으로 제2의 시작을 하게 되었죠.

피겨플루티스트는 어떻게 되셨어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보고 '피겨스케이팅하면서 플루트를 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겨스케이트화를 처음 신어봤을 당시 마흔 살이었는데, 뭐든 시작하기 딱 좋을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얼음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두려움과 처절히 싸워 이긴 기분까지 들면서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스스로 제 안에 답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닌 자신을 믿고 성실하게 꿈을 향해 노력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알리고 싶어 오늘도 도전 중입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최초는 낯설고 익숙지 않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 비판과 저지가 많지만 묵묵히 소신 있게 꾸준히 노력하니 어느 순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음악도 정답이 없어요. 음악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퍼포먼스까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건 음악을 매개로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이죠.

플루트라는 악기의 매력은?

다양한 장르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좋고, 다른 악기와 잘 어울리고 어디든지 휴대하기 좋죠. 저는 플루트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기에 더 애정이 있는데요. 플루트는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리로 원리만 알면 남녀노소 누구나 연주 가능한 매력적인 악기랍니다. 저만의 긍정플루트 3분 레슨을 들으시면 바로 연주가 가능하죠. 3분 만에 기적 같은 연주를 하고 난 후 '아~ 나도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긴답니다. 그 음악을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연주한다면 행복을 선물해주는 정말 멋진 악기랍니다.

자신의 플루트 음악을 스스로 규정한다면?

흔히 사람들의 선입견은 플루트 정도 하면 별 고생 없이 곱게 자라 이쁘게 연주하겠지 생각합니다. 아버지조차 내 딸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만 태어났어도 더 잘 됐을 텐데 뒷받침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일을 생각해보면 음악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라고 저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듯합니다. 테크닉만이 아닌 진짜 마음이 담긴 연주로 저 자신조차 감동하고, 또 청중도 위로와 기쁨을 받기 바랄 뿐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불평 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을 즐기는 긍정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두 딸 수인이와 미소가 있는 데요, 꿈이 있는 엄마,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는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05

홍성미

느리지만 깊고 고요하게, 오래도록 관계하기

#시각예술#회화#설치 #전국#소양 #소소한 생각#문화예술교육

나무판, 마스크, 후라이팬 등 더 이상 쓰지 않는, 버려지는 것들에 그리고 설치하며 자신과 관계 맺었던 사람, 물건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홍성미 작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 전공) 졸업 후 1996년 무렵, 경남 진주로 이주 후 20년을 살았다. 엄마로 사는 동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버려지는 물질들에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진주와 군산을 오가며 발달장애인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했고 2010년 단체전 현재_지속과 확산 이후 10번의 단체전을 치뤘다. 2017년 완주 소양면으로 이주해 생애 첫 작업실을 가지면서 2022년 개인전 '소소한 생각'을 시작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느리다고 서투른 건 아니다



느린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남들이 보지 않은 빛나는 순간들을 축적해 놓을 수 있다. 차곡차곡 쌓인 느림의 결과물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모아온 조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홍성미 작가는 생활과 작업을 분리시켜 놓고 그리는 것에만 몰두한 작가는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해 삼남매를 낳고 키우며 아이돌봄, 가족돌봄의 세월을 보냈다. 누군가를 돌보는 동안 그림 작업에 대한 갈증이 깊어진 만큼 천천히 땋아 나간 촘촘한 그물망같은 관계들도 깊어졌다.

> 나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린다. 인간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등 끊어져선 안 되는 연결고리이기에 모두 소중하다. - 홍성미 작가의 글 중에서

버려지는 것들과 관계맺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직장이 있는 경남 사천과 진주에서 20년 넘게 세월을 보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죠. 아이 셋 키우는 동안 아이들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자신의 그림작업을 위한 공간은 없었어요. 종이 한 장 펼칠 공간이나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버려지는 재료들을 탐구하게 되었고, 그림작업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에는 화가들이 캠버스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료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지, 재료 선정도 중요하다가 생각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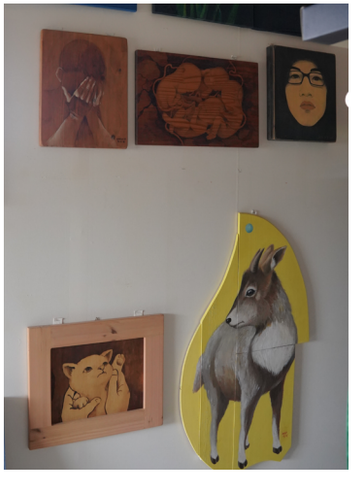
주변을 돌아보면 버려지는 좋은 재료가 너무 많아요. 인테리어하고 남은 폐자재들을 구해서 거기다 그림 그리고, 버려지는 옷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콩 삶은 물이나 커피로 그림을 그렸죠. 큰 애를 임신했을 때인데 싱크대 정리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인스턴트커피가 있더라고요. 땡땡하게 굳은 것을 어떻게 살릴까하다가 이걸로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한 거죠. 명반하고 소금 넣고 끓이고 졸여서 물감처럼 고체형태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좋은 재료예요. 아이 셋 키우다 보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내 아이가 살아갈 환경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리는 거를 최소화하고 버리지 않게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상황에 맞게 버려지는 재료들을 찾았던 거 같아요.

저마다의 시간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재료로 작품은 만드시는데요

아이 셋 키우다 보니 무엇이든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 재봉틀로 온갖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던 재봉틀을 지금껏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작은 옷들은 차마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옷들이 간직한 추억들이 떠올라 옷을 잘라 밧줄처럼 엮어 작품으로 만들어 작업실 벽면에 걸어 둡니다. 죽어있는 재료가 아니라 저마다의 시간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재료로 만든 작품들이죠.

나무판, 옷가지, 종이조각 등에 아크릴 물감과 유통기한이 지난 인스턴트커피나 콩 삶은 물로 그림을 그리고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지구의 환경,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그려냅니다.

마스크도 그림의 재료로 쓰셔서 놀라웠습니다



2020년 가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어머니의 입원생활을 함께하며 펜데믹 기간 동안 수없이 제작되고 버려지는 '마스크'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어요. 병원이라는 긴박한 곳에서 마스크 안에 숨겨진 불안, 그리움, 슬픔들을 관찰했고 그 벽을 넘어 서로 껴안거나 만질 수도 없는 안타까움, 애틋함을 느꼈어요.

버려지는 마스크를 어렵게 모아 살균세척하고 말려서 그 위에 유성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나이와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모두의 간절한 이야기를 마스크에 그려 촘촘히 엮어내 설치하는 '마스크작업'을 2020년 '미술과 상생전'에서 처음 선보이면서 2022년 첫 개인전 '소소한 생각' 이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에서 살던 시절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 5~6명을 모집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소중한 추억입니다. 보통은 1시간씩 수업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만나더라도 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했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수업했어ㅏ요. 같은 주제를 던져주고 몇 분 이내에 그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것을 그릴지 자신이 결정하게 하는 것, 생각을 그림에 담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 수업할 때는 수동적으로 "선생님, 오늘은 뭘 그려요?" 묻던 아이들이 다음부터는 "선생님, 저 오늘 뭐 그릴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아이들에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결과물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충분한 호흡으로 느리게 천천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되요.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곤 했죠.

최춘기 작가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춘기 작가가 외삼촌인데요. 소양에 있는 친정집을 오갈 때마다 사람과 벽을 쌓은 춘기삼촌이 마음이 쓰여 스케치북과 물감을 삼촌 방 앞에 두고 가곤 했어요. 몇 달 후 다시 만나면 그 스케치북이 그림으로 가득 찼어요. 그 뒤로 춘기 삼촌은 완주에서 소 키우며 소양의 산과 물이 있는 풍경,



매화를 그리는 작가가 되었어요. 삼촌을 통해 그림이 한 사람에게 치유가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작품활동이 궁금하고 작업실은 언제 마련하셨어요?

2010년부터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한 친구 고보연(설치미술가) 씨와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진주에서 군산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하면서도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죠. 알코올중독을 예방하는 단주모임 회원들, 노인들, 발달장애인들과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며 자신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전북대 미대 졸업생들의 단체전 '지속과 확산'을 준비하면서 사실 겁이 나더라고요. 10년 넘게 쉬다가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두렵고 조바심 났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비워야 길이 보이더라고요. 언제나처럼 느리게 천천히 가다 보면 누구보다 더 오래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업실은 2017년 소양의 친정부모님과 합가하면서 단정하고 소박한 집을 지었어요. 2층에 제가 꿈에도 그리던 작업실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두 면을 차지하는 큰 창밖으로 산과 들이 보여요.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딸 노릇을 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작업실 불을 밝히는 거죠. 밤과 새벽에도 언제든 불을 밝힐 수 있는 작업실이 있어서 앞으로도 오랜 동안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6

신선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감성을 선물하다

#시각예술#서예# #전국 #캘리그라피#나날글씨공작소

셋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자마자 우연과 필연의 사이에서 캘리그라피를 만났고, 이제는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신선하 작가. 처음 캘리그라피를 시작하던 때의 열정 그대로 공방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가르치고 동시에 대학원에서 서예를 전공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미술을 좋아했지만 소질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전공도 공학이다. 취미가 될 수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 세 자녀의 엄마가 되는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했다. 취미생활을 즐기는 또래 여성들을 볼 때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육아에서 해방되면 나도 반드시 취미생활을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어요. 셋째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화센터로 달려갔죠. 수채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집 마감된 거예요. 마감 안 된 게 뭐가 있나 살펴봤죠."

딱 한 자리 남아 있던 게 캘리그라피였다. 신선하 작가는 그렇게 우연과 필연의 사이에서 캘리그라피를 만났다.

"처음에는 선생님 글씨를 따라 쓰는데 소질이 별로 없더라고요. 재미를 못 느껴 몇 개월 배우다 말았어요. 남은 재료가 아깝더라고요. 다른 곳에 다시 등록했죠. 어르신이 많은 곳이었는데 젊은 사람이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즐거우니 온라인 등을 보면서 혼자서 막 써보고 그걸 어르신들에게 가져가면 또 칭찬받고 하는 동안 자신감이 올라갔다. 배우고 싶은 작가가 있으면 찾아서 수강했다. 그런 삶이 지속되던 어느날, 불현듯 정신을 차려보니 방금 애들을 재운 것 같은데 벌써 새벽이었고 자신은 그때까지 앉아서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때 '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두근두근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캘리그라피 작가가 되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꾸준히 전시도 하고 있고 요새는 글씨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대학원에서 서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캘리와 서예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서예가분이 방송에 나와'캘리그라피는 꽃이고 서예는 산이다. 그래서 꽃구경하러 왔다가 등산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꼭 제 얘기더라고요. 사전상 캘리그라피도 '서예'로 정의됩니다. 전통적인 서예가 문방사우라는 정해진 도구를 가지고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쓰는 정적인 예술이라면 캘리그라피는 다양한 도구,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동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 서예와 구분 지어 현대서예라고도 합니다. 간판, 로고, 드라마 타이틀, 각종 생활 소품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실용성, 대중성을 갖고 있죠. 또한 글이 주는 감동과 아름다운 문자가 주는 감동, 두 가지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예를 공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씨를 쓰다 보니 전통적으로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건지를 자꾸 파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또 붓과 먹, 화선지 같은 전통 재료가 주는 아름다움, 안전감 같은 걸 더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잘 알기 위해서 깊이 배워보자는 마음이었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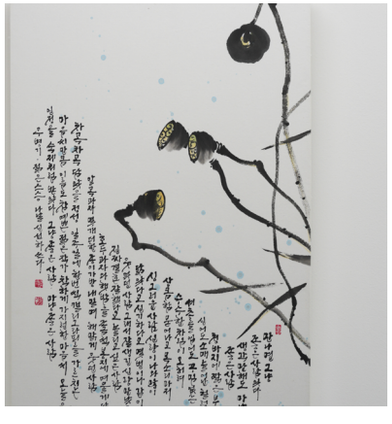
예술에 대한 감수성이요? 글쎄요. 그림을 좋아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하지는 못했어요. 미술 숙제를 못 해서 언니 오빠한테 도움받곤 했죠. 언니한테는 글 써달라 하고 오빠한테는 그림 그려달라 하고. 근데 저에게 어떤 예술적 감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고향 덕분일 거예요. 되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하루에 버스 한 3대 다니는 깡시골이요. 늘 하늘을 보면서 자랐고 자연 속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이 좀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도시에서 자랐던 선생님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제를 정한 다음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자료를 찾죠. 스케치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처음에 정한 주제가 잘 안될 때가 있어요. 머릿속의 생각을 손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비〉 전시를 진행했는데 처음 주제는 그게 아닌 '컬러풀'이었어요. 까맣게만 보이는 먹 안에 다양한 색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렸어요. 막막하고 힘들어할 때였는데 윤도현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그 가사에 꽂혔죠. 마치 캘리그라퍼로서의 제 삶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주제는 변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스케치하고 준비가 끝나면 본 작업을 합니다.

작품에 담고자 하는 것은?

일상의 소중함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들을 글씨와 함께 풀어내어 보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한때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었어요. 책을 읽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죠. 그래서인지 나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어요. 자신조차 격려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작품은 다른 이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감정이 오롯이 다른 이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굉장히 정제해서 담잖아요. 그렇기에 그 안에 표현된 글이나 그림들은 무척 아름답거든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영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진이나 음악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풍경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작품세계가 있다면

나만의 글씨, 나만의 느낌을 담고 싶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세 아이 엄마로서의 경험과 감정이 작품에 깊이 배어 있는 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강렬한 메시지보다 보는 이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주는 따뜻함을 글씨에 담고 싶어요.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통 서예의 기법과 깊이가 현대적 감각과 어우러져 전통적인 붓글씨의 안정감과 현대 캘리그라피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네요.

선생님의 작품을 잘 감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씨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리듬, 그리고 먹의 작은 번짐 속에도 의미를 담고자 했어요. 그런 의도들을 잘 파악해 보려면 천천히 오래, 지긋이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처럼 말이죠.

특별히 애착 가는 작품이 있다면?

〈나비〉 연작입니다. 제 속의 이야기를 윤도현 씨의 노랫말에 기대 표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이 있거든요. 추운 겨울을 이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잖아요. 저도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상처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을 담았기에 더 마음이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요?

나는 일상의 소중함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글씨로 풀어내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세 아이를 키우며 겪는 다양한 순간들을 통해, 나 자신을 격려하고,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통 서예의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글씨가 단순한 형식을 넘어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내 작품을 보는 동안만은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줄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글에서 한 번, 글씨에서 한 번, 그림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감동을 주는 시서화의 조화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소문내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캘리그라피 에세이집을 펴내는 일입니다. 직접 쓴 글과 글씨와 그림으로 된 저만의 책을 내는 소망이 있거든요. 앞서도 글과 글씨, 그림으로 세 번의 감동을 주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를 위해 간간이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캘리그라피 작가로 하나하나 펼쳐지는 세상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일은 또 나를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무척 기대되고요. 내가 무언가를 던지면 화답하듯 돌아오는 세상의 대답을 하나하나 엮으며 만들어 가는 지금의 이 삶이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나날입니다.

07

전설희

잘 사라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작품들

#시각예술#공예# #전국 #옹기작가#옹기밭#차곡차곡#품:다(茶)

옹기로 차 도구, 식기 등을 주로 만들고 있는 전설희 옹기작가. 옹기 하면 보통 장독 같은 항아리나 뚝배기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녀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그릇을 만든다. 옹기토와 약토, 나뭇재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지만 방식은 상감 같은 자기의 기법을 일부 응용하고 있다. 틈틈이 전시회와 아트페어 행사에 참여하면서 옹기를 알리는 데도 열심이다.



첫 전공이었던 금속공예는 그녀와 잘 맞지 않았다. 학교생활 적응도 쉽지 않았다. 잠깐의 휴식기이자 탐색기였던 20대 중반에 그녀는 제주에서 한동안 지냈다. 어느날 산책을 하는 데 아주 작은 공방이 있어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저 이거 배우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왜 옹기였나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그 가게가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지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주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거기에 도자 작업하는 작가님이 있었어요. 출근 도장 찍듯 매일 그 공방을 들락거리고 또 대학에 진학해 전공하고 어찌어찌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처음 도자기를 배울 때 책에서 옹기의 자연 환원성에 관한 글을 읽었어요. 옹기는 자기에 비해 온도가 낮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흙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학부시절 옹기수업을 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도 확신을 얻었어요. 재료에 대한 실험을 많이 시키셨는데 예를 들면 학교 뒷산에 있는 대나무를 태워서 그 재로 잿물을 만드는 실험을 한다든가 개펄이나 황토, 야산에 있는 흙을 캐와서 흙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실험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물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자기류는 유약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광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광물은 제가 직접 채취할 수가 없잖아요. 옹기는 제가 직접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으니 이 정도면 내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담백하고 명쾌한 것이 좋아요. 옹기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옹기가 저의 속도와 잘 맞는다는 것이에요.

환경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만들었던 것들도 흔적을 안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할 줄 아는 게 이거 밖에 없고 또 이걸 해야 제가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옹기가 저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옹기를 만들고 있으면 그냥 좋거든요.

도기와 자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한 말이에요. 옹기는 도기에 들어가요. 백자, 청자, 분청은 자기류에 속하는데 도기와 자기는 불 때는 온도도 다르고 작업 과정



도 달라요. 자기류는 초벌과 재벌 이렇게 두 번 불을 때는데 옹기는 거의 한 번 땝니다. 재벌이 없어요. 재료의 특성 때문이에요. 일단 자기류가 초벌하는 이유는 그냥 마른 흙에 유약을 입히면 흙이 주저앉아버려요. 그 형태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만든 형태가 유지될 수 있게 조금 낮은 온도에서 초벌로 단단히 만든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재벌 과정을 거쳐 완성합니다. 도기는 달라요. 그냥 흙 상태의 그릇에 잿물(유약)을 쳐서 구어요. 그래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재료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옹기 재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옹기의 재료는 단순합니다. 흙과 천연유약인 잿물이 다예요. 잿물은 약토와 나뭇재를 섞어 만들어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에요. 흙은 철분 함유량과 입자를 봅니다. 약토도 실험을 통해 원하는 흙을 찾아요. 옹기에 입히는 잿물은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상감용이 있고, 발색이 조금 다른 두 종류의 잿물을 사용하는데 그릇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그에 잘 맞는 색감을 사용하려고 해요. 약토는 김제에서 직접 퍼 오는데 수비를 해서 고운 입자의 흙을 골라내서 사용하고 나뭇재는 요즘 소나무 재를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소나무 재와 약토의 배합 비율에 따라 발색이 달라져요. 나뭇재가 꼭 소나무일 필요는 없어요. 콩대도 쓰고 참나무나 잡재도 괜찮아요. 작가마다 원하는 발색을 찾아 재료를 선택합니다.

요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옹기는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그릇에 미세한 기공이 많아요. 액체나 향이 강한 음식물을 담고 자주 씻어 재사용해야 하는 생활 식기로는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생활 식기는 자기를 추천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의뢰가 들어오면 자기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옹기만 만들어요. 흙도 다르고 제작 방식도 달라서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옹기인데 재료가 주는 느낌이 좋아서 자기가 아닌 도기를 택한 것 같아요. 저는 쓰임이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가끔은 무용한 것을 만들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쓰임이 있는 그릇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옹기의 보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차를 담는 합과 같은 무언가를 보관할 수 있는 단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옹기가 자기에 비해 시장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옹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가업으로 해오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옹기를 잘 안 해요. 요새 시장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거예요. 옹기라고 하면 대개 장항아리나 뚝배기를 떠올려요. 저는 사람들이 옹기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투박하고 무겁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걸 깨고 싶었어요. 옹기도 충분히 예쁘고 실생활에 잘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날카롭고 섬세한 옹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백자나 분청의 기법을 옹기에 적용하고 있어요. 현대적이고 세련된 옹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면을 깎아보고 상감기법을 활용해 그림도 그려보고 뚜껑과 몸통을 달리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스케치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이 더 좋아서 일단 손이 가는 대로 만들고 샘플링 한 것들을 토대로 크기나 형태를 조금씩 수정해서 만들어보며 디자인을 완성해요. 제 작업은 일단 상감을 한 그릇과 상감이 들어가지 않는 그릇으로 나뉘는데요, 두 작업 모두 전기물레 성형을 해요. 건조 후에 후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마르면 잿물을 입혀요. 이때 상감이 들어가는 작업은 잿물을 입힌 후에 조각을 하고 초벌–상감–재벌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상감이 들어가지 않는 그릇은 잿물을 입히고 완전 건조 후 바로 단벌로 번조를 해요.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예전에는 산책, 꿈, 박물관, 전시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은 그냥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에서 얻는 것 같아요. 풀꽃, 달, 비 같은 건데 결국 자연이네요. 그리고 가끔은 예전에 해뒀던 스케치나 작업을 보기도 해요. 좀 더 자유분방했던 초기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을 때도 있어요.

옹기 브랜드가 '옹기밭'인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업실이 옹기를 만드는 밭 같았어요. 저는 옹기를 키우는 농부. 당시 공방 겸 집이 논밭 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 성이 전씨잖아요. 밭전자. 이름이 한 부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동안 힘든 시기도 있으셨죠?

지난 몇 년간 출산과 육아를 하며 많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작업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실수도, 실패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딱히 만들고 싶은 게 없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만들고 싶은 게 없는 데도 작업에만 집중할 수가 없다는 현실이 무척 불안하고 늘 조바심이 났었어요. 그러던 중에 몇몇 친구들이 차 수업을 함께 듣자고 해서 들었는데 그게 지금 작업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차 도구 작업을 좋아했다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동안 차를 마시지도 않으면서 차 도구를 만들다 보니 점점 투박해지고 쓰임이 있는 도구임에도 그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어느 순간 차 도구 작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차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사용할 도구들을 한두 개 만들다 보니 점점 만들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통해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늘 지금을 살아내느라 목표나 계획을 세우진 않는데 그럼에도 굳이 이야기해보자면 호기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재료들을 실험해 보는 것이에요. 작업실 옆에 몇 년 동안 묵혀둔 개펄, 그리고 콩대 재를 활용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자꾸만 미뤄지네요. 느려도 조금씩 재료들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 목표 혹은 다짐입니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옹기를 처음 시작할 때라든지, 학교를 다시 다니면서 도자를 배울 때라든지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냥 저를 보면서 옹기를 하려는 미래의 작가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 제 작품을 보면서 옹기도 이렇게 무궁무진한 표현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항상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작품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당당하게 제 작업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08

여익수

나무의 본성을 찾아가는 목공예 작가

#시각예술#조소#공예 #전국 #도마작가#목공예#목수

"나무의 모양과 결을 봅니다. 나무의 테두리(엣지)를 살리며 유심히 바라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물 위를 뛰는 물고기가, 새가 곁눈질하는 모습이, 모자를 쓴 영국신사도."
나무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여익수 도마작가. 그는 목공예 작가이자 목수로 활동하면서 도마를 소재로 한 목공수업도 열고 있다.





"작가라 불리는 게 쑥스럽네요. 아직은 목수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여익수 씨는 목수이자 작가다. 목수는 생활을 위해 선택한 직업이다. 그는 조각을 전공했다. 그가 대학생이던 1990년대는 개념미술과 설치미술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그 또한 시각적인 미를 추구하는 전통미술보다 작품에 내재한 관념을 추구하는 개념미술에 끌렸다.
"그렇게 한동안 유행을 쫓았는데 어느 순간 식상해지더라고요. 그때가 한일월드컵이 지난 뒤였으니까 2004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전통 조각에 마음이 간 게."
생각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려는 순간 공방생활을 같이하며 믿고 의지하던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스승은 전통 조각을 고집했던 사람으로 그와 추구하는 바가 달랐지만 항상 예술적 본보기가 되어주고는 했다. "그분의 조각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분의 감각이나 기술, 자세, 철학까지도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상실감이 컸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는 목수가 된다.

왜 하필 목수였나요?

당시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작품 활동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결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겪어온 게 너무 적더라고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죠. 그나마 나무를 다루는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을 접은 건데 아쉽지 않았나요?

한동안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예쁜 가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당시 저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한데 그게 목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수와 작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시를 목적으로 작업하느냐 판매 목적으로 작업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미를 추구하느냐 실용성을 더 추구하느냐의 차이도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직 작가라는 말이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여전히 상품 제작에 많은 시



젊은 시절 여익수(왼쪽) 작가와 그의 스승



간을 할애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작품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인가요? 아내가 공모전이 있다면서 참여를 권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사람도 안 만나고 세상과의 교류도 없이 단절되어 혼자 일만 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불안해하고 걱정했겠죠. 외부 활동을 통해 활기를 찾기 바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룹전에 참여했습니다.

도마를 작품 소재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생업으로 야외테이블을 주로 만들어 팝니다. 근데 이게 겨울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공방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도마였어요. 이 도마도 처음에는 팔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걸 보고 전시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품 활동을 더 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작품을 통해 부대끼면 갇혀 있던 삶이 외부로 열리는 기분입니다. 제가 활기차니까 집에서도 좋아합니다. 전시회 이후 목공 수업도 나가고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나 주민들과 목공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즐겁네요.

도마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를 쓴다고 할까요? 원목을 보면 나무가 갖고 있는 결과 모양새가 있어요. 그 안에서 미를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원목을 가만히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어떤 형상이 찾아져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의 어떤 향수도 느껴지고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 즐겁더라고요.

추구하는 작품세계가 궁금합니다

도마라는 게 실생활에 쓰이는 생활도구잖아요. 이게 벽에 걸어두고 보는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긴 북유럽 사람들은 목공으로 소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들 가정에 장식되어 있는 도마들을 TV 같은 데서 종종 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목의 본성을 드러낸 도마가 누군가의 응접실에 장식되어 있는 장면을요.

어떤 나무를 주로 쓰세요?

나무마다 특색이 있어서 특정 나무만 고집하다 보면 작업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10여 가지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느티나무고 캄포나무나 호두나무, 제브라도 많이 씁니다. 저렴하면서 매력적인 너도밤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단한데 가공이 쉬워서 좋아요.

작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새와 물고기, 고래, 떠오르는 해 등을 형상화한 작품이 있습니다. 첫 작품은 〈결눈질〉인데 새가 곁눈질하는 형상이어서 붙인 제목입니다. 처음 원목을 만났을 때 부리와 머리, 날개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대개의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삶은 항상 실수의 연속이고 잘못의 반복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가질 수 없는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품은 것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저 자신도 좀 변해야 할 것 같아요.

09

최세영

지칠 줄 모르고 나아가는 길

#시각예술#디자인#만화 #전국 #디지털드로잉#캘리그라피 #캐리커쳐

디지털드로잉을 하고 있는 최세영 작가는 살아내는 동안 마음에 스민 경험과 감정, 세상에 건네고 싶은 말을 더는 가두지 않았다. 글이나 그림, 어떤 형식이든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라는 갈망이 계속 길을 만들어 낸다. 그가 만들어낸 길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 걸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표현을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최세영 작가는 분명 말 없는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다.



몇 년 전 동네 책방에서 작은 그림 전시가 열렸다. 반가운 마음에 그림 구경을 갔고 나무 액자에 담긴 그림들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키가 큰 나무숲, 유난히 높은 하늘, 풀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언덕, 그 풍경들 속에 언제나 혼자 앉아 있는 소녀에게 오래도록 눈이 갔다. 늘 혼자 있는 소녀가 외로워 보이다가도 나도 그 곁에 가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소리가 스치는 것 같고 작은 물웅덩이에 새들이 내려앉아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느 풍경에서나 혼자 있는 소녀가 순간들을 충만하게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목련꽃이 피기 시작한 3월 봄날이었다. 거짓말처럼 눈이 쏟아지는 오전, 최세영 작가의 봉동 작업실 '스튜디오 해봄'을 찾았다. 그이는 따뜻한 차를 내어줬다. 작업실에 놓인 그림들이 익숙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몇 년 전 동네 책방 전시회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우연이!

2021년 작가님 첫 전시회 제목은 '시골소녀의 사생활'이었죠. 저도 그 전시회에서 작가님의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만^^ 첫 전시를 통해 밖으로 나와 사람들과 만났던 그때 이야기가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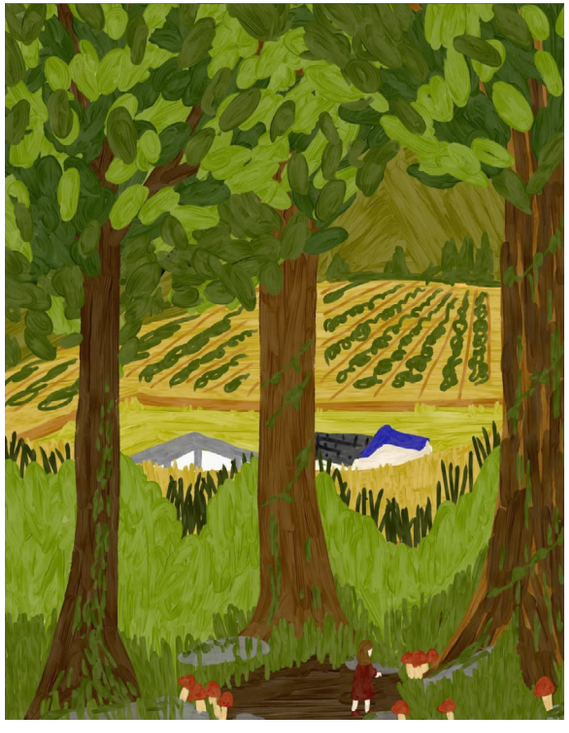
고산면의 독립서점 '베르'에서 처음 전시를 한 것이 큰 변곡점이었어요. 그동안은 저 혼자 취미로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곳이 없었죠. 인스타그램으로만 소통하다가 공간 전시를 통해서 관객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좋다'는 말을 직접 듣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어요. 그때 기분은 구름을 탄 거 같았어요. 지금 돌아봐도 그때 그림들이 마음에 들어요.

그림 속에 늘 혼자 있는 소녀가 등장해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 같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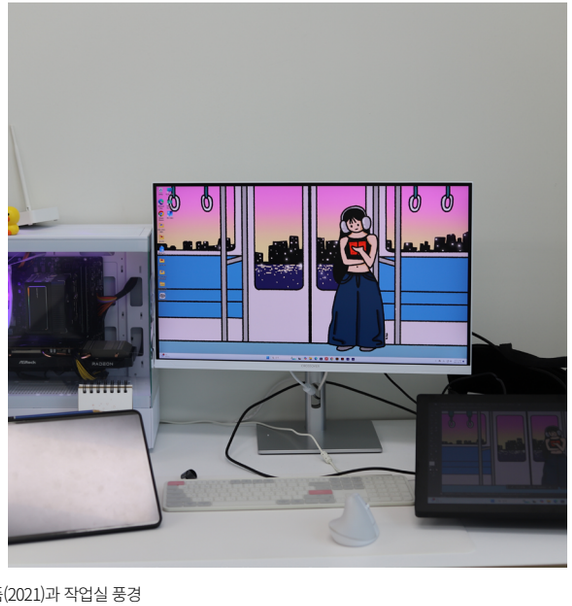
그림 속 풍경들은 제 어린 시절 마을 뒷산의 숲속 풍경들을 그린 거예요. 시골 동네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주로 혼자 몽상하는 아이였어요. 하나 있는 오빠랑 놀려고 쫓아다니면 느린 저를 놓고 늘 쌩하고 사라졌죠. 그래서 혼자 쓸쓸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뒷산에 혼자 올라가서 앉아 있곤 했는데 그때 풍경을 그림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무언가 표현하고 싶었던 갈망의 시작은 그 숲 속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하루하루를 정말 충만하게 살았던 거 같아요. 그 숲 속 아지트에 앉아 구름, 시









첫 전시 '시골소녀의 사생활' 작품(2021)과 작업실 풍경



냇물, 나뭇잎을 몇 시간씩 보기도 했죠. 혼자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자연소재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늘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싶었어요.

표현하고 싶은 갈망을 꽤 오랜 시간 품었다가 드디어 발현하게 되었네요.

맞아요. 제 나이 마흔 살이 돼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오랜 시간 홀로 작업한 뒤에 전시를 시작하는데 저는 좋은 기회로 전시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일단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선보이고 난 후에는 저 스스로 계속 길을 찾아야 했어요. 미술 전공자에 대한 부러움,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럴 시간에 뭐라도 더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회사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집에서 계속 혼자 그림만 그리면 그걸로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봉동에 작업실을 얻게 되었어요. 내 공간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더라고요. 작업실이 생기면서 '엄마', '주부'라는 역할을 넘어 작가로서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를 기점으로 온 세상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문창과에 가서 글을 계속 써보라'는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브런치스토리에 '평범하지만 평균은 아닙니다'라는 글도 연재하게 되었죠.

저는 저에게 응원해주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만나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응원하고 환호해주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림이나 글들이 솔직해서 참 좋아요. 자신의 한계, 의기소침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 같아요. 어느 날은 잔뜩 구겨진 종이가 되었다가도 다음 날 햇빛에 보송하게 마른 하얀 이불 같기도 하고요.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그림으로 돈 버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작업실을 얻기 위해 열심히 출강도 다니고 일러스트외주작업도 하죠. 남편 도움 없이 내가 돈 벌어서 스스로 내 길을 찾고 싶어요.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분명 후회할 거 같더라고요.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더 어렵잖아요. 저는 지금 찾은 이 디지털드로잉을 취미로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림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캘리그래피, 사진, 뜨개질 등 취미생활로 끝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를 '시즌제'라고 놀려요. 길어야 3개월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저를 곁에서 봤을 때 제가 가장 오래 열심히, 즐겁게 집중하는게 그림이더래요. 그림 그릴 때 제일 좋아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림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되기도 했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아이패드는 남편이 저에게 선물해준 거여서 특별해요. 더욱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0

백남경

생활에서 직조한 쓰임의 예술

#다원 및 기타#섬유예술 #전국 #섬유예술가#쓰임

어린 시절부터 바느질이 좋았던 아이는 학창 시절엔 100원씩 받고 친구들의 가사 과제물을 대신 만들어 주곤 했다. 앙고라 털실로 겨울옷을 만들고 코바늘로 시원한 여름옷을 떠 입혔던 모친을 닮은 것일 수도 있다. 그녀가 기억하는 모친의 바느질 솜씨는 최고였으니. 그러다 첫 아이의 태교를 하면서 바늘을 다시 손에 쥐었고, 뒤늦게 대학을 다시 갈 정도로 열정을 쏟으며 섬유예술가가 되었다.



"의상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과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녀가 다시 바늘을 손에 잡은 건 첫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였는데 손 소근육을 많이 쓰면 아이 뇌가 발달한다는 글을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녀에게는 모친이 혼수로 장만해 준 부라더미싱이 있었다. 문화센터와 퀼트 샵 등의 강좌를 수강하며 태어날 아기를 위해 식탁보며 배냇저고리, 이불 등을 만들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바느질은 20여 년에 걸쳐 퀼트, 자수, 손뜨개, 패브릭 업사이클링, 천연염색, 장신구 공예, 패션디자인까지 섬유예술 전반으로 확장했다. 섬유예술가, 문화예술 교육자, 업사이클링 활동가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그녀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원래 완주사람인가요?

고향은 통영이에요. 남편 고향이 완주죠. 경기도 살다가 2007년에 여기로 왔어요. 집은 삼례에 있고 봉동에 작은 주택을 얻어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직업인과 예술가 사이

생활소품은 예술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직업이라고요. 저는 모든 창작활동은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의 범주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위해 공부할 때 교수 한 분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예술이다. 밥 먹는 것도 예술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저는 제 활동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 한 가닥으로 창조할 수 있는 세계가 많아요.

바느질과 뜨개질의 매력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면서도 무척 실용적이죠. 또 집중하다 보면 헛헛한 마음, 우울한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아요. 성취감도 크고요. 손 소근육을 쓰니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마음 맞는 이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면 더 즐거워 단절된 이웃 문화를 복원하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각자 휴대전화만 보고 있잖아요.

대학을 다시 가셨는데요

네. 젊은 시절엔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의상학과 대신 선택한 진로였죠. 그런데 내내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패션 산업학과에 들어가서 얼마 전 졸업했습니다. 하는 일에 전문성을 더하는 일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 꿈을 이루는 일이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죠. 배운 게 많은 데 무엇보다 천과 바늘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진 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전시회 내용이 궁금합니다

두 번의 전시회를 열었어요. 첫 번째는 2022년에 연업사이클링 작품 전시였어요. 쓰임이 다한 옷을 재활용한 작품들이었죠. 두 번째는 그 이듬해였는데 직접 천연 염색한 한지 섬유로 만든 의상 및 소품 전시였습니다.

요즘 주로 하는 작업은?

퀼트, 자수, 뜨개질 등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골고루 다하지만 아무래도 옷을 만드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염색하고 가공하는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의상 작업할 때 천 소재는 린넨을 주로 써요. 착용감과 형태, 통기성이 좋거든요. 구김도 덜하고요. 천연 소재다 보니 혼합 소재보다는 몸에 해도 적어요. 색상은 톤 다운한 그린 계열을 선호합니다. 자수로 보면 화려한 입체 자수보다는 평면 작업에 마음이 더 가는 편입니다.

작품 철학이 궁금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쓰임을 많이 생각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입기 좋은 옷이 보기도 좋다는 주의랄까. 의도한 대로 모양이 나올까보다는 세탁하고 햇볕에 말렸을 때 어떻게 될지, 다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삶에 기댄 예술, 생활 속 예술을 지향합니다.

시련의 시기도 있었다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작업이라는 게 취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가 뭘 안다고 학교 가서 사람들 가르치고 작업한다고 난리냐'는 뒷얘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런 게 싫어서 악착같이 전문자격증을 따고 더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진학해 관련 과를 정식으로 전공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결국은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제 작품의 질을 높이는 길이도 한 셈이에요.

어떤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저만이 갖고 있는 저의 색깔을 찾고 싶어요. 백남경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하면 사람들이 막 보러오고 싶어 하는 그런 저만의 어떤 것. 지금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프랑스 자수, 패브릭, 손뜨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대형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어보려고요. 올해부터 천천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11 하태훈
실험하고 도전하는 상상력

#시각예술#회화 #전국 #유화#자화상

하태훈 작가가 본격적으로 유화로 회화 작업에 몰입한 건 대략 4년 전. 지극히 내성적이었던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는데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미대 진학을 준비하던 누나의 교재가 그의 장난감이었다. 흘러가듯 예고와 미대에 진학해 회화를 전공했다. 하지만 영화를 좋아했고 호기심도 왕성한 그는 졸업 후 영화 속 특수효과(FX)를 만드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뛰어들었다.



"불 나오고 물 뿌리고 영화 안에서 '연기 좀 추가 해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고됐지만 일 자체는 무척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의뢰받은 일이지 제 창작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3D 프린팅을 활용한 슬립 캐스팅 도자기가 마음에 꽂혔다. 슬립 캐스팅은 물레나 핸드빌딩이 아닌 석고틀(몰드)에 액체 점토(슬립)를 부어 기물을 만드는 기법이다. 3D 프린팅 도자기 이후로도 전시시설 운영 관리, 문화 기획 등 그의 탐색과 도전은 계속됐다. 하지만 늘 허기가 뒤따랐다.
"새로운 일이 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계를 느꼈어요. 더 집중하고 노력하면 분명 그 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거기에 갇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장성의 한계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순수 회화는 그 어떤 미술 장르보다 표현의 범위가 넓고 확장성이 컸다. 결국 회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유화를 작업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발색이 뛰어나고 원하는 표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재료가 유화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그래픽이나 3D 프린팅 같은 작업은 우연적 효과가 거의 없어요. 계획한 대로 나오죠. 유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은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경험한 일들이 창작에 도움이 되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3D 프린팅은 입체 작업이잖아요. 공간과 조형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모두 회화 작업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표현능력 도구를 몇 개 더 가지게 된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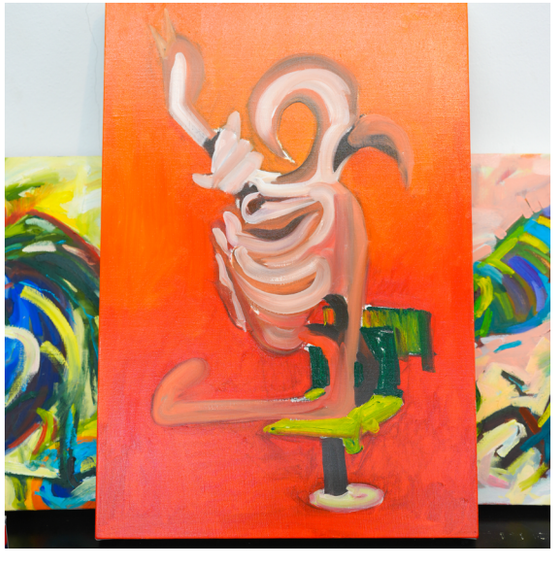
어떻게 작업하나?

1년 단위로 도전 주제를 정해 작업하고 있어요. 1년 차 주제는'나는 어떤 사람인가'였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었죠. 자화상도 있고 가족에 관한 것도 있어요. 당시 치아 교정을 하고 있을 때여서 교정기 그림이 많아요. 2년 차에는 제 주변의 환경이나 요소를 깊이 바라보고 싶었는데 아이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겨우 찾아낸 게 옛날 영화였습니다. 스쳐 가는 영화 속 장면을 포착해 아이디어를 얻곤 했어요. 지금은 3년 차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람들이 왜 무속신앙에 빠져드는지 궁금했어요. 삼두매라고 머리 셋에 다리 하나 달린 상상의 동물을 소재로 풀어가고 있는데 아직 작업이 많지 않아요.

주제에 따라 스타일도 영향을 받나요?

그럼요. 첫 번째 주제를 작업할 때는 캔버스 천에 그







림을 그린 다음 꾸기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연히 찍히는 효과들이 나와요. 물감이 엉키면서 데칼코마니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연스럽진 않아요. 이 우연한 효과를 통해 작업을 전개해 나갔죠.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더 클래식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내 회화 본연의 방식으로 그렸어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 연구 중입니다. 공간을 크게 바라봤다가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그 공간만을 다시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면서 공간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작업할 때는 관람객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람객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거나 이런 의미로 내 작품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 제 작품은 의도를 벗어나는 일이 빈번할뿐더러 되레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의 작업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거든요.

작품을 잘 감상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먼저 그냥 보는 거예요. 와서 그냥 한 번 쭉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팸플릿을 보거나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처음 그냥 보고 느낀 생각이랑 두 번째는 분명 다르겠죠. 그래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관람객의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작품 중 하나를 고른다면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 작품은 대개 캔버스 틀을 해체해 천 상태로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캔버스 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열 개를 그리면 그중 하나 마음에 들기 어려운 데 이 작품은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솔직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틀어진 손가락으로 소주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술이 꺾이면서 그걸 먹지 못하고 있어요. 피부질환이 있어 긁은 자국도 보이고 치아 교정기를 하고 있어 답답한데 옆에는 키우는 고양이가 붙어서 계속 야옹야옹하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의 그림입니다. 오래 걸린 작업도 아닌데 보고 있으면 좋아요.

전시회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개인전을 두 번 열었어요. 첫 전시가 '기준점'입니다. 저의 첫해 도전 주제가 저에 대한 탐구였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나와 세상이니 내가 기준점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전시 제목으로 삼은 거죠. 두 번째 전시 제목은 '기필코, 거대한 고유'인데 이건 동료이기도 한 아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요소를 테마로 했던 두 번째 과제의 작품 전시였는데 아내가 이 제목을 제안하더라고요. 고유라는 단어가 그 사물에만 특별히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아내가 제 작품에서 그와 같은 걸 봤다면 기분 좋은 일이죠.

예술가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면?

예술가에게 자기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강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작업을 오래하다 보면 관성화돼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좋을수록 다른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크니까요. 저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덕목 중 하나는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렸을 때 물어봤다면 성공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는 거였겠죠. 지금은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리며 사는 게 목표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12

김채리

마음의 결을 닮은 글씨를 찾아서

#시각예술#서예 #봉동#삼례 #서예가#캘리그라피작가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삶을 기록하는 수단이자, 조형예술로 발전한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서예가 김채리씨는 더욱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붓과 먹, 화선지라는 전통의 도구를 통해 오늘의 감정과 사유를 기록하는 서예가, 김채리 작가. 그가 말하는'글씨를 쓴다는 것', 그리고 젊은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기쁨, 치열한 하루에 대해 들어보았다.



변치 않는 마음

예술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소소한 경험, 기억의 조각들이 연결되어 언젠가는 꼭 발현되더라고요. 작가님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 반 친구들이 자기 노트를 가져와서 'ㄱ, ㄴ, ㄷ, ㄹ' 한글 자음을 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제 글씨가 예뻐서 따라서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새학기가 되면 새로 나온 교과서를 저에게 들고 와서 이름 써 달라는 친구도 많았죠. 저는 늘 네임펜으로 친구들 이름 써주는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맨날 서기였어요. 회의록 작성하는 서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꿈을 물어보면 늘 '미술 선생님'이였거든요. 대학 졸업 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취미로 서실을 다니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제일 먼저 알아본 거 같아요. 예전부터 그림, 글씨 쓰는 걸 좋아하니까 서실을 다녀보자고 이끈 거죠. 그때 나이가 25살 무렵이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냐면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저녁마다 붓글씨를 쓰는 거죠. 일하느라 힘든 시기에도 좋은 글귀를 집중해서 쓰면 고요해지고 위로가 돼요. 새벽까지 매일 썼어요.

서예가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서예는 점과 획으로 구성된 문자의 형태와 그 의미를 붓과 먹으로써 전하는 예술입니다.

어느 날은 글씨만 평생 쓰고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취미로만 글씨를 쓰다가 공모전에도 내고 상을 타던 시기였어요. 2018년 무렵 전주문화재단에서 신진 청년작가 공모전을 보고 호기심에 신청을 했는데 덜컥 제가 뽑힌 거예요. 그룹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전이었어요. 20점가량의 작품을 혼자 전시해야 하는 넓은 규모의 전시장이었어요. 아직 개인전 할 정도는 아닌데 스스로 고민이 많았죠. 매일 매일 글씨를 쓰던 그 꾸준함으로 작업을 했죠. 전시할 때 호(號)가 있어야 해서 아빠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은혜를 더한다는 뜻의 '가은加恩'이라는 호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성경 말씀 전시를 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가셨죠. '작품을 보면서 위로가 되네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죠. 내 방에 앉아 새벽까지 쓰던 글씨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이건 너무 좋은 영향력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업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연





해바라기



글귀를 정하고 구도를 잡아 쓰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려요. 오랜 시간을 쌓아야 해요.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글씨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글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난 마음으로는 글씨를 쓸 수 없어요. 글씨는 정직해요.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작품이 안 돼요. 그래서 먹을 가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오랫동안 벼루에 먹을 갈면서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붓을 들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화장실도 참아야 해요. 두세 시간은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써내려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서예는 원필이에요. 팔과 손의 힘으로 조절해서 한 번의 붓놀림으로 농담(색의 옅고 진하기)을 표현하는 거죠. 붓놀림은 계속 연습하면서 몸으로 습득하는 수 밖에 없어요.

저는 묵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붓을 코끝에 대고 한참 동안 묵향을 맡다가 연습을 시작하죠. 온종일 묵향을 맡고 있을 때 내가 뼛속까지 서예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웃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찾아가는 한글서예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서예강사로 활동 중인데 서예 입문자들에 어떤 수업을 하나요?

예전에는 서예를 지루하게 느끼곤 했죠. 최대한 친근하게 접근하려고 해요. 먹을 가는 것도 놀이처럼 탐색해보기도 하고, 노래 가사나 친구 이름, 자신의 이름처럼 친근한 문장부터 써보는 연습하는 거죠.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름 쓰는 걸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평생 살면서 내 이름 많이 쓰잖아요. 어딘 가에 서명할 때도 쓰고.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내 이름 하나는 잊지 않고 또박또박 정말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 이름만이라도 예쁘게 쓸 줄 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니까 손근육 자체가 발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서예수업 요청이 많이 들어 오는 추세에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서예는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글과 함께 사유하며 글씨에 마음을 담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작가로서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어요. 김채리스럽다는 글씨체를 찾아가야죠. 저는 밝고 따뜻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문인화를 그릴 때도 좀 더 따뜻한 색감을 찾게 되고 날카로운 선 보다는 둥글둥글한 스타일의 글씨를 쓰게 돼요.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힘들 때 좋은 문장을 써내려 가며 받은 위로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말에 개인전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 재워놓고 매일 새벽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12월 13일~18일까지 '결'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엽니다. 제 마음의 결과 같은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고요, 사람들에게도 그 결이 느껴져서 위로와 치유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완주예술발굴기록화'는 지역에서 창작하며 살아가는 예술인의 삶과 작업을 다각도로 기록하고, 그 축적을 통해 완주의 예술사를 단정히 세우는 공공 아카아브입니다. 글 · 사진 · 영상 등 여러 매체를 표준화된 절차로 수집 · 편집 · 보존하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DB)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록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입니다. 축적된 기록은 한해의 활동을 넘어 다음 작업과 연구, 전시, 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영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됩니다.

2019년 시작 이후, 꾸준히 현장의 예술인을 기록해왔습니다. 사진과 글 중심의 기록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인터뷰 영상 기록으로의 전환(2020), 지원사업 참여예술인들과 동행(2021),추천이 다음 기록으로 이어지는 릴레이인터뷰(2022), 전문 에디터 참여를 통한 서사 정돈(2023), 지역 미디어협동조합과 연재 협업(2024)까지 매해의 시도는 기록의 품질과 접근성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DB, 지역 매거진, 모바일소식지, 유튜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독자와 만나는 경로를 넓혔습니다.

2025년,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축적된 예술인 아카이브의 성과를 한 권의 기록집으로 모아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완주예술발굴기록화'는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사진 · 영상 등 참고 자료를 보강해 공공 기록으로서의 활용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완주예술발굴기록화는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예술공동체의 장(場)으로서, 완주의 예술사가 오늘의 현장 위에서 계속 쓰여 갈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2019년

예술인 강남진, 김광식, 김광열, 김민선, 김병수, 김성욱, 박정순, 백종희, 소덕임, 소병진, 송지호, 오정균, 유휴열, 윤대라, 윤이현, 윤지은, 이우엽, 이정지, 이철량, 정상식, 정상현, 조윤수, 지우빈, 최민주

기록 김진아, 정량미, 김경화, 박은주

2020년

예술인 김성석, 김영봉, 김은수, 김홍란, 노정희, 류재현, 신재승, 유순애, 윤명호, 윤혜진, 이용규, 이종화, 임혜민, 정은지, 정철휘, 최용선, 최현, 한봉림, 한송지, 황은아

기록 김병수, 이정신 / 전별, 곽효민

2021년

예술인 강유진, 김소라, 김헌수, 박심준, 박창은, 서수인, 진정욱, 최재선

기록 이보현, 전별 / 김자연, 삼동 이엔지

2022년

예술인·기록 강지수, 경보비, 권성수, 김귀복, 김나연, 김덕주, 김동헌, 김민경, 박지은, 송민경, 송은숙, 여은희, 은호등, 이영화, 임유진, 장해숙, 정혜영, 정혜인, 한아름, 황세화, 김나연, 김헌수, 정철휘

2023년

예술인 강소연, 권원덕, 김예진, 박인현, 박종갑, 윤미순, 이은경, 이호연, 전병한, 정승준, 조누리, 최무용, 하구은, 허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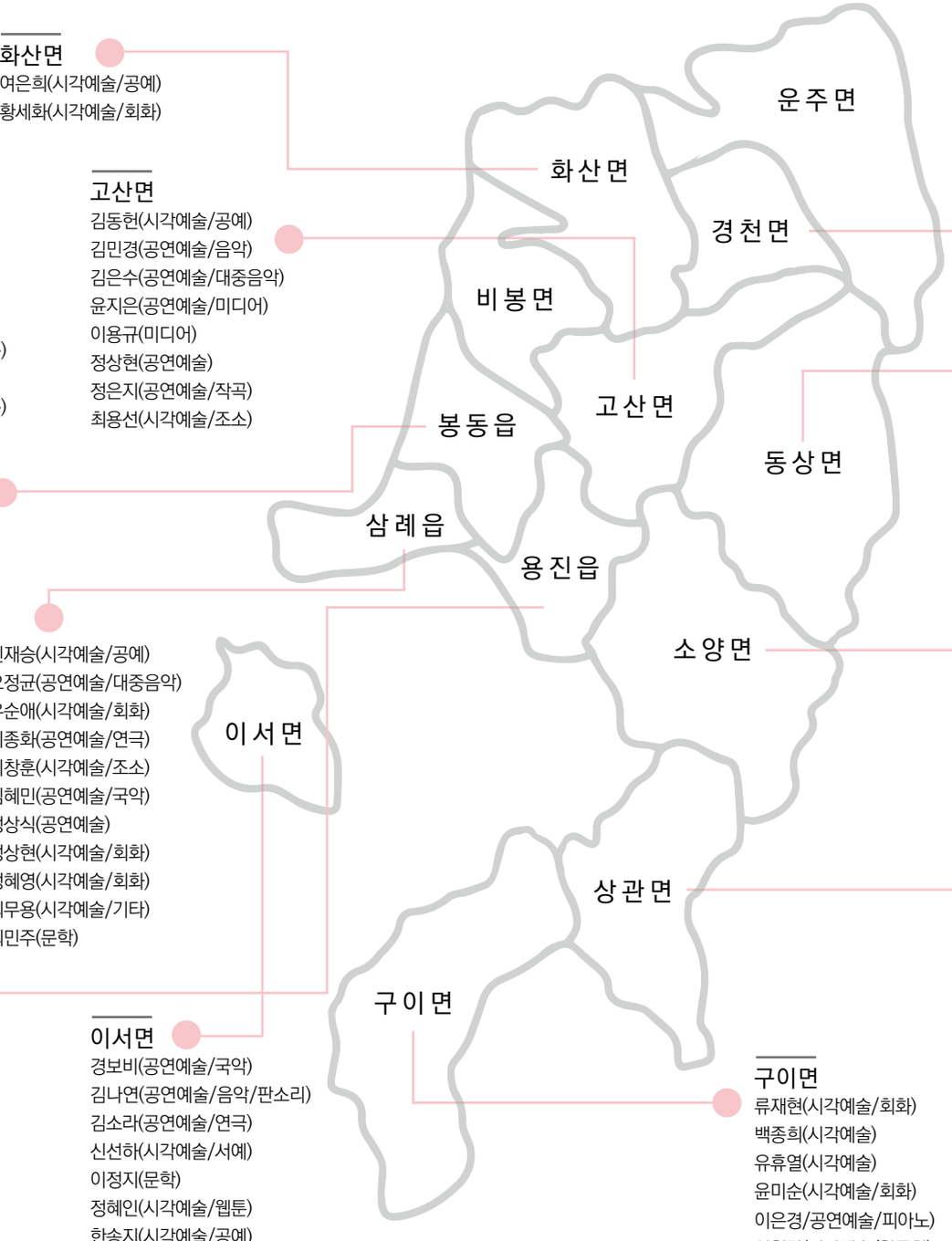
기록 김유진, 최민주

2024년

예술인 김맹호, 김채리, 백남경, 신선하, 여익수, 윤수연, 이창훈, 전설희, 정상현, 최세영, 하태훈, 홍성미

기록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완주예술인



화산면
여은희(시각예술/공예)
황세화(시각예술/회화)

고산면
김동헌(시각예술/공예)
김민경(공연예술/음악)
김은수(공연예술/대중음악)
윤지은(공연예술/미디어)
이용규(미디어)
정상현(공연예술)
정은지(공연예술/작곡)
최용선(시각예술/조소)

경천면
김영봉(시각예술/설치)
송은숙(미디어)

봉동읍
강남진(공연예술)
김광열(시각예술/설치)
김성욱(회화)
김홍란(공연예술/북한음악)
설레 강소연(시각예술/기타)
백남경(다원및기타/섬유예술)
소덕임(공연예술/국악)
송민경(시각예술/공예/도자기)
송지호(시각예술)
여익수(시각예술/공예)
윤혜진(공연예술)
은호등(시각예술/한국화)
임유진(공연예술/한국무용)
장해숙(시각예술/한국화)
정승준(공연예술/현대무용)
조누리(시각예술/회화)
지우빈(시각예술)
최세영(시각예술/기타)
하태훈(시각예술/회화)

동상면
박인현(시각예술/동양화)

소양면
권원덕(시각예술/기타/소목장)
김광식(시각예술/사진)
김맹호(시각예술/회화)
김성석(시각예술/조소)
박정순(공연예술/국악)
박지은(시각예술/회화)
이우엽(시각예술/공예)
진정욱(시각예술/공예/도자기)
하구은(공연예술/피아노)
한봉림(시각예술/공예/도자기)
홍성미(시각예술/회화)

삼례읍
강유진(시각예술/회화)
강지수(공연예술/음악)
김덕주(공연예술/연극)
김병수(공연예술)
김예진(공연예술/음악)
김채리(시각예술/서예)
김헌수(문학)
박심준(공연예술/국악)
박창은(시각예술/조소)
신재승(시각예술/공예)
오정균(공연예술/대중음악)
유순애(시각예술/회화)
이종화(공연예술/연극)
이창훈(시각예술/조소)
임혜민(공연예술/국악)
정상식(공연예술)
정상현(시각예술/회화)
정혜영(시각예술/회화)
최무용(시각예술/기타)
최민주(문학)

상관면
권성수(시각예술/조소)
김귀복(시각예술/조소)
김민선(공연예술)
노정희(시각예술/회화)
윤명호(시각예술/회화)
윤수연(공연예술/양악)
윤이현(문학)
조윤수(문학)
최재선(문학)
최현(시각예술/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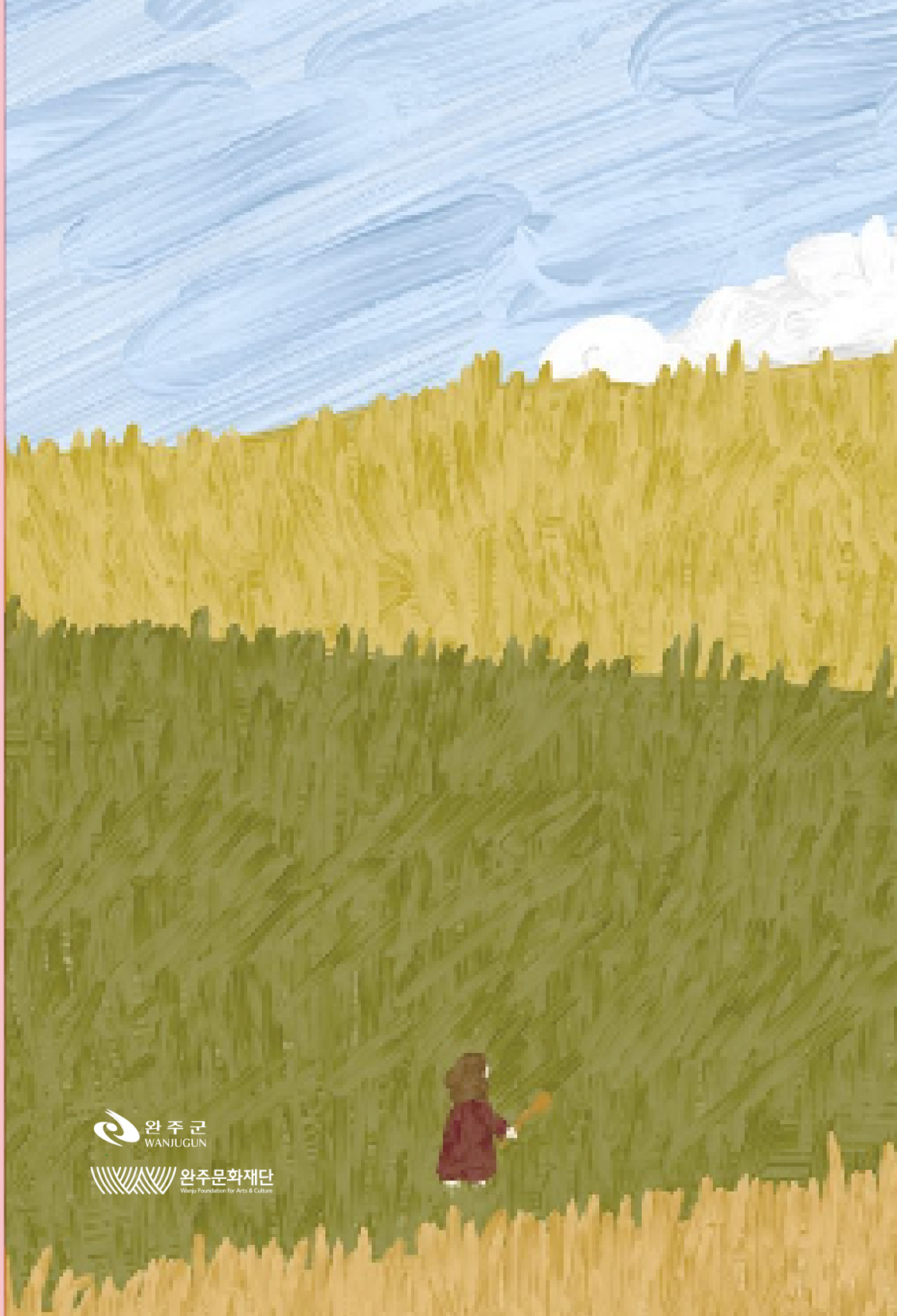
용진읍
윤대라(시각예술)
소병진(시각예술/공예)
정철휘(시각예술/회화)
서수인(시각예술/회화)
이영화(문학/시)
박종갑(시각예술/회화)
이호연(시각예술/사진)
전설희(시각예술/공예/도자기)
허은서(시각예술/기타)

이서면
경보비(공연예술/국악)
김나연(공연예술/음악/판소리)
김소라(공연예술/연극)
신선하(시각예술/서예)
이정지(문학)
정혜인(시각예술/웹툰)
한송지(시각예술/공예)
한아름(공연예술/연극)
황은아(공연예술)

구이면
류재현(시각예술/회화)
백종희(시각예술)
유휴열(시각예술)
윤미순(시각예술/회화)
이은경/공연예술/피아노)
이철량(시각예술/한국화)
전병한(시각예술/회화)

발 행 처 완주문화재단
발 행 인 이사장 유희태
총 괄 상임이사 정철우
발 행 일 2025년 11월
기 획 문화예술진흥팀장 장시형
진 행 문화예술진흥팀 김희윤
표지작품 최세영
제 작 겨리

완주문화재단
주 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홈페이지 www.wfac.or.kr
인스타그램 @wfac3955
이 메 일 mail@wfac.or.kr
문 의 063. 262. 3955


완 주 군
WANJUGUN
완주문화재단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